

李 炫 熙 教授指導
博士學位 請求論文

하와이 韓人社會의 形成과 愛國意識 研究
-日帝強占期를 中心으로-

2005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洪 允 靜

하와이 韓人社會의 形成과 愛國意識 研究

-日帝强占期를 中心으로-

李炫熙 教授指導

이 論文을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4년 11월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洪 允 靜

認 准 書

洪允靜의 博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인

審査委員 _____ 인

審査委員 _____ 인

審査委員 _____ 인

審査委員 _____ 인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論 文 概 要

본 논문은 大韓帝國의 첫 公式移民으로 형성되었던 하와이 韓人社會의 形成과 日帝強占期 그곳 韓人들의 愛國意識과 獨立運動에 관한 研究이다. 하와이 韓人社會는 1903년부터 1905년까지 7,400여명의 韓人들의 移住로 形成된 社會였으며, 日本帝國主義의 韓半島 植民地化로 國內에서와 마찬가지로 抗日愛國意識이 高조되었다. 하와이 韓人들의 愛國意識은 이민초기부터 愛國團體의 결성으로 나타났고, 하와이는 1910년 國權被奪을 계기로 중요한 獨立運動地로 변모되었다. 이러한 하와이의 獨立運動 基地化는 하와이 韓人社會의 풍부한 人的 物的 자원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와이 韓人社會의 愛國意識은 大韓人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 同志會, 大朝鮮國民軍團, 大朝鮮獨立團, 中韓民衆同盟團, 聯合 韓人委員會, 在美韓族聯合委員會 등의 단체와 朴容萬, 李承晚, 盧伯麟, 韓吉洙 등의 獨立運動家를 통하여 獨立運動으로 승화되었다. 하와이 韓人들은 1919년 수립된 大韓民國 臨時政府에도 1945년 光復이 되기까지 人的 物的 방법으로 적극 支援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하와이 韓人社會의 형성과정과 愛國意識이 발현되어 獨立運動으로 승화되는 과정을 6장에 걸쳐 서술하였다. 각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취지, 목적, 범위와 연구의 강조점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2장은 하와이 韓人社會가 형성될 수 있었던 1903년에서 1905년 사

이의 移民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민의 背景과 移民過程을 서술하고, 하와이 移民局의 선편 입국자 명단을 통해 확보한 韓人移民團 명단을 분석하여 하와이 韓人移民團의 人的構成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하와이 韓人社會의 기본이 되는 이민자들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으로서 하와이 韓人社會를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고 하겠다.

제3장은 이민으로 형성된 韓人社會의 定着過程에 대해 서술하였다. 韓人社會의 정착과정을 처음 도착한 이민자들이 결성한 親睦會의 성격의 洞會와 自助會, 한인 이민자들의 개인적 가정적 안정을 위한 結婚, 국내 상황 인식의 결과 조직된 獨立運動團體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이로써 하와이 韓人社會는 社會的 經濟的 안정을 이루어 獨立運動의 社會的 經濟的 기반을 확립하였다.

제4장은 1910년 국권이 피탈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하와이 韓人들의 愛國意識과 獨立運動에 대해 서술하였다. 하와이 한인들의 愛國意識과 獨立運動을 大韓人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 同志會, 大朝鮮國民軍團, 大朝鮮獨立團, 中韓民衆同盟團, 在美韓族聯合委員會 議事部 등의 團體와 朴容萬, 李承晚, 盧伯麟, 韓吉洙 등 獨立運動家를 통하여 서술하였으며, 海外韓族大會 개최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제5장에서는 獨立運動의 구심체로서 1919년 상해에 설립된 大韓民國 臨時政府와 하와이 韓人의 支援 특히 軍資金 支援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는 하와이의 韓人과 韓人社會가 獨立運動을 전개함에 있어서 전체 獨立運動의 맥락 속에서 有機的으로 연계되어 獨立運動을 전개하였음을 서술하고자 한 것이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結論을 대신하였다.

目 次

論文概要

I. 序論	1
II. 하와이 韓人移民과 人的構成(1903-1905)	10
1. 移民의 背景	10
(1) 政治的 背景	10
(2) 經濟的 背景	25
(3) 하와이 現地狀況	33
2. 移民過程	37
3. 移民團의 人的構成	46
III. 韓人社會의 定着	60
1. 農莊雇傭과 奴隸勞動	60
2. 寫眞婚姻과 韓人社會의 安定	66
3. 韓人團體의 組織과 活動	70
(1) 洞會와 自助會	71
(2) 新民會	74
(3) 獨立運動 團體	80
(4) 合成協會	93
IV. 韓人의 愛國意識과 獨立運動	104
1. 大韓人國民會와 朴容萬	104
(1) 大韓人國民會의 創立과 하와이 地方總會	105
(2) 韓人의 하와이 移住 推進	111
(3) 大朝鮮國民軍團	116

(4) 大韓人 하와이 僑民團과 國民會 復設-----	131
2. 大朝鮮獨立團과 盧伯麟-----	140
3. 同志會와 李承晩-----	147
(1) 李承晩의 大韓人國民會 掌握-----	147
(2) 李承晩의 同志會 結成-----	153
4. 中韓民衆同盟團과 韓吉洙의 業績-----	160
(1) 韓吉洙의 出生과 하와이 移民 -----	160
(2) 韓吉洙의 獨立運動-----	162
5. 海外韓族大會와 在美韓族聯合委員會 議事部-----	177
(1) 海外韓族大會 開催-----	178
(2) 在美韓族聯合委員會 議事部-----	199
V. 하와이 韓人의 大韓民國臨時政府 支援-----	206
1. 國民會의 血誠金 收捧과 軍事委員會 支援-----	206
2. 聯合韓人委員會의 光復軍 支援-----	224
3. 在美韓族聯合委員會 議事部の 獨立金 支援-----	231
IV. 結論-----	235

<附錄> 하와이 섬의 농장 위치(1915년)

參考文獻

ABSTRACT

<표 차례>

표 1 . 선편별 이민-----	50
표 2 . 이민유형(단위 : 명, %)-	52
표 3 . 韓人移民團 남녀분류-----	53
표 4 . 연령별 성별 인원과 백분율(단위 : 명,%)-----	54
표 5 . 연도별 연령별 성별 분류(단위 : 명)-	55
표 6 . 결혼여부(단위 : 명)-	55
표 7 . 연도별 결혼여부(남)-	56
표 8 . 연도별 결혼여부(여)-	57
표 9 . 지역별 이민자 수-----	58
표 10 . 도별 여권 발부 수(1910-1924)-	59
표 11 . 1905년 초 한인 농장노동자-----	62
표 12 . 도별 여권 발부 수(1910-1924)-	68
표 13 . 연도별 여권 발부 수(1910-1924)-	68
표 14 . 초기 한인단체-----	72
표 15 . 합동발기대회 참가단체와 대표-----	95
표 16. 大朝鮮國民軍團 조직-----	122
표 17 .하와이 대조선 국민군단 임원 인적사항-----	125

I. 序論

移民이라는 것은 개인의 經濟的 社會的 욕구가 社會經濟的 狀況과 맞물려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人口의 移動, 즉 移民이 시시각각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인구이동은 육로를 통한 대륙으로의 이민과 해로를 통한 일본으로의 인구이동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근대적 移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902년 하와이로의 移民이며, 이는 정부기구 綏民院을 통한 첫 公式移民이다. 이 移民은 奴隸的 勞動移民으로 이민자들의 일터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이었으며, 이 이민은 1905년까지 계속되었다. 이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착한 최초의 韓人들은 아니었으나, 이때 대규모의 이민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이민자들을 근간으로 하여 하와이에 한인사회가 형성되었다.

美國에 처음 발을 디딘 韓人은 1883년 9월 閔泳翊을 대표로하는 구한말 외교사절 8명이었다. 이후 美國은 1884년 갑신정변의 실패로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이들의 정치망명지가 되었고, 1887년 美國에 처음으로 한국공관이 설립된 후에는 유학생, 정치망명자(서재필, 안창호, 朴容萬, 李承晚 등), 노동이민자, 상인들의 이주지가 되었다. 하와이는 미국 본토로 가는 경유지였으므로 한인들 역시 미국으로 가면서 당연히 거쳐가는 곳이었다. 이 하와이에 1902년 첫 공식이민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1903년 개시된 하와이 이민으로 1905년까지 하와에 도착한 이민 회

망자는 7,400여명이었으며¹⁾, 이후 하와이 거주 한인들의 숫자는 광복이 되던 1945년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하와이 이민이 가족이민자보다 독신자 이민이 훨씬 많았으므로 자연적인 인구증가는 별로 없었고, 한인들이 더 높은 임금을 주는 미 본토로 이주하거나 이민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었다. 1910년을 전후하여 독신이민자들을 위한 사진결혼이 이루어지면서 하와이 한인사회에는 여성의 비율이 이전시기보다는 높아지고, 자연적인 인구증가도 훨씬 늘었다. 그러나 하와이 한인 수는 미 본토로 이주하는 한인들 때문에 7,000여명에서 늘지 않았고, 인구조사결과 5,000여명이던 때도 있었다.

이렇게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하와이는 1910년 국권이 피탈된 후 하와이는 해외 한인거주지가 그러하였듯이 독립운동의 요람지가 되었다. 하와이 한인들과 한인사회는 자체에서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미국정부와 열강들에 대하여 조국독립의 당위성을 알리고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외교선전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였다. 하와이 한인들은 자신의 수입에서 일부를 인구세와 의연금, 혈성금, 독립금 등으로 자신들이 만든 단체 등을 통하여 모아 당시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하던 大韓民國臨時政府에 상납하였다. 1919년 상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하와이와 미주 한인사회가 2/3정도 부담하였고, 이중 상당부분을 하와이 한인들이 부담하였다.

그런데 하와이 한인들의 이러한 독립운동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하와이 한인들에 대한 독립운동 연구는 독자적인 연구주제가

1) 이들 중 일부는 이민국 심사에 불합격되어 본국으로 되돌아 왔다.

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하와이와 한반도 사이의 지리적 문제로 인한 자료 수집의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겠다. 또 하와이 한인사회가 짧은 시간에 형성되었으나 그 이후 증가되지 못한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하와이 이민은 2003년 100주년을 맞이하였는데, 이에 따라 하와이와 미주 한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학술단체와 기관에서는 이민 100주년 기념 학술출판과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²⁾ 국사편찬위원회의 『美州地域 韓人移民史』는 1903년 공식이민 이전시기부터 하와이, 미국 서부, 중가주 등 미국 전역에 걸친 한인 이민사를 정리하고 미국내 UCLA와 USC가 소장한 한국인 이민사료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주 한인 이민사 자료와 수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미국 내 한인사회가 형성된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민족운동사학회 『移民100년 학술회의 자료집』은 미주와 하와이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 자료집으로 미주한인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하와이 지역만을 연구한 논문은 총 11편 중 4편인데, 그중 한편은 연구동향을 논한 것이고 나머지 3편이 하와이 한인과 독립운동에 관한 내용이다. 연세대학교의 『美州韓人移民

2) 이러한 성과들 중에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편, 『美州地域 韓人移民史』, 국사편찬위원회, 2003

연세대학교, 『美州韓人移民 100주년 기념 論文集 美州韓人の 民族運動』, 200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移民100년 학술회의 자료집』, 2003

이외에도 USC의 켄크라인 교수는 1920년 센서스 자료로 韓人들을 분석하고 있으며, 방선주는 초기 韓人 美國 入國者에 대한 研究를 진행하고 있다.

100주년 기념 論文集 美洲韓人の 民族運動』역시 미주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서로서 하와이 지역 부분이 11편 중 두 편으로 이승만의 교육활동과 하와이 한글언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하와이 한인과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는 독자적인 연구주제로 연구되기 보다는 미주 한인사회에 연구의 일부분으로 자리 매김해 왔다.³⁾ 한편 하와이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이민을 다룬 것이 있고,⁴⁾ 이민과 독립운동을 연결시킨 연구도 있다.⁵⁾

3) 高挺然, 「大韓民國臨時政府 歐美委員部(1919~1925)研究」, 고려대박사학위논문, 1991.8.

김도훈, 『1910년 전후 美洲地域 共立協會·大韓人國民會의 民族運動 研究』, 국민대박사학위논문, 2002

方善柱, 『在美韓人の 獨立運動』, 翰林大學校 出版部, 1989

尹炳奭, 「1910년대 美洲地域 韓人社會의 動向과 祖國獨立運動」, 『李丙燾博士九旬紀念韓國史學 論叢』, 知識産業社, 1987

李炫熙, 「柳一韓의 在美獨立運動 研究」,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2, 韓國民族運動史研究會, 1995.12, 1~73쪽

정병준, 『李承晩의 獨立路線과 政府樹立運動』,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

홍선표, 『在美韓族聯合委員會 研究(1942~1945)』,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02

4) 崔永浩, 「韓國人 初期 하와이 移民」, 『전해중박사화갑기념 사학논총』, 일조각, 1979.

崔昌熙, 「韓國人の 하와이 移民」, 『국사관 논총』 9, 국사편찬위원회, 1989

高承濟, 「하와이 移民의 社會學的 分析」, 『學術院論文集』 11집, 1972

尹汝雋, 「美洲移民七十年」, 『京鄉新聞』, 1973년 10월 6일~12월 26일.

신성려, 『하와이 移民略史』,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8

Wayne Patterson, The Korean Frontier in America-Immigration to Hawaii, 1986~1910,

Univ. of Hawaii Press, 1988

하와이 한인사회의 변화는 대략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하와이 한인사회가 형성되는 1903년에서 1905년까지 형성기이다. 이 시기 공식이민에 의한 이민자들로 하와이 한인사회가 형성되었으며, 이민자들은 새로운 곳 하와이에 적응하기 위하여 동회, 자조회 같은 자치회를 만들어 서로 친목과 상호부조를 하였던 시기이다. 두 번째 시기는 1905년에서 1909년 사이로 혼란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하와이 한인들은 하와이의 적응한 이들과 농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로 나눌 수 있으며, 하와이 생활에 적응한 이들은 농장에 남은 이들과 농장을 떠나 도시로 이주한 이들로 구분할 수 있다. 하와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한인들은 미 본토로 이주하거나 본국으로 되돌아갔다. 한편 하와이에 남은 이들은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반일단체를 조직하였는데, 이들은 이를 통하여 조국의 국권회복운동을 후원하는 한편 하와이에서 한인들의 공동이익을 지켜내고자 하였다. 세 번째 시기는 1909년에서 1945년까지의 정착기로서 하와이 한인들의 본격적인 독립운동시기라 하겠다. 하와이 한인들은 하와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난립하는 단체의 통합을 이루어냈는데, 1908년에는 합성협회로 1909년에는 북미와 함께 국민회로 통합을 이루었다. 통합단체를 이루었다는 것은 한인들의 힘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와이 한인들이 정착지로서 하와이를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 하와이에 홀로 이민을 왔던 독신이민자들은 사진신부를 본국에서 데려와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또 이시기 하와이 한인들은 1910년 일

5) 吳世昌, 「韓人の 美州 移民과 抗日運動」, 『민족문화논총』 6,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1984

김원모, 「하와이 한국이민과 민족운동」, 『미국사연구』 8, 1988

제의 의해 국권이 완전히 피탈되자 통합단체였던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를 통해 인구세와 의연금 수집, 군사훈련을 통해 일본과의 독립전쟁 준비, 외교선전활동 등 구체적이고 활발한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세 번째 시기 하와이 한인들의 독립운동 시기는 다시 네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09년에서 1921년까지로 하와이 한인사회가 대한인국민회로 통합된 후 동지회와 병립하기 전까지이다. 대한인국민회는 김성권의 노력으로 미 본토의 공립협회와 통합되어 성립된 것으로, 1912년 박상하를 따라 하와이로 왔던 박용만의 노력으로 강화되어 국민의무금제도와 한인자치제도를 시행하고, 하와이 주정부에서 법인체로 인정받음으로써 명실공히 하와이 한인사회의 준정부적 대표기구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용만보다 조금 늦게 하와이에 등장한 이승만이 박용만과 갈등을 일으키고 박용만과의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하와이 한인사회와 대한인국민회는 이승만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한편 이승만은 동지회라는 사적 단체를 조직하여 이를 중심으로 하와이 한인사회를 지도해 나감으로써 대한인국민회는 중앙총회에서 탈퇴하고 하와이 한인사회에서도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21년에서 1932년까지이다. 이 시기 하와이 한인사회에서는 동지회와 이승만이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다. 1919년 수립된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에 추대된 이승만은 상해에서 돌아온 이후 동지회라는 사적 후원단체를 만들었고, 대한인국민회를 교민단으로 변경하여 동지회와 자신의 밑에 두려하였다. 이승만은 자신의 활동을 동지회가 후원하도록 하고 동지회가 기타 군소단체 위에 군림하게 함으

로써 동지회를 하와이와 미주 독립운동의 중심에 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1930년 만보산 사건과 만주사변으로 하와이 한인사회에도 독립운동 지도력 사이의 알력과 대립 속에서 1933년 대한인국민회가 복설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1933년에서 1941년까지로 복설된 대한인 국민회를 중심으로 동지회와의 통합이 활발하게 논의되던 시기이다. 국민회와 동지회의 통합논의는 1932년과 1937·8년 두차례 있었다. 특히 두 번째 통합논의는 1938년 끝내 무산되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 해외한족대회를 개최하고 재미한족연합회라는 통합기구를 출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차 통합논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위원회를 후원하는 과정에서 절정을 이루었는데, 하와이 한인사회는 군사후원회를 후원하기 위하여 혈성금을 거두었다. 국민회에서는 이 혈성금을 많이 거두기 위하여 의무금이나 인구세, 국민보 요금 등을 동결할만큼 하와이 한인들은 열성적으로 혈성금을 거두었다. 혈성금에 대한 하와이 한인들의 관심이 높았던만큼 국민회와 동지회 사이의 통합 논의도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끝내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네 번째 시기는 1941년에서 1945년까지이다. 이시기 하와이 한인사회에는 1941년 4월 해외한족대회가 개최되고 그 결과 구성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 사부가 설치되었다. 하와이 한인들은 이 시기에도 독립금을 모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미국방정책에 호응하여 미군에 지원하여 복무하기도 하였다.

일제시기 미주 한인사회와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다른 해외 독립운동사보다 연구성과가 적은 편인데, 미주의 한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하

와이 한인사회와 독립운동 역시 독립운동사에 있어서의 역할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하와이가 본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초기 독자적인 군사활동을 전개하였지만, 일제강점기가 진행되어 갈수록 독자적인 군사훈련 등 독립군을 양성하지 못하고 원동의 독립군 양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치중하였던 점과, 외교선전활동에 있어서도 하와이 주가 정치적 활동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곳이었으므로 이 부분 또한 지원하는 것 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점 등 때문이다. 그러나 하와이 한인사회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독립운동 대신 군사, 외교활동의 재정후원지로서 독립운동을 벌였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이민사회가 형성된 이후 일제강점기 내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단체의 재정후원지였던 하와이 내부의 독립운동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하와이 한인사회가 끊임없이 독립운동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는 것은 하와이 단체 내부에 한인들이 결속되어 있었다는 것을 뜻하며, 그것은 단체의 존재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본고의 연구대상 시기는 1903년 하와이 이민사회가 성립되는 시기로부터 1945년 광복이 되는 때까지이다. 하와이 한인사회의 성립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하와이 한인사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단체의 재정적 후원지로서 역할이 가능하게 하였던 하와이 한인사회의 성격을 고찰해 보기 위해서는 사회의 인적구성과정부터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와이 한인 이민과 이민자들이 독

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정착하는 과정 그리고 국권피탈 이후 있었던 하와이 한인들의 독립운동이라는 큰 줄기로 접근하였음을 밝혀둔다.

본고에서 사용한 주요 자료들은 이민에 대한 부분은 이민자들의 인적기술이 담긴 미국 이민국의 서류와 일본 외무성의 여권발급 기록 등이며, 하와이 한인들의 독립운동 부분은 이들이 남긴 언론·출판물인 共立新報, 新韓民報, 國民報, 太平洋週報, 國民報-太平洋週報 등과 각종 선언문들이다. 이민국 서류는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한자이름을 알 수 없었고, 조선에서의 마지막 거주지 역시 동네 이름만 표시된 경우 정확한 지역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 자료만큼 이민자들을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자료가 현재로서는 없다. 신한민보, 국민보, 태평양주보 등 한인들의 언론 출판물들은 당시 하와이 한인사회를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신한민보가 하와이 지역에서 발간된 신문이 아니라는 점과, 국민보가 곁호가 있다는 점 등은 부가 자료를 추가해야 당시 하와이 한인사회와 독립운동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또한 연구자의 역량부족으로 채워넣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밝혀둔다.

II. 하와이 韓人移民과 人的構成(1903-1905)

1903년 1월 13일 첫 한인 이민단이 하와이에 도착하였다. 이 이민은 大韓帝國의 첫 공식이민이었다. 본 장에서는 이 이민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이민단의 성격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이민의 배경으로 한인의 도미를 살펴보고 이민이 이루어진 국내외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민단 명단을 통하여 인적구성을 고찰하여 이민으로 형성된 하와이 한인사회의 성격을 살펴볼 것이다.

1. 移民의 背景

(1) 政治的 背景

韓人의 美洲로의 공식적인 이민은 1903년 1월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美洲에 첫발을 내디딘 韓人은 아니었다. 이들보다 먼저 美國에 도착한 韓人들은 대략 5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그들은 ①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로 입국한 조선의 관료들⁶⁾ ②조선의 정치적 망명자⁷⁾ ③교육을 목적으로 美國에 도착한 유학생들 ④雲山에서 덴버로 이주한 勞働者들 ⑤美國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 인삼을 팔기위해 美國에 들

6) 그들 명단과 임명일은 다음과 같다.

李夏榮 서리공사(188.11), 李完用 서리공사(1889.6), 李采淵 서리공사(1890.9), 이승수 공사(1893.6), 이현직 서리공사(1894.8), 朴鎔奎¹⁾ 서리공사(1895.3), 徐光範 공사(1896.2), 李範晉 공사(1896.9), 신태무 서리공사(1899~1901.7, 1904.2~1907.5), 趙民熙 공사(1901.7), 김윤정 서리공사(1905.5).

7) 조선의 망명자들 대부분은 美國에서 대학과정을 수학하여 유학생이 되었다.

어간 조선의 상인들이었다. 이들은 미국땅을 밟기 전에 하와이땅을 밟았다. 하와이는 미국 본토로 가는 경유지였기 때문이다.

조선은 1882년 5월 22일(음력 4월 6일) 仁川에서 조선의 태극기⁸⁾와 美國 성조기를 나란히 게양한 가운데 美國과 朝美修好通商條約을 체결하였다. 이때 조선의 대표는 申櫛이었고, 美國의 대표는 슈펠트였다. 이로써 美國은 조선과 국교를 맺은 최초의 歐美國家가 되었으며, 美國의 대통령 아더(Chester A.Arthur)는 6월 15일(음력) 朝美修好通商條約 批准案을 상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해 1월 미상원에서 이 조약을 인준하고 5월에 콜럼비아 공사로 있던 푸트 장군이 초대 주한미국 공사로 인천 제물포항에 입항하였다. 高宗은 명성황후와 함께 푸트공사를 친견, 국서를 친수하였으며, 수차의 만찬을 베풀어 후대하였다. 이러한 푸트의 친견은 서양공사로서의 첫 정식접견이었고, 高宗의 후대는 美國의 힘을 빌어 러시아와 日本의 조선침투를 저지하고자하는 의도가

8) 2004년 1월, 1882년 7월 미 해군성이 발간한 『해상 국가들의 깃발』이란 책에서 태극기가 발견되었다. 청나라 국기인 황룡기 오른쪽에 태극기가 선명하게 찍혀있는 이 책은 서문에서 1882년 7월 19일 미 상원에서 3000부를 제작해 각 기관에 분배하기로 결의했다고 써있다. 태극기는 청색과 적색이 어우러진 태극무늬와 흑색으로 그려진 4괘로, 지금의 태극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까지 1882년 日本에 파견된 박영효의 일기 『使和記略』에서 음력 8월 9일(양력 9월 25일) 숙소에 태극기를 처음 내걸었다고 한 기록을 최초의 태극기로 보아왔으며, 태극기 그림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882년 10월 2일자 『時事新報』에 실린 ‘조선국기’와 1883년 제작되어 청나라 외교문서에 수록된 ‘고려국기’ 등이 있었다. 이 태극기는 당시 체결되었던 조미수호통상조약 비준 이후 미 당국이 출간한 자료에 수록된 것으로 보이며 조미통상조약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조미수호통상조약 당시 美國 전권특사였던 슈펠트의 문서에는 조선 국기가 성조기와 나란히 게양했다는 기록이 있다.

다분히 내포된 것이었다.

이에 高宗은 6월 16일(음력) 報聘使節 美國 파견을 결정하였는데, 보빙사절단은 전권대신 閔泳翊, 부대신 洪英植, 전권사절의 종사관 徐光範이었다. 이 보빙사의 파견 목적은 미국의 문물을 배우고 지식을 얻고, 청으로부터의 독립문제를 미국에 재확인시킴으로써 美國 관리들의 지원으로 조선의 독립을 전세계에 인식시키려한 것이었다. 이 보빙사절단이 美國에 입국한 최초의 韓人 관료들이었다. 이 우호사절단 보빙사는 閔泳翊, 洪英植, 徐光範을 비롯하여 兪吉濬, 高永喆⁹⁾, 邊燧, 崔景錫, 玄興澤 등 수행원과 중국인 吳禮堂¹⁰⁾과 美國인 로우엘(Frederik F. Lowell)¹¹⁾을 합쳐 모두 10명이었다. 로우엘은 日本에서 합류하였으므로

9) 1853년생, 濟州高氏 鎭豐의 아들로 字는 明允, 號는 也愚이다. 중인출신으로 1876년 式年 文科에 급제하여 역관으로 관계에 진출하였다. 영선사 김윤식을 따라 淸의 친진 어학국에서 영어를 학습한 것이 계기가 되어 보빙사에 발탁되었다. 보빙사 일행 중 영어를 다소라도 알고 있는 이는 고영철 뿐이었다. 보빙사에서 돌아온 후 同文學(후에 育英公院)에서 주사로 일하는 등 외교, 교육, 해관 등 주로 대외관계업무에 종사하였으며 高原·奉化군수를 지내기도 하였다. 金源模, 「遣美 朝鮮報聘使 隨員 邊燧·高永喆·玄興澤」, 『祥明史學』 3·4합집, 1995.12, 568~574쪽

10) 李鴻章이 속방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파견한 뮐렌도르프의 조선해관업무를 돕기 위해 내한한 중국인이다. 吳禮堂은 조선해관개설 직후 조신보빙사 파미가 결정되면서 뮐렌도르프가 통역관으로 추천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吳禮堂은 美國유학생 출신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인물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발탁되었다. 金源模, 「遣美 朝鮮報聘使 隨員 崔景錫·吳禮堂·로우엘 研究」, 『東洋學』 27집, 檀國大 東洋學研究所, 1997, 198~214쪽

11) 푸트공사는 보빙사가 美國의 외교절차에 어두우므로 차질이 생길까 염려되어 주일美國공사

조선에서 출발할 때는 9명이었고 로우엘은 日本에서 美國으로 출발할 때 日本어와 영어에 능통한 日本인 미야오까(宮岡恒次郎)를 그의 개인 비서로 동행하여 실제로는 11명이었다.¹²⁾ 이들은 제물포에서 모노케 이시호편으로 1883년 7월 16일(음력 6월 23일) 출발하였고 이듬해 5월 31일 귀국하였다. 조선을 떠난 이들은 東京에서 1개월간 체류한 후 美國 상선 아라빅호편으로 8월 18일 요코하마를 떠나 美國으로 향하였다. 이들은 1883년 9월 2일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하여 기차로 9월 15일 워싱턴에 도착하였고, 15일동안 공식방문일정을 가졌다.¹³⁾

이후 全權副大臣 洪英植은 隨員 崔景錫¹⁴⁾ · 高永喆 · 玄興澤¹⁵⁾, 參贊

빙행(John A. Bingham)에게 보병사의 美國사행 수행에 안내역을 수행할 美國인 외교관 1명을 추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빙행은 주르당(Payton Jourdan)을 외국인 참찬관에 임명하고 美國정부에 통고하였으나, 日本정부가 방해를 하여 친일적 성향의 로우엘로 대체되었다. 金源模, 위의 책, 214~223쪽

12) 로우엘 참찬관이 프릴링하이젠 국무장관에게 보고한 조선보병사 명단 10명중에 미야오까의 이름이 없으므로 미야오까는 조선보병사의 공식수행원이 아니고 로우엘의 개인비서였다. 金源模, 앞의 책 218쪽

13) 『New York Times』, 1883년 10월 13일

14) 출생시기 미상, 1886년 추. 호는 微山, 일명 崔島敏. 보병사에서 五衛將으로 민영익을 수행하였으나, 洪英植이 美國의 군사제도, 국방체제, 병기발달에 관심을 보이자 그의 무관으로서의 임무수행이 불필요해졌다. 이에 그는 농업분야에 관심을 가졌고, 귀국 후 高宗으로부터 망우리 일대의 농경지와 야산을 하사받아 농무목축시험장을 운영하였다. 이는 한국 최초의 농목분야 개화운동이었으나 최경석의 급사로 좌절되고 말았다. 李光麟, 『韓國開化史研究』, 일조각, 1981, 203~218쪽. 金源模, 『遣美 朝鮮報聘使 隨員 崔景 · 吳禮堂 · 로우엘 研究』, 『東

官 로우엘과 그의 비서 미야오까(宮岡恒次郎), 중국인 吳禮堂 등을 인솔하고 12월 20일 서울에 도착하여 다음날인 21일 高宗에게 復命하였다.¹⁶⁾ 全權大臣 閔泳翊은 從事官 徐光範, 隨員 邊燧¹⁷⁾ 등과 함께 12월 1일 미 해군 함정 트렌턴(Trenton)호로 뉴욕을 떠나 이듬해인 1884년 1월 12일 프랑스의 마르세이유에 도착, 여기서 함선이 정박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포우크(George C. Foulk)¹⁸⁾의 안내로 영국과 프랑스를 두루

洋學』 27집, 檀國大 東洋學研究所, 1997, 194~197쪽

15) 생물연대 미상, 무관으로 보병사에 발탁된 것으로 추정되며, 배일감정이 강한 인물로 보병사에 다녀온 후 국왕의 신임을 얻어 遂安郡守를 거쳐 曠務局 監理를 지냈다. 1895년 副領으로 侍衛隊 聯隊長에 임명되어 1907년 4월 陸軍正領으로 친위대 혼성연대장이 되기까지 무관으로 봉직하였다. 그는 春生門事件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고, 독립협회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金源模, 「遣美 朝鮮報聘使 隨員 邊燧·高永喆·玄興澤」, 『祥明史學』 3·4합집, 1995.12., 574~588쪽

16) 『高宗實錄』, 高宗 20年 11月 21日條. 이 기사에는 洪英植의 복명사실은 빠져있다. 그것은 洪英植이 갑신정변의 실패로 대역죄인으로 몰려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遣美使節 洪英植復命問答記』는 1981년 3월 발견되어 전문이 전한다.

17) 1861년 9월 11일생, 原州邊氏 晉桓의 둘째아들로 그의 집안은 譯官과 醫官을 업으로 하는 중인이었다. 김옥균을 따라 도일, 日本에서 실업계학교에서 유학을 했던 변수는 보행사 수행시에도 견직공장 방문에 관심을 보였다. 귀국후 김옥균, 洪英植, 서광범 등과 갑신정변에 참여했으나 실패하자 美國으로 망명하여 한국인 최초의 농과대학 졸업생이 되었고, 美國시민이 되어 美國농무성에서 일하면서 한국농업의 근대화를 꿈꾸었으나 1891년 10월 22일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李光麟, 「韓國人 최초의 美國大學生 邊燧」, 『新東亞』, 1982년 12월호, 432~446쪽

여행하고 이탈리아를 거쳐 5월 31일 인천에 도착하였다.¹⁹⁾ 이때 보빙사의 일원이었던 兪吉濬은 민영익의 배려로 최초의 국비 美國유학생이 되었다.²⁰⁾ 유길준은 향후 5년간 美國유학을 계획하였지만²¹⁾ 국내에서 甲申政變이 일어나자 4개월만인 12월에 이 학교를 그만두고 1885년 9월 귀국하였다.

이들 보빙사 외에 조선 관료 중에는 주미 조선공사로 부임한 이들이 있었다. 조선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진지 6년이 지나도록 워싱턴에 주재공사를 파견하지 못하다가 1887년 8월에 내무협관 朴定陽²²⁾을

18) 1876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아시아 지역에 배속되어 日本 長崎에서 근무하다가 1882년 부산과 원산을 순방한 후 시베리아를 경유하여 美國으로 귀국했다. 그는 日本근무시 日本어를 습득했고, 보빙사를 8개월 접대하면서 한국어를 습득해 보빙사 일행과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한다. Tyler Dennet, "Early American Policy in Korea. 1883~7", *Political Science Quarterly*, 38, 1923, 89쪽

19) George M. McCune and Harrison. ed. *Korean-American Relations. Documents Pertaining to the Far Eastern Diplomacy of the United States. Vol. I*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1) 101~111쪽. "Report of information relative to the revolutionary attempt in Seoul. Korea. by Ensign Goerge C. Foulk December 4~7. 1884"

20) 유길준은 1881년 紳士遊覽團의 일원으로 日本을 방문했던 柳定秀·尹致昊와 함께 최초의 日本유학생이기도 하였다. 유길준은 1884년 9월 메사추세츠 주 댄머 학교(Governer Dammer Academy)에 등록하였다.

21) 『New York Times』, 1883년 11월 16일

22) 자는 致中, 호는 竹泉. 본관은 潘南. 高宗 3년 1866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881년

주미전권공사로 임명하였다. 이들은 청의 반대로 출국하지 못하다가 美國측의 항의로 9월 제물포를 떠나 다음해 1월 10일 부임지인 워싱턴에 도착하였다. 박정양 공사 일행은 參贊官 李完用, 서기관 李夏榮, 친군후 영문안 李商在, 번역관 李采淵, 수행원 강진희, 진사 이헌용, 무반 이종하, 하인 김노미, 허능업 등 10명이었다.²³⁾ 이후 1905년 乙巳條約으로 공사관이 폐쇄되기까지 5명의 공사와 8명의 서리공사가 재직하였다.

1885년 甲申政變에 실패한 개화당 지도자 徐載弼, 朴泳孝, 徐光範, 鄭蘭教, 申應熙 등 6명이 美國으로 망명하였다. 이들은 1885년 5월 26일 北京號(the City of Peking)를 타고 日本을 출발²⁴⁾ 6월 11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였다.²⁵⁾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지에는 朴泳孝, 徐光範, 徐載弼 등 3인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는데, 이들이 갑신정변에 실패하여 망명하였으며 버클리(Berkeley)대학에 입학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해줄 재정적 후원자가 필요하다고 하였다.²⁶⁾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박영효는 4,5개월 머무르다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日本문물을 시찰한 뒤 理用司堂上經理事가 되었다. 1887년 協辦內務府事를 거쳐 駐美全權公使에 임명되어 美國에 파견되었으나 袁世凱의 압력으로 1889년 소환되었다.

23) 文一平, 『韓米五十年史』, 朝光社, 1945,

24) 徐載弼의 「旅券發給申請書」, National Archives 소장.

25) 『Alta California』, 1885년 6월 12일

26) 『San Francisco Chronicle』 1885년 6월 19일

가 福澤諭吉의 조카를 만나 日本으로 되돌아갔으며, 申應熙와 鄭蘭教는 경유지는 알 수 없으나 몬태나주까지 가게 되었다.

徐光範은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목사의 소개로 그의 형이 있는 뉴욕으로 떠나 워싱턴에 머물렀다. 서광범은 워싱턴시 住所人名錄에 의하면 1888년에 학생으로²⁷⁾, 1894년에는 교육국 서기로 되어있다.²⁸⁾ 주소록에 학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정식 학교를 다니지는 않았으나 면학에 힘쓴 것으로 보인다. 서광범은 1889년 5월 24일 뉴저지주 미들섹스 카운티(Middlesex County) 一般請願裁判所(the Court of Common Pleas)에 시민권을 신청하였고 1892년 11월 18일 시민권을 받았다.²⁹⁾ 시민권을 갖게 된 서광범은 美國 교육국(Bureau of Education)에 취직하여 인종학과에서 번역관으로 일하였다.

甲午更張으로 소환명령을 받은 서광범은 日本정부의 주선으로 同年 9월 8일 귀국길에 올라 9월 15일 申應熙, 鄭蘭教와 함께 샌프란시스코에서 太平洋郵船會社 기선 페루호로 출발³⁰⁾ 日本을 경유하여 12월 14일 서울에 도착하였다.³¹⁾ 귀국 후 법무대신과 문무대신을 역임하다가 乙未事變 관련 혐의를 받게되자 정치적 망명을 위해 주미공사직을 회

27) The Boyd's Directories. 1888년 "Sho Pom, Student, 1007 13th, N.W.

28) The Boyd's Directories. 1894년 "Sho, Clerk(Bureau of Education), 708 11th, N.W.

29) The Naturalization Record, Vol. 3, The National Record Center, Washington D.C. This quoted from Pang, Pom Kwang Soh, 3쪽

30) 『日本外交文書』 권5, 594~598쪽

31) 『日本外交文書』 권5, 596~5979쪽

망하여 12월 駐美全權特命公使로 임명받았다.³²⁾ 그는 박승봉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1896년 2월 워싱턴에 도착하였으나 친러내각에 의해 본국 정부로부터 3개월만에 귀국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귀국하지 않고 망명생활을 하다가 8월 13일 38세의 나이로 병을 얻어 사망하였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에서 막노동을 하던 서재필은 학업을 위해 동부로 가서 1886년 9월 펜실바니아주 윌크스 바레市에 있는 해리 힐맨 아카데미에 입학하였다. 中學校를 졸업한 서재필은 조오지 워싱턴대학 매디컬 스쿨(George Washington Medical School³³⁾)에서 공부하여 1892년 졸업하고 워싱턴 가필드(Garfield) 병원에 취직하였다. 그는 1888년 필립 재이슨(Philip Jsaiohn)이라는 이름으로 美國 시민권을 획득하였다.³⁴⁾ 그는 1896년 귀국하여 독립협회 설립을 주도하고 독립신문을 발간하는 등 개혁운동을 벌이다가 1898년 美國으로 추방된 이후 美國과 한국을 오가며 지냈다.³⁵⁾

32) 서광범은 美國 시민권자로서 조선의 대신을 역임하고, 주미한국공사가 되는 이례적인 예를 남겼다.

33) 조오지 워싱턴 대학은 컬럼비아 대학(Columbia University)의 전신이다.

34) 金道泰, 『徐載弼博士自敘傳』, 을유문화사, 1972, 212쪽.

35) 이때 추방된 서재필은 美國에서 펜실베니아에서 병원을 개업하고 지내다가 3·1운동 이후 잡지 《The Evening Ledger》과 제휴하여 한국문제를 세계 여론에 호소하는 한편 韓人 친우회(Friend of Korean)를 조직하여 재미교포들을 결속하고 독립운동후원회를 만들었다. 이후 상해임시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활약하였는데 1922년 워싱턴 군축회의에 독립을 청원하는 연판장을 제출하고 1925년 호놀룰루의 범태평양회의에 한국

서재필보다 1년 먼저 美國 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 李啓弼이 있었다. 이계필은 1884년 동경 神田의 英和豫備學校에 유학 중 본국의 소환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1885년 도미하여 펜실바니아 카운타운 대학교에 유학하였다.³⁶⁾ 邊燧는 갑신정변 실패로 日本에 망명중이던 1896년 1월 24일 閔周鎬, 尹定植과 함께 도미하여³⁷⁾ 콜리어(Lucian Collier)여사의 주선으로 워싱턴에 있는 버리츠어학원에 입학하였다.³⁸⁾ 변수와 민주호는 1887년 9월 메릴랜드 농과대학(Maryland Agriculture College)³⁹⁾에 입학하였고, 변수는 1891년 6월 理學士 자격을 획득하여 한국인 최초의 대학졸업생이 되었다.⁴⁰⁾ 변수는 대학졸업 후 美國 농무성에 촉탁직으로 취직하였으나 취직한지 3개월만인 1891년 10월 22일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한편 변수와 메릴랜드 농과대학에 진학한 민주호는 1888년 박정양의 주선으로 메릴랜드 농과대학을 중퇴하고 귀국

대표로 참석하여 日本의 침략을 폭로·규탄하였다. 1947년 미군정 장관 J.R.하지의 초청으로 귀국하여 美軍政廳顧問으로 있었으나, 李承晩과의 불화 등의 이유로 美國으로 돌아가 여생을 마쳤다. 美國에 있는 그의 유해는 田明雲 의사와 함께 1994년 4월 8일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1997년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洪善杓, 徐載弼의 獨立運動(1919—1922) 研究

36) 이광린, 「개화초기 한국인의 일본유학」, 『한국개화사의 제문제』, 일조각, 1986, 56쪽

37) 『舊韓國外交文書』 권10(美案 1), 30쪽

38) 『워싱턴 신문』, 1982년 7월 10일.

39) 메릴랜드 주립대학(University of Maryland)의 전신.

40) 이광린, 「한국인 최초의 美國 대학 졸업생 변수」, 『한국개화사의 제문제』, 일조각, 1986

하였으며, 윤정식은 그 후 행방이 불분명하다. 민주호는 귀국 후 閔商鎬로 개명하였다.⁴¹⁾

윤치호는 俞吉濬, 柳定秀와 함께 최초의 日本 유학생인데, 중국 상해의 中西學院(Anglo-Chinese College, 1885.2~1888.10)에서 유학하였으며, 美國 테네시주 네시빌시 밴터빌트대학교(1888.11~1891.6)와 조지아주 옥스퍼드시 에모리대학교(1891.9~1893.9)에서 유학하였다.⁴²⁾

한편 1895년 박에스더(본명 김점동)는 남편과 함께 도미하여 2월 리버티 공립학교에 입학하였고, 그녀의 남편 박유산은 셔우드家の 농장일을 도우면서, 아내의 학업을 도와 주었다. 국내에서 병원일을 해보았던 박에스더는 9월 뉴욕시의 유아병원에서 취직하였고, 개인 교습을 통해 라틴어, 물리학, 수학을 익힌 후 이듬해 10월 1일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Woman's Medical College of Baltimore)에 입학, 1900년 졸업하였다. 졸업하기 20여 일전 남편이 사망하였으므로 박에스더는 곧 귀국하였고 귀국 후 한국 최초의 간호원 양성소를 개설하는 등의료사업에 종사하다가 1931년 4월 13일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

1896년에는 3월 30일 李垞⁴³⁾, 朴羲秉, 李喜轍이 함께 도미했다. 이

41) 민주호의 개명은 민영익 은행예금 절취의 오명을 씻기 위한 것이었다. 金源模, 「遣美 朝鮮 報聘使 隨員 邊燧·高永喆·玄興澤 研究」, 『상명사학』 3·4합집, 1995.12, 556쪽

42) 유영렬, 『開化期の 尹致昊 研究』, 한길사, 1985, 18~19쪽

43) 호 晩悟., 초명 平吉. 高宗의 다섯째 아들. 어머니는 貴人 張氏. 1891년(高宗 28) 義和君에 봉해지고, 1894년 報聘大使로 도일하여 청일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고, 이듬해 6개국 特派大使로 영국·독일·프랑스·러시아·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1869년 美國에 유

강은 오하이오 주 델라웨어(Delaware)시에서 웨슬리안(Wesleyan)대학에서 2년동안 수학하며 2명의 수행원과 함께 지냈고 박희병은 버지니아주의 로아노크(Roanoke) 대학에서 2년간 수학했다. 박희병이 다녔던 로아노크 대학은 살렘(Salem)시에 있는데, 이곳은 美國의 수도 워싱턴 보다 남쪽에 위치한 아담하고 전원적인 도시였고, 로아노크 대학은 韓人 지도자들이 많이 수학한 곳이었다. 박희병은 로아노크 대학에서 1898년까지 2년간 예과(Sub-Freshmen Course) 수업을 받았는데 그 기간동안 라틴어 2년, 희랍어 1년, 영어 2년, 수학 2년, 기초화학과 철학을 포함한 자연과학, 역사, 지리, 신화 그리고 서예 등의 과목을 택하였다. 박희병이 다니던 로아노크 대학 예과에는 박희병과 김규식⁴⁴⁾, 이희철이 재학중이었고, 서규병은 졸업반인 4학년이었다. 1898년에는 서규병이 동양계로는 최초로 이 대학의 졸업생이 되었고, 1903년에는 김규식이 우등으로 졸업했으며, 서광범도 1897년에 명예석사학위(M.A.Honoris Causa)를 받아 1920년대까지 30여명의 韓人들이 이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⁴⁵⁾ 오하이오에 있던 이강도 수행원 한응이, 신

학하였으며, 1900년 의친왕에 봉해졌다. 귀국하여 적십자사 총재가 되고, 1919년 大同團의 崔益煥 등과 협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탈출을 기도하였으나 만주 안동[安東]에서 발각되어 송환되었다. 그 뒤 여러 번 日本 정부로부터 도일을 강요받았으나, 거부하고 끝까지 排日정신을 지켰다

44) 김규식은 1897년 도미하였다. 1904년에는 프린스턴 아카데미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45) 서동성, 「문혀진 美洲 韓人 이민역사 사료발굴」, 『한국사론』 39, 국사편찬위원회, 172~

성구와 함께 1901년 3월 로아노크 대학에 등록하여 청강생(Partial Course Student)으로 학교에 다녔다.

1896년에는 日本에서 유학중이던 학생들이 도미하였다. 1896년 2월 28일에 日本 계의오의숙(慶應義塾)에서 유학중이던 林柄龜(19), 李範壽(24), 金憲植(27), 安禎植(27), 呂炳絃(26) 등 6명이 美國으로 가기 위해 제일조선인 친목회금 70여원과 은행자금 400여원을 훔쳐 기숙사를 도망나와 벤쿠버에 도착하였다.⁴⁶⁾ 이들은 가지고 있던 돈을 선임과 체류비용으로 모두 써 버리게 되자 그 곳의 日本영사를 찾아가 워싱턴의 당시 서광범 공사에게 연락해 줄 것을 부탁했다. 서광범은 이들을 워싱턴으로 데려다가 하워드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1896년 하워드대학 연대보고서에는 이들 6인과 河蘭史와 여교사가 찍은 사진이 실려있는데, 이들 돈 한푼 없는 한국인 7명이 본 대학에 들어와 도움을 직간접으로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河蘭史는 기생출신으로 金蘭史라고도 하며 妓夫 河相驥를 따라 1895년 계의오의숙 유학생으로 들어갔다가 1896년 美國으로 유학을 갔다. 그녀는 1900년 오하이오 에슬리안 대학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귀국하여 이화학당의 교사로 재직하다가 1919년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이하영이 1896년 도미하였고, 안창호는 1899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였다.

공식 이민이 시작된 1903년 이후에도 노동이민과는 별도로 유학을 목적으로 한 도미자들이 많았다. 1903년에는 윤병구가 도미하여 덴버대를 다니다가 중퇴하였으며, 신흥우도 1903년 도미하여 남가주대학에서 학사(1903~1911)와 석사(1911) 학위를 받았다. 李承晩은 1904년 도미

46) 『친목회회보』 제2호, 266쪽

하였으며, 1905년 朴容萬은 선천지역의 갑부아들 정한경·유일한·이회경, 평양의 이정희, 李承晩의 아들 이태선, 청주의 갑부 아들 이종철·유은상 그리고 정순만의 아들 정양필 등 8명과 학생신분으로 美國으로 건너갔다.

이와 같이 1882년부터 1905년 사이 美國으로 건너간 유학생은 대략 64명 정도 되고 그들 중 45명이 대학과정을 수학했다.⁴⁷⁾ 이들 중 상당수는 정치 망명자였으며, 일부는 美國에 건너가기 이전에 한국에서 기독교계 학교(Christian Mission Schools)에서 교육을 받았다.

한편 舊韓末 특별한 韓人들이 덴버지방으로 모여 들어, 한동안 그곳에서 韓人村을 이루고 살았다. 이들은 대부분 1899년 운산에서 도미하였는데, 덴버와 운산의 공통점은 두 곳 모두 자국 내에서 규모가 큰 광산지역이라는 것이다. 또 이 두 지역을 연결하는 고리는 구한말 美國이 조선에서 광산채굴 이권을 챙겼다는 데 있다.

즉, 美國은 조선정부로부터 철도부설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雲山 金鑛 채굴권을 따냈다. 평북 雲山郡 北鎭面 다리골[橋洞]에 위치한 운산금광은 1895년 왕실에 의해 영국인 제임스 모스(James R. Morse)에게 순이익의 25%를 인세로 받는 조건으로 채굴권이 인허되었다. 이듬해 이 특권은 美國인 헌트(Leigh S. j. Hunt)에게 넘어갔고, 헌트는 이 이권을 받은 후 3개의 군소회사를 합병해 동양금광회사(The Oriental Consolidated Mining Company)를 설립하여 1954년까지 운산금광을 채굴할 수 있는 이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47) 金元容, 『在美韓人五十年史』, 리들리, 1957, 29~30쪽 ; 최봉윤, 『美國속의 韓國人』, 종로서적, 1983, 75쪽.

북진면 1평방 킬로미터 내에 속한 축대, 국산동, 매봉, 삼봉, 대바위, 다리골 등 운산금광의 여러 광맥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광맥을 품고 있었던 곳은 대바위와 다리골이었다. 1906년 한해동안 동양금광회사의 금 채굴량은 125만불에 해당하는 양이었는데, 이는 당시 연간 국가총생산량 225만불의 반을 넘는 막대한 양이었다. 1896년부터 1918년까지 운산에서 캐낸 금광석의 양은 \$29,423,235.00달러에 해당하는 4,766,270톤이었다.⁴⁸⁾ 이렇게 많은 양의 금을 파내기 위해 매년 2만 5천 내지 3만 5천 피트의 새로운 금맥을 파 들어 갔으며, 여기 사용된 기계와 기술자는 모두 美國에서 광산이 가장 많고 광산업이 발달해 있던 덴버지방에서 차출하였다.

그런데 이 운산지방에서 역으로 덴버로 이민을 떠난 이들이 있었다. 평북 운산 북진에 美國인들이 살고 있어서 韓人들과 교류가 시작되었고, 인근의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러 덴부[典府]로 갔다. 1899년 귀국한 박희병은 운산금광에서 영어통역 겸 영미 관계 외교 교섭관으로 일하면서 이곳에서 청년들에게 기초광산 훈련을 시킨 후에 덴버 지방의 탄광 노무자로 보냈다. 그리고 그는 1906년 멕시코를 거쳐 다시 덴버로 가서 그곳에 있던 朴容萬과 함께 여관과 기숙사를 차리고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다.⁴⁹⁾

48) David Gallagher, Mineral Resources of Korea, Vol. III A, "Industry & Mining Div., USOM/KOREA with cooperation from Geographical Survey"(Korea, 1963), 31쪽. 1913년 日本전체의 금 생산량 중 44%가 한국에서 생산된 것이었고 운산이 전체 생산량의 19%를 차지하였다.

49)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80대의 김용옥 옹은 1889년 덴버로 금을 캐러간 광부 이민이

또한 정식 이민이 시작된 1903년 이전에 인삼장수로 112명이 상인 등으로 28명이 美國에 입국하였다.⁵⁰⁾ 美國으로 들어간 첫 번째 韓人 상인은 1898년 하와이에 도착한 백장형(박종인)이라는 상인이다. 1899년에는 인삼장사 崔東順, 張承奉, 姜君喆, 李在實, 朴聖根 등 5명의 韓人 인삼 상인이 하와이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중국을 거쳐 하와이에 들어가서 중국인으로 기록되었다. 1900년 1월 15일에는 김이유(김일수)와 용백현(양백인)이라는 사람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하와이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인삼을 팔기위해 하와이에 들어간 인삼장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민자로 등록된 최초의 韓人은 류두표(류피터, Peter Ryu)인데, 그는 1901년 하와이 이민국에 등록되었다. 이어 같은 해 5명의 韓人 勞働者가 이민으로 등록하였고, 1902년에는 12명의 韓人 勞働者가 이민으로 등록되었다. 이처럼 韓人들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정치적 망명의 이유로, 유학생 신분으로, 인삼을 팔기위해, 勞働者로 美國에 입국하였다.⁵¹⁾

(2) 經濟的 背景

조선에서 가장 많은 백성들이 종사하는 산업은 농업이었는데, 1876년

美洲 이민의 효시라고 주장한다. 그는 운산 지방에서 동네 이웃과 친척들이 덴버 지방 광산 광부로 이민을 갔다고 증언했다.

50) 서동성, 앞의 책, 193쪽

51) 이광규, 『재미한국인』, 일조각, 1988, 23쪽

개항을 하면서 조선농촌사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조선에는 日本 상인을 통하여 유럽과 미국의 공산품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고, 日本은 조선에서 米·大豆·牛皮·金 등을 약탈적으로 수입해 갔으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은 米穀이었다. 日本이 조선의 미곡을 약탈하다시피 수입해가자 조선에서 미곡 값이 앙등하였다. 미곡 값이 뛰어오르자 조선의 기존의 지주층 뿐 아니라 관료·상인·고리대금업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였고, 이전시기보다 다양한 토지소유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새롭게 토지를 소유하게 된 지주들은 직접 토지를 경영하기도 하여 소작으로 농업에 종사하던 다수의 농민들이 토지로부터 배척되는 양상이 나타났다.⁵²⁾

토지로부터 이탈된 농민들은 노동력 판매로 연명하는 貧農 또는 농업노동자로 농촌에 남거나, 농촌에 남아있지 못하게 된 이들은 流民이 되어 火田을 경작하거나 火賊(活貧黨)이 되었고, 장시를 오가는 行商 되었으며, 1876년 이후 개항된 도시의 잡역노동자가 되었다.⁵³⁾ 1886년에서 1906년 사이 활빈당 조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다가 체포된 이들의 공초문에서 전·현직이 기록된 142명의 직업분포는 商業, 雇傭, 農業, 行乞, 行賊, 僧, 無職, 占募, 砲手, 訓長 등의 순이었다. 상업이 56명으로 39.4%인데 이들은 소규모 자본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다른 장시에서 물건을 팔아 그 차익을 얻는 농촌 소상공인이었다. 고용노동자는 16명으로 11.3%인데 이들은 농업노동, 도시 포구 잡업노동, 개항장 잡업노동과 하역노동, 철도부설 노동에 종사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雇傭

52) 朴贊勝, 「活貧黨의 活動과 그 性格」 『한국근대정치사연구』, 사계절, 1985, 480~487쪽

53) 楊尙弦, 「韓末 埠頭勞動者의 存在樣態와 勞動運動」 『韓國史論』 14집, 1987, 208면.

→無職·行乞·流浪→雇傭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은 15명으로 10.6%였는데, 이들은 남의 농토를 빌어 농사를 짓거나 남에게 고용살이를 하는 貧農이었다.⁵⁴⁾ 이는 당시 조선의 전체적인 직업분포는 아니지만 1910년 5월 10일 조사된 한국인 가구의 도별 직업별 분포와 비교해 보면 새로운 직업군으로 나타난 개항장의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1910년 당시 한국인 가구의 직업분포는 농업, 상업, 날품팔이, 양반, 기타·어업, 무직, 공업, 유생, 관공리, 광업 순이었다. 전체 2,894,777가구 중에서 농업이 2,433,450가구로 84.1%를 차지하였으며, 상업은 178,780가구로 6.2%, 날품팔이가 69,399가구로 2.4%를 차지하고 있다. 날품팔이 가구는 한성부 9,825가구, 경상남도 8,381가구, 전라북도 8,375가구, 京畿道 5,858가구, 평안남도 5,309가구, 황해도 5,199가구, 평안북도 5,116가구, 전라북도 4,923가구, 경상북도 4,767가구, 충청남도 3,750가구, 함경남도 3,058가구, 강원도 2,194가구, 충북 2,072가구, 함경북도 572가구였다.⁵⁵⁾ 전체 가구 대비 날품팔이 가구의 백분율은 한성부가 17.5%로 가장 높았으며 경상남도 2.83%, 평안북도 2.81%, 평안남도 2.67%, 京畿道 2.39%, 전라북도 2.34%, 全羅南道 2.29%, 등의 순이었다. 개항장이 있는 도의 날품팔이 가구 분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인의 이민 역시 개항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들 개항장의 노동자들이 주로 이민선을 탔던 것이고, 이민자들은 이처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며 호구지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들이었다.

54) 朴贊勝, 「活貧黨의 活動과 그 性格」 『한국근대정치사연구』, 사계절, 1985, 480쪽

55)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09년

조선과 日本의 교역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은 米穀이라고 전술하였는데, 日本의 미곡 수탈은 1894년 淸日戰爭에서 日本이 승리함으로써 더욱 노골화 되었다.⁵⁶⁾ 조선은 매년 40만 이상의 쌀을 수출이라는 명목으로 日本에 수탈당하였다. 조선에서 日本으로 수출한 미곡은 1899년 437,715섬이었으며, 1900년에는 1,131,787섬이었다.⁵⁷⁾ 이는 日本의 미곡 수입량의 반에 달하는 것이었다.⁵⁸⁾ 정부와 지방관아에서는 防穀令으로 대응하였으나⁵⁹⁾ 日本의 강압적이고 끈질긴 防穀令 해제요구에⁶⁰⁾ 번

56) 『高宗時代史』 3, 405쪽.

57) 大豆 수출량은 1899년 697,943섬, 1900년 885,025섬이었다. 『皇城新聞』 1901년 5월 18일

58) 日本은 1900년 49.5%, 1901년 46.8%를 조선에서 수입하였다. 村上勝彦, 앞의 책, 22쪽

59) 개항 이후 防穀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81년 경상감사 防穀令, 1884년 황해 鳳山·長湍 부사 防穀令, 1886년 경상감사 防穀令, 1887년 경상감사 防穀令, 1888년 8월 경상감사 防穀令, 1889년 황해도·함경도 防穀令 1890년 함경도 防穀令, 1891년 11월 京畿道 長湍·坡州·朔寧·麻田·積城·豊德지역의 각수령 防穀令, 1891년 경상도 각 읍 수령 防穀令·함경감사 咸興·定平지방에 防穀令, 1892년 羅州·金海의 防穀令, 1893년 10월 24일 부산·원산항 防穀令 실시, 1897년 함경도·전라도·충청도 防穀令 실시, 1899년 충청도 防穀令 실시, 1901년 경상도·전라도 防穀令 실시 : 『高宗時代史』, 『舊韓國日本外交文書』, 『일제조선 侵掠일지』. 『皇城新聞』 1901년 7월 25일

60) 日本의 防穀令에 대한 대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日本대리공사 近藤眞鋤는 1888년 평남의 防穀令 실시가 양곡약탈무역에 장애가 된다고 항의하였고, 1889년에는 황해도 지역 防穀令 철폐와 함께 日本상인에게 몰수한 곡물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정부에서 내정 간섭이라고 거절하기는 하였으나 방공령을 철회하지 않는 함경 감사 조병식을 교체할 것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日本 주재 영사대리 히사미쯔는 1890년 2월 19일 防穀令을 실시한 함경

번이 해제하였다.⁶¹⁾ 한편 日本상인을 통한 日本제 쉬팅(Sheeting) 및 小幅木棉의 한국 수입으로 조선의 土布 역시 경쟁력을 상실하여 조선 농민들은 더욱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⁶²⁾

한편 19세기말 조선에는 가뭄과 홍수와 전염병이 발생하여 백성들의 삶을 위협하였다. 1876년 7월 경기와 三南 지방에 가뭄과 서리의 피해를 시작으로 이후 2,3년에 한번씩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가옥이 유실되었다.⁶³⁾ 1879년 6월에는 日本에서 전파된 콜레라가 창궐하

도 조병식 등 관리들을 위협하기 위하여 군함 1척을 함흥에 파견할 것을 日本정부에 제기하도록 할 정도로 조선에서의 미곡약탈에 집착하였다. 1891년에는 日本공사 梶山鼎介가 함경도 防穀令에 대해 日本상인 손해금 147,168圓을 요구하여 정부에서는 1893년 6월 청에서 은 35,000원을 차관하여 배상하였으나 계속해서 나머지 액수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므로 1901년 5월에는 나머지 11만원을 6개년에 걸쳐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日帝朝鮮侵略日誌』, 『高宗時代史』, 『舊韓國外交文書』 日案 6336호, 6343호, 6353호, 6354호, 6408호.

61) 조선의 일인에 대한 防穀令 해제는 다음과 같다. 1887년 03월 05일(음) 정부, 부산 등지의 소가죽세·防穀令 해제, 1887년 12월 14일(음) 경상도 防穀令 해제 (1887. 12. 29~1888. 1. 26.), , 1890년 02월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 함경도 防穀令 해제 명함, 1894. 2.1 부산 인천 원산항 防穀令 해제, 1901년 10월 30일 외부대신 박제순, 각국 공관에 防穀令을 11월 15일부로 해금한다 고 통고: 『日帝朝鮮侵略日誌』, 『高宗時代史』, 한길사, 『한국사』 26(연표), 『舊韓國日本外交文書』, 『皇城新聞』 1901년 11월 1일.

62) 정문중 옮김, 村上勝彦 지, 『식민지』, 한울출판사, 1984, 18~32쪽.

63) 1878년 6월에는 경상도와 전라도에 폭우가 내려 민가 763호가 유실되고 9명이 사망하였다. 1879년 여름에는 중부 이남 지역에 폭우로 251명이 사망하였으며 가옥 7,921호가 유실되었다. 1881년 8월 경상도 지방 폭우로 13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1,530여호의 가옥이 유실되었

였고, 1886년 6월에도 전국에 콜레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았다.⁶⁴⁾

1901·2년에도 가뭄으로 인한 기근 속에 1902년 7월 서북지방인 平安道 지역일대에 콜레라가 만연하여 사망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여⁶⁵⁾ 9월경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咸鏡道 城津에서는 연일 3·4백명씩 사망하였으며, 慶南 釜山과 固城에서도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심지어 京城 城內에서도 매일 2·3백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⁶⁶⁾

이렇게 민심이 흉흉해지자 高宗은 1901년 7월 23일 긴급하지 않은 토목공사 일체를 정지하고, 양곡반출을 금지하고 수입양곡에 면세하라는 詔을 내렸다.⁶⁷⁾ 이에 따라 外部大臣 朴齊純은 7월 24일 防穀令을 발효하고⁶⁸⁾ 수입 곡물에 면세조치를 통고하였다.⁶⁹⁾ 정부에서는 安南米 30만석을 수입하고자 계약을 체결하여 1902년 17,000여포, 1903년 65,190포를 수입하였다.⁷⁰⁾ 1900년 조선의 日本 수출 米穀 양은

다. 1883년 6월에는 황해도 남부지역 폭우로 1명이 사망하고 1,293호의 가옥이 유실되었으며, 1885년에도 전국에 폭우가 내려 피해가 극심하였다. 1887년에는 함경도 지방에 수해가 났고, 1895년에는 대구, 충주, 안동의 각 군에 폭우피해가 있었다. 한길사, 『한국사』 26(연표)

64) 한길사, 『한국사』 26(연표)

65) 『皇城新聞』 1902년 7월 28일, 31일.

66) 『제국신문』 1902년 8월 26일, 9월 20일, 9월 22일, 9월 23일, 9월 26일.

67) 『官報』 1901년 7월 23일 호외.

68) 『皇城新聞』 1901년 7월 25일.

69) 한길사, 『한국사』 26(연표)

70) 『제국신문』 1901년 7월 27일

1,131,787섬이었고 1901년에도 그 이상의 미곡이 수출되었는데, 정부에서는 바로 다음해 기근을 구제하고자 安南米를 수입하여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 주었다.

1901년 8월경에는 대홍수가 발생하여 全羅南道에서는 漂頹戶와 인명 溺死者數가 3,869戶 44명(全羅道 長興 제외)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⁷¹⁾ 이는 1900년 全羅南道 전체 118,139戶 중 3.3%가 가옥을 잃고 이재민이 되었던 것이고, 전체 인구 437,660명 중 0.1%가 익사한 것이었다. 全羅南道の 홍수는 인명피해보다는 가옥유실로 인한 이재민 피해가 더 컸고 이는 고스란히 정부의 기민구제 몫으로 남았다. 지역별 漂頹戶口 및 人命溺死者數는 光州 920戶, 羅州 927戶 17명, 長城 310戶 15名, 靈光 530戶, 潭陽 206戶, 南平 251戶, 昌平 90戶, 高敞 128戶 5명, 谷城 209戶 3명, 玉果 195戶 5명, 咸平 103戶, 長興 21戶, 光陽 82戶 였다.⁷²⁾

혹심한 가뭄에 이은 대홍수로 발생한 기민을 구제하고자 정부에서는 1901년 10월 16일 惠民院官制를 공포하였다.⁷³⁾ 이에 따라 12월 4일 서울에 總惠民社, 각 군에 分惠民社가 설치되었다. 혜민원에 책정된 예산은 1902년 총예산 7,585,877원 중 6,446원으로 이는 당해 년도 皇室의 歲出經常費는 90만원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액수였다.⁷⁴⁾ 이 부족

71) 『皇城新聞』 1901년 10월 11일

72) 『皇城新聞』 1901년 1월 10일

73) 『官報』 1901년 10월 19일

74) 『皇城新聞』 1902년 3월 3일~19일.

한 예산으로 혜민원은 기민구제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1902년 漢城府 五署내에서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은 19,683명이었다.⁷⁵⁾ 1901년 漢城 人口가 총 42,463戶에 193,606명이었으므로⁷⁶⁾ 대략 한성부에서는 10명 중 1명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忠南 지방에서도 流亡空戶가 103호였는데, 忠南의 饑民戶數가 작은 것은 饑饉으로 인한 遊離者가 많아져서 晝中晝夜가 空戶였기 때문이다. 기근에 허덕이던 백성들은 木皮와 萊根으로 겨우 연명하다가 어찌다가 粒穀을 먹게되면 폭사하기도 하였다.⁷⁷⁾ 이처럼 정부의 기민구제는 “爲民”의 구호만 있을 뿐 현실적인 구제가 되지는 못하였고, 혜민원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었다.⁷⁸⁾

이상과 같은 가뭄과 대홍수로 인한 기근과 콜레라 등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여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자, 정부에서는 미국을 수입하고 혜민원을 설치하였으나 기민구제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이에 高宗은 자신이 신임하던 駐韓美國公使 알렌(Horace. N. Allen)이 주선하는 이민을 통하여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당시 駐韓美國公使 알렌은 한인의 이민을 적극 추진하였는데, 1902년 10월 12일 미국 국무장관 헤이(John Hay)에게 보낸 한인의 하와이 이민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당시 상황과 이민의 상관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알렌은 이 보고서에서

75) 『皇城新聞』 1902년 1월 18일.

76) 『皇城新聞』 1902년 1월 24일

77) 『皇城新聞』 1902년 2월 12일.

78) 『皇城新聞』 1902년 3월 15일.

최근 한인들은 중국인들과 日本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하와이 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듣기로는 상당수의 한인들이 이번 겨울에 하와이로 가기위해 모여들고 있다고 하며 일부는 가족들도 데리고 간다고 한다. 지난겨울부터 이민국을 설치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최근에 발표된 그에 관한 법령들은 日本의 이민법을 모델로 한 것이다⁷⁹⁾

라고하여 한인들이 하와이에 이민지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大韓帝國 정부에서 1901년의 흑심한 흉년 때문에 겨울부터 이민국 설치문제를 거론하여 최근 日本의 이민법을 모델로 하여 법령을 만들어 이민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는 大韓帝國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중립을 지키라는 미국 정부의 지시를 어겼던 알렌이 자신을 보호하기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로 자신의 이민주도를 회피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한반도의 상황-자연재해와 전염병 발생으로 기근과 기아민 발생과 만연이 이민을 고려하게 하였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알렌은 하와이 주지사인 돌(Sanford. B. Dole)에게 보낸 공한에서도 1901년 겨울 다량의 安南米를 도입하게 되면서 한국의 官民이 이민문제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⁸⁰⁾ 이같은 당시상황 속에서 이민이 추진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하와이 現地狀況

하와이는 1778년 최초로 영국인 선장 쿡(Cook)와 접촉이 있었던

79) 패터슨, 『아메리카로 가는 길』, 82쪽.

80) 윤여준, 『京鄕新聞』, 1973년 10월 10일 「綏民院 설치」

이후 美國인 선교사, 고래잡이 어부, 커피경작자들, 설탕공장주들의 새로운 진출지가 되었다. 1835년 카우아이(Kauai)섬의 콜로아(Koloa)농장에서 시작된 설탕(사탕수수농업)은 커피를 대신해 19세기 후반 파인애플과 함께 하와이의 주요산업으로 대두되었다. 하와이에서는 1848년 토지분할과 더불어 토지사유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토지를 구입하거나 양도할 수 있게 되었다.

1850년 사탕수수농장 경영자들은 해외 勞働者들의 영입과 농장경영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왕립 하와이 농업협회(Royal Hawaii Agricultural Society)를 결성하였고, 같은 해 하와이의 사탕수수농장 경영인과 계약하에 하와이로 이민한 외국인 勞働者들과 관련된 계약-노동체제에 관한 법률이 구체화되었다. 하와이의 외국인 勞働者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상당히 엄격하여, 만약 그 계약을 어길 경우 감옥에 수감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계약은 美國의 노예제도와 거의 흡사하였으며, 이런 과정을 걸쳐 하와이 설탕농장 경영주들은 경제적인 특권층으로 발전하였다. 이들의 이러한 특권은 1898년 하와이가 美國이 영토가 되면서 美國법에 의해 계약勞働者와 농장주 간의 관계가 규제를 받는 중에도 일정기간 유지되었다. 즉, 1852년 약 293명의 중국인 계약勞働者가 켄톤(Canton)에 도착했을 때 하와이 정부가 이민勞働者들에 관한 조항들을 발표하였지만, 勞働者들의 수입과 이민을 장려하기 위한 조항이 통과되는 1864년까지 외국인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1865년부터 다시 약간의 중국인 勞働者들이 하와이에 도착하기 시작했는데, 일반적으로 농장주들은 중국인 勞働者들이 조용하고 근면하였

으므로 이들의 고용을 선호하였다. 이들 중국인 勞働者는 1882년에는 하와이지역 총 勞働者 10,234명 중 6,037명으로 전체 勞働者 중 49%나 되었다.⁸¹⁾ 게다가 하와이 왕국은 1887년부터 美國에 설탕을 비관세로 수출하게 되었고, 하와이의 설탕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1876년부터 1885년까지 최대의 중국인 노동이민이 발생하여 하와이가 美國영토에 통합되는 1898년까지 약 50,000명의 중국인들이 하와이로 이민하였다.

중국인의 하와이 도착 이후 농장에는 새로운 인종의 집단적 이민이 계속 발생하였다. 중국인 勞働者들의 계약기간은 3년이었는데, 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더 나은 조건의 도시로 이주하였다. 당시 하와이의 설탕농장은 각각 독자적으로 경영되었으며, 불공정한 작업환경과 낮은 임금, 긴 작업시간, 희박한 승진 기회, 공장주의 학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시간의 박탈로 악평이 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중국인 勞働者가 사탕수수 勞働者의 다수를 점하게 되자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주 연합 HSPA(Hawaiian Sugar Planters Association)에서는 사탕농장의 노동력이 단일종족으로 구성되면 근로조건 열악성에 대한 파업과 백인경영자에 대한 저항여건이 형성될 것을 우려하였다. 한편 당시 사회여론 형성에 영향력 있던 몰몬교 지도자 깁슨(Walter M. Gibson)은 1872년 9월 4일자 『Pacific Commercial Advertiser』 지에 「노동과 인구」라는 논설을 발표하여 중국인 勞働者 도입을 중지하고 日本人 勞働者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81) 고승제, 「하와이 이민의 사회학적 분석」, 59~71쪽.

에 HSPA에서는 反苦力團(Anti-Coolies Party)을 조직하고 이민국에 대해 중국인 勞働者 도입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⁸²⁾ 그 결과 1882년 中國人除外法(Chinese Exclusion Act)가 통과되어 중국인 勞働者의 입국이 금지되었다.⁸³⁾

中國人除外法으로 노동력 감소현상이 나타나자 하와이 정부에서는 日本人 勞働者 도입을 위한 외교교섭을 벌여 1886년 日本人 勞働者들이 본격적으로 하와이에 유입되었다. 그래서 1902년에는 日本人 勞働者가 하와이 노동인구 42,242명 중 31,029명으로 73.5%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日本人들 역시 숫적으로 증가하게 되자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였고, 이들은 45건의 파업을 일으켰다.⁸⁴⁾ 더구나 日本人 勞働者는 임금이 후한 미 본토로 이주하기 시작하여 하와이 사탕농장은 다시 급격한 노동력 부족현상에 당면하게 되었다. 盧載淵은

日本人은 …… 현지 하와이에서 소득하는 공가(노임)에 만족하지 않아서, 선편마다 대륙에 轉航하는 것이다. 당시에 하와이에서는 매일 10시간 노동 공전이 69센트요, 美洲에서는 1달러 25센트로부터 2달러까지 되었다.⁸⁵⁾

82) 고승제, 앞의 논문, 70~72쪽.

83) 이광규, 「在美韓人の 移民史」, 『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6, 947쪽

84) 현규환, 『韓國流移民史』 하권, 삼화인쇄, 1976, 794쪽 ; 고승제, 앞의 논문 70~72쪽

85) 盧載淵, 『在美韓人史略』 상권, LA, 1963, 703쪽

라고하여 日本인의 美國 本土行의 이유가 노임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HSPA에서는 日本인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키는 것도 수적 우위에 있는 것 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日本인 도입 억제책을 강구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日本인 도입 억제와 日本인 미국 본토 이주로 야기되는 부족한 노동력 대체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였는데 그 방법은 바로 대체 노동자로 韓人勞働者를 유입하는 것이었다.⁸⁶⁾ HSPA가 韓人勞働者 도입을 구상하게 된 것은 당시 하와이 사탕농장에서 지불하는 임금노동자의 임금 중 아시아계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었다. 당시 백인勞働者들에게는 월 150불, 아시아계 勞働者들에게는 70불이 임금으로 지급되었다. 따라서 값싼 아시아계 노동력을 원했던 HSPA에서는 중국과 日本을 제외한 아시아계 勞働者 도입책의 일환으로 한인 이민을 추진한 것이었다.⁸⁷⁾

2. 移民過程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주들로부터 한인이민 사업을 부탁받은 앨런은 1902년 봄 데셀러(David W. Deshler)를 이민모집책으로 선정하였다. 두 사람은 이민계획에 대해 광범위한 의논을 하였고, 8월 데셀러는 하와이에 있는 어윈(William G. Irwin)에게 모든 것이 다 준비되

86) 崔永浩, 「韓國人 初期 하와이 移民」, 『全海宗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1979, 703쪽

87) 1928년 당시 하와이 총인구 348,767명 중 日本인·중국인·필리핀인·한국인 등 동양계 인구수는 226,306으로 약 65%를 차지하여 동양계 인구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2/3선을 상회하였다. 이는 HSPA의 값싼 아시아 노동수입의 결과이다. 이광규, 앞의 논문, 947쪽, 고승제, 앞의 논문 75~76쪽

었다고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주들은 한국에 비숍(E. Faxon Bishop)을 대표자로 파견하였으며, 앨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데셀러는 高宗에게서 이민사업에 관한 독점권을 허가받게 되었다. 한편 高宗은 궁내부 내에 수민원을 설치하여 이민을 추진하게 하였고, 데셀러는 이민을 모집하였다.

데셀러는 이민 모집을 위해 東西開發會社와 비숍이 가지고 온 2만 5천불의 자금으로 大是羅銀行을 설립하였다. 이 두 회사는 이름만 다를 뿐 실제로는 데셀러가 이민사업을 위해 세웠던 것으로 같은 건물에 있었으며 각각의 역할만 다른 회사였다. 즉 동서개발회사는 이민을 모집하였고 이민과 관련된 재정업무는 大是羅銀行이 맡았다. 데셀러는 통역원 8명을 고용하였다. 첫 번째 통역은 정인수였는데, 정인수는 미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로 평양에서 최영화에게 영어를 배웠고 운산금광에서 일을 하다가 데셀러와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데셀러는 정인수 외에도 더 많은 통역이 필요했으므로 『皇城新聞』에 2월 6일부터 은행에서 일할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할 줄 아는 정직하고 품성이 훌륭한 젊은이를 찾겠다고 광고를 냈다.⁸⁸⁾ 이 광고를 보고 처음 찾아온 사람은 현순이었으며, 안정수, 김재호, 장경화, 송언용 등이 찾아왔다. 데셀러는 8명의 통역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하와이에 있는 농장에 통역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었다.⁸⁹⁾

데셀러는 이민을 모집하기 위해 신문에 학업과 시찰, 상업과 사업 그리고 농업을 목적으로 이민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다. 皇城新聞에는 다음과 같은 이민모집 광고가 났다.

88) 『皇城新聞』 1902년 12월 6일.

89) 정대화역, 패터슨 저, 『아메리카로 가는 길』, 88쪽

미모한부 근일에 미국인이 포와 지방의 개척에 수용할 역부를 정동 미 관부근에서 모집하난대 년소자 수백 명이 응모하여 방금 입거하는데 빙표는 緩民院으로 출급한다더라⁹⁰⁾

이 광고 외에도 동서개발회사의 이민 광고는 또 있는데 다음과 같다.

날씨는 누구에게나 적합하고 더위나 추위도 없다. 모든 섬에 학교가 있고 영어를 배우고 수업료는 무료다. 건강하고 바른 사람에겐 누구나 연중 일할 수 있는 농부들을 위한 직업이 있다. 월급은 미국 돈으로 15달러(조선 돈으로 67원)이고 일요일은 쉬고 하루에 10시간 일한다. 주택비, 연료비, 수도세, 병원비는 고용인이 지불한다.⁹¹⁾

또 조선정부에서도 공고를 냈다.

- (1) 하와이에 가고 싶은 자는 나라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 (2) 하와이의 날씨는 따뜻하고, 온도의 변화가 심하지 않다.
- (3) 교육 제도는 관대하고, 모든 섬에서 무료의 공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별 어려움 없이 영어를 배울 수 있다.
- (4) 농부들은 아무 때고 일거리를 찾을 수 있으며, 노동자들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된다.
- (5) 월급은 월 15달러이며, 日本 돈 30엔, 조선 돈 67원과 같다. 일하는

90) 『皇城新聞』 1902년 12월 13일자 12쪽. 페터슨은 데셀러가 지방신문에도 광고를 냈다고 하였다.

91) 서광운, 『미주한인 70년사』, 해외교포문제 연구소, 1971, 22쪽

시간은 하루 10시간, 일요일은 쉰다.

(6)농장주는 살 집을 주고, 피고용자의 의료비를 책임져 준다.⁹²⁾

이상의 광고에서 보듯이 하와이는 지상낙원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곳의 일은 별로 어렵지도 않으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와이에서의 생활은 훌륭한 복지시설들 속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킨 이민모집광고에도 불구하고 이민모집은 쉽지않아서 테샐러와 동서개발회사 직원들은 지방 항구들을 중심으로 하와이에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광고를 직접 붙였다. 그 광고문의 내용은 위의 광고문과 비슷한 내용으로 하와이에서 하게 될 일의 성격과 노임은 미국돈으로 지불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인들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고, 조상의 묘와 가족을 두고 멀리 떠나는 것이 쉽지는 않아서 이민모집에 쉽게 응하지 않았다.⁹³⁾

이민 모집이 난관에 부딪치자 앨런은 자신의 친구인 인천 내리교회 목사 존스(George Herber Jones)에게 이민모집을 부탁했다.⁹⁴⁾

92) 윤여준, 『京郷新聞』 1973년 12월 29일 3면, 「美洲移民 70年」

93) 패터슨저, 정대화 역, 『아메리카로 가는 길』, 88~89쪽

94) 두 번째 이민선을 탔던 양주은은 존슨목사가 閔泳煥을 만나서 조선사람을 외국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진언했다고 증언하였다. 양주은은 초기 이민자였으므로 존슨이 민영환을 만났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만, 양주은의 증언은 존슨이 이민사업이 시작되기전 민영환을 만났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이는 불확실해 보인다. 존슨과 민영환의 교분을 알 수는 없지만 존슨이 구지 민영환을 만나 이민 이야기를 했다면 이미 이민사업이 진행되어 민영환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던 존스는 하와이는 기후와 경치가 좋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 기독교인으로서 원주민들을 포교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민을 권유했다. 존스의 권유로 내리교회 교인 50명과 인천항 부두 노무자 20명이 하와이 이민을 신청하였다. 존스는 당시 다른 선교사들과 달리 이민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므로 내리교회에서는 전도사 張景化가 이민회사 총무가 되었으며, 내리교회 권사였던 安鼎洙는 통역관이 되고, 洪承河는 파송 전도사로 제1차 이민단과 함께 하와이로 떠났다⁹⁵⁾. 존스목사는 인천항에서 제1차 이민단이 모였을 때 천막을 치고 집회를 가졌는데, 존스 목사는 이민자들에게 곧 닥쳐올 미지의 세계, 새로운 경험에 대한 준비와 앞으로 그들의 비전에 대해 설교함으로써 이민에 대한 의지를 고양시켰다.⁹⁶⁾ 존스목사는 이민자들에게 서적을 나누어 주고 자신의 교회 직분자들에게 하와이 감리교회 목사에게 보내는 소개장을 써 주었다. 존스와 내리교회는 당시 많은 선교사들의 원망을 들을 정도로 이민에 적극적이었는데, 존스는 한인 선교활동이 고국에서보다 타국에서 더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집된 제1차 이민단 121명은 1902년 12월 22일 제물포항을 출발하였다. 이들은 주로 인천, 수원, 부평출신자들이었는데⁹⁷⁾ 인

綏民院 총재가 된 이후일 것으로 추정된다. 민병용, 『이민100년, 초기인맥을 쫓다』, 한국일보사, 1986, 29쪽.

95) 신흥식, 『내리교회 역사』, 16쪽

96) 최창희, 200쪽

97) 이들의 출신지 또는 이민전 마지막 거주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다루겠다.

천항에서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들 제1차 이민단은 새로운 세상으로의 출발을 기념하기라도 하듯이 단발을 하였다. 이 단발은 자신의 고향인 조선과 단절을 의미하는 의식이기도 하였다. 제1차 이민단은 쇼센기선회사의 ‘켄카이마루(玄海丸)’호로 제물포 항을 출발하여 12월 24일 나가사키(長崎) 항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그곳에서 日本인 의사에게 두 번째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 신체검사에서 20명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합격판정을 받은 이들은 당시 조선에서 콜레라가 유행하였으므로 이를 하와이에 옮기지 않기 위해 예방접종을 하였다. 신체검사에 합격한 이들 101명은 1903년 정월 초사흘, 미국 동서양기선회사의 상하이에서 오는 상선 겔릭(S.S.Gaelic)호를 타고 나가사키항을 출발하였다. 이들의 출발에 대해 皇城新聞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포와(하와이 : 필자주) 이민 인항에 체류하는 미국인(데셀러 : 필자주)이 한인의 포와(하와이 : 필자주)이민을 기획하여 그 모집에 착수하였음은 기보하였거니와 차는 미인(미국인 : 필자주) 떼슈라 씨 등이 모집함이라는데 위선응모한 한인 54명이 본월 22일 日本을 경하여 포와(하와이 : 필자주)로 발항하였다더라.⁹⁸⁾

皇城新聞에서는 이민자가 54명이라고 하였는데, 이 기사는 그동안 오자이거나 오보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는데⁹⁹⁾, 54명의 이민자는 순수

98) 『皇城新聞』 1902년 12월 27일자. 2면.

99) 오인환·공정자·김용하 공저, 「데셀러(Deshler)를 찾아서 : 인천에 남은 하와이 이민 송출 브로커의 흔적」, 『황해문화』 37, 새얼문화재단, 2002 겨울

한 노동이민인 남성들만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확한 기사이다. 당시 제물포항을 출발한 제1차 韓人移民團은 121명이었는데 日本에서의 신체검사에 합격하여 호놀룰루로 출발한 사람은 101명으로 남자가 56명 여자가 21명 어린아이들이 25명으로 102명이었다. 여자들은 남편을 따라 이민을 떠났던 부인을 말하는 것이고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따라 떠났던 11살 이하의 남녀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었다.¹⁰⁰⁾ 이들 101명 중에는 통상 이민자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남자의 수는 56명이었다. 그런데 이들 56명의 남자 중에 통역관으로 안정수와 정인수가 있었고 이들은 하와이 농장주 조합과 농장 현장에서 통역으로 일을 하게 될 것이었으므로 순수노동이민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하면 사탕수수밭 농장에서 일하게 될 순수 노동이민자는 54명이었던 것이다. 또 이 기사가 시사하는 바는 제1차 이민단이 제물포를 떠난 것이 22일이었고, 24일에 도착하였으며 이 기사는 27일에 보도되었는데 1월 3일 떠나게 되는 인원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단이 日本에 도착하자마자 곧, 27일 이전에 신체검사를 통해서 이민을 떠날 사람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日本에서 최종 확정된 이민자의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문에 보도할 만큼 조선 内の 한인 이민에 대한 관심이 컸다는 것도 알 수 있다.

102명의 제1차 韓人移民團은 1903년 1월 12일 화요일 밤 12시에 호놀룰루 외항에 입항하여 다음날 새벽 3시 30분까지 대기하다가 검역부두에 도착했다. 제1차 이민단을 마중 나온 사람은 인천의 존스목사가

100) 뒤에서 다루겠지만 제1차 이민단에서 21가족이 이민을 떠났다. 부모를 따라 떠났던 아이들은 미국 이민국 자료에 ○○○ 아들 혹은 딸로 기록되었는데, 아이들은 이들 24명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은 11세 이하였다.

소개장을 써 보낸 피어슨(George L. Pearson)박사였다. 그는 우선 스택카벌(Stackanle) 검역관에게 한국이민들이 평소 검역하는 섬으로 데려가는 대신 검역부두의 배 위에서 검역을 받도록 주선해 주었다. 호프만 의사(Dr. Hoffnan)가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8명이 트라코마(Trachoma)눈병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그들의 처와 3명이 아이들이 하와이 상륙이 거부되었고 86명의 이민들 즉, 남자 48명 여자 16명 아동 22명은 하와이 상륙이 허가되었다.¹⁰¹⁾

美國 移民局에 보관된 입국자 자료¹⁰²⁾에 의하면 1903년 1월 13일 호놀룰루에 도착한 한인은 101명이다.¹⁰³⁾ 여기에 빠진 정인수를 합하여 정리해 보면 가족이민자 21가족 67명과 독신이민자 35명 총 102명의 한인이 하와이에 도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중에서 가족이민 5가족 13명(가족이민자 가장5명, 그들의 妻 5명, 아이들 3명)과 독신이민자 3명 도합 16명의 하와이 상륙이 거부되고 가족이민자 16가족 54명(가장 16명, 그들의 妻 16명, 아이들 22명) 독신이민자 32명 총 86이 최초의 한인이민자로 호놀룰루에 상륙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제1차 한인이민으로 호놀룰루를 통해 입국한 한인이민자들은 아이들을 포함하여 남자

101) 패터슨 저, 정대화 역, 『아메리카로 가는 길』, 91쪽.

102) Records of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1783-1983 (Rwcord Group 85), Inbound Vessel, Passenger Manofests, Port of Honolulu, Box 536

103) 이 명단에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통역관이었던 정인수가 빠져있다. 이 명단에 전남 목포에 살던 17세의 정진수(Chung, Jin Soo)라고 기록된 이가 있긴 하지만 정인수의 오자 라고 보기는 어렵다. 1904년 11월 18일 도착한 이민자 중에 정인수가 있는데 이를 “Chung, In Soo”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 73명 여자가 29명이었다.

이들은 와이알루아(Waialua) 농장의 지배인인 굿데일(William W. Goodale)이 첫 한인 이민을 받겠다고 신청하였으므로 선로가 좁은 기차를 타고 오아후 섬의 북단에 있는 와이알루아 농장으로 가서 그 농장의 모쿠레이아(Mokuleia) 캠프에 투숙했다. 한인 이민자들은 하와이로 오는 항해기간 동안 아주 잘 지냈다. 농장주 역시 도착한 한인들이 괴로움을 호소하거나 불평을 늘어놓지 않아 호감을 가졌다. 굿데일은 이들에 대해 “그들이 일을 잘 한다. 그들은 농장 일에 익숙하며 꾸준한 사람들이다. 일을 잘 해낼 뿐 아니라 일을 하고 싶어하며 만족해 보인다”라고 한인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했다.¹⁰⁴⁾

농장주들은 한인 이민자들이 브라운(Brown) 감사원장과 스택카벨 이민 감독관의 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었다. 이것은 테셀러가 미국 이민국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두 통역관에게 여비와 잡비 모두를 이민자 자신들이 부담했으며, 사전에 노동계약도 체결한 바 없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조치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오랜 기간동안 준비되었던 한인 이민은 제1차 韓人移民團이 순조롭게 입국함으로써 실험적인 제 역할을 다하였다. 사실 농장주들에게는 한인의 노동력에 대한 기대보다는 日本인의 노동력 독점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더 컸기 때문에 한인 노동력의 질은 그다음 문제였다.

한편 하와이의 석간 <블린튼(The Evening Buletin)>도 제1차 韓人移民團의 호놀룰루 도착과 입국에 대해

104) 패터슨 저, 정대화 역, 『아메리카로 가는 길』, 96쪽.

비숍의 사명이 하와이 농장에서 중국인의 노동력이 끊어지자 이를 보충 하려는 목적을 가졌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만약에) 한국인들이 농장에게 훌륭한 노동자로 증명되고 이 나라를 좋아하게 된다면 앞으로 동양에서 오는 모든 우편 기선들이 한인들을 많이 싣고 올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¹⁰⁵⁾

라고 보도하였다. 이들 신문사는 이 한인의 이민이 불법적이었으나 합법적으로 위장된 사실을 몰랐지만 이번 이민은 실험적인 것이고 앞으로 한인 이민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예견함으로써 이 제1차 한인 이민의 성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사를 실었다.

제1차 韓人移民團이 도착한 후 비숍은 민영환에게 이들이 하와이에 성공적으로 도착했다고 편지를 보냈고, 민영환은 이 편지를 데셀러에게 보여주었으며 데셀러는 엘런에게 보여주었다. 하와이에서는 지파드가 샌프란시스코의 어윈에게 제1차 하인이민단이 이민국의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다고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시작된 한인의 하와이 이민은 1905년까지 이루어졌다.

3. 移民團의 人的構成

美國 이민국에서는 선박으로 美國에 도착한 이들의 명단을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관하고 있다. 이 기록에서 1903년에서 1905년사이 호놀룰루에 한인을 태우고 도착한 64편의 선박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⁰⁶⁾ 그동

105) 패터슨 저, 정대화 역, 『아메리카로 가는 길』, 91쪽 재인용

106) Records of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1783-1983 (Rwcord Group 85), Inbound Vessel, Passenger Manofests, Port of Honolulu, Box 536

안 이민단 수송선편은 1903년 16회, 1904년 33회, 1905년 16회로 총 65편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¹⁰⁷⁾ 이 자료에서는 1903년 16회, 1904년 33회, 1905년 15회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민선 64편의 선편별 도착 날짜들은 다음과 같다. 船名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갤릭(Gaelic) 903.1.13 / 1903.3.30 / 1904.1.23 / 1904.4.10 / 1904.6.25 / 1904.9.16
/ 1904.11.24

니폰 마루(Nippon Maru) 1903.4.30 / 1903.9.28

도릭(Doric) 1903.9.21 / 1903.12.5 / 1904.2.18 / 1904.5.6 / 1904.7.30 / 1904.10.17
/ 1905.1.6 / 1905.6.13

만추리아(Manchuria) 1904.11.2 / 1905.3.31 / 1905.6.20

몽골리아(Mongolia) 1904.7.8. / 1904.9.26. / 1904.12.9 / 1905.2.25 / 1905.5.18 /
1905.8.8

시베리아(Siberia) 1903.10.5 / 1903.12.28 / 1904.3.4 / 1904.5.20 / 1904.8.11 /
1904.11.29 / 1905.2.13 / 1905.5.8

아메리카 마루(America Maru) 1904.1.9 / 1904.4.17 / 1904.7.11 / 1904.10.1

차이나(China) 1903.4.14 / 1904.2.8 / 1904.4.26 / 1904.7.18 / 1904.10.6 /
1904.12.24 / 1905.3.10 / 1905.5.29

코리아(Korea) 1903.3.19 / 1903.6.1 / 1903.11.2 / 1904.1.16 / 1904.3.30 / 1904.9.5
/ 1904.11.18 / 1905.1.26 / 1905.4.13

콕틱(Coptic) 1903.3.3 / 1903.10.15 / 1903.12.28 / 1904.3.14 / 1904.1.1 / 1904.8.22
/ 1905.2.2 / 1905.4.24

홍콩마루(Hongkong Maru) 1903.11.18

이상에서 보듯이 갤릭(Gaelic)호는 1903년 첫 이민부터 1904년 11월까지 7번, 니폰 마루(Nippon Maru)호는 1903년에 두 번, 도릭(Doric)호는 1903년에서 1905년까지 8번, 만추리아(Manchuria)호는 1904년부터

107) 盧載淵, 앞의 책 458쪽 ; 金元容, 앞의 책 5쪽

1905년까지 3번, 몽골리아(Mongolia)호는 1904년 6월부터 1905년 8월까지 6번, 시베리아(Siberia)호는 1903년부터 1905년까지 8번, 아메리카 마루(America Maru)호는 1904년에 4번, 차이나(China)호는 1903년부터 1905년까지 8번, 코리아(Korea)호는 1903년부터 1905년까지 9번, 콕틱(Coptic)호는 1903년부터 1905년까지 8번, 홍콩 마루(Hongkong Maru)호는 1903년 한번 이민단을 실어 날랐다. 작게는 홍콩 마루(Hongkong Maru)호처럼 단 한번, 많게는 코리아(Korea)호가 9번까지 인천과 하와이를 왕복하였다.

이들 이민선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904년) 5월 13일에 태평양 우선 회사의 新造 거함 몽골리아가 桑港으로부터 처녀 항해로 호놀룰루에 도착하였다가 익일에 동양을 향하여 출발하였는데, 그 길이가 6백 15척이요, 넓이가 65척이요, 톤수는 1만 3천 6백 39톤이었다.¹⁰⁸⁾

몽골리아호의 자매함 만추리아 호가 桑港에서 처녀 항해로 호놀룰루에 도착하였다가, 익일에 동양을 향하여 출발하였다.¹⁰⁹⁾

즉, 이민선 중 몽골리아호와 만추리아호는 태평양 우선 회사의 소유였으며 각각 1904년 5월 13일, 9월 6일 처녀항해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몽골리아 호는 13,639톤의 거함이었으므로 만추리아 호와 기타 다른 이민선 역시 이에 준하는 거함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¹¹⁰⁾

위의 이민국 자료에는 64편의 이민선으로 1903년에서 1905년 사이

108) 盧載淵, 『在美韓人史略』, 464쪽.

109) 盧載淵, 위의 책, 465쪽.

110) 몽골리아호와 만추리아호는 1915년 6월 회사가 폐지되면서 매각되었다. 태평양 우선회사는

하와이에 도착한 韓人 移民希望者 7,415명의 이름이 나온다. 이들 중에 중복되는 사람을 제외하면 7,375명으로,¹¹¹⁾ 이들은 大韓帝國 정부에서 공식이민을 떠나 하와이에 이민자로 입국하기 위하여 도착한 사람들이었다. 즉, 大韓帝國의 첫 공식이민단이었던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미국 이민국 심사에 불합격하여 되돌아 와야 했으므로 모두 이민자로 하와이에 상륙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자료는 현재 韓人移民團의 자료 중 가장 완벽한 이민자 자료이다. 이는 영어로 기록되어있는데, 성명, 성별, 나이, 결혼여부, 직업, 한국의 마지막 거주지, 목적지, 여비 납부자, 지참금 액수, 문맹여부 등이 적혀있다. 姓은 이씨는 Ye로, 박씨는 Pak, 신씨는 Sin으로 표기되어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공식이민단 7,375명은 성인 남자 6,00여명, 부녀자 640명, 어린이 550명으로 1903년 1월 13일부터 1907년 8월 8일까지의 2년 7개월 동안 호놀룰루에 도착하였다. 1903년 16차 1,115명, 1904년 33차 3,464명, 1905년에 15차 2,796명이 호놀룰루에 도착하여 총 64회에 걸쳐 7,375명의 한인이 하와이에 도착하였다.¹¹²⁾ 64편의 선편으

산항해 법률로 타격을 받아 1915년 6월 회사를 정리하였다가 1916년 태평양 연안 상업가들의 운동으로 復設되어 에쿠아도르, 콜롬비아, 베네중엘라 세 척을 구입하여 운항하였다. : 盧載淵, 위의 책 507쪽

111) 하와이에 도착한 이민자 수는 미국 통계자료에는 7,291명으로 되어있으나, 이민국에 보관된 하와이에 도착한 한인은 7,375명이다.

112) 이민자에 대한 기록은 기록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盧載淵은 호놀룰루 이민국 기록에 따라 1903년 16차 1,233명, 1904년 33차 2,424명, 1905년 7월초까지 16차 2,659명이 도착하였다고 하였고, 金元容은 1903년 16차 1,133명, 1904년 33차 2,424명, 1905년 16차 2,659명이 도착하여 총 65차에 걸쳐 7,226명(남 6,048명, 부녀 636명, 남녀아이 541명)이 도착하였다고 한다.

로 하와이에 도착한 韓人移民團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	도착일자	배 이 름	도착인원	연도별누계
1903	1.13	갈릭	101	101
	3.3	콥텍	63	164
	3.19	코리아	69	233
	3.3	갈릭	93	326
	4.14	차이나	68	394
	4.3	니폰 마루	114	508
	6.1	코리아	3	511
	9.21	도릭	62	573
	9.28	니폰 마루	2	575
	10.5	시베리아	77	652
	10.15	콥텍	91	743
	11.2	코리아	107	850
	11.18	홍콩마루	54	904
	12.5	도릭	97	1,001
	12.28	콥텍	61	1,062
	12.28	시베리아	53	1,115
1904	1.9	아메리카 마루	89	89
	1.16	코리아	77	166
	1.23	갈릭	82	248
	2.8	차이나	157	405
	2.18	도릭	61	466
	3.4	시베리아	105	571
	3.14	콥텍	44	615
	3.3	코리아	107	722
	4.1	갈릭	91	813
	4.17	아메리카 마루	45	858
	4.26	차이나	150	1,008

盧載淵의 1903년 1,233명은 1,133명의 오타인 것으로 보여지며, 그동안은 7,226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高宗時代史』에도 간헐적으로 이민단의 인천항 출발 기사가 나오고 있다. 이민단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盧載淵, 『재미한 인사략』, 457쪽, 金元容, 『在美韓人五十年史』, 6쪽.

	5.6	도릭	66	1,074
	5.2	시베리아	181	1,255
	6.1	쿱틱	128	1,383
	6.25	갈릭	117	1,500
	7.8	몽골리아	175	1,675
	7.11	아메리카 마루	67	1,742
	7.18	차이나	48	1,790
	7.3	도릭	89	1,879
	8.11	시베리아	131	2,010
	8.22	쿱틱	153	2,163
	9.5	코리아	168	2,331
	9.16	갈릭	112	2,443
	9.26	몽골리아	155	2,598
	10.1	아메리카 마루	49	2,647
	10.6	차이나	70	2,717
	10.17	도릭	53	2,770
	11.2	만추리아	165	2,935
	11.18	코리아	144	3,079
	11.24	갈릭	66	3,145
	11.29	시베리아	27	3,172
	12.9	몽골리아	202	3,374
	12.24	차이나	90	3,464
1905	1.6	도릭	236	236
	1.26	코리아	342	578
	2.2	쿱틱	175	753
	2.13	시베리아	165	918
	2.25	몽골리아	191	1,109
	3.1	차이나	145	1,254
	3.31	몽골리아	273	1,527
	4.13	코리아	187	1,714
	4.24	쿱틱	169	1,883
	5.8	시베리아	323	2,206
	5.18	몽골리아	284	2,490
	5.29	차이나	225	2,715
	6.13	도릭	54	2,769
	6.2	몽골리아	25	2,794
	8.8	만추리아	2	2,796

표 1 . 선편별 이민

이상에서 보듯이 1903년에는 1월13일부터 12월까지 갤릭호(Gaelic)를 비롯한 8척의 배가 16번에 걸쳐 1,115명의 이민단을 실어 날랐다. 1904년에는 1년동안 아메리카 마루호(America Maru)를 비롯한 9척의 배로 33회에 걸쳐 3,464명의 이민단이 하와이에 도착하였으며, 1905년에는 8월 8일 몽골리아호(Mongolia)까지 7척의 배로 15회에 걸쳐 2,796명의 이민단이 하와이에 도착하였다. 이렇게 1903년 1월 13일부터 1905년 8월 8일까지 하와이에 도착한 이민자는 총 7,375명으로 이들은 남자가 6,714명, 여자가 659명이었다. 한인이민단은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는데 가족을 동반한 가족이민과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독신자 이민인데 가족이민은 500가족 1478명이고 독신자 이민인 5897명이었고 이는 하와이 한인사회의 인적기반이 되었다. 이민유형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	가족이민			독신자이민		계	
	가구수	이민자		이민자	백분율	이민자	백분율
		이민자	백분율				
1903	86	246	3.34	869	11.78	1,115	15.12
1904	240	710	9.63	2,754	37.34	3,464	46.97
1905	174	522	7.07	2,274	30.83	2,796	37.91
계	500	1,478	13.68	5,897	79.96	7,375	100

표 2 . 이민유형(단위 : 명, %)

이상에서 보듯이 가족이민은 1903년 86가족, 1904년 240가족, 1905년 174가족으로 변화하였으며, 1904년에 가족이민자가 가장 많았다. 독신자 이민은 1903년 869명, 1904년 2,754명, 1905년 2,274명으로 독신자 이민 역시 1904년에 가장 많았다. 이는 1904년 이민자가 가장 많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런데 1905년은 연초부터 8월 8일까지 7개

월 조금 넘는 기간동안의 이민인 점을 감안한다면 1905년이 한인이민의 정점이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韓人 이민은 日本의 강압으로 가장 정점인 시기에 중단되었던 것이다. 즉, 1905년은 이민의 절정기였던 것이다. 1905년 이민자 2,796명은 1904년 조선의 인구 5,928,802명 중 0.5%에 달하는 것이었다. 7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하와이 한 지역으로의 이민이 전체 인구의 0.05%에 달하는 것으로 인구 10,000명당 5명이 이민을 떠난 것이었다. 1904년 이민자가 있는 가구는 총 2,448가구이고 이는 총 가구 수 1,419,899의 0.172%였다. 즉, 10,000 가구 중 17가구에 이민자가 있었다는 것이다.¹¹³⁾ 한편 이민이 끝난 1906년 大韓帝國의 인구는 11,384,493가구 5,793,976명이었다.¹¹⁴⁾ 그러므로 1906년의 가구수와 인구를 기준으로 이민자를 계산해 보면, 전체 가구당 이민자 가구는 1.06%였고 전체 인구에 대한 이민자는 0.13%였다. 즉, 10,000가구 당 106가구에 하와이 이민자가 있었던 것이고, 10,000명 중 13명이 하와이로 이민을 떠난 것이었다. 2년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하와이 한곳으로의 인구이동 결과로는 상당한 것이었다. 이는 당시 大韓帝國 내 일반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되어 있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연도별 이민자의 성별 인원은 다음과 같다.

113) 1904년 조선의 인구는 1,419,899가구 5,928,802명이었다. 財務顧問部, 『韓國戶口表』 ; 통계청, 『통계로 본 開化期の 社會·經濟相』, 일지사, 1994. 113쪽

114) 朝鮮總督府, 『統計年報』(1910)

연도	남	녀	계
1903	1,007	108	1,115
1904	3,140	322	3,462
1905	2,567	229	2,796
계	6,714	659	7,373

표 3 . 韓人移民團 남녀분류

이상에서 보듯이 남자가 6,714명 여자가 659명이었다.¹¹⁵⁾ 즉, 1905년 8월경에 하와이에는 이 한인이민단으로 형성된 한국인들이 살고 있었으며 남녀 성비는 10:1정도였다. 이렇게 불균형한 성비를 이루었던 한인 이민단의 연령별 성별 인원과 백분율은 표와 같다.

	남		녀		계	
	인 원	백분율	인 원	백분율	인 원	백분율
0-10세	263	3.57	175	2.37	438	5.94
11-20세	856	11.6	92	1.25	948	12.86
21-30세	3,689	50.03	204	2.77	3,893	52.80
31-40세	1,856	25.17	148	2.00	2,004	27.18
41-50세	41	0.56	23	0.31	64	0.87
51-60세	7	0.09	15	0.02	22	0.03
61세 이후	2	0.03	2	0.03	4	0.05
계	6,714	91.06	659	8.94	7,373	100

표 4 . 연령별 성별 인원과 백분율(단위 : 명,%)

표에서 보듯이 남자와 여자 모두 2,30대가 가장 많은데, 이는 전체의 79.98%를 차지하고 있다. 11세에서 20세까지의 남자가 856명으로 전체 중 11.6%나 된다. 이들 10대들은 부모를 따라온 아이들도 있지만 단독 이민인 경우도 있었다. 10세 이하 아동의 경우 거의 대부분 부모를 따

115) 이 통계를 내는데 중복자나 사망자는 빼지 않았으나 미상인 경우는 뺐다.

라운 아이들이었다.¹¹⁶⁾ 연도별 연령별 인원은 아래와 같다.

	1903		1904		1905		계
	남	녀	남	녀	남	녀	
0-10세	39	25	141	94	83	56	438
11-20세	99	18	404	42	353	32	948
21-30세	592	40	1,695	89	1,402	75	3,893
31-40세	272	24	876	73	708	51	2,004
41-50세	5	1	19	14	17	8	64
51-60세	0	0	4	8	3	7	22
61세 이후	0	0	1	2	1	0	4
계	1,007	108	3,140	322	2,567	229	7,373
총계	1,115		3,462		2,796		

표 5 . 연도별 연령별 성별 분류(단위 : 명)

연도별 성별 비율 역시 남녀 비율이 10:1이며, 2, 30대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인이민단은 연령별 성별 구성에 있어서 연도별 차이점은 별로 없다. 이들의 결혼 여부는 다음과 같다.¹¹⁷⁾

	남			여			계
	미혼	기혼	홀아비	미혼	기혼	과부	
0-10세	264	0	0	175	0	0	439
11-20세	619	198	39	19	72	0	947
21-30세	1,099	1,681	908	1	202	1	3,892
31-40세	145	954	756	0	139	5	1,999
41-50세	2	21	18	0	10	12	63
51-60세	0	3	4	0	4	12	23
61세이상	0	0	2	0	1	1	4

116) 친척을 따라 온 아이들도 있었다.

117) 결혼여부가 불분명한 이들은 통계에서 뺐다.

계	2,129	2,857	1,727	195	428	31	7,367
---	-------	-------	-------	-----	-----	----	-------

표 6 . 결혼여부(단위 : 명)

기혼여자 대부분은 남편을 따라 가족과 함께 이민을 왔으므로 가족 이민의 숫자는 기혼여성의 수와 비슷하여 가족이민자는 500가족 1,478명이었음은 전술하였다. 과부 31명이 의미하는 것은 이들은 장성한 아들을 노동이민으로 내세워 가족과 함께 이민을 온 경우이다. 남자 기혼자 2,857명 중 428명만이 부인 등 가족과 함께 이민을 온 경우이고 1,400여명은 결혼은 했으나 가족은 조선에 남겨둔 채 홀로 이민선을 탄 경우이다. 여자 미혼자는 모두 부모나 친척을 따라 가족이민으로 온 경우이다. 남자 미혼자는 10세 이하의 몇몇을 제외하고는 가족이민으로 부모나 친척을 따라 온 경우이며¹¹⁸⁾, 3·40대는 독신이민인 경우이다. 10대 미혼자는 대략 14세 미만은 부모를 따라 이민을 온 경우이고 14세 이상은 독신이민이다. 할아버지는 자녀 등의 가족을 동반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홀로 이민선을 탄 경우이다. 연도별 결혼여부를 남녀별로 분류한 것이 표7·8이다.

한편 이민자들을 성씨별로 분류해보면 모두 95개의 성씨이며 이들 중 상위 순으로 정리하면 김씨 1,731명, 이씨 1,188명, 박씨 617명, 정씨 307명, 최씨 193명, 한씨 183명, 강씨 171명, 임씨 166명 등이었다. 이 성씨 분류는 여자의 경우 성씨가 표시된 이들은 제 성씨로 분류했고, 성씨가 표시되지 않은 이들은 남편이나 아들의 성을 따랐다. 가족이민

118) 간혹 이민자 명단 중 10세 이하 아동의 경우도 혼자 온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혼자 이민 선을 타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1903			1904			1905			계
	미혼	기혼	홀아비	미혼	기혼	홀아비	미혼	기혼	홀아비	
0-10세	39	0	0	142	0	0	83	0	0	264
11-20세	67	24	8	299	86	19	253	88	12	856
21-30세	131	294	167	568	727	400	400	660	341	3,688
31-40세	20	162	90	78	463	335	47	329	331	1,855
41-50세	0	5	0	0	11	8	2	5	10	41
51-60세	0	0	0	0	1	3	0	2	1	7
61세이상	0	0	0	0	0	1	0	0	1	2
계	257	485	265	1,087	1,288	766	785	1084	696	6,713

표 7 . 연도별 결혼여부(남)

	1903			1904			1905			계
	미혼	기혼	과부	미혼	기혼	과부	미혼	기혼	과부	
0-10세	25	0	0	94	0	0	56	0	0	175
11-20세	3	15	0	12	30	0	4	27	0	91
21-30세	0	39	1	0	89	0	1	74	0	204
31-40세	0	23	1	0	69	0	0	47	4	144
41-50세	0	0	1	0	9	4	0	1	7	22
51-60세	0	0	0	0	2	7	0	2	5	16
61세이상	0	0	0	0	1	1	0	0	0	2
계	28	77	3	106	200	12	61	151	16	654

표 8 . 연도별 결혼여부(여)

자의 성씨를 분류하면 김씨가 345명으로 가장 많고 이씨 228명, 박씨 140명, 정씨 75명, 유씨 53명, 최씨 50명, 한씨 43명, 신씨 41명, 조씨 40명 등이었다. 전체 성씨 중 비율이 높은 이씨와 박씨가 역시 가족이민자가 많고 정씨, 유씨, 최씨, 한씨, 신씨, 조씨 등이 가족이민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7,375명의 大韓帝國에서의 마지막 거주지는 지명만 적혀 있다. 이 지명을 이민단이 출발했던 당시의 도별(서울 별도)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가족이민자와 독신이민자 수로 분류하면 표9와 같다.¹¹⁹⁾

도명	가족이민자	독신이민자	계
강원도	32	150	182
경기도	203	501	704
경상도	121	492	613
서울	172	578	750
전라도	33	111	144
제주도	2	78	80
충청도	13	89	102
평안도	267	103	370
함경도	58	216	274
황해도	30	135	165
계	931	2453	3384

표 9 . 지역별 이민자 수

위의 도별 분류는 마지막 거주지 중에서 도가 확인 가능한 것만 분류한 것이다.¹²⁰⁾ 이에 따르면 서울이 가장 많고 京畿道, 慶尙道, 平安道, 咸鏡道, 江原道, 黃海道, 全羅道, 忠淸道, 濟州道 순이다. 가족이민자는 平安道가 가장 많고, 京畿道, 서울, 慶尙道, 咸鏡道, 黃海道, 全羅道, 江原道, 忠淸道, 濟州道 순이다. 독신이민자는 서울이 가장 많고 京畿道, 慶尙道, 咸鏡道, 慶尙道, 黃海道, 全羅道, 平安道, 忠淸道, 濟州道 순이다. 즉, 독신이민자 중에서 서울, 京畿道, 慶尙도에 살던 이들이 61%를

119) 1905년 9월 하와이 한인사회를 시찰차 도미했던 尹致昊의 보고에는 원적을 기록한 2,366명의 이민자 중 경기 906명, 平安道 696명, 경상도 677명, 전라도 335명, 황해도 253명, 강원도 155명, 충청도 148명으로 기록되어 있어 비교해볼만하다. 『大韓每日申報』, 1905년 1월 12일.

120) 精神文化研究院, 국역 『韓國誌』, 1984. 이 외에도 각 지역의 연혁을 참고하였다.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인 이민자들이 가족을 데려오거나 사진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여권을 발급받은 상황을 보면 더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표는 1910년에서 1924년 사이 하와이의 韓人들이 日本 외무성에서 여권을 발급받은 1,935의 여권 중에서 지역이 미상인 11개를 뺀 1,922개를 도별로 분류한 것이다.

도명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서울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총계
발급수	84	341	706	122	132	50	281	82	124	1,922

표 10 . 도별 여권 발부 수(1910-1924)

이 표에서 보면 경상도, 京畿道, 平安道, 서울 사람이 여권을 많이 발급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특히 경상도는 706개로 36%나 된다. 이는 하와이에 경상도 출신의 여성이 많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영남부인회가 조직되는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Ⅲ. 韓人社會의 定着

1. 農莊雇傭과 奴隸勞動

1903년에서 1905년 사이 7,400여명이 이민으로 하와이에 도착하였는데, 이들은 이민 전 농민, 부두노동자, 일용근로자, 광부, 머슴, 하급관리, 하급 군졸 등의 직업에 종사하던 이들이었다.¹²¹⁾ 1903년 1월 13일 하와이에 도착한 韓人移民團은 하와이 호노룰루 와이알루아(Waialua) 농장에 배치되었고, 이후 하와이에 도착한 한인들도 하와이 각 농장에 배치되었다. 1905년 하와이에는 몰로카섬에 9개, 라나이섬에 4개, 카우아이 섬에 19개, 오아후섬에 21개, 마우이섬에 32개, 하와이섬에 52개의 사탕수수 농장이 있었다.¹²²⁾ 한인들은 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開墾·種苗심기·김매기·灌溉事業·사탕수수 베기·운반 등 하루 12시간씩 중노동에 종사하였다.¹²³⁾ 농업이나 노동의 경험이 거의 없었던 한인 노동이민자에게는 노동의 강도도 힘든 것이었고, 집단농장의 통제된 작업과 백인 감독들의 가혹함 때문에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

첫 노동이민자들은 긴 판자집의 농막에서 거주하고, 인종이나 민족의 구별없이 공동으로 생활하기도 하였다. 환경이 열악했던 농장에는 음식이 부족하여 고된 일에 시달리는 한인들은 병을 얻어 앓는 사람이 늘어났다.¹²⁴⁾ 새벽에 기상하여 식사한 후 6시에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121) 姜信杓, 『檀山社會와 韓國移住民』, 韓國研究院, 1980, 26쪽.

122) 패터슨저, 정대화 역, 『아메리카로 가는 길』, 180쪽.

123) 盧載淵, 『재미한인사략』, 458쪽.

124) S. F. Moore, 「One Night with Koreans in Hawaii」, 『The Korea Review』, Vol. 3 (Dec. 1903), 523쪽.

점심의 휴식은 30분이었다. 하루 10시간씩 노동을 하였다. 한 줄로 서서 작업을 하였는데, 감독이 뒤에서 감시하였다. 감독은 韓人 勞働者들이 작업 도중에 옆 사람과 말도 못하게 하였고 담배를 피우지도 못하게 하였다. 심지어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뒤에서 채찍으로 등을 때리기도 하였다.¹²⁵⁾ 이와 같이 감독은 勞働者들을 마치 노예와 같이 다루었다

한인들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자유이민자로 미국 이민국을 속이고 입국하였지만 사실은 계약 노동이민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이민을 떠나기 전 농장주들로부터 하와이로 이주하기 위해 승선하였던 선비와 여비 그리고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지참금 50불을 先 지급받았다. 한인들은 농장주에게 이 빚을 갚기 위해 2년 동안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하도록 계약에 매여 있었으므로 농장주들의 노예로 취급받으면서도 농장을 쉽게 떠날 수는 없었다.

1905년 봄 하와이 주재 日本 영사가 농장주와 지배인을 대상으로 한인 농장 노동자에 대하여 비공식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HSPA의 보고서에 의하면 하와이 농장의 한인 노동자 총 수는 2,799명이다.¹²⁶⁾ 아래 표는 이 보고서에 근거하여 각 섬의 농장에 거주하는 한인 노동자의 수와 전체 노동자수에 대한 백분율을 표로 작성한 것이다.

125) 윤여준, 앞의 글, 1973년 11월 1일 「하와이 사탕농장」.

126) 패터슨 저, 정대화 역, 『아메리카로 가는 길』, 183~188쪽

섬이름	농장이름	전체노동자수	한인노동자수	백분율 (%)
카우아이(Kauai)섬	킬라우에아(Kilauea) 농장	342	65	19
	마키(Makee)농장	906	136	15
	리후에(Lihue)농장	1425	57	4
	콜로아(Kolia)농장	753	113	15
	맥브라이드(McBryde)농장	1200	192	16
	하와이설탕회사	1527	168	11
	게이와 로빈슨(Gay and Robinson)농장	183	22	12
오아후(Oahu)섬	케카하(Kekaha)농장	864	95	11
	오아후 설탕회사	967	203	21
	에바농장	2215	288	13
	와이알루아 농장	1338	107	8
마우이(Maui)섬	카후쿠 농장	667	80	12
	피오니어 밀(Pioneer Mill)	1320	66	5
	하와이 상업 설탕회사	2360	236	10
	키헤이(Kihei)	443	31	7
	마우이 농업회사	1550	93	6
	키파홀루(Kipahulu)	210	21	10
	하나(Hana) 농장	300	6	2
하와이섬	하와이 밀(Hawaii Mill) 농장	336	74	22
	유니언 밀(Union Mill)농장	243	17	7
	코할라(Kohala)농장	453	86	19
	할라와(Halawa) 농장	100	8	8
	태평양 설탕회사	490	49	10
	호노카아(Honokaa)	656	59	9
	파아우아우(Paauhau)농장	500	40	8
	하마쿠아(Hamakua)농장	433	39	9
	쿠카이아우(KuKaiiau)농장	150	3	2
	힐로(Hilo)농장	550	11	2
	오라아(Olaa)농장	1483	267	18
	하와이 농업농장	425	51	12
	허치슨(Hutchinson)농장	589	106	18
	푸아코(Puako)농장	333	10	3
계		25311	2799	11.05

표 11 . 1905년 초 한인 농장노동자

이 표에서 보듯이 한인 노동자들은 4개의 섬 32개 농장에서 농장 노동

자로 일하고 있었으며 한인 노동자가 가장 많았던 곳은 오아후섬의 에바농장으로 288명의 한인들이 있었다. 그 다음은 하와이섬 오라아 농장 267명, 마우이섬 하와이 상업설탕회사 236명, 오아후 섬 오아후 설탕회사 203명 등의 순서였다. 섬별로 보면 카우아이 섬이 848명으로 가장 많고 하와이섬 820명, 오아후섬 678명, 마우이섬 453명이었다. 즉, 카우아이 섬에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으며, 농장별로는 에바농장에 가장 많은 한인들이 있었다.

1903년에서 1905년사이 하와이에 도착한 한인은 7,400여명이었지만, 같은 기간 하와이를 떠난 韓人도 721명이나 있었다.¹²⁷⁾ 이들은 조선으로 혹은 미주 본토로 이주하기 위해 하와이를 떠났다. 1903년에서 1904년까지 103명(남90, 여9, 어린이 4), 1905년 618명이 하와이를 떠났다. 1905년에 하와이를 떠난 이들은 캘리포니아로 399명(남373, 여16, 어린이 10), 조선으로 219명(남190, 여15, 어린이 14)이었다. 캘리포니아로 떠난 이들은 미 본토 철도회사들이 하와이에서 노동력을 구하는데 응하여 본토로 떠나간 것이었다. 미 본토 철도회사에서 호노룰루에 사람을 보내어 노동자를 모집하였고,¹²⁸⁾ 韓人들은 이때부터 사탕수수 농장을 떠나기 시작하였다.¹²⁹⁾ 이 외에도 캘리포니아지방에서 새로이 전개되는 米作農園과 과수원에서 노동력을 구하자 하와이의 한인들이 이곳에 노동자로 가기위해 하와이를 떠났다.¹³⁰⁾ 1905년 3월 27일에는

127) 패터슨, 『하와이 韓人 이민 1세』, 181쪽

128) 이광규, 앞의 논문, 951쪽

129) 패터슨, 182쪽

호놀룰루의 『布哇新報』에 미주 S·N汽船會社가 호놀룰루와 샌프란시스코간 항로를 새로이 개척하여 취항한다는 광고와 함께 시애틀항에서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까지 철도 부설에 필요한 노동자 5천여 명을 하와이에서 모집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였다.¹³¹⁾ 이들 철도회사 대북(The Great Northern)철도회사와 북태평양(The Northern Pacific)철도회사는 하와이 한인노동자 유입에 매우 적극적이어서 두 회사의 대표가 직접 노동자를 모집하기 위해 2월 하와이 호놀룰루에 와서 광고를 낸 것이었다. 이들은 문흥석의 소유인 한성호텔에 본부를 두고 2월에는 일단 1달러 10센트, 3월에는 1달러 20센트, 4월에는 1달러 30센트, 5,6월에는 1달러 70센트를 임금으로 제안하였다.

하와이 한인들이 미 본토로 이주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이었다. 1903년 8월 당시 하와이 노동임금은 매일 10시간에 69센트였고, 미주에서는 1달러 25센트에서 2달러까지였다. 철도 노동자의 임금과 캘리포니아 과수원의 임금은 하와이 사탕농장의 배에 달하는 매일 1달러 50센트였으므로 한인들이 이주를 원하였던 것이다.¹³²⁾ 하와이와 미주의 임금 차이는 많을 때는 위에서 보듯이 3배까지 차이가 나기

130) 고승제, 앞의 논문, 84~85면. 당시 하와이 耕地勞動者數 증감표를 살펴보면 1905년 4,946명, 1906년 3,615명, 1907년 2,638명, 1908년 2,125명, 1909년 2,229명, 1910년 1,752명으로 나타나 있다. 즉 1905년을 기점으로 해서 매년 하와이 한인 노동자들이 격감하게 된다(『布哇朝鮮人事情』, 937~938면).

131) 盧載淵, 앞의 책, 466~467쪽.

132) 盧載淵, 앞의 책, 466~467쪽, 패터슨, 182쪽

도 하였다.¹³³⁾ 이러한 임금의 차이는 하와이 한인들이 강도 높은 노동과 저급의 임금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주 본토로 이주하게 하여 1905년경부터 한인들이 대거 미 본토로 이주하였다. 그래서 1905년 대략 하와이에 남은 韓人은 7천명이 조금 못되었다. 하와이의 한인들은 1905년부터 1907년 사이 약 천 여명이 미 본토로 이주하였으며, 1910년까지 2,011명이 이주하였다.¹³⁴⁾ 이렇게 이주한 한인들은 미주 서해안 여러 주에 흩어졌고, 이들을 인적자원으로 하여 미 본토 내에도 한인사회가 형성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미주 본토 내에도 독립운동지가 생겨나게 되었다.

한편 韓人은 1905년 하와이에서 숫자상 두 번째로 많은 노동이민자가 되었다. 위의 1905년 초 하와이 주재 영사의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당시 하와이 노동이민자 중 한인은 11%를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日本人 노동자가 66%, 중국인 노동자가 9%였으므로 1905년에 벌써 韓人 노동자 수가 중국인 노동자 수를 앞선 것이다.¹³⁵⁾ 1906년 초에는 하와이 농장의 韓人 勞働者는 4400여명으로 전체 농장勞働者의 10%가 되었다. 이들 중 300여명은 수송 등 기타의 노동에 종사하였고, 1906년 말 농장 勞働者는 3613명으로 줄어 중국인과 비슷하게 되었다.¹³⁶⁾ 이렇

133) 盧載淵, 앞의 책, 461쪽. 패터슨 182쪽.

134) 盧載淵, 앞의 책, 490쪽에 의하면 하와이로부터 미본토로 이주한 한인은 1905년 11월 4일 22명이 첫 기록으로 나타난다.

135) 패터슨, 192쪽.

136) 패터슨 103쪽

계 매년 감소한 韓人 勞働者는 1907년말 2638명(6%), 1908년말 2,125명(4.5%), 1909년말 2,229명(5.3%), 1910년말 1753명(4%), 1915년말 1449명(3%), 1916년 1300명(3%), 1920년말 2000명, 1921년말 1200명, 1924년말 1000명, 1930년대 초에는 500명으로 줄어들었다. 매년 농장 勞働者가 감소하는 가운데 1909년 잠깐 늘었던 것은 日本인의 파업으로 농장주들이 이를 상쇄하기 위해 韓人 勞働者의 임금을 높여줌으로써 韓人 勞働者들이 농장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었으나, 파업이 끝나자 이들은 다시 농장을 떠났다. 1920년에도 마찬가지로 파업 때문에 농장에 종사하는 한인이 늘어난 것이었다.¹³⁷⁾

2. 寫眞婚姻과 韓人社會의 安定

사진신부는 미주 이민자 중 동양인이 시작한 혼인방법이었다. 미국과 하와이에 있는 남자가 본국에 있는 처녀에게 사진을 보내 선을 보인 후에 그 사진을 보고 시집가기를 허락하는 처녀를 데려다가 혼인하던 일시적인 풍속이었고, 이것이 미국과 하와이에 이민을 온 한인과 중국인과 중국인들이 결혼을 하던 풍습이었다.¹³⁸⁾

사진혼인이 시작된 것은 미국과 하와이의 동양이민자 중에는 청년과 홀아비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한인의 경우에도 7,375명의 이민자 중 독신이민자가 5,894명이나 되었다. 이들 중에는 결혼을 하고도 가족을 두고 온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미혼자이거나 홀아비였다. 이들 독신 이민자들은 종일 농장에서 일하다가 밤이 되면 판자집에 몇 십명씩 모

137) 패터슨, 122쪽

138) 金元容, 『在美韓人五十年史』, 27~28쪽

여서 합숙하여 생활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였다. 이들 독신이민자들 중에 노름과 아편에 빠져드는 사람이 많아졌고, 술과 노름으로 싸움이 끊이지 않고 풍기가 문란해지면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주들은 독신이민자들이 결혼을 통하여 생활이 안정되기를 바랬지만, 미주와 하와이에는 동양인 여성이 없는데다가 국제혼인은 인종차별로 인하여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사진혼인이 시작되었다.

사진혼인은 미국 정부에서도 후원하여 사진혼인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동양여성들의 입국이 허락되었고 영주권이 주어졌다.

1910년의 센서스에 의하면 하와이에 거주하는 韓人 총수는 4533명이었다. 1905년 8월 8일까지 이민심사를 신청한 韓人 이민자가 총 7400여명이었으므로 1905~1910년 사이에 약 3천명 못되는 인구가 감소한 것이었다. 이들 중 천여 명은 조선으로 되돌아갔고, 천여 명은 美國 본토로 이주하였다. 1907년 3월 루스벨트 대통령이 하와이의 日本인과 韓人 勞働者들을 美國 본토로 이주할 수 없게 하는 시행령 589호를 발표하였고, 韓人들은 더 이상 본토로 이주하지 못하였다.

한편 1905년 조선에서 乙巳條約이 체결됨으로 하와이 이민이 금지되었고, 1907년 11월부터 美國 정부는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포고하였다. 따라서 韓人이 하와이 등 美國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日本 외무성이 발행하는 여권을 소지하여야 했으므로 1910년까지 하와이에 도착한 韓人은 거의 없었다. 1907년 11월부터 한국인들은 외국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日本 여권이 필요하였다. 하와이와 美國의 韓人들은 한국내의 가족이나 친지를 초청하기 위해서 日本 영사관이 있는 호놀룰루나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여권 발급을 신청하였

다. 하와이나 美國으로 가는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는 적었다. 1906년 한국에서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한국인은 1,558명이었는데, 미국으로 가기위해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단 1명 뿐이었다. 139)

하와이의 韓人들은 1910년에서 1924년 동양인배척법으로 日本인의 美國입국이 금지될때까지 호놀룰루 하와이 영사관을 통해서 여권을 발급받고 한국에 왕래했다. 이 여권 발급 명단이 동경 外交史料館에 있는데, 1910년에서 1924년 동안 모두 600여명정도가 여권을 신청하였고, 발급된 여권은 모두 1,933개이다. 이때 발급된 여권을 지역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도명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서울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총계
발급수	84	341	706	122	132	50	281	82	124	1,922

표 12 . 도별 여권 발부 수(1910-1924)

이를 연도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계
발급수	98	261	172	174	260	233	121	78	99	161	132	100	44	1933

표 13 . 연도별 여권 발부 수(1910-1924)

이상에서 보듯이 경상도가 가장 많은 여권이 발급되었고, 1916년 가장 많은 여권이 발급된 것을 알 수 있다. 여권을 발급받은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왕래하였는지, 한국에 왔다가 다시 하와이로 돌아갔는지 현재로

139) 朝鮮總督府, 『제1차 統監府統系年報』, 1908

서는 알 수 없지만, 이 기간동안의 사진신부들은 대부분 이 여권 발급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며, 사진신부의 대부분이 경상도 사람이었고, 1916년을 전후하여 사진혼인이 많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이때 여권을 발급받은 이유는 대부분 사진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것이었지만, 일부는 한국에 남겨진 부인과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한 여권도 있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하와이에 도착한 859명의 韓人들 중 여성이 800명인데, 이 800명중에는 사진신부와 이민자들의 한국에 남겨진 가족들 중 여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사진신부는 600명보다 작은 숫자임에는 틀림없다고 하겠다.

한편 『개벽』은 1923년 6월호에 「하와이에 사는 6천 동포의 실황」이라는 글을 실었다. 여기서 1918년에서 1921년까지 4년동안 한국에서 하와이로 초청된 인원이 223명인데 그 중 처가 179명, 아버지가 3명, 어머니가 3명, 자녀가 20명이라고하면서 179명의부인 중 85%, 즉 약 152명이 결혼을 목적으로 초청되어간 사진신부들이라고 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사진신부가 아닌 하와이 입국자는 약 53명 정도이다. 그러므로 사진신부가 약 68%가 되므로 이를 1910년에서 1924년 사이로 확대시켜보면 859명 하와이 입국자 중에서 68%인 대략 584명 정도 된다. 따라서 사진신부는 이제까지 알려진 천여 명보다 훨씬 적은 숫자였던 것은 확실하다. 사진신부 중 최초로 하와이에 도착한 韓人 여성은 최사라(Choi Sara)였는데, 그녀는 1910년 11월 28일 하와이에 도착하여 이래수의 부인이 되었다.

한편 여권발급자 명단은 이민 선박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명단과는 달리 이름이 모두 한자로 적혀있어, 이민자의 이름을 한자로 알 수 있는 기록이다. 이동진 원로목사의 장인 趙文七이 사진신부 沈永信을 데려오기 위해 신청한 여권이 1915년 1월에, 정남영 수의박사의 아버지 鄭

斗玉씨가 부친 鄭泰相을 다시 모셔오기 위해(1903년에 이민 왔다가 식구를 두고 한국으로 돌아갔음) 신청한 여권은 1924년 1월에 발급되었다. 車鳳學은 부인 崔奉信과 아들 車成賢을 위한 여권을 1912년 4월에, 사업가 安元奎는 어머니 正씨를 위한 여권을 1912년 1월에 발급 받았다.

사진신부의 도착은 韓人 이민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사진 신부의 도착으로 가족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美國 태생의 韓人 세대가 출현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진 신부들은 그 이전에 도착한 남편들보다 좀 더 교육 수준이 높았고 좀 더 계몽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진신부들은 남편들을 설득하여 농장 노동을 그만두고 도시로 진출하게 만들었다. 도시로 진출한 韓人들은 소규모 사업이나 교역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사진 신부들의 연령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남편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 그래서 사진신부에 의하여 맺어진 韓人 가정의 이혼율이 대단히 높았다.

3. 韓人團體의 組織과 活動

하와이에서 계속되는 노동이민으로 점점 증가하게 된 한인들은 각 농장 별로 상호보호를 목적으로 自治會를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1903년부터 1908년까지 6년 동안 각 지방별로 10명 이상의 동포가 거주하는 곳이면 洞會 또는 自治會를 조직하고 洞長과 査察을 선임하여 공공 질서와 친목을 도모하였다.¹⁴⁰⁾ 1903년 8월 하와이 호노룰루에서는 하와

140) 金元容, 『在美韓人五十年史』, 가주 리들리, 1959. 鄭斗玉, 『在美韓族獨立運動實記』,

尹炳奭, 『國外韓人社會와 民族運動』, 1990, 一潮閣,

이 최초의 정치단체인 新民會가 조직되었고 1907년 9월까지 총 26개의 한인단체가 생겨났다. 日本정부가 1904년 6월 한국정부에게 하와이주 재 日本영사를 한국명예영사로 임명하여, 하와이 한인에 대한 보호를 日本영사에게 위임하라고 요청하면서, 국외 한인들에 대한 日本의 지배 의도가 노골화되었다. 이에 하와이 한인사회에서는 1905년부터 抗日運動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단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단체들은 이후 하와이 한인사회 독립운동의 토대가 되었다.¹⁴¹⁾ 1903년에서 1907년 사이 하와이에 조직된 단체들은 표14와 같다.

(1) 洞會와 自助會

1903년 이민 초기부터 하와이에서는 대개 농장단위의 지방에서 10여 명 이상의 한인이 모여 사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洞會를 조직하여 洞中 질서의 친목, 그리고 상호부조·권익신장을 도모하였다.¹⁴²⁾ 동회의 일반적 조직은 주민회의에서 투표로 선임하는 洞長과, 동장을 보좌하는 總務·書記, 그리고 위법자를 조사하고 한국인 회합의 질서유지를 관장하는 査察로 구성되었다. 동장은 대외적으로 한인사회(동중)의 대변자였으며, 한인들간의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하고 각종 규율을 어기는 사람을 처벌하는 하급 재판관의 역할까지 담당하였다. 동장은 會中에서 연장자이면서도 과단성과 정직성, 성실성이 있고 교육수준이 높은 자가

김도훈, 「해외민족운동- 미주」, 『한국사』 47, 국사편찬위원회, 2001, 240쪽.

141) 金元容, 위의 책, 83~94면.

142) 金元容, 『在美韓人五十年史』, 1958, 658쪽.

단체명	창립일	장소	회장	발기인	목적 및 활동
新民會	1903.8 ¹⁴³⁾	하와이 호놀룰루	洪承夏	洪承夏 尹炳求 李交倓 林崑正 安正洙 林炯住 朴允燮 文鴻錫 김정국	구국정신 고취, 항일운동 ; 가와이·가파아지회 설립
에와親睦會	1905. 5	하와이 오하우	鄭元明	鄭元明 金聖權 姜永韶 尹炳求 金圭燮 이만춘	항일운동·일화배척·동족상애 ; 『친목회보』 발행
와이파후 共同會	1906. 3	하와이 오하우	安元奎	安元奎 진도원 정상교	환난상구, 일화배척
血誠團	1906. 5	하와이	공덕화	공덕화 申判錫	배일운동, 동족상애
自強會	1906. 6	가와이 막기윌리	송 건	송 건 洪宗杓 高錫柱 李觀默 이형기	실력양성, 교육장려 ; 월보 발행, 지회 설립
共進會	1906.12	하와이 호놀룰루	閔燦鎬	閔燦鎬 李來洙 林正洙	인재양성
老少同盟會	1907. 2	하와이	편성원	편성원 정병섭	동족상애, 일화배척
義誠會	1907. 2	마 위	김재규	거류동포의 공동 결의	항일운동, 일화배척
國民團合會	1907. 7	마 위	김건호	동회를 변경하여 조직	대동단결, 일화배척
新幹會	1907. 7	하와이	金成玉	동회를 변경하여 조직	무예장려, 항일운동
國民同盟會	1907. 7	하와이	채극여	채극여 김봉기	무예장려, 일화배척
實志會	1907. 7	하와이	朴勝烈	힐로동포의 공동 결의	무예·실업장려, 일화배척
復興會	1907. 8	마 위	서성년	서성년 전백전	인재양성, 일화배척
전흥 협회	1907.9 ¹⁴⁴⁾	하와이 호놀룰루	金翊成	金翊成 朴相夏 趙炳堯 최병현	大韓帝國부흥 운동, 교육장려 ; 월간회보 발행
洞會		하와이		코나남부 및 북부, 본동, 파야 하갈라우, 호노가, 와일루아, 나와이, 와이나이, 하나마누, 가파아, 하나 등 12개 단체	항일운동, 일화배척

표 14 . 초기 한인단체

선임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기가 어려울 때는 연장자 조건은 무시되기도 하였다. 동장은 교회 목사와 같은 교직자들이 겸임하는 경우가 많았다.¹⁴⁵⁾

동회의 自治 細目에는 친목 강화, 부녀자들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

143) 1904년 4월 해소

144) 1910년 4월 해소

145) 『京郷新聞』, 1973년 11월 1일, 尹炳堯, 『國外韓人社會와 民族運動』, 1990, 일조각, 262쪽

도박·음주의 금지와 캠프에서 부도덕한 여자를 허용하지 말 것 등이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밖에도 규율을 세분화하여 위반자에게는 벌금 1~2달러를 부과하는 등의 시행세칙이 있었다고 한다.¹⁴⁶⁾

동회와 비슷한 것으로 각 농장에는 한인 自助會가 조직되었다. 자조회를 조직한 것은 카후쿠(Kahuku)농장의 현순이었는데, 그는 1903년 3월 3일 처 이칭과 콕톡호를 타고 하와이에 도착한 데셀러 이민회사의 통역이었다. 현순이 있던 카후쿠 농장은 1905년초 80명의 한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다. 지배인이었던 애덤스는 카후쿠 농장의 한인들이 부지런하여 日本人 중국인 다음으로 선호하는 노동자라고 하였다. 한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애덤스는 현순에게 8월경 막사에 남아 결근자를 검색하고 병자들을 醫療所에 데리고 가는 일을 맡겼다. 한편 현순은 야간에는 英語學級을 시작했는데, 약 20명의 청년들이 출석했다. 이외에도 현순은 기독교회를 조직하고 윤치봉의 예배 인도로 매 주일 약 50여명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였다.

현순이 1903년 봄 조직한 自助會는 ① 상호 친교를 강화하고, ② 부녀자들을 존중 보호하고, ③ 도박·음주를 금하고 ④ 수상쩍은 여자들의 막사 출입을 금하는 것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 김홍금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카후쿠(Kahuku) 한인농장에 자조회 결성 소식이 하와이에 전체에 파급되자 많은 기혼 한인들이 카후쿠 막사 옮겨 왔다. 그 중에

146) 玄楯, 『My Autobiography』, 64p. 윤여준, 「美洲移民七十年」(14) 『京郷新聞』 1973년 월 일.

尹炳奭, 『國外韓人社會와 民族運動』, 1990, 일조각, 261~262쪽.

는 林定洙부부¹⁴⁷⁾, 洪治範부부와 그 부모, 누나, 여동생 등으로 대부분 평양출신 기독교 가족들이었다.¹⁴⁸⁾

동회와 자조회는 이름만 다를 뿐 그 성격은 같은 것이었다. 동회와 자조회는 야간에 영어학교와 한글학교를 열고 교회를 조직하고 한인들의 생활을 통제하고 보호하는 자치조직이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동회 이름은 1908년 합성협회가 결성될 때 참여한 동회의 이름이 남아있는데, 코나 남부·북부·본동 동회, 파야동회, 하갈라우 동회, 호노카 동회, 와일루아 동회, 나와이 동회, 와이나이 동회, 하나마누 동회, 하나 동회, 가파호 동회 등 12개가 있다. 自助會는 현순이 조직한 가후쿠 농장의 자조회가 있다. 한편 동회는 1907년 國民團合會 와 新幹會 등으로 변경되기도 하였지만, 하와이 섬의 코나, 하갈라우, 호노카, 파야, 가파야, 나와이, 와일루아 등 7곳의 동회는 변함없이 지속되었다.¹⁴⁹⁾

(2) 新民會

신민회는 이민 초기 이민자들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였다. 1903년 11월에 洪承河의 지도 아래 하와이 여러 섬의 우수한 청년들이 호놀룰루에 집합하였다. 이 모임에 모인 사람은 洪承夏,¹⁵⁰⁾ 尹炳求,¹⁵¹⁾ 安正洙,¹⁵²⁾ 林崑正,¹⁵³⁾ 李交倓,¹⁵⁴⁾ 朴允

147) 1910년 10월 15일 콕터호로 하와이에 도착한 이들로 평남 평양 사람이다.

148) Soon Hyun, MY AUTOBIOGRAPHY, Yonsei University Press, 2003) pp.275~276.

149) 金元容, 『在美韓人五十年史』, 94쪽

150) 洪承夏는 獨立協會에서 활동하다가 전도차 하와이로 와서 목사가 된 인물로 1903년 11월

變,¹⁵⁵) 文鴻錫,¹⁵⁶) 林炯住, 김정국 도라金¹⁵⁷)등 주로 기독교 감리교 계

10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인교회 최초로 전도회를 조직하고 하와이 한인감리교회를 담당하였다(愼鏞廈, 『獨立協會研究』 및 金元容, 앞의 책, 40·47면 참조).

151) 尹炳求는 1902년 이민시 통역으로 하와이에 온 인물로 후에 목사가 되었으며, 신민회와 에와친목회를 조직하고 한인사회를 이끌어 나갔다. 1905년 4월 오하우섬에 최초로 한인예배당을 건축하였으며, 7월에는 하와이 대표로 선출되어 러일강화회의에 李承晩과 함께 대표로 파송되어 韓國獨立請願書를 제출하였다. 그후 1907년 海牙萬國平和會議에 대표단으로 파견되는 등 주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조종무, 앞의 책, 100면; 金元容, 앞의 책, 311~312면 ; 盧載淵, 앞의 책, 467면).

152) 安正洙는 대של러의 동서개발회사에서 이민자 통역을 모집하자, 이에 응시하여 통역으로 발탁되었다. 그리하여 1902년 12월 22일 하와이 최초 이민시 통역으로 이민온 인물이다(윤여준, 앞의 글, 1973년 11월 1일 「하와이 사탕농장」).

153) 林崑正은 유학을 목적으로 1903년 가을경 이민왔다가 1904년경 다시 미 본토로 이주하여 共立協會 桑港地方會 會長을 역임하는 등 共立協會의 중추인물로 활동하였다. 그후 그는 李在明의 李完用 등 賣國敵 處斷을 후원하고 新民會에 관계하기 위해 귀국하여 大韓每日申報社의 회계부에 근무하면서 민족운동을 전개하다가 105인사건으로 피체되었다(『林崑正 京城覆審 제22회 公判始末書』 및 『共立新報』 참조).

154) 李交倓은 1904년 5월경부터 林炯住와 함께 하와이 한인감리교회의 전도사로 일했으며, 후에 미 본토로 이주하여 共立協會에 가입하였다. 그후 『共立新報』의 인쇄인으로 근무하다가 1908년 1월에 귀국하여 大韓每日申報社에 입사하면서 新民會의 활동에 적극 가담하였다(金元容, 앞의 책 및 『共立新報』 참조).

155) 朴允燮은 1903년 12월 일어에 능통한 관계로 이민국 통역 및 검사관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으며, 그의 부인도 영어 통역으로 임용되었다(盧載淵, 앞의 책, 462면).

통의 인사와 유학생들이었다. 이 모임에서 리버랜드 퍼어슨 목사의 지도 아래 한인감리교회가 호놀룰루에 설립되고 홍승하가 지방전도사로 임명되었다.¹⁵⁸⁾ 이들은 한국의 위험한 정세를 토론하고, 新民會(New People's Society)를 조직하였는데, 신민회는 최초의 정치적 활동 단체였으며 초대 회장에는 홍승하가 선출되었다.¹⁵⁹⁾ 신민회는 “구국정신을 고취하여 日本의 침략행동에 반항한다”는 목적과 “同族團結·民智啓發·國政刷新”을 강령으로 내세우면서 洪承夏를 회장으로 선임하였다.¹⁶⁰⁾ 또한 같은 해 12월 2일 가와이 가파아지방에 지회를 설립하여 회장 韓柱東, 부회장 張永煥, 서기 鄭鎭相 등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¹⁶¹⁾ 회원으로는 梁天泰·高錫柱·趙炳玉 등이 있었

156) 문홍식은 하와이 이주후 한성여관을 설립하여 미 본토 철도노동자 모집 대리사무소를 경영하였다(盧載淵, 앞의 책, 466면. 그러나 金元容의 『재미한인50년사』에는 문홍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157) 도라김은 1903년 9월 26일 니폰마루 호로 도착한 이민자로 제물포에 살던 여성 기독교 지도자였다. 후에 文女史가 되었다.

158) Soon Hyun, MY AUTOBIOGRAPHY, Yonsei University Press, 2003) pp.275~276.

159) Soon Hyun, MY AUTOBIOGRAPHY, Yonsei University Press, 2003), 276p.

鄭斗玉, 『在美韓族獨立運動實記』, 27~28쪽. 신민회가 1903년 8월 7일에 조직되었다는 기록도 있으나(金元容, 『在美韓人五十年史』 1958, 85쪽), 현순의 기록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160) 金元容, 1959. 『재미한인 50년사』, 캘리포니아, 85~86쪽,

161) 玄圭煥, 『韓國流移民史』 下, 1976, 三和印刷, 843쪽. 金元容, 『在美韓人五十年史』 1958, 85쪽

다.¹⁶²⁾

反日을 표방한 신민회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1904년 4월 20일 해체되었는데, 이는 한인들의 정치의식 박약과 종교적 분파, 그리고 前貸金 收捧事件으로 인한 분열 때문이었다.¹⁶³⁾ 감리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신민회에 반대한 것은 聖公會와 佛敎 교인들이었다. 특히 성공회 계열의 金翊成과 최윤백은, 그들이 발행한 속쇄판 『신조신문』에, “신민회는 그 이름이 ‘新民’이고, ‘國政刷新’을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으니, 이것은 大韓帝國 정부를 전복하려는 역적행위”라는 신민회 비난 기사를 게재하였다. 김익성·최윤백 등은 이러한 이유로 신민회를 본국 정부에 보고하여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윤치호가 파견되기도 하였다. 성공회와 불교측의 언론을 통한 신민회 비판은 신민회의 활동을 약화시켰다. 당시 하와이 동포들의 의식은 전통적 군주제에 머물고 있어 근대적 정치사상에 입각한 신민회의 회원모집이 어려웠는데, 이러한 “역적행위” 운운은 신민회의 활동을 더욱 위축시켰다.¹⁶⁴⁾

前貸金 收捧事件은 하와이 이주 당시 한인들이 이민경비로 지불받은 100불을 선지급 받은 것을 A. W. Taylor(전 운산금광의 사무원)가 부당하게 수봉하려하였으나 이에 대해 오아후섬 에와농장의 한인 8명이 항변하다가 징역 3개월의 옥고를 치르는 사건이었다. 이민경비 100달러는 한인들이 하와이에서 생활이 정돈되면 갚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지만,

162) 盧載淵, 『在美韓人史略』 上卷, 1951, 羅城, 460쪽.

163) 金元容, 『在美韓人五十年史』 1958, 85쪽, 鄭斗玉, 『在美韓族獨立運動實記』, 28쪽.

164) 尹炳奭, 앞의 책, 262~263쪽.

하와이 사탕농주동맹회에서 한인의 생활이 곤궁한 것을 고려하여 탕감하여 주었다. 이렇게 탕감된 이민경비를 테일러가 징수하려고 한 것이었다.

테일러는 1904년 2월에 수종자 줄리언과 한인 통변을 데리고 이민경비를 징수하려고 각 농장을 찾아다녔는데 그의 말과 행동이 매우 난폭했다. 이에 신민회는 곧 모임을 갖고 테일러를 규탄함과 동시에 각 지방 동포들에게 그의 협잡행동을 거절하도록 통고했다. 그런데 신민회의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회원 이교담·임형주·문경호 등이 테일러의 행동에 협조하여 회원들간에 분열이 생겼던 것이다.

2월 17일 테일러가 호놀룰루의 근처 에와농장을 찾아와 한인들을 협박하자 한국청년들이 테일러 일행에게 폭행을 가했다. 테일러는 곧 호놀룰루 법정에 자기는 은행사무원인데 물품대금을 받으러 갔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誣訴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린시 판사는 영문을 잘 몰라 테일러를 폭행한 8명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테일러는 자신의 협잡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종적을 감춰버렸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짐으로써 한인 8명은 풀려나 이 사건은 종료되는 듯 하였다.¹⁶⁵⁾ 그러나 이 사건은 신민회 내부에 갈등을 야기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신민회 회원들 사이에 시비가 계속되어 끝내 해체되기에 이른 것이다.¹⁶⁶⁾

한편 신민회를 조사하기 위하여 大韓帝國 정부에서는 외부협판 尹致

165) 徐光云, 『美洲韓人70年史』(僑胞政策資料 第15輯), 海外僑胞問題研究所, 1973, 32쪽.

166) 金元容, 앞의 책, 658~659쪽.

뜻가 파견하였다. 윤치호는 共立協會를 통해 본국정부에 보고된 멕시코 이민의 실상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되어 멕시코로 가던 중이었다. 윤치호의 파견은 『大韓每日申報』의 영국인 베델(裴說)의 멕시코 이민의 실정조사단 구성 요구가 여론으로 형성되자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파견한 것이었다. 日本을 경유하여 만추리아 선편으로 1905년 9월 8일 호놀룰루에 도착하한 윤치호는 신민회 조사를 위하여 호놀룰루에 머물게 되었다. 그는 도착한 날 저녁부터 누아누街의 한인예배당에서 한인들을 만났고 이곳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윤치호는 배멀미로 멕시코행을 포기하고 하와이농장주연합회장 F. M. 스웬스씨의 권유로 당시의 인텔리 閔燦鎬를 안동하고 각 지방의 한인들을 두루 살폈다.¹⁶⁷⁾ 당시에 하와이 한인들 중에는 윤치호에게 신민회가 역적 도모를 한다고 고발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웃음거리가 되었을 뿐이었다.¹⁶⁸⁾

노동자들이 친목단체인 동회와 자조회 그리고 정치 단체인 신민회 등을 통하여 한인의 이권을 보장받고자 하였으나 크게 미흡하였다. 근본적으로 한인의 이권이 보장받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한국영사가 하와이에 설치되어야 했지만, 일제의 침략이 가속화 되어가면서 日本이 이를 반대함으로써 하와이에는 한인을 외교적으로 보호할 영사가 설치되지 못하였다.

167) 徐光云, 앞의 책, 34쪽.

168) 鄭斗玉, 앞의 책, 00쪽.

(3) 獨立運動 團體

하와이에서 신민회가 해체된 1904년 국내에서는 러일전쟁의 발발과 日本의 승리의 결과 한일의정서가 강제로 조인되었다. 신민회가 해산되던 4월에는 閣議에서 ‘韓國保護權 確立의 件’이 결정되었다. 이 각의 결정 내용은 한국의 대외관계는 오로지 日本이 담당한다는 것, 재외 한국인 보호는 日本의 보호, 감독하에 둔다는 것, 한국은 외국과 직접 조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것 등이었다. 日本은 이 각의에 따라 1904년부터 하와이의 한인들도 日本 정부의 감독하에 두기 위해 日本 영사의 보호를 받도록 한국정부에 압력을 넣었다.¹⁶⁹⁾ 그러나 한인사회에서는 한인사회 보호를 위한 영사관 필요가 절실했으므로써 1905년 1월 본국에 영사관 설치를 요구하였다.¹⁷⁰⁾ 한인들이 영사관 설치를 요구하자 일제는 대한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호놀룰루 주재 日本총영사를 大韓帝國 명예총영사로 위임하도록 조치하였다. 해외 한인들마저 일제는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고 통제하고자 하는 이 조치에 하와이 한인들은 반발하여 日本영사관 감독을 거부하는 한편 1905년 8월에는 李東鎬를 總代로 선출, 국내로 파견하여 영사 파견을 外部에 간청케 하였지만 乙巳條約으로 끝내 실패하였다.¹⁷¹⁾

이렇게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신민회가 해산되고, 1905년 11월 17일에 乙巳五條約이 勒結되어 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하자 배일·항일의 식과 국권회복을 위한 정치사상이 팽배해 졌다.¹⁷²⁾ 하와이 한인들은 국

169) 『京郷新聞』 1973년 11월 20일.

170) 『皇城新聞』 1905년 1월 25일

171) 『皇城新聞』 1905년 8월 10일.

내의 동포를 도와주고 일제의 침략에 맞서 항일운동을 전개하여 국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조직된 단체는 血誠團·自強會·共進會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1907년 헤이그특사파견과 高宗의 강제퇴위, 丁未七條約 체결, 신문지법·보안법, 그리고 군대해산령이 연이어 시행되었다. 이렇게 일제의 침략으로 식민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국내에서는 치열한 의병전쟁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국내의 소식이 전해지자 하와이 한인사회에는 항일운동을 목적으로하는 단체가 속속 생겨나 의성회·國民同盟會·國民團合會·新幹會·復興會·電興協會 등의 항일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였다. 신간회는 국권회복을 표방하는 단체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후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결성되는 단체가 점점 많아졌다. 새롭게 조직되는 한인 단체 외에 기존의 동회역시 항일운동과 일화배척을 결의하여 하와이의 코나·하갈라우·호노카·파야·가파아·나와이·와일루아 등 7개 지방 동회가 항일독립운동을 표방하였다.¹⁷³⁾

이상과 같이 1907년 9월까지 하와이 각 지방에는 항일운동과 일화배척 그리고 동족상애 등을 목적으로하는 14개의 독립운동단체와 12개의 동회가 조직되어 한인 민족운동의 토대를 형성하였다. 이런 단체들을 정리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에와親睦會

172) 『대한매일신보』, 1905년 12월 13일, 雜報, 「遠民共憤」.

173) 김도훈, 「해외민족운동- 미주」, 『한국사』 47, 국사편찬위원회, 2001, 240쪽.

1905년 1월에 문경호 등 하와이 한인들은 한국정부에게 領事파견을 간절히 청원하였으나 한국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반면에 일제가 하와이 한인들을 그들의 통제하에 두려고 주한日本임시대리공사를 통하여 4월 21일에 한국 외부에 하와이 日本영사를 한국명예영사로 임용하라고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日本이 한국정부를 압박하여 하와이 주재日本영사를 하와이 한국명예영사로 곧 임명할 것이 예상되자, 하와이 한인들은 이의 대응책을 본격적으로 강구하여 에와 친목회를 조직하였다.

에와친목회는 1905년 5월 3일 오하우 에와농장에서 尹炳球·鄭元明·金聲權·姜永韶·金圭燮·李萬春 등이 발기하여, 항일운동·日貨排斥·동족상애를 목적으로 조직되었고, 鄭元明을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이러한 하와이 한인들의 대처에도 불구하고 大韓帝國 정부에서는 1905년 5월 5일 결국 하와이日本총영사 齋藤幹을 한국명예총영사로 정하고 日本정부와 미국정부에 이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하와이 한인들은 이에 불복, 李東鎬를 總代로 뽑아 7월말 경 한국에 보내 한국영사 파견을 직접 요청하였다. 이러한 하와이 한인들의 하와이 영사관 설치 염원은 乙巳條約 늑결로 좌절되었음은 전술한 바이다.

이에 에와친목회를 비롯한 하와이 한인들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공립협회와 더불어 在美韓人共同大會를 개최하고 日本을 배척할 것을 결의하였다. 에와친목회는 공립협회와 연서로 「排日決議文」을 작성, 한국정부에 발송하여 항일운동을 본격화하였다. 이 배일결의문을 계기로 하와이 한인사회에서는 항일의식에 기초한 독립운동단체가 본격적으로

설립되었다.

에와친목회는 1906년 5월 8일 속쇄관으로 『친목회보』를 발행하여 각처에 발송했다. 김성권과 김규섭이 주필이었던 『친목회보』는 한인들의 지식을 발달시키고 情誼를 친목하여 결속을 다지며 애국정신을 고취하고자 하였으며, 1년 동안 월간으로 발행되었다.¹⁷⁴⁾

에와친목회는 결성 이후 샌프란시스코의 대지진에 의연금을 보내고 국내의 국권회복운동에도 지원금을 보내어 에와친목회가 에와농장의 한인들 친목을 넘어서 하와이와 미주 더 나아가 국내 한인들의 친목과 번영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였으며, 그 기본은 독립운동을 표방하는 단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렸다.

에와친목회가 결성되고 난지 1년 후인 1906년 4월 18일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일어났다. 이에 에와친목회는 환난을 만난 동포를 구출하기 위해 금화 27元과 친목회장 정원명과 서기 白允祚 명의로 동포들을 위문하는 편지를 샌프란시스코 공립신문사에 보냈다. 에와친목회는 이 편지에서 “미국인의 구제는 다시 말할 바 없지만,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각국 사람들은 모두 그 나라 공사와 영사나 회사가 있어 힘써 구조할 것이요, 청과 日本도 거액의 재정을 보내 환난을 당한 백성을 구제하는데, 우리 동포는 누가 구제하며 누가 위로할 것인가.” 라고 하여 실제적으로 국권을 상실한 대한인의 슬픔을 표현하였다. 이어서 공립협회가 천신만고로 정성과 혈성을 다하여 상항에 공립관을 설립하여 동포들을 편리하게 인도하며 학업과 노동을 주선한다는 말을 듣고, 우

174) 金元容, 앞의 책, 661~662쪽. 『皇城新聞』, 1907년 5월 27일, 雜報, 「布哇志士 親睦報」.

『太極學報』第11號, 1907년 6월 24일, 「親睦會報」.

리나라의 독립을 회복할 기초가 확실히 샌프란시스코 공립협회에 있다고 믿었는데, 불행히 하루아침에 남은 것이 없이 다 불탔다 하니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안타까워하였다. 그러나 공립협회가 더욱 열심히 분발하여 연조를 모집하여 위급한 자를 구제하며 신문을 계속 출간하는 것을 보건대 공립관은 머지않아 다시 설립될 것이며 나라를 회복할 열성이 배나 더 생길 것이라고 위로하였다. 그리고 그 에와친목회를 방청하던 김봉의·김홍립 두 사람도 각각 1원씩 출연하여 공립신보사에 보냈다.¹⁷⁵⁾

한편 친목회 회원 정원명·李星七·이만춘 등은 1907년 5월 국내에서 國債報償運動이 전개된다는 것을 듣고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義金으로 미화 56.25달러를 모집하여 皇城新聞사에 寄送하였다.¹⁷⁶⁾ 이처럼 에와 친목회는 한인전체의 번영과 안녕을 목적으로 하고 나아가 독립운동을 지향하는 단체였던 것이다.

당시 에와친목회가 있던 오아후섬 에와농장에는 1905년초부터 가장 많은 한인들이 있던 농장중의 하나였다. 이 농장의 한인들은 항일의식과 애국의식이 충만하였고,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한인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에게도 항일의식이 고취되었다. 농장에 있는 강경손(11세)과 강자근(8세) 학생은 예배할때마다 “어서어서 공부하여 가지고 대한 나가서 日本의 수모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고 한다. 이는 에와친목회가 에와농장이라는 경제적기반과 이곳의 많은 한인노동자들

175) 『共立新報』, 1906년 6월 18일, 「親睦會義捐」.

176) 『皇城新聞』, 1907년 5월 16일, 雜報, 「駐外同胞의 義舉」.

『皇城新聞』, 1907년 5월 17일, 廣告,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을 인적기반으로 하여 탄탄하게 운영되어 교육문제에까지 관심을 갖고 아이들에게 항일의식을 고취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⁷⁷⁾ 이러한 애와 농장의 항일의식과 애국의식은 애와친목회가 후일 하와이 각 단체의 통합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2) 와이파후공동회

1906년 3월 10일에 하와이 오아후섬 와이파후(Waipahu) 농장에서 安元奎·전도원·정상교 등이 공동회를 조직하였다. 그 목적은 患難相救와 일화배척이고, 회장은 안원규였다. 와이파후 농장에 대해 자료를 찾을 수 없지만 공동회가 결선된 1906년 3월 전후 많은 한인들이 모인 농장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3) 血誠團

1906년 5월 10일에 하와이섬 올라(Olaa) 3마일 농장에서 申判錫·공덕화 등의 발기로 혈성단을 조직하였다. 그 설립 목적은 배일운동과 同族相愛이고, 회장은 공덕화 이었다.¹⁷⁸⁾ 이 혈성단이 있던 올라 농장은 1905년 초 전체 1,483명의 농장 노동자 중 10%인 106명의 한인 노동자들이 있던 농장으로서 비교적 한인노동자 비율이 높은 곳 중의 하나였다. 당시 농장주는 한인노동자들에 대해 새로운 노동자로성 아직은 불안하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여 한인에 대해 우호적이었음을 알

177) 『共立新報』, 1907년 6월 28, 「량童의국」.

178) 金元容, 앞의 책, 662쪽.

수 있다. 한인에 대해 우호적인 농장주의 농장은 한인들이 농장에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한인들의 집중은 한인단체 결성과 항일독립운동의 풍부한 인적자원이 되었을 것이고 풍부한 인적자원은 한인단체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켰다. 혈성단의 결성은 이러한 풍부한 한인 인적자원과 올라 농장이라는 경제적 안정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¹⁷⁹⁾

4) 自強會

카우아이섬 미카웰리농장¹⁸⁰⁾의 한인들은 1906년 4월 18일 발생한 샌프란시스코의 지진 피해를 듣고 의연금을 모아 금화 12元 25錢과 함께 위문편지를 공립신보에 보내 샌프란시스코 한인들을 위로하였다.¹⁸¹⁾ 이렇게 미카웰리 농장의 한인들이 조직적으로 의연금을 모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농장에도 한인들이 자치조직을 가지고 있었거나, 단체조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이 농장에서 1906년 6월 4일에 송건·洪宗杓·高錫柱·이형기·李觀默 등이 발기하여 자강회를 조직하였는데, 그 목적은 실력양성과 교육장려에 있었다.

카우아이섬 에리메리(와이메아 : Waimea : 필자) 등지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단체조직에 열성을 보였다. 이러한 한인들의 애국혈성으로 대

179) 패터슨, 183~188쪽.

180) 공립신보에는 미가울어 농장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카우아이 섬에 있던 농장 미카웰리 농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패터슨, 180쪽.

181) 『共立新報』, 1906년 5월, 「布哇同胞 義捐」.

한자강회 지회가 설립하였다. 대한자강회 에리메리 지회는 1907년 9월 부터 홍종표(뒤에 洪焉으로 개명)를 주필로 선임하고, 1908년 1월까지 5개월간 원고를 국내에서 인쇄하여 월보인 『자신보』를 발행하는 등 국내와 국외 동포들에게 발송하였다.¹⁸²⁾

자강회는 엘리엘리·하나버비·카파야 3개 지방에도 지회를 설립하였는데 총회장은 송건이었다. 자강회는 1907년 9월 3일에 하와이의 각 단체들이 합동하여 한인합성협회를 조직하였을 때, 이에 가담하지 않고 몇 달 동안 합성협회와 竝立하다가 1908년 봄에 지사들이 협의로 한인합성협회에 통합되었다.¹⁸³⁾

5) 共進會

공진회는 1906년 12월 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閔燦鎬·李來洙·林正洙·任準鎬 등이 조직한 단체이다. 공진회의 목적은 한인들이 협력 일심하여 患難을 相救하며 교육을 면려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었고, 회장은 민찬호 이었다. 공진회에는 당시 하와이 한인사회의 중심이었던 각 여관의 주인들도 합심 참여하였다.¹⁸⁴⁾ 공진회는 1907년 7월에 회

182) 『大同公報』, 1907년 10월 11일, 雜報, 「布哇新振」. 『共立新報』, 1908년 2월 5일, 「자신잡지」. 대한자강회 지회는 순국문으로 발간한 월보의 미국 본토 판매처는 大同公報社였고, 구독료는 1개월에 미화 10¢, 6개월에 미화 55¢, 일년에 1. 50달러 이었다.(『大同公報』, 1907년 10월 17일, 특별광고).

183) 『共立新報』, 1908년 4월 1일, 「양회합동」.

184) 『共立新報』, 1906년 12월, 「布哇共進會」.

보 제1호를 발간하였다.¹⁸⁵⁾

6) 老少同盟會

노소동맹회는 1907년 2월 3일 하와이섬 하비농장에서 정병섭·편성원 등이 발기하여 조직된 단체로 동족상애와 일화배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였으며, 회장은 편성원이었다. 회장 편성원은 하와이 이민국 입국자 기록에 의하면 1904년 8월 11일 시베리아호로 하와이에 도착한 노동이민자로 서울출신이었다. 노소동맹회의 조직은 1907년에 들어서도 항일독립운동을 지향하는 단체가 계속적으로 조직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7) 義成會

1907년 2월 5일에는 마우이섬 카일루아(Kailua) 농장에서 마우이섬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공동 결의로 의성회를 결성하였다. 항일운동과 일화배척을 목적으로 결성된 의성회의 회장으로 김재규가 선임되었다.¹⁸⁶⁾ 회장 김재규는 하와이 이민국의 입국자 기록에 의하면 1905년 3월 10일 하와이에 도착한 노동이민자였으며 마지막 거주지가 금언(Keum Eun)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國民團合會

185) 『大韓每日申報』, 1906년 11월 23일, 「海外共進」.

『共立新報』, 1907년 7월 12일, 雜報, 「共進會報新刊」.

186) 金元容, 『在美韓人50年史』, 663쪽.

1907년 7월 17일 마우이섬 가히기아농장에서 김건호 등이 대동단결과 일화배척을 목적으로 국민단합회를 결성하였다. 김건호가 회장이었다.

9) 新幹會

1907년 7월 18일에 하와이섬 과하월로농장에서 동회를 변경하여 신간회를 조직하였다. 신간회의 설립목적은 무예장려와 항일운동이고, 회장은 김성옥이었다. 회장 김성옥은 하와이 이민국 입국자 기록에 의하면 1903년 3월 19일 코리아호로 하와이에 도착한 노동이민자로 조선에서의 마지막 거주지가 죽산(Chook San)으로 기록되어 있다.

10) 實地會

1907년 7월 20일에 하와이섬 힐로(Hilo)지방에서 거류 동포들이 공동대회를 개최하고 실지회를 조직하였다. 그 목적은 무예장려, 실업장려, 일화배척이고, 회장은 박승렬이었다.

11) 國民共同會

1907년 7월 22일에 하와이섬 올라 9마일 농장에서 채극여·김봉기 등이 일제의 강요로 정미7조약이 체결된 소식을 듣고 국권회복할 방안을 강구하여 단체를 발기하기로 하고 국민공동회를 조직하였다. 국민공동회는 무예장려와 일화배척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채극여가 회장에 선정되었다.¹⁸⁷⁾ 국민공동회는 후에 國民同盟會로 개명하였고, 8월에 미

187) 金元容, 앞의 책, 92쪽.

주 공립협회로 공함을 보내, 공립협회와 연맥 상통하여 국권을 회복할
방책을 강구하며 모든 일을 협의하여 독립을 만회하자는 내용의 글을
보냈다.¹⁸⁸⁾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금 본국 정변을 들으니 5백년 종사의 위태함이 호흡 간에 달렸고 2천
만 생명 장차 어육이 되리니 생각이 이에 미침에 오장이 터지는 듯하여
말할 수 없는지라. 금일 형세로 어찌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것이오. 우리
국민 된 자는 내외를 물론하고 충분 혈전하여 목숨을 버릴지라. 당당한 의
로 죽어 독립제단의 충혼이 될지언정 구구히 명을 아껴 왜놈의 노예는 되
지 아니하리라. 하물며 우리 외양에 있는 동포 자유공기를 먼저 마셨으니
이 위급한 때를 당해야 누가 강개한 마음으로 의로운 일에 대하여 일심치
아니하리오. 우리 등도 대한 국민의 분자라. 이같이 비참한 정변을 듣고
일시에 모인 자 백 여인이 하늘을 가르쳐 맹서하고 한 지방회를 창립한
후 목적 3조와 선정한 임원을 기록하여 보내오니 연맥상통하고 동성상용
하여 국권회복 할 방책을 강구하며 범사를 협의하여 우리 독립을 만회하
기를 천만위요라.

광무 11년 7월 22일
올라 9마일 반 대한국민동맹회장 채여극 등¹⁸⁹⁾

위의 국민동맹회 공함에서 보듯이 하와이 한인들은 국내의 상황을 충
분히 인지하고 목숨을 버리는 혈전을 통해서 주권을 회복하고자하는
독립전쟁론의 발아를 이미 1907년에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
편 국민공동회의 발기자인 김봉기는 하와이 이민국 입국자 명단에 의

188) 『共立新報』, 1907년 8월 9일, 雜報, 「국민동맹회」. 金元容은 앞의 책에서 국민동맹회를 국
민공동회로, 그리고 창립연도도 1907년 3월로 기록하고 있다.

189) 『共立新報』 1907년 8월 9일 雜報 「국민동맹회」

하면 1905년 3월 10일 차이나호로 하와이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2) 復興會

부흥회는 일제의 강압으로 조국의 식민지화가 본격화되어가던 1907년 8월 5일 마우이섬 하마구아복구농장에서 전백선·서성년 등이 발기하여 인재양성과 일화배척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13) 電興協會

전흥협회는 1907년 9월 3일에는 오아후섬 호놀룰루에서 金翊成·朴相夏·趙炳堯·최병현 등 聖公會 교인들이 발기하여 조직되었다. 전흥협회는 동심협력하여 환난을 相救하며 교육을 발달케 하고 충성을 다하여 大韓帝國의 부흥과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처음 회장은 김익성이었는데, 190) 전흥협회의 취지서는 다음과 같다.

는기나라가 단체되는 것 사회의 발달하는데 있으며 백성의 지혜 넓히는 것이 학문의 진취하는데 있으니 세계력국이 인하여 부강한 바라.

슬프다 우리 대한은 아세아 동편에 있어 단군으로부터 지금 사천여년에 예악문물을 천고만국의 으뜸이로되 근래에 나라가 위태하고 백성이 곤란하여 능히 독립할 기초를 세우지 못함은 무슨 연고뇨 이는 나라가 자주치 못하고 백성이 단합하지 못하여 능히 공제할 방책을 도모치 못함이니 어찌 한심치 아니하리오 지금 대서열국이 서로 전진하기를 다투는 시대에 구습을 버리고 신학문을 준오는 것이 오직 급히 힘쓸 바이니 이는 진실로

190) 金元容, 앞의 책, 93~94쪽.

유지한 인사의 분격쟁전할 때라. 그런 고로 본 지방에 있는 우리 동포 수십여인이 격렬한 용맹으로 한 회를 조직하였으니 이름은 전흥협회요 목적은 동○합력하여 환란을 서로 구완하며 교육을 발달케 하여 ○○의 진취하며 충성을 다하여 국권을 회복함으로 정함이니 ○○유지하신 동포는 저의 조그만 열성을 사랑하사 서로 단체되어 속히 문명에 진취하기를 천만 번 바라노라.¹⁹¹⁾

이상에서 보듯이 전흥협회는 나라가 위태하고 백성이 곤란하여 독립할 기초를 세우지 못한 국내상황을 인식하고 나라가 자주권을 잃은 것은 백성이 단합하지 못한 때문이니 신학문에 힘써야 한다고 함으로써 자신들의 목적이 교육에 있음을 확실히 하였다.

전흥협회는 1908년 5월 23일부터 10개월간 속쇄판으로 『電興協會報』를 매월 발행하였다. 주필은 朴逸三이었는데, 이 전흥협회보는 문맹퇴치 운동에 공헌하 바가 크다. 전흥협회의 발기자인 김익성·박상하·조병요 등은 모두 전도사로 교역하였는데, 김익성은 하와이 이민국 입국자 기록에 의하면 1904년 5월 6일 처(24)와 아들(4)과 함께 하와이에 도착한 서울사람이었다. 박상하는 하와이 이민국 입국자 기록에 의하면 1904년 9월 26일 몽골리아호로 하와이에 도착하였으며 옥동이 조선에서의 마지막 거주지로 기록되어 있다. 전흥협회는 하와이 한인단체 합동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다가 1909년 1월 25일에 합성협회와 합동되었다.¹⁹²⁾

191) 『공립신보』 1907년 9월 20일 잡보 「전흥협회 취지서」.

192) 『新韓民報』, 1909년 2월 10일, 「동괴상합」. 전흥협회가 1910년 4월에 대한인국민회에 병합되었다는 기술(金元容, 앞의 책, 664쪽)은 잘못이다.

(4) 合成協會

1905년 을사조약의 늑결을 전후하여 하와이 한인사회에는 26개에 달하는 각종 단체가 결성되었다. 이렇게 많은 단체가 조직된 것은 국권을 회복하려는 하와이 한인들의 애국의식과 독립의식이 발현된 것이기도 하지만, 하와이가 8개의 군도로 이루어진 지형적인 영향으로 각 지방별, 농장별로 한인단체가 조직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조직은 시기와 단체에 따라 성격상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대개 抗日運動과 同族相愛를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며, 동포들의 상호 보호를 목적으로 한 自治會 성격을 띠고 있었다.

당시 하와이에 조직된 20여개의 단체에서 활동한 하와이 한인은 전체 4천여 명 중 800여명이다.¹⁹³⁾ 따라서 800명의 회원에 26개의 단체 결성은 한인사회에 분열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고, 단체 활동에 있어서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여러 단체가 통합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미주 한인 민족운동단체의 통합론은 미국 본토에 있는 공립협회에서도 제기되었는데, 이는 미 본토와 하와이 한인사회의 단합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1907년 2월 16일·18일에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하와이 등지로부터 미 본토로 입국하는 동양인의 이민금지법안이 통과되고, 3월 18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서, 하와이 한인들의 미주 본토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¹⁹⁴⁾ 따라서 하와이 한인들의 이주로 형성된 미

193) 『공립신보』 1908년 2월 12일 잡보 「하와이발달」.

194) 盧載淵, 앞의 책, 482쪽.

본토 한인사회는 더 이상 인적 증가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미 본토 한인사회는 단체와의 연합을 통하여 하와이 한인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자 하였다. 이에 1908년 『공립신보』는 「단합은 원근이 업습」이란 글을 게재하여, 미국 본토와 하와이의 한인사회의 단합을 주장하였던 것이다.¹⁹⁵⁾

하와이 한인 단체들과 지도의 합동운동은 1907년 공진회와 에와親睦會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조국의 국권회복운동을 후원하고, 하와이 거주 동포의 안녕을 보장하며 교육사업을 증진하기 위해” 하와이 각 지방에 분립된 단체를 통합하여 독립운동기관을 설립하고자 하였다.¹⁹⁶⁾ 1908년 8월말에 하와이 각 지방에 분립되었던 24개 단체 대표자 30명이 호놀룰루에 회집하여, 合同發起大會를 개최하고 5일 동안의 회의를 거쳐 1907년 9월 2일 상오 9시에 4개조의 개조합동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다음과 같다.

• 合同 發起大會 결의안

(1) 조국의 국권광복운동을 후원하며, 재류 동포의 안정을 보장하며, 교육사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모아서 단결함.

(2) 하와이 각 지방에 분립된 단체들을 결합하여 통일기관을 설립하고, 그 명칭을 한인합성협회라 하며, 호놀룰루에 총회를 설립하고, 각 지방에 있던 단체들을 일체 폐지한 후에 한인합성협회를 설립함.

(3) 한인 합성협회 총회는 시찰원을 각 지방에 파송하여, 이직까지 합동에 참가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들에게 합동의 의사를 설명하게 함.

195) 『共立新報』, 1907년 3월 19일, 「단합은 원근이 업습」.

196) 『共立新報』, 1908년 2월 12일, 잡보, 「하와이발달」.

(4) 한인 합성협회 총회는 기관 신문을 발행하되, 그 명칭을 『한인 합성신보』라 하며, 기왕에 각 단체가 발행하던 회보들을 『합성신보』에 부합하여, 실력을 집중하고 언론일치를 도모하게 함.¹⁹⁷⁾

이상에서 보듯이 하와이 한인사회는 조국의 국권광복운동을 후원하고 하와이 동포들의 안정과 교육사업을 증진하기 위해 하와이 각 단체의 합동을 모색하여 한인합성협회라고 칭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합동 과정은 먼저 통일기관을 설립하여 호놀룰루에 총회를 설립하고 각 지방의 단체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합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흥협회 같은 단체를 흡수하기 위해 시찰원을 파견하고 자신들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할 것을 호소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합성협회는 기관지로 한인합성신보를 발간하여 언론의 통합까지 시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합동발기대회 결의안은 말미에 합동 발기대회에 참가한 단체와 대표의 서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도표화하면 표15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24개의 단체가 합성협회 발기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합성협회 창립설」에는 올나 국민동맹회, 호놀룰루 공진회, 에와친목회, 와이나이 친목지회, 와이바후 공동회, 하마구와복구 부흥회, 가일루아 의성회, 라와이 공진지회, 스피골 공진지회 등이 완전한 단체를

단체명	대표명	단체명	대표명
호놀룰루공진회	임정수,민찬호,이내수	에와친목회	정원명,김성권,김규섭
와이파후공동회	전도원,안원규	가와이자강회	고석주,손창희

197) 金元容, 『在美韓人五十年史』, 96~97쪽

와이나이 동회	박기장	나와이 동회	승용환
와일루아 동회	이종열	올라9마일 국민공동회	채극여
올라3마일 혈성단	공덕화	힐로 실지회	박승렬
하비 노소동맹회	정병섭	파하월로 신간회	김성옥
코나 남부 동회	강승진	코나 북부 동회	최성원
코나 본동 동회	이대진	하갈라우 동회	최성찬
호노가 동회	강순중	가파호 동회	김경순
가이기가 국민단합회	김이원	하마구아 부흥회	전백현
가일루아 의성회	임재규	하나 동회	박용택
파야 동회	장영환	하나마누 동회	이원식

표 15 . 합동발기대회 참가단체와 대표

성립하여 국권을 만회할 주의로 합하여 合成協會를 조직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¹⁹⁸⁾ 따라서 이 9개 단체 이외의 단체는 1907년 9월 2일의 합동발기대회에는 참여하지 않고 3일 창립일이나 또는 그 후에 합동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일부 단체는 처음부터 전혀 합동에 참여하지 않고, 합성협회와 대립 또는 개별적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自強會는 합성협회와 並立하였다가 1908년 봄에 시세의 절박함을 느끼고 여러 지사들이 협의하여 두 단체가 합동하였다.¹⁹⁹⁾ 전흥협회 역시 하와이 한인단체 합동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다가 1909년 1월 25일에 합성협회와 합동되었다.²⁰⁰⁾

1907년 9월 3일에 각처의 동포들이 호놀룰루 항구로 모여 의논하고

198) 『海朝新聞』, 1908년 3월 19일, 論說.

199) 『共立新報』, 1908년 4월 1일, 「량회합동」.

200) 『新韓民報』, 1909년 2월 10일, 「동괴상합」. 전흥협회가 1910년 4월에 대한인국민회에 병합되었다는 기술(金元容, 앞의 책, 664쪽)은 잘못이다.

각 회를 합동하여 합성협회를 조직하고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 날은 각 농장의 휴일이었기 때문에 각처의 한인들이 호놀룰루로 모일 수 있었고, 201) 통일단체로 한인합성협회가 창립될 수 있었다. 한인합성협회는 회원이 800여 명에 이르렀고, 회장에는 단체합동에 공헌이 많고 명망이 높던 林正洙를 선임하였으며 부회장에 安元奎를 선임하였다. 호놀룰루 리리하街에 중앙회관도 설치하였다.

합성협회는 그 기관지 합성신보에 ‘협회창립취지서’를 게재하여 한인 합성협회가 창립된 것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는데 202) 그 창립 취지서는 다음과 같다.

합성협회 창립취지서

슬프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참혹한 형상은 일반 동포된 자는 다 00히 아시는 바요. 분탄함을 마지 못하는 일이기로 상황설화로 설명할 바는 별로 업거니와, 잠간 전감(前鑑)되는 일로 말하노니,

상고(上古) 제왕(帝王)의 번복 특실은 고사치지하고 중고(中古)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미루어 생각하여 불지어다. 화란 월남 등 나라의 멸망은 자해한 것과 태서 열방의 독립을 스스로 도모한 것은 전혀 다 우리의 전감이 되는도다. 그 근원을 궁구하건대, 세미한 사건과 호대한 이치를 해석하기 어렵다 할 수 있으나, 우리는 다만 두 조각 말로 변명하여, 하고 아니하는데 있다 하노니, 흥하는 자는 함을 인함이니, 한다함은 비록 약할지라도 자강자유하여 우열을 불계하고 하면 된다는 맹열심(猛烈心)으로 약한 지위를 변하여 강한 지위를 이루었스니, 강한 자의

201) 『공립신보』, 1907년 9월 20일, 잡보, 「깃븐소식」. 한인합성협회의 창립일은 1907년 9월 3일이다.

202) 『海朝新聞』, 1908년 3월 19일, 20일, 論說

결과는 흥하고 얻을 것이오. 망한 자는 아니함을 인함이니, 아니한다 함은 비록 강할지라도 자포자기하여 약한 처지를 이루었스니, 약한 자의 결과는 망하고 잃어버리는도다.

황천은 지공무사하여 어느 나라와 어느 사람을 물론하고 자유 천성을 품부하였스되, 나타(懶惰)한 악습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인종도 있으며 맹렬한 정신으로 나라를 흥케 하는 인종도 있으니, 그런고로 흥망득실이 하고 아니하는데 있다 하노라.

그런즉 흥한 나라는 다시 의론할 것 업고, 망한 나라란 문제에 대하여 혹 완악한 자의 용혹무괴(用或無怪)하다는 의심이 있을 듯 하도다. 그 의심은 무엇이나 하면, 시대가 고금이 있는 고로 이왕 망한 나라들은 혹 상고 혹 중고 혹 어제 시대에 처하여 선생이 없고 전감이 적다 할 수 있으나, 우리는 오늘 밤이 어제 낮보다 더 밝은 二十세기 시대에 처하여 흥망성쇠의 전감이 자재한 즉, 생존경쟁의 정신을 가다듬어 주야를 불계하며 너와 나를 물론하고 진진할 방향을 연구할 것이오. 다만 눈감고 손 지르고 앉아 죽기만 기다릴 시대가 아닐 뿐더러,

또한 저 간특한 日本의 소위를 볼지어다. 대한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하여 갑오 갑진년간에 청·아 양국으로 더불어 개전함을 천하에 공포함에 들고 보는 자 마다 日本의 대의를 칭찬하였고, 한국 민심으로도 좋아하지 아니한 바 없었더니, 급기 전쟁을 승첩한 후로 교만한 야심(野心)이 점점 자라나서 광무 구년분에 소위 보호라 가장하고 五조약을 체결하여 내외 전권을 강탈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七조약을 체결하여 二千萬 인구의 주인 있는 강토를 무림지옥으로 빼앗으니, 이 때를 당하여 한국 신민된 자 남녀노소를 불계하고 뉘 아니 분격하며 뉘 아니 원통하리오. 충분 소격에 망지소조로대 수원수구할 수 업고, 다만 만회(挽回)할 방향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통곡하여도 할 수 없고 한탄하여도 할 수 없도다. 그러나 천도는 자비(慈悲)하여 눈이 다한 춘산에 동풍이 서로 불고, 인심은 감동하여 애국단심에 충분이 병발하니, 차소위 당한 즉 어렵지 않다 할 수 있고 시운도 없지 않도다.

하와이 군도에 나그네된 동포들이 이왕부터 곳곳마다 회를 조직하고 국권을 회복할 방침을 연구한지 오랫동안, 완전한 단체를 이루지 못하였더니, 오늘날 급엄한 형세를 당하여 올라 국민동맹회와 호놀룰루 공진회와 에와친목회와 와이나이 친목지회와 와이바후 공동회와 하마구와복구부흥회와 가일루아 의성회와 라와이 공진지회와 스피골 공진지회 등 각회가 완전한 단체를 성립하여 국권을 만회할 주의로 합하여 일회를 창기한 자는 문제가 여출일구함에 일회를 조직하니 그 이름은 합성협회(合成協會)라.

크다 합성이여, 장하다 합성이여. 멀리 행하는 자는 가까운데서 시작하고 높이 오르는 자는 낮은데서 시작함은 만고에 불역한 정수라. 그런고로 급선무는 동포를 환란에서 구원하며 교육에 발달케 하여 우리 삼천리의 독립과二千만의 생활에 무거운 짐을 우리 어깨에 독담할지라도 능히 사양치 아니하노라.²⁰³⁾

이상에서 보듯이 한인합성협회의 목적은 조국의 국권 광복과 동포의 안녕 보장, 교육장려이며,主義는 民族主義였다. 한인합성협회는 회비를 例納金이라고 하고 1년에 2달러 25센트로 하였다. 한인합성협회는 하와이의 여러 섬에 47개 지회를 설립하는 한편, 1,051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²⁰⁴⁾

이 합성신보는 이미 발간되고 있던 『공진회보』와 『친목회보』를 합한 것으로 한인합성협회의 기관였다. 합성신보는 10월 22일부터 발간되었다.²⁰⁵⁾ 합성신보는 활자로 출간하여 그 이전의 공진회보나 친목회에 비

203) 『합성신보』 1907년 10월 22일

204) 『共立新報』, 1907년 9월 6일, 잡보, 「하와이소문」.

205) 『大同公報』, 1907년 10월 17일, 雜報, 「布哇喜聞」.

해 그 규모가 주밀해지고, 논조도 강개하여졌으므로 ‘문명의 선도’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²⁰⁶⁾ 합성신보는 제1권 11호까지 발간한 후에 신문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계를 구입하였다. 11호 발간 이후 사무가 호변하여 3주일을 정간하였다가 1908년 2월 12일에 제 12호를 속간하였다. 이때는 지면이 넓어지고 체재가 정밀하며 언론이 강개하여 일층 진보되었다는 평을 받았다.²⁰⁷⁾ 하와이 거류 동포들의 열성에 힘입어 『합성신보』는 이후에도 일층 확장하여, 제2권 16호를 홍지에 출간하였다. 그리고 언사가 격절하고 면목이 더 선명해졌다.²⁰⁸⁾ 합성신보는 호놀룰루 교보사에서 인쇄하였는데 활자가 서로 맞지 않아서 잠시 정지되었다가 등사판으로 계속 발행하였다, 1908년 8월경부터 합성협회 회원들은 자본을 모아 활자를 구입하고 일층 확장하여 간행할 계획을 추진하였다.²⁰⁹⁾ 『합성신보』는 1908년 12월에 지면을 신선하게 바꾸고, 전보다 더 강경한 필법, 찬란한 논사로 재발간하였다.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1908년 12월 26일 총회에서 신문사 임원을 새로 조직하여 발행겸 편집은 최정익, 총무원은 허승원, 인쇄원은 전성덕·김종립 등이었다.²¹⁰⁾

이상과 같이 하와이의 거의 모든 단체를 통합하여 출발한 韓人合成協會는 1909년 國民會로 통합될 때까지 하와이 한인들의 구심체 역할

206) 『共立新報』, 1907년 11월 15일, 「합성신보」.

207) 『大同公報』, 1908년 3월 19일, 雜報, 「合成新報확장」.

208) 『共立新報』, 1908년 4월 1일, 「신보확당」.

209) 『共立新報』, 1908년 9월 2일, 「하와이소식」.

210) 『共立新報』, 1908년 12월 30일, 「합성보의 신면목」.

을 하며 구국운동을 전개해 나갔다.²¹¹⁾ 自強會는 몇달 동안 합성협회와 竝立하였지만 1908년 봄에 합동되었으며, 전흥협회는 1909년 1월 25일에 합성협회에 합동되었다. 합성협회가 명실상부하게 모든 하와이 한인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되었다. 그리고 1909년 2월에는 합성협회가 미국 본토의 공립협회와 통합하여 국민회로 전환되었다.²¹²⁾

하와이에서 합성협회가 조직된 것은 국내외에도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일제의 신문탄압이 강화되던 시기였으므로²¹³⁾, 공진회와 친목회가 합하여 합성협회가 조직된 것으로 간단하게 보도하였다.²¹⁴⁾ 그러나 미주의 『공립신문』은 1907년 9월 20일에 하와이 한인단체들의 합동을 다음과 같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하와이통신을 거한즉, 이달 초3일은 각 농장에서 노는 날인 고로, 각처에 있던 동포가 호놀룰루항구로 모여 의론하고, 각 회를 합동하여 합성협회를 조직하고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이왕 발간하던 공진회보와 친목회보를 합하여 다시 합성회보로 발행할 터인데, 규모를 일층 더 확장한다니, 해외에 있는 동포의 발달이 이같이 진보하는 것은 진실로 치하할 일이오. 금일 내자(국내-필자) 형편이 저같이 참혹하고 신문조례로 언론을 속박하는 이 때를 당하여, 우리 해외에 있는 동포가 더욱이 단체를 굳게 하

211) 徐光云, 앞의 책, 68쪽. 유동식, 『하와이의 한인과 교회』,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1988, 62쪽.

212) 『新韓民報』, 1909년 2월 10일, 「동괴상합」.

213) 『共立新報』, 1907년 9월 20일, 잡보, 「깃븐소식」.

214) 『皇城新聞』, 1907년 9월 26일, 雜報, 「兩會合成」.

여 출판사업을 일층 더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 하노니, 내
외 첩동포는 진력 찬성하기를 바라노라.²¹⁵⁾

이 외에도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들에게도 하와이 한인합성협회의 결성
소식이 알려졌다. 블디보스톡에서 발간되는『海朝新聞』은 1908년 3월
19일에 「合成協會 創立說」을 게재하고, 다음날 20일에 「미국 하와이
합성협회 창립설에 디햐 동정을 표함」이란 논설을 게재하여 한편으
로는 하와이 한인합성협회의 전도를 축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파쟁이
많았던 연해주 한인들에게 경고하고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하였다.²¹⁶⁾
즉, 하와이 한인의 합성협회 결성은 연해주 한인사회에 단체 합동이라
는 열망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하와이 한인합성협회의 결성은 한인 단체와 한인의 통합을 처음 제
기하였던 미주 한인사회에도 반향을 일으키고, 한인단체 통합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共立新報에서는 1907년 9월 20일에 「재미동포의 주의
할 바」란 논설을 통해 몇 년이 걸리더라도 다수의 단체를 합력하고, 교
육을 권장하여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더 노동하여 재정을 만들어 전
쟁을 준비하자고 역설하였던 것이다.²¹⁷⁾ 공립신보는 1908년 3월 18일에
는 「希望布哇在留同胞」라는 글을 게재하여, 국권회복할 열성과 민족보
존할 혈심으로 조직된 하와이의 합성협회와 미주 본토의 공립협회가

215) 『共立新報』, 1907년 9월 20일, 잡보, 「깃븐소식」.

216) 『海朝新聞』. 1908년 3월 20일, 논설, 「미국 하와이 합성협회 창립설에 디햐 동정을 표
함」.

217) 『共立新報』, 1907년 9월20일, 論說, 「지미동포의 주의할바」.

이해를 서로 비교하며 장단을 서로 헤아려 동기상응하며 동경상하하여
합심진력하고, 나아가 하와이 한인사회와 미주 한인사회를 합일하여 완
전무결한 단체를 이루어, 국권회복과 민족보전하기를 기약하자고 제안
함으로써 국민회 탄생의 기초를 마련하였다.²¹⁸⁾

한편 한인합성협회는 『합성신보』의 발간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
취하고 국권회복의 방략을 정비하여 독립전쟁론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독립전쟁론은 하와이에서 1910년대 大朝鮮國民軍團과 大朝鮮獨
立團으로 구현되었다.

218) 『共立新報』, 1908년 3월 18일, 「希望布哇在留同胞」.

IV. 韓人の愛國意識과 獨立運動

1910년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한 이래 한민족은 주권을 찾기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독립운동을 벌여왔으며, 19세기말 韓人社會가 형성된 미국에서도 꾸준한 형태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제까지 미국에서의 독립운동에 대한 研究는 李承晩의 외교활동과 朴容萬의 무장독립운동 등이 주목받아왔고, 미국 韓人社會와 관련하여 研究되고 있다.²¹⁹⁾

본 장에서는 이러한 美國 韓人 독립운동의 일부인 하와이 韓人の 독립운동을 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1. 大韓人國民會와 朴容萬

- 219) 高挺然, 「大韓民國臨時政府 歐美委員部(1919~1925)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1.8.
- 김도훈, 『1910년 전후 美州지역 共立協會·大韓人國民會의 민족운동 연구』,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2002
- 方善柱, 『在美韓人の 獨立運動』, 翰林大學校 出版部, 1989
- 오세창, 「韓人の 美州이민과 항일운동」, 『민족문화논총』 6, 영남대, 1984
- 尹炳奭, 「1910년대 美州지역 韓人社會의 동향과 조국독립운동」, 『李丙燾博士九旬紀念韓國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7
- 李炫熙, 「柳一韓의 在美獨立運動 研究」,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2, 韓國民族運動史研究會, 1995.12, 1~73쪽
- 정병준, 『李承晩의 독립노선과 정부수립운동』,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
- 홍선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연구(1942~1945)』,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02

(1) 大韓人國民會의 創立과 하와이 地方總會

하와이 한인단체의 성립은 한인 이민이 시작된 1903년부터 각 농장별로 상호보호를 목적으로 구성된 자치회로부터 시작되었다. 自治會는 1903년부터 각 지방별로 10명 이상의 동포가 거주하는 곳이면 설치되었고, 洞會 또는 自助會라는 이름으로 13개 정도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한인단체는 韓人의 秩序와 親睦, 相互扶助와 권익신장을 도모하는 친목회적 성격이 강하였다.

하와이의 한인단체는 1905년 乙巳條約 늑약을 전후하여 기존의 동회 등과는 성격이 다른 항일운동과 동족상애를 목적으로 하는 애국단체들이 결성되었고, 1908년 대략 26개의 단체에 약 800여명의 한인들이 활동하였다.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생겨난 것은 하와이 한인들이 당시 국내 상황에 대하여 大韓帝國이 사실상 일제의 준식민지체제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하와이 한인들은 단체조직을 통하여 國權回復運動을 전개하는 한편 한인의 共同利益을 보호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하와이 지역이 군도로 이루어졌다는 지역적 영향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생겨나긴 했지만, 군소단체의 난립은 조직 및 재정적인 면에서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조국의 국권회복운동을 후원하고 하와이 거주 동포의 안녕을 보장하며 교육사업을 증진하기 위해 하와이 각 지방에 분립된 단체들이 통합되어 1908년 韓人合成協會가 창립되기에 이른다.²²⁰⁾

220) 미주에서의 애국단체 통합은 미주에 있던 공립협회로부터 먼저 제기되었다. 공립협회는 통합방식으로 공립협회를 중심으로 다른 해외애국단체를 통합하는 것을 주장하여, 1906년 5월 총회에서 하와이까지 조직을 확대하기로 의결하였다. 『대한매일신보』 1906년 10월 20일, 『共立

미주의 공립협회에서 하와이 한인협성협회와의 통합이 제기된 것은 1908년 3월이었는데,²²¹⁾ 이는 신병치료차 하와이에서 건너온 金聲權이 중심이 된 것이었다. 그는 하와이 韓人合成新報 주필이며 韓人合成協會 총무였는데, 하와이에서 본토로 건너간 후 샌크라멘토에 머물다가 1908년 2월 14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²²²⁾ 샌프란시스코에서 김성권은 양두삼의 소개로 공립협회에 가입하였고, 3월 14일 총회에서는 공립협회의 찬성원이 되었고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연설하며 지냈다.²²³⁾ 그는 8월 11일 덴버에서 열린 愛國同志代表會에 하와이 지역 대표로 참석한 후에도 하와이로 돌아가지 않고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와 공립관에서 머물면서 하와이 한인합성협회와 공립협회의 통합을 추진하였다.²²⁴⁾ 10월 23일 마침내 합성협회와 공립협회는 각자 대표자를 선출하여 합동발기문을 기초하였고 11월 30일에 이를 발표하였다. 합동발기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공립신보

우리의 국권이 쇠퇴한 원인을 살펴서 보면 정부는 당파와 알력이 심하여 국가에 충성하지 못하였고 백성은 전제정치에 눌리어서 규합되지 못한 까닭이며 이것을 뉘우치는 오늘에 우리는 조국을 위하여 마음을 합하고

新報』 1906년 7월 30일, 8월 25일

221) 『共立新報』 1908년 3월 18일

222) 『共立新報』 1908년 2월 12일 잡보 「유지도미」

223) 『共立新報』 1908년 3월 18일 회보

224) 『共立新報』 1908년 9월 2일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조국의 운명이 위태한 이때를 당하여 해외 동포가 사방에서 부르짖는 것이 단체 합동과 역량 집중이며 미주와 하와이 단체들의 합동추진이 우리의 급선무이다.

미주 한인공립협회와 하와이 한인 합성협회가 3천마일 대양을 격하여 그 위치가 다르므로 각기 설립을 달리한 것이나 그 목적과 부담된 책임이 같으며 애국 애족의 순결한 정신과 조국의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충이 같으니 정신상 합동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 남은 것은 다만 합동에 절차뿐이다.

이제 시대의 요구와 공중 여론에 순응하여 한인 합성협회와 한인 공립 협회를 합동하고 이름을 가치하며 서로 손을 이끌고 일을 같이 하기 위하여 좌기 7항목 합동조례를 기초한바 두 단체에서 이 조례를 통과하면 즉시 합동할 것을 의결하고 이를 발표하노라.

1. 미주 한인공립협회와 하와이 한인합성협회가 각기 자체를 해소하고 합동 후에 그 명칭을 국민회라 할 것.
2. 합동의 일자 는 서역 1909년 2월 1일로 정할 것.
3. 두 단체에서 규칙 기초위원 3인씩을 선출하여 합섬 토의로 국민회 규칙을 제정할 것.
4. 규칙 기초위원의 회집 처소는 두 단체가 협의하여 지정할 것.
5. 국민회 규칙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준할 것.
6. 새 규칙을 실시하기 전에는 종전에 쓰던 규칙을 사용할 것.
7. 합동된 단체의 임원이 취임될 때까지는 전임 당국이 회무를 진행할 것.

서역 1908년 11월 30일

하와이 한인합성협회 대표. 고석주, 김성권, 민찬호, 리내수, 강영소,
한재영, 안원규

미주 한인 공립협회 대표. 최정익, 리대위, 강영대, 안석중, 황사용,

이상에서 보듯이 두 단체의 가장 중요한 합동목적은 국권회복을 위해 산재한 민족의 역량을 집중시키고자하는 것이었고, 국민회로 통합되는 날짜를 1909년 2월 1일로 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두 단체에서 선출된 규칙기초위원회는 합성협회에서는 고석주, 김성권, 안원규를 공립협회에서는 최정익, 강명화, 이대위가 선출되었다.²²⁶⁾

미주와 하와이 한인들에게 있어서 하와이 한인협성협회와 공립협회의 통합은 한인단체 통합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다. 공립신보에서는 1909년 1월 20일 「論兩會合同」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실어 금일에는 두 단체가 합동하였지만 명일에는 百會 千會가 합할 것이요 오늘은 4천명이 합하였지만 명일에는 2천만 명이 합하여 국가의 독립이 이를 통해 나며 민족의 자유가 이를 통해 날 것이라고 하여 두 단체의 합동을 축하하는 한편 더 많은 단체의 합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하고 다른 단체의 통합 참여를 촉구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 논설에서는 말미에 내외 각 사회에 헌신한 동포들에게 본회에 합할 사람을 권고하면서 국민회의 목적도 함께 밝히고 있다. 그 첫 번째는 학교를 확장하여 국민의 보통지식 계발에 목적하는 자는 본회의 목적이 교육발달이니 합하라고 하였다. 두 번째는 상공을 권장하여

225) 김원용, 『재미한인오십년사』, 102~103쪽, 『共立新報』 1909년 1월 13일 시사 「합동발기문」, 『대동공보』 1909년 3월 10일 별보 「한인공립협회와 하와이의 합성협회 합동발기전문」

226) 『共立新報』 1909년 1월 13일 회보

국민의 경제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국민회의 목적이 실업 장려에 있으니 합하라고 하였다. 세 번째는 부패한 민기를 혁거하고 국민의 신정신을 환발하는데 목적인 자는 합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국민회의 목적이 풍속개량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옛 전제정법을 개혁하고 신정치 신법률에 목적하는 자는 합하라고 하면서 정범유신이 본회의 목적이라고 하였다. 즉, 국민회의 목적이 교육발달, 실업장려, 풍속개량, 정범유신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공립협회와 합성협회는 국민회로의 통합에 다른 단체도 참여하기를 권고하고 촉구함으로써 국민회가 명실상부한 통합단체로 창립되기를 바랐지만 일단은 두 단체의 통합으로 만족해야 했다.²²⁷⁾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1909년 2월 1일 공립협회와 합성협회가 통합된 국민회가 창립되었다. 국민회의 창립으로 미주 본토의 공립협회는 國民會 北美 地方總會로 개칭되었고, 하와이의 합성협회는 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로 개칭되었다. 국민회는 3월 24일 9장 72조로 구성된 국민회 장정을 발표하였고,²²⁸⁾ 이 장정에서 해외 한인을 관장할 최고기관 중앙총회 설립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원동에 총회가 설립되지 못하여 대표원을 선정할 수 없었으므로 북미지방총회와 하와이 지방총회는 중앙총회 설립을 뒤로 미루고 북미지방총회가 임시로 중앙총회 역할을 대행하도록 하는데 합의하였다.²²⁹⁾

227) 『共立新報』 1909년 1월 6일 기사 「勸告愛我同胞諸君」

228) 『新韓民報』 1909년 3월 24일

229) 『新韓民報』 1909년 6월 2일

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는 1909년 6월 8일 임시중앙총회에서 지방총회 임원과 소관 각 지방회 대의원 명부를 송부할 것을 요청 받아 임시 중앙총회의 산하조직으로 정비되었다.²³⁰⁾ 한편 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는 북미지방총회와 더불어 원동지역에 중앙총회 설립을 결의하여 한인이 거주하는 곳에 국민회 지방총회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國民會 北美 地方總會에서 멕시코와 노령지역의 지방총회 설립에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²³¹⁾ 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에서는 국내에 지방회를 설치하였다. 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의 국내 지방회 설치는 미 연방제도를 본받아 제정된 국민회 장정에 의거하여 자치적으로 운영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²³²⁾ 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의 국내지방회 설치에 본회 관할 하 마우이 지방회 회원으로 활동하던 원우현이 귀국하면서 이루어졌다. 원우현은 1905년 4월 24일 콕토히로 하와이에 도착한 노동 이민자였는데²³³⁾, 1909년 환국하여 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에 국내 지방회 설립을 청원하였던 것이다. 당시 원우현은 황해도 용진군 기독교광

230) 『新韓民報』 1909년 6월 16일

231) 國民會 北美 地方總會에서는 멕시코 유카탄주에 메리다지방회를 설립하였고, 원동지역에서는 하얼빈지방회를 시작으로 하여 1909년 말 노령 일대에 13개 지방회를 설립하고 10,0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新韓民報』 1909년 6월 2일, 10월 13일 「국민회보」, 1909년 12월 29일 논설 「송구영신」

232) 『新韓民報』 1914년 2월 26일 논설 「국민회 역사」

233) Records of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1783-1983 (Rwcord Group 85), Inbound Vessel, Passenger Manofests, Port of Honolulu, Box 536

선학교 임시공동회장이었는데, 당시 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장이었던 이내수는 원우현의 사회관념과 의무의 극진을 근거로 국내 지방회 설립을 인준해 주었다.²³⁴⁾

한편 1910년 국권피탈 소식이 하와이와 미주에 전해지자 국민회는 멸망한 대한제국을 대신할 정부로서 국민회 중앙총회 설립을 더욱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1910년 9월 하와이 지방총회와 북미지방총회에서는 중앙총회 설립을 위해 각각 중앙총회 대표원을 선임하고 1911년 1월부터 중앙총회 설립문제를 논의하여²³⁵⁾ 3월 중앙총회를 설립하고²³⁶⁾ 중앙총회장에 최정익과 부회장에 한재명을 선출하였다.²³⁷⁾ 그러나 이는 임원구성뿐인 중앙총회였다. 이어 국민회는 1910년 5월 大同輔國會를 새로이 흡수하면서 大韓人國民會로 개칭하고, 1912년에는 각 지방총회의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샌프란시스코에 중앙총회를 설치하고 재외 한국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최고기관으로 활동하였다.

(2) 韓人의 하와이 移住 推進

하와이 한인의 노동이민은 HSPA(Hawaiian Sugar Planters Association) 농장주들이 일본인 노동자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노동이민이 이루어진 후에도 일본인들이 파업을 하면 농장주들은 한인

234) 『新韓民報』 1909년 8월 25일 「국민회보」

235) 『新韓民報』 1911년 1월 25일 회보

236) 『新韓民報』 1911년 1월 25일 회보 「북미총회보」

237) 『新韓民報』 1911년 3월 29일 회보 「중앙총회 회보」

노동자를 데려다가 높은 임금을 주고 일을 시켜 일본인 노동자 파업에 대응하였다. 1909년 5월에도 오아후섬 농장의 일본인 노동자 5천여 명 이상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동맹파업을 감행하자²³⁸⁾ 농장주들은 한인노동자들의 농장임금을 올려주었고, 이로 인해 190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던 한인 농장 노동자의 수가 1909년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²³⁹⁾

한편 하와이의 반일감정은 미일전쟁설과 더불어 점점 고조되었다. 하와이의 상황이 이렇게 반일감정이 높아지고 일본인을 대신한 노동력으로 계속해서 한인들이 각광을 받게 되자 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에서는 국내와 海蔘威와 멕시코 동포의 하와이 이민을 추진하게 되었다.²⁴⁰⁾ 이 중에서 멕시코 동포의 하와이 이주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다.

멕시코에는 하와이로 노동이민이 진행 중이던 1905년 2월 28일 일본인 이민회사인 『대륙식민합자회사』에 의해 모집된 1,033명의 노동이민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서울, 인천, 부산 등지에서 거주하는 舊韓國 軍人, 前職官吏인 양반과 小作農, 浮浪人인 천민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 멕시코 이민자들은 멕시코 유카탄주 메리다시에 도착한 후 24개 어저귀 농장으로 각기 팔려갔다.

어저귀 농장은 섬씨 45도가 오르내리는 불같은 무더위에 독사와 전갈 등 해충이 많았던 곳으로 현지 노예들인 原住民도 기피하는 일터였

238) 『新韓民報』 1909년 5월 19일

239) 패터슨, 139쪽

240) 『新韓民報』 1909년 7월21일 국민회보

다. 이민자들은 이곳에서 원주민인 土人보다도 더 심한 대우를 받으며, 매일 할당된 어저귀일 따는 일을 하였다. 그들의 삶은 노예와도 같아서 병이 들면 水葬하기도 하였으며, 농장주는 물건을 매매하듯 돼지가격보다도 싼값에 거래하기도 하였으며, 여자들은 농장주의 성노리개로 전락하였다. 이민자들은 농장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탈출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하기도 하였으나, 탈출하다가 잡혔을 때는 발목이 잘리는 형벌이 가해졌다.

이러한 멕시코 이민의 慘狀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정부가 이민구제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졌지만, 당시 조선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정부는 尹致昊 外部協辦을 이민실태조사차 멕시코 현지로 파견하였는데, 윤치호는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돌아오고 말았다. 이는 멕시코 정부와 외교관계도 없는데다가 이미 외교권을 비롯하여 모든 실권을 장악한 일제가 이민구제사업을 방해했기 때문이었다. 멕시코 이민자들은 계약기간이 4년이었으므로 1909년 5월 노예이민을 끝내고 해방될 것이었지만, 이들에 대한 생활방책이 전무하였다.

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에서 한인의 이민을 추진하게 된 것은 이민을 하와이에 있는 사탕수수 회사에서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⁴¹⁾ 5월 29일 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는 제4차 총회를 개최하고 한국·해삼위 재류 동포의 하와이 이민운동을 HSPA와 교섭하기로 하고 민찬호·이내수·한재명을 교섭위원으로 선정하였다.²⁴²⁾ 그리고 노예이민에

241) 『新韓民報』 1909년 6월 23일 국민회보

242) 『新韓民報』 1909년 6월 8일 국민총회보

서 해방되는 멕시코 한인 역시 국내와 해삼위 한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민 주선 대상이 되었다.²⁴³⁾

멕시코 한인에 대한 이민구제사업은 상동교회내의 비밀구국단체인 상동청년회와 大韓人國民會 北美 地方總會에서도 관심을 가졌던 것이었다. 상동청년회에서는 이범수와 박장현을, 대한인국민회 북미 지방총회에서는 황사용과 방화중을 파견하여 이민실태를 조사하게 하였다. 1910년 9월 하와이로 직접 건너온 북미지방총회장 황사용은 하와이 지방총회 임원들과 하와이 농장주들을 만나 멕시코 한인의 이주문제를 교섭하였다.²⁴⁴⁾ 하와이 한인교회 목사였던 민찬호 역시 각 섬을 순행하며 농장주들을 상대로 멕시코 한인의 이주문제를 교섭하였다.²⁴⁵⁾ 그 결과 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와 북미지방총회는 하와이 이민국와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으로부터 멕시코 한인의 상륙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다.²⁴⁶⁾ 북미지방총회장 황사용은 멕시코 동포의 하와이 이주가 확정될 때까지 하와이에 머물다가 그는 1911년 6월 23일 샌프란시스코로 귀환하였다.²⁴⁷⁾ 이처럼 멕시코 한인의 하와이 이주문제는 대한인국민회의 중대한 안건이었다.

243) 『新韓民報』 1909년 7월 21일 국민회보

244) 『新韓民報』 1910년 9월 21일 잡보 「고국참보와 재외동포」

245) 『新韓民報』 1910년 12월 21일 전보 「민목사의 외교」, 1911년 2월 1일 논설 「장하다 하와이 동포」, 1911년 8월 2일 기사 「재목동포를 구원하라」

246) 『新韓民報』 1911년 8월 23일 기사 「목서가동포를 속히 구할 것」

247) 『新韓民報』 1911년 7월 5일

이후 멕시코 한인의 하와이 이주는 급진전되어 북미지방총회에서 공채모집을 통해 멕시코 한인 이주 운동비를 마련하였고,²⁴⁸⁾ 중앙총회에서는 멕시코 한인의 하와이 이주 총대리인으로 유력한 미국인을 선임하여 총대리인으로 삼아 중앙총회 위임장을 증여하였다. 총대리인은 한인 이민자를 멕시코 아카폴코에서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하여 호놀룰루 항구까지 운송하는 비용으로 1인당 50원씩 郵船會社와 계약을 성사시켰다.²⁴⁹⁾

멕시코 한인사회에서는 하와이 이민 추진을 위해 이근영·김동현·김명수·이병은을 총대로 뽑아 1911년 11월 27일 하와이로 파송하였다.²⁵⁰⁾ 이들은 북미총회의 주선으로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하여 하와이로 갈 예정으로 9월 10일경 멕시코 아카폴코에서 출항하여²⁵¹⁾ 9월 19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였다. 하와이로 가는 선편 사이베리아호가 10월 4일 출발할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2주 동안 샌프란시스코에 머물러야 했다. 이에 북미지방총회에서는 이민국에 보증을 세워 이들의 상륙을 주선하였다.²⁵²⁾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이 이들의 상륙허가를 위해 워싱턴 상공부에 청원하고 답을 기다리는 동안 북미지방총회에서도 대리인은 통해 워싱턴 상공부와 교섭하였다. 북미지방총회에서는 이근영

248) 『新韓民報』 1911년 7월 26일 「공채모집취짓서」

249) 『新韓民報』 1911년 8월 30일 잡보

250) 『新韓民報』 1911년 7월 12일 잡보 「이근영씨가 하와이로」

251) 『新韓民報』 1911년 9월 13일 잡보 「이근영씨 승선」

252) 『新韓民報』 1911년 9월 20일 잡보

등 4명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이민국장에서 1인당 500원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허락을 얻어 하륙시켰으나, 결국 까다로운 이민조례에 의하여 멕시코로 되돌아가야만 했다.²⁵³⁾

이 사건으로 멕시코 한인의 하와이 이주문제는 미국 상공부와 교섭해야하는 문제로 확대되었다. 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와 북미지방총회는 1911년 12월 멕시코 한인의 하와이 이주방법을 변호사와 상의하고, 미국 상공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계획도 세웠다.²⁵⁴⁾ 또 미국 상공부와 외교담판을 벌이기 위해 朴容萬을 워싱턴으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국민회가 미국 상공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향후 재미한인의 장래와 멕시코 동포의 미주이주를 영원히 금지시킬 수 있다는 미국측의 강경자세로 소송을 철회함으로써²⁵⁵⁾ 국민회의 멕시코 한인의 하와이 이주 계획은 중단되었다.²⁵⁶⁾

(3) 大朝鮮國民軍團

국권이 피탈된 후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군인과 관계된 기사 중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국권이 피탈된다는 소식을 듣게 된 하와이 한인들

253) 『新韓民報』 1911년 11월 1일 잡보

254) 『新韓民報』 1911년 11월 1일 잡보

255) 『新韓民報』 1911년 12월 18일 잡보 「목구이민송사준비」, 이민송사와 법률사의 사건」

256) 멕시코 한인의 샌프란시스코 이주는 1914년 멕시코 혁명 이후 샌프란시스코로 난민자격으로 입국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난리가 평정되면 다시 귀환해야하는 것이었다. 『新韓民報』 1915년 5월 14일 논설 「再墨韓人美國許入」

중 300명이 의병을 일으키고자 한국으로 출발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일본을 반대하는 애국독립운동단체의 회원들이었다고 한다.²⁵⁷⁾ 이 기사를 보아 1910년 이전 이미 병식훈련이 실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와이에서 군인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와이 이민자 중 구한국 군인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이었다.²⁵⁸⁾

하와이에서의 첫 군인 양성은 1910년 7월 大同共進團에서 마우이 각 섬에서 연합회를 열고 연무대를 세워 병식훈련을 실시한 것이다.²⁵⁹⁾ 이어서 9월에는 하와이 카와이에서 퇴직 사관들이 동포들을 모아 전술을 교수하였으며, 하와이 하마구아 연안의 한인들이 兵式體操를 실시하였다.²⁶⁰⁾ 11월에는 하와이 地方總會에서 鍊武部를 설치하여 각 지방회별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²⁶¹⁾ 이 하와이 지방총회의 연무부는 대동공진단의 군인양성소가 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로 이관된 것이었다. 이때부터 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 연무부에서는 하와이 각 지역에 다수의 한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군사훈련을 조련하였으며, 한인청년들로 하여금 매일 저녁 목총을 메고 군사훈련을 받게 하였다. 이때 군사훈련에 참가한 사람은 200여명에 달하였다.²⁶²⁾ 12월에는 와이오밍 슈페리오에 青年兵學會를 조직하여 병식훈련을 실시하였다.²⁶³⁾

257) 『新韓民報』 1910년 8월 3일 「한인의 철혈정책」

258) 김원용, 『재미한인오십년사』, 343쪽

259) 『新韓民報』 1910년 7월 6일 잡보 「하와이 좋은 바람 불어」

260) 『新韓民報』 1910년 9월 21일 정보 「포아한인의 활발적 운동」

261) 김원용, 위의 책 343쪽

1911년 11월 1일 하와이 카와이섬에서는 국민연합운동회를 개최하였는데 16개 지방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연합회 총제독은 이영근을 중심으로 막기월리(교감 황경은), 부이(교감 서창균), 하리학가(교감 박춘식), 콜로아(교감 김동식·김용식) 등 4분대 100여명으로 편성된 국민연합군은 군인복장으로 군가·지방조련·연합조련·체조·운동순으로 군사훈련을 진행하였다.²⁶⁴⁾

이러한 하와이 지방총회 연무부의 군사훈련은 朴容萬의 초청으로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어 본격적인 군사훈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朴容萬은 1912년 11월 28일에서 29일 사이에 개최된 대한인국민회 중앙대표회가 끝난 후, 함께 이 대회에 참석하였던 朴相夏의 권유에 따라 1912년 12월 초 大韓人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 기관지인 新韓國報 主筆로 부임하였다.

하와이에서 朴容萬은 이듬해 大韓人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 총회장에 당선된 박상하의 지원을 받으면서 국민회의 위상강화 사업에 주력하였다. 그는 먼저 국민의무금제도와 한인자치제도를 하와이 한인사회에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 확립시켰다. 또 1913년 5월 25일 하와이 주정부에 大韓人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를 법인체로 인정해 줄 것을 홍인표, 박원걸 등과 함께 청원하여 29일에 관허를 얻었다. 또 하와이 주정부로부터 특별경찰권을 승인 받아 하와이 각 섬에 대한인국민회

262) 김원용, 위의 책 342쪽

263) 『新韓民報』 1910년 11월 2일 잡보

264) 『新韓民報』 1911년 2월 15일 기사 「국민군 연합운동회」

警察部長을 설치하여 한인자치제도를 확립하였다. 이 경찰권은 하와이 법정에서도 법정행사로 인정하였다.²⁶⁵⁾ 朴容萬은 언론활동도 벌였는데, 大韓人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가 발간하는 新韓國보를 國民報로 고치고 國民報社의 사장으로서 國民會로부터 실권을 위임받아 경영하였다. 그에게는 매달 200원씩의 자금도 지원되었는데, 이러한 지원은 朴容萬을 초청하였던 총회장 박상하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편 朴容萬은 1914년 6월 10일 오후 카할루에서 大韓人國民會 하와이 지방총회의 연무부를 확장하여 大朝鮮國民軍團과 大朝鮮國民軍團士官學校를 창설하였다.²⁶⁶⁾ 大朝鮮國民軍團은 1914년 안원규와 박종수가 기부한 파인애플 경작 都給과 임응천, 한태경 등 와이아와 韓人들의 기부금을 재정으로 설립되었다.²⁶⁷⁾ 大朝鮮國民軍團은 6월 10일 창설되었고 8월 29일 병학교 막사와 營門의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단장

265) 「通報 布哇韓人國民公會에 관한 건(1913.9.13)」, 「布哇韓人國民公會에 관한 건 回答 (1913.10.10)」,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歐米_二』

266) 국민군단의 위치는 호놀룰루에서 동북쪽으로 10마일정도 떨어진 해안가의 아후이마누 언덕 일대로 현재는 100여호가 사는 주택지이다.

267) 大朝鮮國民軍團 재정 중 일부는 韓人농상주식회사가 청산되면서 남은 재산도 포함되었다. 韓人농상주식회사는 1911년 3월 4일 하와이 大韓人國民會가 산업장려를 위하여 조직한 것이었다. 하와이 大韓人國民會는 이를 통해 韓人동포들의 농업과 상업에 용자하여 실업을 말진시키고, 그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사관양성경비를 제공하려 계획하였다. 자본금을 10만 달러로 정하여 매주 10달러씩 1만주를 모집하기로 하였지만, 李承晩이 하와이에 온 이후 일어난 당파싸움으로 실패하고 남은 재산을 大朝鮮國民軍團에 기부하였던 것이다. 김원용, 앞의 책 288쪽

은 朴容萬이었고, 병학교의 생도는 180여명이었다. 大朝鮮國民軍團의 창설은 동삼성 과 海蔘威까지 알려져 盧伯麟이 이에 협조하기 위해 하와이로 망명하였다.

군인이었던 盧伯麟은 1910년 국권이 피탈되었으나 군사상의 방법으로 국가를 도울 길이 없어 교육에 종사하였다. 그는 각종 애국계몽운동 단체를 통하여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고 광무학교 같은 학교를 직접 운영하기도 하였다.²⁶⁸⁾ 그러다가 다수의 희망을 품고 중국으로 나와 동삼성, 몽고, 중국 등지로 다니면서 한국지사들과 한국 미래를 위하여 군비문제를 통론하고 군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경제적 장애와 병술을 견습할 청년 수효의 부족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그는 朴容萬이 하와이에서 군인을 양성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다행히 하와이에서 朴容萬씨의 군사상 준비에 대하여 활동한다는 말과 실지로 착수하여 진행하여 나아간다는 말을 듣고 동씨와 교섭이 있으니 그 후 여러 방면으로 생각한 즉 하와이는 임시 근거지로 군사상 준비에 합당할 듯하여 량 년 전에 하와이로 온 바²⁶⁹⁾

라고하여 朴容萬²⁷⁰⁾과 미리 교섭하고 하와이로 망명하였다고 하였다.

268) 줄고, 「盧伯麟의 서울에서의 抗日鬪爭」, 『향토서울』 61호,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01. 182~187쪽

269) 『新韓民報』 1919년 11월 20일 <쾌재쾌재 군사가의 시국언론>

270) 朴容萬은 당시 大韓人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의 지원을 받고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으

盧伯麟이 하와이로 온 이유는 하와이가 여러 방면에서 군사상 준비를 하는 임시근거지로 합당할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즉, 하와이는 중국 등지에서 문제가 되었던 동포의 수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는 곳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이는 하와이에 1903년부터 1905년 사이 이루어졌던 노동이민으로 당시 5천명의 韓人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인적 자원으로 병술을 견습할 청년의 수요도 충분하였고, 당시의 많은 韓人들이 농장에서 벗어나 도시로 이주하여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가고 있었으며, 사진신부들의 유입으로 하와이 韓人社會가 안정되어가던 시기였던 것이다. 이때 망명한 盧伯麟은 大朝鮮國民軍團에서 김성옥, 허용, 이복희, 이상희와 함께 별동대의 주임으로서 군사훈련을 담당하였다.²⁷¹⁾

국민군단이 언제 해체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국민군단의 농장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1916년 10월이라는 것과, 盧伯麟이 호놀룰루에 도착하는 것이 12월 5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916년 12월 이후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군단은 농장 계약의 만료로 새로운 농장을 찾았으나 일본의 외압으로 새로운 농장을 찾지 못하였고, 국민군단을 이끌던 朴容萬과 당시 美國에서 하와이에 와 있던 李承晩 사이의 갈등 등 복합적인 이유로 지속되지 못하였다. 국민군단은 2년여 지속되었는데, 군단사령부·군단 경리부·제복소·병학교·훈련대·별동대·곡

며, 1915년 1월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부회장 후보로 나서 하와이 대표 37표 중 30표를 얻어 총부회장에 당선되었을 만큼 하와이와 미주한인사회에서 주목받는 지도자였다. 『新韓民報』 1915년 2월 4일

271) 김원용, 『在美韓人五十年史』, 1959, 캘리포니아, 345~348쪽.

호수와 호수를 갖춘 완전한 군대였다. 국민군단의 조직은 아래와 같다

군단사령부	단장	朴容萬	
	부관	구종권	
		태병선	
	서기	백운택	
장재	최순서		
군단 경리부	부관	로 훈	
		박승선	
	회계	리정근	
	장부	정인수	
군의	홍종훈		
제복소 주임	소대장	김성옥	
		김승윤	
병학교 주임	단장	朴容萬	
	대대장	박종수	
	대대부관	최창영	
	정교	정명열	
훈련대 주임	대	대대장	박종수
		부관	리두환
	중	중대장	허 용
			김세근
		부관	리정근
	대	부위	김치명
			조봉운
			한명수
	소	소대장	박춘식
			강태순
			한응순
		참위	안경식
			리상호
			김레준
			김성옥
			김용팔
			한경선
림성우			
진종문			
정교	방재순		
	림순용		

	하사	김순근
		김상호
		윤희중
		리태홍
		서순백
		백윤서
별동대 주임		로백린
		김성옥
		허 용
		리복희
		리상호
곡호수와 호수	곡호수	리제원
		강달제
		강운학
		김용환
		백운경
	교수	차성철
		리창규
		리봉용
		김백화
		최태제
	김중환	

표 16 . 大朝鮮國民軍團 조직

국민군단의 조직에 나타나는 인명은 총 52명이다. 이들 중 같은 이름을 중임자로 간주하였을 때 중임자는 군단사령부단장과 병학교 주임을 맡고 있는 朴容萬, 군단 경리부 회계와 훈련대 주임 중대 부관을 맡은 리정근, 병학교 주임 대대장과 훈련대 주인 대대장인 박종수, 제복소주임과 훈련대 주임 소대 참위와 별동대 주임을 맡고 있는 김성옥, 훈련대 주임 소대 참위와 별동대 주임을 맡은 리상호 등 5명이다. 朴容萬은 중임이 확실하므로 조직표상으로 볼 때 국민군단은 최소한 52명에서 57명으로 조직이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제까지 국민군단에 대한 研究에서나 국민군단의 조직표 상에

나온 개인에 대한 연구에서조차 국민군단의 단순한 조직표 이외에는 이렇다할 研究 성과가 없어 국민군단의 인적구성에 대한 언급은 전무한 형편이다. 그래서 국민군단의 조직표 상에 나타난 이들에 대해 자세한 기록을 찾기 위해서 하와이 이민자 명단 중에서 이들의 이름을 찾아보았더니 총 19명의 이름을 찾을 수 있었다.²⁷²⁾ 19명 중에는 동명 다인이 5명 있었는데 그들을 합하여 이민자 명단에 나타난 기록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研究에서 알려진 朴容萬과 盧伯麟의 인적사항도 넣어서 함께 정리하였다.

272) 최근 초기 美國이민자들에 대한 研究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자료로는 미 이민국에서 발간한 美國에 입항한 선박의 승객명단(마이크로 필름)과 미 이민국의 연차보고가 있다. 입항 선박 승객명단에서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입항한 1903년 1월 13일부터 1905년 8월 8일까지의 승객수는 7375명이며, 이 이민국의 연차보고상에서 1902년 7월부터 1906년 6월까지 하와이가 목적지인 美國 입국자는 7389명이다. 이 두 자료간에 14명의 오차가 난다. 1899년부터 1910년까지 미입국자 중 하와이가 목적지인 사람이 총 7431명, 1899년부터 1910년까지 韓人 미입국자가 총 7790명이다. 따라서 국민군단의 조직표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1916년경 하와이 韓人들 중에서 이름만으로 그들 개인에 대한 기록을 알아보기 위해서 1903년에서 1905년 사이 입항한 선박의 승객명단에서 찾는 것은 동일한 확률이 50%이상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한편 미 이민국 통계에 의하면 1910년부터 1924년까지 하와이에 도착한 859명이었으므로 1899년부터 1924년까지 하와이에 입국한 이는 최대한으로 잡아도 7490명인 것이다. 미 이민국 통계에 잡히지 않은 美國입국 韓人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1910년에서 1924년까지 하와이에 입국한 이들 중 800명이 여자였으므로 나머지가 남자였으므로 남자들로 구성된 大朝鮮國民軍團의 조직표상의 인명을 1903년에서 1905년 사이 선박승객명단에서 찾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 이름은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한자이름을 알 수는 없다.

이름	국민군단 조직내 지위	
	승객명단 영문이름	
	나이 · 결혼여부 · 전 거주지 · 도착날짜 · 타고온 배/1916년 나이	
강달	곡호수	
	강달제	
제	23 · 기혼 · 서천 · 19040916 · 갤릭	35
강태	훈련대 주임 소대 소대장	
	강태순	
순	22 · 미혼 · 서수단골 · 19050331 · 만추리아	33
김상	훈련대 주임 소대 하사	
	김상호	
호	①24 · 기혼 · 수표교 · 19041006 · 차이나	36
	②40 · 기혼 · 정평천 · 19050202 · 콥틱	51
김성 욱 273)	별동대 주임 · 제복소 주임 소대장 · 훈련대 주임 소대 참위	
	김성욱	
	①30 · 홀아비 · 제물포 · 19030319 · 코리아	43
	②11 · 미혼 · 의주 · 19040208 · 차이나	23
	③22 · 홀아비 · 대구 · 19040426 · 차이나	34
	④38 · 홀아비 · 동네 읍리 · 19040601 · 콥틱	50
	⑤24 · 기혼 · 남원, 기동천 · 19040625 · 갤릭	36
	⑥29 · 홀아비 · 신기 · 19050213 · 시베리아	40
⑦23 · 기혼 · 참곡 · 19050518 · 몽골리아	34	
김순	훈현대 주임 소대 정교	
	김순근	
근	35 · 기혼 · 윤안 · 19030330 · 갤릭	48
김중	고수	
	김중환	
환	36 · 미혼 · 함흥 · 19040208 · 차이나	48
김치	훈련대 주임 중대 부위	
	김치명	
명	31 · 기혼 · 성산동 · 19040926 · 몽골리아호	43
로백	별동대 주임	
	42 · 기혼 · 황해 풍천 · 19161205.	42

273) 김성욱은 1907년 7월 18일 결성된 신간회의 회장이었다.

린		
리	별동대 주임 · 훈련대 주임 소대 참위	
상	이상호	
호	23 · 미혼 · 영덕 · 19040109 · 아메리카 마루	35
리	군단경리부 회계 · 훈련대 주임 중대 부관	
정	이정근	
근	25 · 기혼 · 전주골 · 19050310 · 차이나	36
박	군단경리부 부관	
승	박승선	
선	23 · 홀아비 · 남창동 · 19050225 · 몽골리아	34
박	군단사령부 단장 · 병학교 주임 단장	
容	25 · 기혼, 강원도 철원, 190502	36
萬		
박	병학교 주임 대대장 · 훈련대 주임 대대 대대장	
종	박종수	
수	①36 · 홀아비 · 성주 · 19040520 · 시베리아	48
274)	②39 · 기혼 · 노기동 · 19040926 · 몽골리아	51
박	훈련대 주임 소대 소대장	
춘	박춘식	
식	①21 · 기혼 · 고성 · 19040304 · 시베리아	33
	②24 · 기혼 · 북창동 · 19041118 · 코리아	36
	③30 · 기혼 · 흥재원 · 19050213 · 시베리아	41
안	훈련대 주임 소대 참위	
경	안경식	
식	27 · 기혼 · 강계 · 19040304 · 시베리아	39
윤	훈련대 주임 소대 하사	
희	윤희중	
중	40 · 기혼 · 진주 · 19040520 · 시베리아	52
정	병학교 주임 정교	
명	정명열	
열1	28 · 기혼 · 영유 · 19040708 · 몽골리아	40

274) 박종수는 목사였다고 한다.: 방선주, 『재미韓人の 독립운동』,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

최 창 영	병학교 주임 대대부관	
	최창영	
	23 · 미혼 · 거울리 · 19050413 · 코리아	34
한 명 수	훈련대 주임 중대 부위	
	한명수	
	①40 · 홀아비 · 오산동 · 19041224 · 차이나	52
	②22 · 기혼 · 연포 · 19050106 · 도릭	33
허 용	별동대 주임 · 훈련대 주임 대대 부관	
	허용	
	①26 · 홀아비 · 풍천 · 19040708 · 몽골리아	38
	②20 · 기혼 · 정산영 · 19050126 · 코리아	31
홍 중 훈	군단경리부 군의	
	홍중훈	
	24 · 기혼 · 서울 · 19040506 · 도릭	36

표 17 .하와이 대조선 국민군단 임원 인적사항

이상에서 보듯이 김성옥은 7명이나 있으며 박춘식은 3명, 박중수 · 한명수 · 허용은 각각 2명이나 있다. 이들이 하와이에 도착하여 기록한 이민국 기록의 나이를 기준으로 국민군단이 창단된 후 1916년 당시의 나이를 계산하여 내용에 포함시켰다. 국민군단 참여시의 나이를 계산하면서 국민군단이 창단된 것은 1915년이지만 1916년 하와이에 도착한 盧伯麟이 명단에 있는 것을 참작하여 1916년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한편 국민군단 조직에 나타난 이들의 나이는 국민군단이 창단될 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다수였고 50대도 두 명이나 된다.

특이할만한 것은 군의인 홍중훈과 이들 중에 이민당시 가족을 동반한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홍중훈은 하와이에 도착한 시점이 24살이었고 국민군단에 참여한 때가 36세 때였는데, 그가 한의였는지 양의였는

소, 1989, 80쪽

지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1910년 인구조사에서 나타난 문맹률이 다른 동양계 이민자들보다 월등히 낮은 것으로 보아 하와이에서 의술을 익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런데 미 이민국의 연차보고를 보면 美國 입국자 중 의사인 사람이 있는데 1900년 2명, 1901년 1명, 1902년 2명, 1904년 1명이나 있다. 이들 의사들의 최종 목적지가 하와이였는지 알 수 없어 확인할 방법은 없으나 홍종훈이 한국에서 교육받은 한의였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는 없다.

가족을 동반한 사람들은 병학교 주임 대대장 박종수로 추정되는 2명 중 이민 당시 39세였던 박종수, 훈련대 주임 정교 김순근, 훈련대 주임 하사 윤희중이다. 박종수는 부인 김씨(1904년 이민당시 36세), 딸 보배(이민당시 3세), 아들 삼자(이민당시 4세), 아들 영선(이민당시 11세) 등 4명의 가족을 동반하였다. 김순근은 부인 홍씨(1903년 이민 당시 29세), 아들 진홍(이민당시 1세), 아들 원성(이민당시 4세) 등 3명의 가족을 동반하였다. 윤희중은 부인 유필부(1904년 이민당시 36세), 딸 수영(이민당시 1세), 아들 동찬(이민 당시 3세)등 가족 3명을 동반하였다. 이들 세명 이외에는 기혼자와 미혼자들의 가족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1910년에서 1924년 사이에 발급된 하와이 韓人들의 여권명단에서 이들 인명을 찾아보았으나 이들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국민군단을 조직하고 구성하였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홀로 하와이에 도착한 이민자들이었으며 그들은 1924년까지도 가족과 함께 하와이에서 지내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한편 국민군단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기록들을 통해 훌훌단신 이역만리까지 살기위해 이민을 떠났던 그들이 개인적인 행복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구성보다는 조국

의 독립을 더 먼저 염원하고 실천하고 행동에 옮겼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또한 하와이 韓人 이민자들의 조국에 대한 애국의식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하겠다.

한편 美國에서의 군사양성이 가능했던 것은 구한국군 출신의 이민자들이 교련을 담당함으로써 가능했다고 한다. 1910년경 당시 美洲와 하와이에는 구한국군 출신이 500여명이 있었다고 한다.²⁷⁵⁾ 그런데 1899년에서 1910년 사이 美國에 입국한 한국인 총 수가 美國 이민국에 따르면 대규모 이민이 있었던 1903년에서 1905년을 제외하면 347명으로 구한국군 출신 500명 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10년경 美洲와 하와이에 있던 구한국군 출신자들의 대부분은 대규모 이민이 있었던 1903년에서 1905년 美國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하와이에 집중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大朝鮮國民軍團에서 병학교와 군단의 교련을 담당하였던 사람들은 이들 구한국군 출신자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7,375명의 이민자들 중에서 마지막 거주지를 서울이라고 기재한 이들이 모두 578명인데²⁷⁶⁾, 이들의 대부분은 구한국군 출신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특히 이들 중에서 구한국 군인이 많이 살았던 광희문과 왕십리 주위의 거주자들이 구한국 군인이었을 것이다. 위의 표상에서 서울이 전 거주지인 사람은 서울이라고 기재한 홍종훈, 수표교라고 기재한 김상호, 북창동이라고 기재한 박춘식 정도이다. 이들은 구한국 출

275) 김원용, 앞의 책, 342~343쪽.

276) 서울, 서울○○동이라고 기재한 이들은 모두 436명이다. 나머지는 ○○동, ○○리라고 기재한 이들 중에서 서울의 동네이름을 포함시킨 것이다.

신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국민군단에서의 직함이 홍종훈은 의사이고, 김상호는 훈련대주임 소대하사이며, 박춘식은 훈련대 조임 소대 소대장이다. 그리고 이민단 명단에 있는 2명의 김상호 중에서 국민군단의 훈련대 주임 소대하사인 김상호는 위의 표에서 첫 번째 이민당시 24세이며 기혼자인 수표교 살던 김상호일 가능성이 높다. 박춘식 역시 3명의 박춘식 중에서 두 번째인 이민당시 24세였으며 북창동에 살았던 박춘식이 훈련대 주임 소대 소대장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겠다.

국민군단의 군제는 미군제를 사용하였고, 학도들에게 기숙을 공급하였으며 교련용 기구는 사관용 단총으로 45식 39정과 군도 10개, 나팔 12개, 북 6개, 목총 350점이었다. 병학교 교과서는 영문서적으로 28종이었다. 학도의 수는 103명으로 시작하여 311명까지 늘었으나, 1916년 이후 폐쇄되었다.²⁷⁷⁾ 국민군단이 폐쇄된 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917년 국민군단이 호놀룰루 시가지를 행진하는 사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1917년까지는 존속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군단은 자신들의 군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

<대조선 국민군단의 군가>

흑룡강 맑은 물

남북만주 푸른 풀 넓은 들

우리말 안장 벗겨라

국민군 군가 부르세²⁷⁸⁾

277) 독립운동사 제4권, 독립군 전투사(상), 107~109쪽

이 군가에서 보듯이 大朝鮮國民軍團은 동삼성 지역에서 활동할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전담부대였다. 이러한 국민군단의 양성목적은 朴容萬과 盧伯麟 등 독립운동가들의 거국일치 결사전을 실행할 실력을 구비하겠다는 의지가 투영된 것이었다.²⁷⁹⁾

(4) 大韓人 하와이 僑民團과 國民會 復設

大韓人國民會 하와이 지방총회는 1910년대 후반 하와이에서 朴容萬과 李承晚 사이의 분쟁으로 지도력과 위상이 크게 흔들렸다.²⁸⁰⁾ 그러나 1919년 국내에서 일어난 3·1운동 소식이 하와이에 전해지자 독립운동의 열기가 다시 뜨거워졌고, 하와이 韓人社會는 大韓人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를 중심으로 다시 결집하기 시작하였다.

하와이 한인사회의 독립운동이 大韓人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로 집중되는 가운데 大韓人國民會의 위상을 되흔드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李承晚이 한성임시정부의 집정관총재로 선임되어 구미위원부를 만들면서 대한인국민회를 순수민간단체라고 위상을 격하시켰던 것이다.²⁸¹⁾ 李承晚은 상해 大韓民國 臨時政府를 방문하고 돌아온 1921년 7월 21일 민찬호·안현경·이종관과 더불어 하와이 호놀룰루에 同志會를 설립하

278) 북악사학회편, 「朴容萬」, 『역사에 비춘 한국근현대인물』, 백산출판사, 1994, 139쪽

279) 民族運動史研究所, 『民族獨立鬪爭史 史料』(海外篇), 서울, 輿論社, 1956, 57~58쪽.

280) 洪善杓, 「1910년대 後半 하와이 韓人社會의 動向 과 大韓人國民會의 活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8집, 1994년.

281) 고정휴, 「大韓民國臨時政府 歐美委員部(1919~1925) 研究」, 고대박사학위논문, 1991, 참조.

고 총재가 되었다.²⁸²⁾ 이 同志會는 李承晩의 개인조직이나 다름없었다.

李承晩은 同志會 조직 이후 기존의 大韓人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를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僑民團令에 의거 僑民團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李承晩은 국민회의 초기 목적이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수립으로 완결되었으므로 이를 재편해야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²⁸³⁾ 이에 따라 大韓民國 臨時政府 僑民團令에 의거해 美洲 韓人社會에서 가장 큰 단체인 大韓人國民會의 하와이 地方總會는 해체되었고, 1922년 3월 22일 大韓民國臨時政府 산하기관으로 大韓人하와이 僑民團이 설립되었다.

하와이교민단은 大韓人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가 大韓人國民會 중앙총회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자치적으로 운영되었던 것과 달리 李承晩의 지도를 받게 되었다. 또 大韓人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가 해체됨으로써 1922년 大韓人國民會 중앙총회는 美洲·멕시코·쿠바 등지의 지방회로 구성된 北美 大韓人國民會로 축소되었다.

하와이교민단의 설치 근거는 1920년 10월 7일자로 발표된 상해 大韓民國 臨時政府 내부부령 제4호 "外地에 僑居하는 인민에게 自治制를 실시키 위하여 僑民團制를 공포함"²⁸⁴⁾였다. 대한인 하와이 교민단은 설립 목적을

282) 김원용, 같은 책, 200면.

283) 玄, John K, 洪性傑譯, 『國民會略史』, 高麗大民族文化研究所, 1986, 24쪽.

284) 『臨時僑民關係法令集』, 7쪽

조국의 獨立光復에 전력하며 敎育을 장려하고 實業을 발전하며 동포의 榮譽를 증진케 함에 在함²⁸⁵⁾.

이라 하였다. 즉, 조국광복을 위하여 敎育과 실업을 장려하는 것과 동포의 영예를 증진케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던 것이다. 大韓民國臨時政府의 내에 설치된 대한인 하와이 교민단은 자치규정에 民단활동을 大韓民國 臨時政府 내무부에 수시로 보고하였다. 大韓民國臨時政府는 대한인 하와이 교민단이 사업과 재정, 임원의 변동과 거류민 명부에 대해 내무부에 매년 수정 보고하도록 함으로써²⁸⁶⁾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지도아래 있는 기관임을 명백히 하였다.

대한인 하와이 교민단은 자치규정상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기관이었지만, 실제로는 李承晩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었다. 즉, 1923년 1월 23일 하와이교민단 임시의사회에서는

1. 본민단은 하와이 교민을 통할보호키로 歐美委員部에 置하여 政府機關으로 정할 사.
2. 민단의 名稱과 章程은 현행대로 쓰되 다만 총·부단장은 위원부장의 認准을 얻어서 行공케 할 사.²⁸⁷⁾

라고 결의하여 대한인 하와이 교민단이 李承晩의 歐美委員部 관할하에

285) 『대한인하와이교민단자치규정』 1쪽.

286) 같은 책, 9~10쪽

287) 같은 책, 34쪽

있다고 하였다. 대한인 하와이 교민단이 임시의사회를 통해 李承晩의 지휘를 받게 되었지만, 항상 李承晩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대한인 하와이 교민단은 人口稅設 모두를 구미위원부로 보내라는 李承晩의 지시에 규정에 의거해 보내줬다하여 李承晩의 지시를 거절하였던 것이다. 이에 李承晩은 1923년 1월 23일 임시의사회의 결의에 따라 하와이 교민단 단장 김영기를 견책 조치하였다.²⁸⁸⁾

대한인 하와이 교민단은 1930년대 만보산 사건과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이를 독립운동의 호기로 인식하여, 1931년 10월 25일 공동회를 개최하여 대외선전활동을 추진하기로 하고²⁸⁹⁾ 선전부를 조직하였다.

교민단 선전부(Korean National Information Bureau)는 선전부장 정두옥, 서기 김현구, 재무 차신호, 교섭위원 韓吉洙이고, 그외 김원용·이용직 등으로 구성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²⁹⁰⁾ 교민단 선전부는 10월 28일 후버 미대통령에게 교민단 단장 손덕인, 한인중앙기독교회 목사 이용직, 감리교회 홍한식 목사, 성공회 목사 조광원, 대한인 부인구제회 회장 김점순, 조선소년동맹단 회장 송아더, 하와이 천도교

288) 『구미위원부 특별통신』 1924년 7월 3일

289) 『The Honolulu Stat Bulletin』 1931년 10월 29일 「Koreans here in Protest to Hoover on Manchuria」. 한편 정두옥의 회고록에는 10월 11일 공동회가 개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회고록인 점으로 미루어보아 날짜에 혼돈이 있을 수 있으므로 10월 29일이 더 정확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두옥, 『재미한인독립운동실기』, 『한국학연구』 별집 3,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1990에 81쪽

290) 정두옥, 『在美韓人獨立運動實記』, 81쪽.

감독 승룡환 등 7명이 서명한 공개서한을 보냈다. 11월 2일에는 국제연맹의회 의장 아리스티드 브리앙에게 공개서한을 보냈으며, 12월 11일에는 중국 남경의 국민당정부에게 청원서를 보냈다.²⁹¹⁾ 이 공개청원서에는 손덕인, 정두옥, 김현구, 조광원, 이용직, 김유택(조선소년동맹단 총무), 김점순, 승룡환 등 8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들 뿐 아니라 하와이 거류 미국인, 중국인 및 기타 외국인들도 참가하였다. 이는 선전부의 활동이 한인들과 미국인·중국인과 기타의 외국인들의 지지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공개서한과 청원서는 일제의 만주침략 저의를 폭로하고 한국독립운동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선전부에서는 1932년 11월 14일 정두옥·김현구가 국제연맹 사무총장 에릭 드럼몬드에게도 한국의 독립과 세계평화를 위해 불법적인 일제의 침략행위를 저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공한을 보냈다.²⁹²⁾

이와 같이 선전부를 통해 대외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던 하와이 교민단은 체제를 정비하여 국민회를 재건하려 하였다. 먼저 선전부의 핵심 구성원이었던 정두옥은 「통일의 길을 걷자」라는 글에서 만일 국가혁명사업을 위한다면 지금 하와이 韓人社會는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정두옥은

1. 전일에 하와이 韓人社會를 국민회가 통일하고, 또한 국민회 시대에 재미나게 살던 살림살이가 우리 사람에게 인상 깊이 박힌 까닭.
2. 美洲 대륙에 있는 국민회와 옛날 형제의 의를 다시 회복하는 것.

291)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제7집, 1011~1018쪽

292) 위의 책, 1019~1930쪽.

3. 하와이정부 재무국에 아직까지 국민회라는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회관 이름이 아직 국민회관이며, 또한 신문 이름이 아직 국민보라.
4. 하와이 韓人社會가 생긴 후로 아직까지 현장으로 말하면 국민회 자치 규정만큼 쓴 것이 없다.²⁹³⁾

라고 하여 하와이 韓人社會가 국민회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전민족 통일을 먼저 희망하지 말고 하와이에 있어서는 하와이 韓人社會를 먼저 통일하고, 북미에 있어서는 북미 韓人社會를 통일하고, 또한 중이양령에도 각각 그렇게 하면 전민족 통일이 어찌 멀다 하리오. 그럼으로 먼 지방은 근심말고 우리 있는 곳부터 통일하자.²⁹⁴⁾

라고 하여 하와이 韓人社會가 먼저 국민회를 중심으로 통일하고, 북미에서는 북미 국민회를 통하여 통일한 후, 두 곳이 통일된다면 전 민족의 통일이 멀지 않을 것이니 우리 있는 이곳 하와이부터 통일하자고 하였다. 북미에서 북미한인사회가 통일한다는 것은 1931년 1월 11일 북미 국민회가 북미지역 중심의 통일을 제안한 在美韓人統一促進意見書を 말하는 것으로 정두옥의 통일방안은 이에 근거한 것이었다.²⁹⁵⁾ 따

293) 『國民報』, 1931년 5월 6일.

294) 『國民報』, 1931년 5월 13일, 「재포한인의 통일」

295) '재미한인통일촉진의견서'는 1931년 1월 11일 송중익·홍언·김동우·강영소 등 4인이 제

라서 정두옥의 통일방안은 하와이와 북미에서 각각의 국민회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후 교민단은 1933년 1월초에 개최한 대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교민단을 大韓人國民會로 바꾸기로 하고, 1월 8일자 공함을 통해 각 지방회에 통지하였다.²⁹⁶⁾ 대의회는 1월 16일 교민단 해체를 결정하고, 1909년에 설립되었던 '국민회'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회 복구기념일을 2월 1일로 정하였다.²⁹⁷⁾ 복설된 국민회 1933년도 신임 총회장에는 교민단장이던 이정근이 선출되었다. 부총회장에는 강영효가 선출되었다.²⁹⁸⁾ 1934년 임원은 총·부회장은 전년과 동일하고 총무 김원용, 법무 승룡환, 서기 겸 재무 김현구, 사교 서병순, 상무 손덕인, 학무 김영수, 체육 인봉주로 구성되었다.²⁹⁹⁾

이처럼 국민회 조직은 복구되었으나, 재정이 복구되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렸다. 1934년 4월 26일 국민회는 재정형편으로 더 이상 국민회와 국민보사 사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임원 총사직을 결의하고 5월 19일까지 사직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國民報」를 정간하기로 하였다.

시한 6개안의 통일방안이다. 이는 북미지역 중심의 통일, 민족주의와 민중주체에 의한 통일 방향을 발표한 것이다. 이후 북미지역 大韓人國民會의 통일운동 지침이 되었다. 홍선표, 「1930년대 在美韓人の 統一運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0집, 1996, 205~206쪽.

296) 『新韓民報』 1933년 1월 26일 「교민단을 국민회로」

297) 『新韓民報』 1933년 2월 2일 「하와이」 '총부회장장 취임식'.

298) 『新韓民報』 1933년 2월 9일 「하와이」; '하와이 국민회 총부회장 선거'.

299) 『新韓民報』 1934년 3월 1일, 하와이: '하와이 국민회 사업확장 계획'

총사직의 이유는

년래로 소송 과정으로 인해 인심이 소란된 결과, 사회에 대한 복무를 하는 동포가 많지 못함.³⁰⁰⁾

라고 하여 同志會측과의 많은 소송으로 하와이내 인심이 분열되면서 국민회에 대한 韓人들의 무관심이 증대했기 때문이라 하였다. 국민회에 대한 韓人들의 무관심은 하와이 韓人社會의 해체와도 관련이 있다. 하와이 韓人社會는 1930년 82%의 韓人이 영어를 할 수 있었을 정도로 美國化되어 가고 있었다. 또 독립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민 1세대들이 5, 6대로 노령화 되었으나 이민 2,3세대들은 독립운동에 냉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공황이 겹치면서 韓人社會가 급격히 해체되어 갔으므로 韓人들은 국민회에 관심을 가질 여력과 재정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다.³⁰¹⁾

존폐의 위기까지 몰린 국민회 문제는 다행히 5월 27일 오창익·김백수·이두경·이중현·서진수 등 14명이 하와이사회문제연구회를 발족하여 해결책을 강구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하와이 사회문제 연구회에서는 국민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김윤배를 총회장으로 이호직을 부회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이에 참여한 사람은 박종수·정원명·정두옥·박봉집·태병선·이용직·김진호·박상하·이정근이다.³⁰²⁾ 새로 선출된

300) 『新韓民報』 1934년 5월 17일 「하와이」; '하와이 국민회 총사직'.

301) 패터슨저, 정대화 역, 『하와이 韓人 이민 1세』, 2003, 201~214쪽

302) 『新韓民報』 1934년 6월 7일 「하와이」; '하와이사회문제연구회'.

총회장 김윤배는 국민회 채무에 대한 탕감활동을 전개하고,³⁰³⁾ 大朝鮮獨立團과의 통합운동을 시도해 국민회 재건운동을 전개하였다.

大朝鮮獨立團의 통합은 그동안 李承晩의 전횡에 불만을 품고 중립적인 태도를 가졌던 인사들을 국민회로 합류시키려 한 것이었다. 大朝鮮獨立團 단장 金成玉은 국민회 총회장 김윤배의 통합제의를 1934년 8월 26일 통상회의에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10월 14일 참석원 40명중 36명의 동의로 大朝鮮獨立團의 해소가 결정되었다.³⁰⁴⁾ 10월 15일 독립단과 국민회는 합동을 정식으로 의결하였고, 10월 21일에는 두 단체의 합동 축하기념식을 거행하였다.³⁰⁵⁾ 그러나 독립단원 중 합동운동에 반대하는 이들이 있어 실제로는 독립단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들은 1936년도 신입원을 단장 박태균, 부단장 박성달, 총무 김희채, 서기 차제만, 재무 양문서 등으로 구성하고 계속 운영하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1938년 제2차 합동운동 전개시 韓人社會의 전체 통일을 위해 독립단의 합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독립단에서 소유한 우성학교와 독립단 부지 등 재산처리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어 1936년에 가서야 분란이 조정되었다. 독립단 재산은 소송제기로 빚까지 지게 되면서 결국 단원들에게 분배되었다.

단체 통합으로 국민회의 위상은 제고되었으나 재정형편은 별반 나아지지 못하여서 1934년 재정수입은 1,465달러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

303) 『新韓民報』 1934년 7월 26일 「하와이」; '국민회 구당국은 채무를 탕감'

304) 『新韓民報』 1934년 9월 13일 「하와이」; '국민회와 독립단 합동운동'

305) 『新韓民報』 1934년 11월 8일 「하와이」; '합동축하의 성황'.

한인국민회에서는 1934년 7월부터 국민회 기본금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였고, 1935년 총회장으로 선출된 임성우와 1936년 총회장 조병요를 비롯한 임원진들은 기본금모집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대한부인구제회의 적극적으로 후원으로 국민회 1935년 총수입은 2,255달러, 1936년에는 3,476달러로 크게 증가 하였다.³⁰⁶⁾ 그리고 국민회는 1936년 12월말에는 밀린 부채까지 청산하였다.³⁰⁷⁾ 이로써 국민회의 조직기반은 이전에 비해 더욱 탄탄해 질 수 있었다.

2. 大朝鮮獨立團과 盧伯麟

盧伯麟이 하와이에 온 것은 오로지 독립전쟁에 필요한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盧伯麟은 중국에 머물던 중 朴容萬의 독립군 양성에 협조하기 위해 하와이로 망명하였다. 盧伯麟은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大韓人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의 연무부가 확장된 大朝鮮國民軍團에 합류하여 별동대 주임으로 군사훈련을 담당하였으나, 국민군단이 盧伯麟 도착 후 곧 해소되었으므로 오랫동안 활동하지는 못하였다.³⁰⁸⁾

국민군단이 해체된 이후 盧伯麟은 하와이에서 大朝鮮獨立團을 창설

306) 『新韓民報』 1936년 1월 30일, 「하와이」; '국민총회 임원회', 1937년 1월 28일 '국민총회의 결산서' 참조.

307) 『新韓民報』 1934년 5월 16일 「하와이」; '총회장 순행의 성적', 5월 23일 '국민회기본금모집', 1936년 12월 31일 「하와이」; '국민회의 외채청장'.

308) 『新韓民報』 1919년 11월 20일.

하였다.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3월 3일 호놀룰루의 韓人 자유교회에서 朴容萬과 함께 창단한 것이었다.³⁰⁹⁾ 창단시에 단원은 350명이었으며 그 약장의 총칙은 부록에 실었다. 이 약장은 대조선독립이 국내와 원동의 각단체로 조직된 大朝鮮獨立團의 하와이 지부로서 하와이 호놀룰루에 본단을 하와이 각 섬에 지방단을 설치하였으며, 사회민주주의와 자유사상을 표방하면서 군사운동과 출판과 외교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大朝鮮獨立團은 大朝鮮國民軍團을 계승한 것이었는데 大朝鮮國民軍團에서 활동하였던 리상호를 비롯하여 신흥균, 안영길, 조용하, 김운배, 리복기, 정두옥 등이 총단장을 역임하였다. 大朝鮮獨立團은 1918년 11월 28일 ‘갈리히’ 연합회에서 국제정세의 홍보를 목적으로 창간되었던 『太平洋時事』(The pacific Times)³¹⁰⁾를 인수하여 기관지로 삼았다. 태평양 시사는 盧伯麟이 사장 겸 주필이었다. 盧伯麟은 그 창간사 〈태평양지사 창간주의〉에서

309) 大朝鮮獨立團의 창단이 朴容萬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大朝鮮獨立團의 기관지 태평양 시사의 초대 사장과 주필이 盧伯麟이었다는 점과, 大朝鮮獨立團 단장에서 나타나는 당시 국내 상황에 대한 인식과 盧伯麟의 연설에서 나타나는 盧伯麟의 국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盧伯麟이 大朝鮮獨立團 창단부터 깊게 관여하였다고 보여진다. 또 盧伯麟의 하와이 망명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와이에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것이었으므로 大朝鮮獨立團 창단 당시 하와이에 있던 盧伯麟이 혼자 주도적으로 大朝鮮獨立團을 창단하거나 이끈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요 인물이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310) 『新韓民報』 1918년 12월 29일

이 신문은 어느 단체의 기관보도 아니오 또 어느 개인의 사업신문도 아
니오 온전한 한국의 절박한 사정을 세상에 광포하며 세계의 평화문제를
해결키 위하여 발간한다³¹¹⁾

라고하였다. 즉, 盧伯麟은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조국의 독
립이 이루어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여 태평양 시사를 창간하였으
며,³¹²⁾ 이 신문을 통하여 한국의 절박한 사정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였
던 것이다. 그리고 창간사에서 보듯이 盧伯麟은 太平洋時事를 통해 중
립을 지키고자 하였다. 이는 朴容萬과 李承晩의 대립을 염두에 둔 것이
며, 이 대립으로 대조선국민군단이 해체 된 데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기
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장이며 주필인 盧伯麟의 이러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太平洋時事는 大朝鮮獨立團의 기관지 성격이 매우 강하였다.
313) 大朝鮮獨立團의 정신은 大朝鮮獨立團의 당강에도 나타나고 있는
데, 大朝鮮獨立團 당강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조선독립단 당강

1.우리는 우리 반만년 나랏집의 늙은 영광을 안타깝게 사랑하고 또 오늘
날 견디는바 큰 부끄러움을 아프게 슬퍼하여 오직 광복운동으로써 우리의
평생의 일을 삼는다 그리하나 소위 내정자치나 위임통치같이 완전히 낡은

311) 『新韓民報』 1918년 12월 29일.

312) 『新韓民報』 1919년 11월 20일

313) 太平洋時事는 1920년 12월 4일 그 체제를 개량하고 ‘인터타일’ 식자 기계를 매입하여 1926
년 3월까지 주간신문을 발행하였다. : 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I 분책, 734쪽, 高警 제
9189호, 高警 제27963호.

주권은 결코 원치 않고 오직 완전한 독립회복하기를 주장하며 또 이 주장을 군사행동으로 실행하기를 도모한다.

2. 우리는 우리 반도조선의 강토와 인구가 족히 한 나랏집의 독립주권을 영구히 보전키 어려운줄 아는고로 우리는 우리 민족을 우리의 옛강토 만주, 시베리아, 몽고 등지에 번식케하여 먼저 그 안에서 자리를 잡고 세력을 펼치며 또 반도 독립을 직접으로 운동치 않고 간접으로 운동하여 장차 이로 말미암아 삼아 조선민족과 조선국가가 능히 단단히 굳건한 터에 서게 한다.

3. 우리는 오늘날 우리같이 연약한 민족의 생존할 도리는 오직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붙들고 나가는데 있는 줄 믿는고로 이 주의를 절대로 주장하며 더 강포한 자의 방편 극단으로 서도 나타난 공산주의와 제국주의는 어디까지든지 일체로 항거한다.

4. 우리는 정치 혁명을 성공한 뒤에 곧 경제 혁명에 착수하여 전국 토지를 인구 비례로 나누어 학번 분산 제조를 실행하겠다.

5. 우리는 조선 민족의 영구한 독립의 힘을 키울 또 인생의 노력과 담금과 금전을 헛되이 허비치 않기 위하여 국문 혁명을 주창하여 우리 국문의 자모음을 곧 영문법문과 같이 가로 쓰기로 직렬하고 또 국어를 연구하여 장차 순결한 조선 문화를 세우겠다.

6. 우리는 인류의 존망성쇠와 흥패영욕이 오직 한가지 ‘힘’이라하는 것에 있다하여 또 이것으로 오직 주의의 표방을 삼아 사람마다 각각의 힘을 키우기에 정신을 다하며 또 이 주의의 정신교육을 전 국민에게 베풀어 장차 우리가 한 강대한 민족이 되기를 기약한다.

7. 우리는 조선 우리 당원으로 하여금 각각 힘있는 국민이 되어 장차 우리 세가지 혁명운동에 유조한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정신력, 물질력으로 일곱가지 착실한 원조를 서로 주겠다.

- (1)덕의를 숭상하여 정신을 함양하며
- (2)복리를 도모하여 수확을 함께하며
- (3)애경을 발휘하여 환난을 구제하며

- (4)직업을 소개하여 생활을 유지하며
- (5)지축을 장려하여 실력을 양성하며
- (6)산업을 진흥하여 리해를 같이하며
- (7)교육을 증진하여 기술이 발달케할 일

주의하라

- (1) 이 종이를 항상 간수하여 때때로 읽어 그 의미를 착실히 연구하고 또 동지자들과 각 조건을 강론하여 서로 명백히 깨닫게하라
- (2) 이 당강을 주장치 않고 또 당원되는 맹세를 앎는 자는 당력에 이름 쓰기를 허락지 않는다.
- (3) 우리 주의를 전파하여 당원을 많이 얻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첫 번째로 大朝鮮獨立團은 경술국치(1910)를 슬퍼함에 있어 광복운동으로 평생의 일로 삼는다고 하면서 정한경이 주장하는 내정자치나 李承晩이 주장하는 위임통치³¹⁴⁾는 낡은 주권이라고 표현하며 오직 완전한 자주독립 회복이 원하는 바이며 이를 얻기 위해 군사행동을 실행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 조항을 통해 大朝鮮獨立團은 李承晩이나 정한경과는 다른 입지를 표방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는 절대독립을 내세운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기본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大朝鮮獨立團은 현재 한반도에서의 독립주권이 보전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옛 영토였던 동삼성, 시베리아, 몽고 등지에서 한국인이 먼저 기반을 잡고 간접적인 독립운동을 펼쳐 이 기반 위에 조선민족과 조선국가가 서게하려 한다고 하였다. 이 조항에서는 美國에서의 독립군 양성이 원동에서 활동할 군대를 양성하는 것인데,

314) 김원용, 앞의 책 359쪽

원동을 고집하는 것이 옛 우리 민족의 영토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시하였다.

세 번째로 大朝鮮獨立團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신봉한다고 하면서 공산주의와 제국주의는 배척한다고 하였다. 네 번째로 大朝鮮獨立團은 정치혁명에 성공하고나면 전국 토지를 인구비례로 나누는 경제혁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네 번째 조항은 盧伯麟의 국내사정에 대한 인식에 기인한다. 盧伯麟은 1919년 하와이를 떠나 시카고에서의 연설에서

곧 민족의 피로야 그 국가의 독립을 찾는 범인즉 현금 백두산 이남으로 한라산까지 바라보면 작년의 지은 곡식은 모두 왜적이 자기 맘대로 만들어 쓰는 그 지전을 주고 모두 빼앗아가고 금년 농지병국에 우리 대사가 버려지게 되었으므로 파종도 못하고 또는 더구나 흉년이 들었은즉 금일 한족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이외다. (말이 여기 미치매 장군은 눈물을 뿌리며 말을 못하고 령중도 동감의 눈물로 치참한 빛이 가득하더라)³¹⁵⁾

라고하여 1918년 국내의 피폐된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다. 국내의 사정이 그러하므로 정치혁명으로 독립을 이루고 난 이후에는 토지개혁을 통해 경제혁명을 이루어 모든 국민이 잘 살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다섯 번째로 국문혁명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가로쓰기를 주창하고 국어연구를 통하여 조선문화를 바로 세우겠다고 천명하여 우리 민족언어

315) 『新韓民報』 1919년 10월 18일 〈시카고에서 盧伯麟 총장을 환영〉

인 한글에 대한 애정을 보이고 있다. 여섯 번째로 인류의 존망성쇠와 흥패영욕이 오직 ‘힘’에 있으므로 이 힘을 키워 강대한 민족이 되기를 기약하였다. 일곱 번째로는 당원 각각이 힘있는 국민이 되고 세가지 혁명운동에 도움이 되는 일꾼이 되도록 당원들에게 정신·물질적 일곱가지 원조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일곱 가지는 정신함양, 공동수확, 환난구제, 직업소개, 저축장려, 산업진흥, 교육증진이였다. 이러한 정신적·물질적 원조를 하겠다는 일곱 번째 조항은 大朝鮮獨立團이 군대조직일뿐 아니라 韓人의 하와이 생활 전반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항이다.

이와 같이 大朝鮮獨立團 강령에서 보듯이 大朝鮮獨立團은 독립전쟁론에 기초하여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군대조직으로서, 한편으로는 韓人社會의 친목과 이익을 도모하는 공동체역할을 하였다. ‘주의하라’라는 항목은 이 종이-大朝鮮獨立團 당강-을 항상 간직하여 때때로 읽어보고 그 의미를 연구하고 동지들과 강론하라고 하여 大朝鮮獨立團이 이 조직에 참여한 韓人들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大朝鮮獨立團의 대표였던 盧伯麟과 朴容萬은 1919년 9월 大韓民國臨時政府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계원은 軍務總長에, 朴容萬은 외교총장에 선임되었다.³¹⁶⁾ 이에 朴容萬은 상해로 가기위해서 盧伯麟은 大統領 李承晩을 만나기 위해 하와이를 떠났다. 大朝鮮獨立團의 대표였던 朴容萬과 盧伯麟이 大韓民國 臨時政府에 합류하기 위해 하와이를 떠나면서 하와이에서 大朝鮮獨立團의 세력은 이전보다 감퇴되었으며, 이후 大朝鮮獨立團은 朴容萬이 상해에서 군사통일회를 조직하고 활동할 때 후원

316)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148쪽

금을 조달하였다. 대조선 독립단과 하와이 지방총회 연합은 1919년 7월 8일 합동식을 개최하고 독립단의 기관지인 太平洋時事를 폐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9월 다시 두 단체 사이에 분규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를 통합하면서 太平洋時事를 재간하였는데 이때는 주2회 발행을 주1회 발행으로 줄이고 趙蘇夏(舊韓國駐獨公使館書記)를 獨立團長 겸 太平洋時事社長으로 뽑았다.³¹⁷⁾

桂園이 하와이로 망명한 이후 大朝鮮國民軍團에서 별동대 주임으로 활동하고 호놀룰루에서 大朝鮮獨立團을 창설한 것은 1910년 이후 전개되기 시작한 해외독립군기지 건설과 독립군 양성의 한 형태로서 이 군단들의 목적은 시베리아에서의 獨立戰爭을 지원하여 일본군과의 전면전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같은 해외 독립군 기지 건설과 독립군 양성은 하와이처럼 이민으로 韓人社會가 형성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하와이의 경우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韓人들의 기부금과 노력으로 항일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하와이에서의 독립군기지 건설은 大朝鮮國民軍團이나 大朝鮮獨立團처럼 군대를 조직하고 太平洋時事 등의 기관 신문발행을 통한 언론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大朝鮮獨立團은 군사조직단체였으나 그곳 韓人社會 생활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생활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3. 同志會와 李承晩

(1) 李承晩의 大韓人國民會 掌握

李承晩이 하와이에 정착한 것은 1913년 2월경이었다. 그는 1910년 7

317) 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제 I 권 분책, 737~738쪽, 高警 제9289호.

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국내 YMCA에서 교육과 전도활동을 전개하다가 미니아폴리스에서 개최된 세계감리교선교대회 참석을 위해 한국 평신도대표로 1912년 3월 26일 도미하였다. 그리고 이 대회 후 국내에서 105인 사건으로 국내귀국이 여의치 않자 귀국하지 못하고 있던 중 朴容萬의 초청으로 하와이에 정착하였다.³¹⁸⁾

하와이에 도착한 李承晩은 한인감리교회 감독 존 워드맨을 도와 한인기숙학교의 운영을 담당하였다. 당시 워드맨은 일본영사관에서 750달러를 받아 한인과 워드맨 사이에 불화가 일어났고,³¹⁹⁾ 워드맨은 李承晩을 하와이 한인과의 중재자로 내세우기 위해 한인기숙학교의 운영을 맡겼던 것이다. 李承晩은 한인기숙학교 운영을 통해 언론, 교육, 전도사업에 투신하였다. 1913년 9월 한인기숙학교를 한인중앙학원으로 바꾸고 학제를 개편하였으며, 교회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주도권을 행사하였다. 또 9월 20일에는 월간지인 태평양잡지를 창간하고 주필을 맡는 등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지도자로서 급부상하였다. 이렇게 李承晩의 하와이에서 지도자로서 급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과거 활동과 경력 때문이었다. 李承晩은 당시 하와이 한인사회에 대한인국민회라는 거대한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지만, 이 단체의 후원과 지지보다는 개인적인 역량으로 활동을 하였고 개인적인 지지와 지원을 끌어내었다. 朴容萬의 경우 1900년대 초 한성감옥에서 만났던 李承晩과의 인연으로 李承晩을 하와이로 초청하였고, 李承晩이 하와이에서 태평양잡지를 창간할

318) 김원용, 『재미한인오십년사』, 153쪽, 한편 정두옥은 大韓人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長 박상하가 초청하였다고 하였다. 정두옥, 『재미한족독립운동실기』, 53쪽

319) 김원용, 『재미한인오십년사』, 42쪽

때 중학교 설립기금 2천원을 선뜻 내주면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다짐도 해 주었던 것이다.³²⁰⁾

그러던 중 李承晩과 大韓人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 사이에 분란이 일어났다. 그것은 1914년 7월 李承晩이 중앙학원에 한인여자 기숙사를 설립하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李承晩은 하와이 한인들로부터 교육특연을 받아 10월에 여자기숙사를 신축하였는데, 당시 大韓人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에서는 총회관 신축을 위하여 하와이 한인들에게 특연을 받던 시기였다. 이 총회관은 12월 19일 낙성식이 이루어졌는데, 李承晩의 교육특연이 총회관 특연 때문에 방해를 받았던 것이다. 이에 李承晩은 “대저 국민회관 건축이 우리에게 학식을 주겠는가 재정을 주겠는가”라며 불만을 포로하였다.³²¹⁾

한편 李承晩은 여자기숙사 설립을 위해 大韓人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에 교육사업을 위해 마련해 놓은 엠마기지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李承晩의 요구는 엠마기지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었으므로 1914년 총회장 김종학은 공회의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미 통상회의에서 엠마기지를 여자기숙사에 기부하기로 하였으므로 大韓人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에서는 여자기숙사에 기부한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그러나 李承晩은 자신의 명의로 미합중국 정부에 문빙을 성결할 것을 고집하고 대립하였다.

李承晩의 大韓人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에 대한 불만은 총회가 朴容

320) 정두옥, 『재미한인독립운동실기』, 53쪽

321) 김원용, 『재미한인오십년사』 140~141쪽

萬의 언론, 군사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李承晩의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지도 해주지 않는 것에 있었다.³²²⁾ 그러던 중 大韓人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장이었던 김종학의 권한남용과 실정으로 임원이 총사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³²³⁾ 1915년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총회장 및 부회장 재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李承晩은 국민회 개혁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승만의 성명서는 태평양잡지 제2권 5·6권에 게재되었는데, 1915년 1월 당해연도 大韓人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 사업을 위한 대의원회의 결과 자신이 의도한 교육비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전년도 재정을 범용한 채무를 용서하여 흐지부지 처리한다고 비판하는 내용이였다. 그는 이 성명서에서 자신의 일을 반대하는 것이 곧 大韓人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를 반대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각 지방의 문제를 자신이 받아 처리할 것이며, 국민회가 받는 의무금을 모두 자신이 받아 앞으로 교육사업에만 전념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의 사무경비와 국민보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비는 계속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李承晩은 하와이 각 지역을 순행하며 의무금 수합과 함께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개혁을 위한 동지 규합에 나섰다. 李承晩의 지역 순행은 李承晩을 지지하는 세력이 숫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이었다. 1915년 총선거에서 1914년 사퇴하였던 김종학이 992:105라는 압도

322) 『新韓民報』 1915년 6월 10일 「중앙총회에 온 하와이 대의원의 공첩」

323) 『新韓民報』 1914년 12월 24일 「하와이 지방총회 명년도 총선거의 실패」

적인 지지로 다시 총회장에 당선되었던 것이다.³²⁴⁾ 숫적으로 열세이던 李承晩이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를 장악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財政文簿調查에서 총회장 김종학의 재정범용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다. 大韓人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 임원들의 재정 범용과 남용은 법정문제로 비화되었고, 李承晩 지지자들은 새 임원으로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던 것이다.

1916년 총회에서 자신의 지지자인 洪翰植과 鄭仁秀가 회장과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大韓人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를 완전히 장악한 李承晩은 재정을 자의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국민회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즉, 하와이 파할나마울라 지방회 통문은 의무금을 총회로 보내지 말고 따로 적금하여 고명한 신사 李承晩에게 맡기며, 한인공보를 따로 발간 하자고 하였다. 마위공동회 통문은 교육기관을 학무부에 부속하되 그 사항은 고명한 신사 李承晩에게 위탁하고 행정임원은 일체 간섭하지 못하게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³²⁵⁾ 힐로 구역 10개 지방 연합회는 재정 고문을 李承晩으로 선정하리고 가결하였으며, 고나구역은 교육기관을 국민회 학무부가 아닌 李承晩에게 위탁하기로 가결하는 등 李承晩 지지자들은 大韓人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의 교육사업과 재정권을 모두 李承晩에게 넘기고 그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였다.³²⁶⁾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大韓人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는 李承晩의 사적인 기관으로 전

324) 『新韓民報』 1915년 2월 11일 「하와이 지방총회 총부회장 선거」

325) 『新韓國報』 1917년 5월 3일 「누가 국민회를 없이코저 하느뇨」

326) 『新韓國報』 1917년 5월 3일 「하와이 국민회 정국의 암담한 정형」

락한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이러한 李承晩의 전횡에 대하여 新韓民報는 논설을 게재하여 비판하였다.³²⁷⁾ 1918년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제10차대의회에서는 재정 문부조사 실시에서 문부에 오착이 많고 은행적립금의 증명이 없어 당시 재무였던 李承晩에게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李承晩은 자신이 직접 조사원을 대면하지 않고 총회장 안현경으로 대언시키고 은행적립금을 증명하지 않았다. 이에 조사원이 재차 해명을 촉구하였다. 그런데 李承晩의 태도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던 2월 11일 유혈극이 발생하였다. 李承晩은 이에 대의원 중에서 흥기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하려 했다고 하와이 경찰에 고소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는 법정 소송으로 확대되었다.³²⁸⁾ 3월 8일 하와이 법정에서 李承晩의 고소가 모함으로 인정되고 살인미수건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나 李承晩은 이 사건을 통하여 朴容萬과 불화하고 나아가 하와이 한인사회를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李承晩은 이번 사건이 朴容萬 지지세력이 자신을 지지하는 안현경이 총회장으로 피선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배후에 朴容萬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이번 풍파의 책임을 朴容萬으로 몰았던 것이다. 법정소송에서 李承晩은 미 재판부의 판결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끌어내기 위하여 朴容萬의 군단활동을 미국과 일본 사이에 중대 사건을 일으켜 평화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李承晩의 朴容萬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朴容萬이 1918년

327) 『新韓民報』 1917년 5월 3일, 10일, 17일, 24일, 31일, 6월 7일

328) 김원용, 『在美韓人五十年史』, 149~150쪽

3월 갈리히 연합회라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고 太平洋時事를 발간하고 大朝鮮獨立團을 설립하는 등 국민회와 결별하게 만들었다.

朴容萬의 大韓人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와의 결별로 하와이 한인사회는 대한인국민회와 갈리히 연합회로 양분되었다. 3·1운동 이후 李承晩은 大韓民國臨時政府에서 대통령으로 선임되자 대한인국민회마저 해체하고 교민단으로 교체하여 자신의 독자세력으로 만들었다. 하와이 한인사회의 분열은 3·1운동으로 독립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어 독립운동이 활발해짐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 진행에 있어서 상당한 장애가 되었다.

(2) 李承晩의 同志會 結成

李承晩이 大韓人國民會 하와이 지방총회를 사실상 장악하고 朴容萬이 대한인국민회와 결별하면서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대한인국민회는 반쪽짜리 한인단체로 전락하였다. 거기다가 李承晩이 한성임시정부의 집정관총재로 선임되어 구미위원부를 만들면서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의 위상은 더욱 흔들리게 되었다. 李承晩은 漢城臨時政府의 組閣 名單에서 자신이 執政官 總裁가 되자, 1919년 8월 외교기관인 歐美駐節委員部를 독자적으로 설치하였다. 李承晩은 구미위원부가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공식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大韓人國民會는 순수 민간단체라고 위상을 격하시켰다.

또 李承晩은 歐洲를 포함한 美·布·墨·쿠바 전 지역의 韓人들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두려고 大韓人國民會에서 상해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위임을 받아 시행해 오던 애국금 수합을 폐지시키고, 이를 구미위원부

가 발행하는 공채표 모집으로 대신하려 하였다. 1920년 3월 1일 상해 臨時政府는 李承晩의 의도대로 大韓人國民會의 애국금 수합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공채발행의 全權을 구미위원부로 위임하였다.³²⁹⁾ 大韓人國民會 중앙총회는 1920년 4월 8일부터 3일 동안 열린 평의회에서 상해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애국금 수합운동을 중단하였다.³³⁰⁾ 재정수합을 둘러싼 大韓人國民會와 李承晩간의 주도권 분쟁은 하와이와 美洲韓人社會의 분열의 골을 더욱 깊게 하였다.

상해 大韓民國 臨時政府를 방문하고 돌아온 李承晩은 1921년 7월 21일 민찬호·안현경·이종관과 더불어 하와이 호놀룰루에 同志會를 설립한 뒤 총재가 되었다.³³¹⁾ 同志會는 그 目的을,

상해의 임시정부를 옹호하며 대동단결을 도모하되 임시정부의 위신을 타락하거나 방해하려는 불충불의 한 국민이 있으면 본회가 일심하여 방어하며 상당한 방법으로 조치함.³³²⁾

이라하여 상해의 大韓民國 臨時政府를 옹호하고 대동단결을 도모한다고 하였다. 주요 使命을 "총재의 대정 방침을 보좌하며 명령을 절대 복

329) 『독립신문』 1920년 3월 1일 〈애국금폐지〉, 4월 22일 〈공채모집위원규정〉

330) 『新韓民報』 1920년 4월 13일 〈평의회의 결과〉, 4월 30일 〈布告와 訓令〉.

331) 김원용, 위의 책, 200면.

332) 김원용, 위의 책, 213면.

종합에 있음”이라고 하여 同志會가 총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단체임을 명시하였다. 즉, 同志會는 大韓民國 臨時政府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당시 대통령인 同志會 총재 李承晩의 활동을 적극 후원하기 위해 조직된 개인적 친위조직이었다.

하와이에서 결성된 同志會는 이후 미본토로까지 확대되어 뉴욕·시카고·몬타나·디트로이트지역에도 지부가 만들어졌고, 1929년 10월에는 李承晩이 나성 방문을 계기로 기존의 나성 韓人 교민단을 해소하고 나성 同志會를 만들어 同志會를 확장시켰다.³³³⁾

李承晩은 同志會 결성 이후 하와이 韓人社會를 同志會 중심으로 재편·통일을 시도하였지만 이는 교민단과의 분쟁으로 분열만 가중시켰다. 이에 同志會는 체제를 정비하고 교민단과 결별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모색하였다. 1931년 7월 만보산 사건과 9월 만주사변이 일어난 후 同志會는 1931년 12월 14일 개최한 중앙부 이사회를 통해 현 시기의 당면 과제이자 대정방침으로 다음의 3대 의안을 통과시켰다.

1. 비상한 이 때에 임시정부 기반을 더욱 공고케 하기 위하여 同志會 중앙부에서 미·포·묵에 산재한 만 명 교류민에게 인구세를 수합하여 임시정부로 납부케 한 사.

2. 양서에 산재하여 있는 일만 명 우리들은 2천 3백만을 대표한 대외기관인 구미위원부를 중심하고, 물력과 정신을 총집중하기로 중앙부 서무부에 위탁하여 운동케 한 사.

3. 재만 동포의 구출금을 시급히 수봉하기로 서무부에 위탁한 사.³³⁴⁾

333) 玄, John K, 洪性傑譯, 『國民會略史』, 高麗大民族文化研究所, 1986, 24쪽.

334) 『태평양주보』 1931년 12월 19일 「사설」 및 「중앙부이사회록」.

즉, 同志會는 大韓民國 臨時政府 기반을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同志會 중앙부에서 美洲의 교류민들에게 인구세를 수합하여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재정을 확보하게하고, 서무부에 산재해있는 동포들을 구미위원부를 중심으로 물력과 정신력을 총 집중하기 위하여 운동을 하게하는 한편 재만동포의 구출금을 서둘러 수봉하게 하는 것이었다.

同志會의 이같은 활동 방침은 분열과 파당을 극복하려는 민족적 입장에서 나온 것임을 천명하였다.³³⁵⁾ 또 同志會는 「특수한 지위와 비상한 시기에 처한 미·포·묵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글에서 美洲의 동포들이 뭉쳐 정치적 일대 단결을 하여 美國에 대한 외교활동을 정리할 것과 상해·동삼성·시베리아 등 해내외의 모든 동포가 한덩어리가 되어 중국과 협력하여 왜적의 불의를 깨뜨릴 능력을 준비하여 실행해야 한다고 하였다.³³⁶⁾

同志會의 활동은 李承晩과 분리하여 이야기 할 수 없는데, 李承晩은 1931년 11월 24일 하와이를 떠나 1935년 1월 24일 하와이에 돌아왔다. 李承晩은 하와이를 떠나 있던 기간동안 워싱턴과 체네바 등지에서 외교활동을 벌였다.³³⁷⁾ 李承晩은 윤봉길 의거로 인해 일제에 의해 무고한 韓人들이 체포되자 1932년 5월 4일 구미위원부의 이름으로 프랑스대사

335) 『태평양주보』 1931년 12월 19일 「사설」 및 「중앙부이사회록」

336) 『태평양주보』, 1932년 3월 30일

337) 李承晩의 체네바 활동에 대해서는 방선주, 「1930년대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 8, 1990, 437~448쪽. 柳永益, 『李承晩의 삶과 꿈』 중앙일보사, 1996, 174~188쪽.

관에 공문을 보내 상해거류 韓人보호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³³⁸⁾ 프랑스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³³⁹⁾ 한편 同志會는 이번 일로 大韓民國臨時政府를 우리 민족의 대표기관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大韓民國臨時政府에 대한 모든 후원활동을 구미위원부의 지휘하에 두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변함없이 고수하였다.³⁴⁰⁾ 그리고 이러한 변함없는 구미위원부 중심의 활동 방침 고수는 同志會가 타 단체와의 연합 및 통일된 활동을 시도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同志會의 최선주는 「집단운동에 일치하고 분열행동을 배격하자」라는 글에서 최근 大韓民國 臨時政府를 추대하고 후원하기 위해 인구세와 특별의연을 거두는 일은 다행한 일이나, 이 일이 개별 단체의 분산적인 행동으로 진행됨이 무척 유감스럽다 하였다.³⁴¹⁾ 그런 다음 그는 독립운동의 대의와 광복 대업의 성취를 위해선 이런 부분운동을 배척하고 집단운동의 기치하에 뭉쳐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 同志會는 외교활동을 각 단체에서 별도로 전개하는 것보다 합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1933년부터 제단체 연합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同志會를 비롯하여 정부 후원회, 大朝鮮獨立團, 동생회, 조미구락부, 와히아와 공동회가 동년 4

338) 『태평양주보』, 1932년 6월 1일, 「상해 체포한인 석방을 범국대사에 요구한 구미위원부 공문」

339) 『태평양주보』, 1932년 6월 1일, 「상해한인 체포사건 선후책에 대한 同志會 태도」

340) 『태평양주보』, 1932년 6월 1일, 「상해한인 체포사건 선후책에 대한 同志會 태도」

341) 『태평양주보』 1932년 6월 15일.

월 9일 한인연합협의회를 조직하였다.³⁴²⁾ 한인연합협의회는 한국 독립을 기성하려는 민중의 역량을 연락·집중케 하며 운동의 전선을 협의케 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15개조의 규칙 제정과 함께 기관보를 『협의회보』를 발간하였다.³⁴³⁾ 회원은 각 단체에서 선출한 대표로 한정하였다.

한인연합협의회는 교민단과의 분쟁으로 침체에 빠진 同志會가 부흥운동의 일환으로 조직된 것으로 보이지만, 독립단이 국민회에 합류함으로써 자연 한인연합협의회도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한인연합협의회 조직을 통해 同志會는 그동안 위축되었던 회세를 상당할 정도로 만회시켜, 이후 하와이 韓人社會의 중심적인 단체로 발돋움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同志會는 1937년 1938년 두 차례나 하와이 국민회와의 통일운동을 시도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韓人社會에 同志會에 대해 좋은 여론과 동정을 얻게 되었으므로 사기가 고무되어 있었다.³⁴⁴⁾ 이에 同志會는 1939년 1월 25일에 열린 동지대표회 제9차 속회에서 그동안 활동하지 않던 구미위원부를 매월 1백원의 경비로 열기로 하고 그 경비는 특연으로 유지할 것을 결의하였다.³⁴⁵⁾

이같은 결의는 同志會가 李承晩의 외교활동을 이제부터 적극 추진하

342) 『新韓民報』 1933년 6월 29일 「하와이」; '외교운동을 각 단체에서 따로'

343) 『新韓民報』 1933년 8월 10일 하와이; '한인연합협의회 조직'

344) 『태평양주보』 1939년 28일 「대한인동지회 전체대표회」

345) 『태평양주보』 1939년 1월 18일, 2월 4일 「동지대표회록」

고 지원하겠다는 의도였다. 이에 대해 同志會 중앙부장 손승운은 '한성 임시정부가 조직될 때 외교선전의 사명을 美洲에 있는 우리에게 부탁하였고, 중일전쟁 이후 현 상황이 외교선전활동을 전개할 때이다.'³⁴⁶⁾ 라고 강조하여 李承晩의 구미위원부 외교활동 재개가 정당성과 명분있는 일임을 적극 홍보하였다.

同志會는 구미위원부의 활동재개문제를 同志會 회원을 비롯한 하와이 전체 韓人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추진하려 했다. 이는 1939년 2월 12일 韓人公동대회와 3월 16일 특별공동회의 개최,³⁴⁷⁾ 그리고 李承晩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1939년 3월 19일 하와이 韓人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동대회 등으로 전개되었다.³⁴⁸⁾ 이런 일련의 노력을 통해 同志會와 李承晩은 명분상 민중의 뜻과 지원을 받들어 이번 외교활동을 실행하는 모양을 취했다. 그 결과 李承晩은 3월 30일 하와이를 떠날 때, 워싱턴의 외국친구들과 美洲동포들의 청함, 그리고 하와이 동포들의 부탁을 받고 독립운동 외교를 위해 워싱턴으로 떠나게 되었음을 대외에 천명할 수 있었다.³⁴⁹⁾

同志會가 구미위원부 활동재개를 결의하면서 이처럼 하와이 韓人 전체를 상대로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려 한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 즉 구미위원부활동이 단순히 李承晩의 사적인 활동이 아

346) 『태평양주보』 1939년 2월 4일 「사설」 : '위원부 문을 개방하자

347) 『태평양주보』 1939년 3월 18일 「광고」

348) 『태평양주보』, 1939년 3월 18일 「광고」, 3월 25일 「공동대회 좋은 결과」.

349) 『태평양주보』, 1939년 4월 1일, 「이박사 전별회」

나라 한민족 독립을 위한 중대한 외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점과, 모든 韓人들에게 구미위원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유도하려 한 점을 들 수 있다.

4. 中韓民衆同盟團과 韓吉洙의 業績

(1) 韓吉洙의 出生과 하와이 移民

韓吉洙³⁵⁰⁾는 1900년 5월 31일 京畿道 長湍에서 출생하였다.³⁵¹⁾ 韓吉洙는 1905년 5월 29일 차이나(China)호를 타고 아버지 한영석(Han, Young Suk)을 따라 하와이에 도착하였다. 韓吉洙의 아버지 한영석은 이민 당시 36세로 조선에서의 마지막 거주지를 정자바(Chung Cha pa)로 적고 있다. 한영석은 처(31세)와 두 아들 홍수(Hong Soo, 6세)와 곤수(Kon Soo, 3세)와 함께 하와이에 도착하였다.³⁵²⁾ 한영석의 두 아들 중 이민당시 6살이었던 홍수가 韓吉洙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영석은

350) 이명 韓吉壽, 韓吉秀. 韓吉洙에 대한 研究는 稻葉 強의 「太平洋戰爭中の在美朝鮮人運動 - 特に韓吉洙の活動お中心に-」, 『朝鮮民族運動史研究』 제7호, 1991가 있다. 郭林大도 자신의 자서전 『못잊어 華麗江山』(대성문화사, 1973)에서 韓吉洙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351) Hoover Insistution Archives. Collection title : "Korean Underground Report," 1box, 스탠 포드대학 후버 대통령 문서관 (Hover Institution) 소장. 1938년 9월 미국 노동부 이민국 하와이 호놀룰루 지부가 발부한 韓吉洙의 본토 도항증명 서류에 韓吉洙는 1938년 현재 38세로 되어있다. 郭林大는 그의 자서전에서 韓吉洙가 개성에서 인삼 농업을 경영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기술하고 있다. 『못잊어 華麗江山』, 대성문화사, 1974, 186쪽.

352) Records of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1783-1983 (Rwcord Group 85), Inbound Vessel, Passenger Manofests, Port of Honolulu, Box 536.

淸州韓氏의 문중인 長湍韓氏 3대손으로 “錫”자 돌림이고, 그의 아들 길수는 31대손으로 “洙”자 돌림이다.³⁵³⁾ 하와이에서 韓吉洙는 10살 되던 1910년경부터 오아후(Oahu)섬 와자후(Whaijahu) 농장 오하후 설탕회사에서 농장노동자로 일하게 된다. 아버지인 한영석이 귀국하였기 때문에 韓吉洙가 농장 노동자로 일하게 된 것이다.³⁵⁴⁾ 그런데 韓吉洙의 아버지 한영석이 언제 한국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1910년에서 1924년 사이 호놀룰루 일본영사관의 여권기록³⁵⁵⁾에 한영석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한영석은 이민을 왔던 1905년에서 韓吉洙가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게 되는 1910년 사이 되돌아갔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즉, 아버지의 귀향으로 韓吉洙는 고아나 다름없는 신세가 된 것이었다. 韓吉洙는 이 농장에서 14세까지 노동자로 일하면서 돈을 모아 15살 때 李承晩이 교장으로 있던 한인중앙학원 기숙 학교에 입학하여 李承晩의 제자가 되었다. 韓吉洙는 17살 때 호놀룰루의 카리히와이나 소학교를 졸업하고 주립사범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당시 외국인학생은 하와이 주의 교사로 채용될 수 없다는 입법이 통과되었고, 韓吉洙는 자신이 교사가 될 수 없었으므로 이 학교를 중퇴하였다.

학교를 중퇴한 韓吉洙는 18,19세 무렵 오아후 설탕회사와 296에이커

353) <六校 丁卯>淸州韓氏大同族譜編纂委員會, 『六校 丁卯)淸州韓氏大同族譜』, 1-30, 1993.

354) 郭林大, 『못잊어 화려강산』, 대성문화사, 1973, 186쪽.

355) 1905년 을사조약 이후 하와이 한인들은 일본영사관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1910년에서 1924년 사이 일본영사관을 통해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1,900여명이었다.

의 땅을 계약하여 사탕수수재배를 시작하였고, 하와이 방위군(National Guard)에도 참가하였다. 1921년 샌프란시스코 救世軍 훈련학교에 다니던 韓吉洙는 1922년 구세군 대위로 임관되어 1926년까지 하와이 각지에서 봉사하였다.³⁵⁶⁾ 1926년 호놀룰루의 윤스텔라³⁵⁷⁾와 결혼한 韓吉洙는 1927년부터 1936년까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였다. 韓吉洙는 1937년부터는 부동산중개업 경험을 바탕으로 토지매매와 법률에 저촉된 이들의 구속과 법률상 잔계에 대한 일을 맡아보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다.³⁵⁸⁾

(2) 韓吉洙의 獨立運動

韓吉洙의 1931년 10월 25일 조직된 대한인 교민단 선전부의 교섭위원이 되면서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³⁵⁹⁾ 이 선전부는 부장 정두옥이 중심이 되어 대외선전활동계획을 위해 조직된 것이었다. 선전부는 서기 김현구 재무 차신호 부원 김원용, 李容稷³⁶⁰⁾ 등으로 구성되었다.³⁶¹⁾

356) 韓吉洙는 구세군에서 상당히 일을 잘 하였다. 韓吉洙가 구세군을 떠난 것을 구세군의 간부였던 해리스 참령은 韓吉洙를 잃은 것이 불행이라고 말하였다. 『國民報』 1937년 6월 30일.

357) 韓吉洙의 처 윤스텔라는 1937년 라하이아에서 관립학교 교사로 재직중이었다. 『國民報』 1937년 3월 31일.

358) 『國民報』 1937년 1월 20일. 「한길수씨의 신사업」.

359) 이후 韓吉洙는 한국독립을 위해 헌신하였으나 그에 대한 평가는 한국독립에 있어서 “명백한 손해”라는 평가를 받았았던 것이 사실이다. 1942년 8월 21일. 그롬웰(James H. Cromwell)이 韓吉洙에게 보낸 편지.(독립기념관 소장).

韓吉洙는 구미부 교섭위원이었으며, 承龍煥은 한국부위원, 金鉉九는 원동부위원이었다.³⁶²⁾ 선전부가 조직된 목적은 만주사변이 발발하여 美日戰爭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 정두옥 등이 일본의 죄악을 선전하고 미 정보당국에 일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미부 교섭위원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韓吉洙는 교통비 30달러를 받으며 하와이에 있는 일본인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 정보로 미 주둔군 정보당국과 해군정보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 선전부에서 韓吉洙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의 영향력이 커지자 선전부에서는 1932년 韓吉洙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여 그의 활동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미 정보당국에 정보를 보고하는 韓吉洙의 활동이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대응은 당시 임시 의정원 의원이었던 엄항섭이 신한민보에 전보를 보내 韓吉洙에 관한 소식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³⁶³⁾

360) 이용직 목사는 뉴욕에서 하와이 호놀룰루의 한인기독교회 목사로 초빙되어 1929년 12월 10일 하와이에 도착하였고, 1930년 1월 1일 정식으로 부임하였다. 이용직은 金鉉九, 金元容 등과 손을 잡고 李承晩이 세운 교회에서 李承晩을 몰아내는데 성공하였으나, 곧 외부 李承晩 지지파가 교회를 점령함으로써 1931년 1월 19일 파면되었다.

361) 鄭斗玉, 『在美韓人獨立運動實記』, 『한국학연구』 별집 3, 인하대한국학연구소, 1991, 81쪽 ;
"Koreans Here in Protest to Hoover on Manchuria", The Honolulu Star Bulletin, October 29, 1931.

362) 『호놀룰루 스타 블레틴』 1931년 11월 3일

363) 1932년 엄항섭이 신한민보에 보낸 전보(독립기념관 소장)

그러나 韓吉洙의 활동은 그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사회와 언론에 힘입어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선전부의 제한이 大韓民國臨時政府 등 외압에 대해 취해진 형식적 조취였던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이 선전부는 교민단 내에서 반 李承晩파였는데, 반 李承晩파들은 李承晩파와의 재판에서 이기고 교민단의 대세를 장악하였고 1933년 1월 마침내 대한인교민단을 대한인국민회로 환원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鄭斗玉이 부상되었다. 선전부에서 반일조사 활동을 하던 韓吉洙 역시 이 과정에서 하와이 한인사회에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韓吉洙의 초창기 대외활동 내용은 韓吉洙가 1933년 3월 초 하와이 대한인국민회장 이정근과 선전부장 정두옥의 공동명의로 작성한 『하와이 일본인 여론조사』라는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는 하와이 육군정보당국에 제출한 것이었다. 이 보고서에서 韓吉洙는

1. 하와이 일본인들은 일미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며 일본의 필승을 믿고 있다.
2. 하와이 일본인은 남자 50%, 여자 80%가 일본제국에 충성하고 있다.
3. 일본 해군은 선전포고 없이 기습으로 하와이와 필리핀의 美國기지에 대타격을 가하려 하고있다.
4. 하와이에는 특공대를 포함한 3종의 일본 지하조직이 있다.
5. 韓人은 일본인이 아니다.³⁶⁴⁾

364) 미육군정보국문서(MID) 1766-S-146철 제2번문서.

라고 하여 당시 하와이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즉, 韓吉洙는 당시 하와이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일본의 승리를 확신한 상태에서 미일간에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남자의 50%와 여자의 80%가 일본제국에 충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쟁 방법에 대해서는 일본해군은 하와이의 미국기지를 선전포고 없이 기습적으로 공격할 것이며, 하와이에는 이미 특공대를 포함한 일본의 지하조직이 3종이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³⁶⁵⁾ 이 보고서는 韓吉洙가 이용직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이었는데, 이 보고서를 계기로 미연방 수사국(FBI)의 맥화랜드(Mcfarland) 요원이 하와이에 상주하게 되었다. 맥화랜드는 이 보고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韓吉洙는 이 보고서가 미일 전쟁을 가상한 헥터 비워터(Hector Bywater)의 『태평양전쟁(The Great Pacific War)』와 정한경의 『미국의 동양정책(The Oriental Policy of the United States)』를 참고하여 작성되었고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시작할 경우 법적으로 일본인인 韓人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하였노라고 자백하였다.

1933년 4월 20일 韓吉洙는 이용직과 함께 미일전쟁은 불가피한 것이고, 이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反日性向이 강한 韓人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40매 분량의 호소문(Korea' Appeal)을 미육군장관에게 전달했다.³⁶⁶⁾ 韓吉洙와 이용직은 同生會³⁶⁷⁾를 통해 정두옥 등과 회합을 가지며 반일 조사활동을 벌였다. 이 同生

365) 방선주, 「1930년대의 재미한인독립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 8, 국사편찬위원회, 1990, 450쪽.

366) 방선주, 앞의 책, 449~450쪽.

會는 저마다 동생이 되어 회원을 형님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남의 발을 씻어주는 우애로 단결하고 민족을 위하여 나아가겠다는 모임이었는데, 이 同生會에서 작성된 반일보고서는 주로 미 정보국에 보내졌다. 韓吉洙는 1933년의 보고서 사건 이후 두 사람의 이름을 합성하여 W. K. Lyhan(William Lee Yongchik & Kenneth Haan)의 이름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韓吉洙는 1933년 7월 하와이에 중한 민중 합작운동을 선전하기 위해 온 남경의 중한민중대동맹 대표 金奎植과 하와이 미 육군 정보 당국간의 회담을 호놀룰루 포트샤프터(Fort Shafter)에서 개최되도록 주선하였다. 韓吉洙는 하와이 미 육군 정보당국(G-2)에 협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회담을 주선할 수 있었다. 이미 4월 대한인 국민회 선전부 외교원에서 사면되었던 韓吉洙는 자신의 활동을 지원할 조직이 필요하였으므로 김규식의 중한민중대동맹 하와이 지부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김규식은 이에 쉽게 동의하지 않았는데, 韓吉洙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와이 미 육군 정보 당국과의 회담을 韓吉洙를 통해 성사시킨 김규식은 미국을 떠나면서 韓吉洙를 자신이 없는 동안 中韓民衆同盟團 하와이 지부를 대표할 인물로 임명하였고,³⁶⁷⁾ 1935년 2월 15일 상해의 中韓民衆同盟團³⁶⁹⁾으로부터 위임장을

367) 동생회 회원은 韓吉洙, 정두옥, 이용직, 최영기 등 13~15명이다. 한편, LA동지회원 송세인은 「일반동포에게」라는 글에서 1921년경 비밀결사 대광이 결성되었고, 북미 대광은 1931년 해체되었으나 하와이의 대광은 김현구, 이용직, 김원용, 홍한식 등 30여명의 회원이 있다고 하였다.

368) 1943년 2월 15일 김구가 李承晩에게 보낸 편지.(독립기념관 소장). 이 편지에는 김규식이

받아 하와이에 中韓民衆同盟團이 조직되었다.³⁷⁰⁾ 따라서 중한민중동맹단은 韓吉洙의 외교 선전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였다. 韓吉洙가 中韓民衆同盟團을 하와이에 조직하기는 하였으나, 서류상의 단체로 존재하다가 1938년 단원이 10명이 되면서 정식 단체화 되었다.³⁷¹⁾ 中韓民衆同盟團의 1939년 단장은 차신히였고 정운서가 재무를 담당하였으며, 1940년에는 정두옥이 단장이었으며, 1942년 해체되었다.

韓吉洙는 1933년부터 1937년까지 하와이 미 육군 정보 당국(G-2)과 미 해군 정보부(ONI)에 협조하여 반일조사를 하여 보고하였다. 1934년부터는 캘리포니아 롱비치 선출 하원의원 윌리스 블라드리의 비공식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미 정보당국에 일본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보고하던 韓吉洙는 일본 영사관측과도 접촉하였다. 韓吉洙는 일본영사관으로 침투할 때에도 미국에 사전 통고하여 자신이 일제의 밀정이 아님을 보여주려고 하였다.³⁷²⁾ 1936년 일본영사관 내부에 들어가

韓吉洙는 중한민중동맹의 하와이 지부 대표로 인정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김원용은 韓吉洙가 김규식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中韓民衆同盟團 하와이 지부를 설립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김구의 편지가 맞다고 보았다. 김원용, 앞의 책, 218쪽.

369) 胡春惠, 『中國안의 韓國獨立運動』, 단대출판부, 1978 참조.

370) 「中韓民衆同盟團선전문」 제24호(1939년 9월 1일), 『雲南李承晩文書』 東文篇12, 현대한국학연구소, 1998, 606쪽. 미육군정보국문서(MID) 2657-H-392철 제2문서와 1766-S-146철 안의 제5문서. 김원용은 1938년 12월 2일에 설립되었다고 한다. 김원용, 『재미한인오십년사』, 217쪽.

371) 방선주, 「1930년대 재미한인독립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 8, 국사편찬위원회, 1990, 449~452쪽.

는데 성공한 韓吉洙는 호놀룰루 일본 영사관 문서에 의하면 5월 25일 60달러, 8월 15일 40달러, 8월 25일 10달러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10달러를 일본영사관으로부터 첩보수고비로 받았다.³⁷³⁾ 이러한 그의 행보는 후원단체였던 中韓民衆同盟團 내에서도 비판을 받았고,³⁷⁴⁾ 일본 영사관으로 출근하는 것에 더하여 활동비까지 받았으므로 일제밀정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후에 韓吉洙는 자신이 일본영사관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서 자신의 활동이 당당한 것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고, 이러한 수고비중 일부를 극동의 공작원들에게 보냈다.

이 시기 韓吉洙의 보고서 내용은 하와이의 일본 이민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것과 일본은 하와이를 점령하고 하며, 이를 위해 일본 이민자들을 이용할 것이라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韓吉洙는 1935년 12월 14일에는 “하와이에 있어서의 일본인 농업협동조합운동”이라는 보고서를 미 정보부에 제출하여 일본인의 하와이 위협에 대해 경고하였다.

韓吉洙의 일본인 하와이 위협이론은 하와이 州 승격을 반대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1937년 10월 6일에서 22일까지 하와이 州 승격문제를 위한 상하원 합동청문회가 열렸는데, 韓吉洙는 미·일·중·필리

372) 1936년 5월 22일 韓吉洙가 미 국무장관 헐(Hull)에게 보내는 편지.

373) 이 문서에는 정두옥도 1933년 5월 22일 80달러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정두옥은 이 사실을 부인하였다. 정두옥, 『在美韓人獨立運動實記』, 91쪽.

374) 『國民報』 1942년 8월 19일. 대한민국임시정부승인 방해에 대해 운수산인이라는 中韓民衆同盟團원이 기고한 글이 실려있는데, 이 글에서 韓吉洙의 전과를 언급하고 있다.

핀·한인 등으로 구성된 총 75명의 증인 중 한사람으로 출석하여 가장 조직적으로 주 승격에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역시 하와이 일본인 위협론으로서 현재 하와이는 일본계가 가장 단결이 잘 되어 일본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하와이에 있는 일본계 시민들을 배후 조정하여 인종적 분규를 일으키려 하고 있으므로 주로 승격하면 위험하다는 것이었다.³⁷⁵⁾

이 주장으로 韓吉洙는 중 승격 반대파 의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나, 하와이내 일본인들로부터는 맹렬한 비난을 받았다.³⁷⁶⁾ 일본계 신문인 『日布時事』는 논설을 통해 韓吉洙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여 韓吉洙는 자신의 주장에 증거를 세우기 위해 11월 4일 日布時事を 상대로 10만원을 배상하라는 명예배상재판을 시작하였다.³⁷⁷⁾ 韓吉洙의 재판에 대한 기사가 국민보에 실린 이후 대한인국민회 총회장 趙炳堯, 부총회장 安元奎 등 하와이 한인들이 후원금을 내놓아 韓吉洙의 재판을 보조해 주었다.³⁷⁸⁾ 이 재판은 처음부터 덮어놓고 거짓말이라고 논설을 쓴 일포시사가 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일포시사는 한기수와 타협하여 12월 14일 전에 합의를 보고자 하였지만, 일포시사는 배상금만 지급하겠다고 하고, 韓吉洙는 일포시사가 공중에 대한 사과를 하여야 한

375) 『國民報』 1937년 10월 27일, 「韓吉洙씨의 대폭격」.

376) 『國民報』 1937년 10월 27일.

377) 『國民報』 1937년 11월 10일, 「韓吉洙씨 대일포시사」

378) 『國民報』 1937년 11월 10일, 17일, 12월 1일, 15일. 신문기사에 나타난 후원자는 총 49명이다.

다고 주장하여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379) 결국 韓吉洙는 재판에서 승리하였고,380) 이 사건은 韓吉洙와 韓民衆同盟團은 한인사회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韓吉洙는 반일 조사활동을 벌이는 중에도 하와이 대한인국민회를 통해 활동하였다. 韓吉洙는 대한인 국민회 기관지였던 국민보의 사원으로 재직하면서 1937년 국민보의 광고모집과 광고수봉을 담당하였다.381) 8월 14일 개최된 국민회 총임원회에 참석하였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일이 있을 때 총회관에 사람이 있어야 하므로 당번을 정하여 1주일에 한번씩 총회관을 지키기로 하였고, 韓吉洙는 매주 목요일 총회관을 지키기로 하였다.382) 韓吉洙가 이렇게 대한인국민회 총회에 참석하고 총회관을 지키는 당번을 맡게된 것으로 보아 선전부에서는 사면되었으나 다른 활동까지 제재를 받은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8월 27일에는 국민회에서 찬무회를 조직하였는데, 찬무회는 재무부, 선전부, 기밀부의 세 부서를 두었고 韓吉洙는 선전부원으로 임명되었다. 찬무회는 비상시의 비상한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되었으며, 大韓民國臨時政府의 군사운동을 적극 후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찬무부는 9월 10일 대한인 국민회 총회관에서 제1차 찬무회를 소집하는 등 활동에 들어갔고, 韓吉洙도 이 회의에 참석하여 찬무회 활동에 열의를 보였다.383) 韓吉

379) 『國民報』 1937년 12월 1일.

380) 『國民報』 1938년 3월 2일.

381) 『國民報』 1937년 3월 3일.

382) 『國民報』 1937년 8월 18일.

洙는 9월 26일에 호놀룰루 선교기념관에서 개최된 국민회 국민대회에서는 연사로도 활동하였으며,³⁸⁴⁾ 국민회는 同志會와 통합하고자 양측에서 교섭위원을 선임하였는데, 국민회는 국민회측 통합교섭위원을 10월 12일 특별총임원회에서 선출하였다.³⁸⁵⁾ 이때 韓吉洙는 정봉관, 권도인, 정인수, 김원용 등과 함께 국민회측 통합교섭위원으로 선임되었다.³⁸⁶⁾ 韓吉洙는 이래성이 회장인 국민회 지방회인 편치불지방회에서도 서기로 활동하였다.³⁸⁷⁾ 1937년 부동산업 종사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관련 법률 사업을 시작한 韓吉洙는 개인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 중 일부를 인구세, 의무금, 血誠金으로 내기도 하였다.³⁸⁸⁾

韓吉洙는 한국어 라디오방송을 주장하고 운영하였다. 라디오 방송은 1937년 5월 22일 朝美修好通商條約 55주년 기념방송으로 시작되었다. 國民報社와 國民會는 朝美修好通商條約 55주년을 기념식을 재정문제로 주저하고 있던 차에 韓吉洙는 자력으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기념하고자 하였다. 오후 5시 30분에 KGMB를 통하여 방송을 하였는데, 國民總會 안원규 부회장의 딸인 안숙자의 독창과 황마리아의 피아노 반주로

383) 『國民報』 1937년 9월 8일.

384) 『國民報』 1937년 9월 29일.

385) 『國民報』 1937년 10월 20일.

386) 『國民報』 1937년 11월 3일.

387) 『國民報』 1937년 10월 27일. 11월 3일.

388) 『國民報』 1937년 2월 10일, 20일, 3월 10일, 8월 25일, 1938년 2월 9일, 4월 20일.

순서를 진행하였다. 韓吉洙는 5월 29일에도 K.G.U를 통하여 기념 라디오 방송을 하였고,³⁸⁹⁾ 이날은 스스로 연설을 하기도 하였다. 韓吉洙의 연설은 국민보에 6월 3일부터 3일에 걸쳐 실렸다.³⁹⁰⁾ 이날 방송에는 韓吉洙 외에 안숙자(영어창가), 최또라(한어창가), 산더쓰 박사(피아노 반주) 등이 순서를 맡았다.

韓吉洙는 55년전 서명된 朝美修好通商條約이 성립된 것에 대해 이야기 하며 연설을 시작하여 미국이 朝美修好通商條約 정신에 반하여 약한 한국을 極東의 국제청지 폭풍우 속에 내버려두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로써 일본과 서양 각국이 경쟁하게 되었으며, 현재에 와서는 한 난관이 되었으므로 차후에는 이 조약에 근거하여 한국과 미국 사이에 더 낮고 넓은 양해가 생기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즉, 韓吉洙는 한국이 일제로부터 독립하는데 있어서 朝美修好通商條約에 근거하여 미국의 적절한 도움이 있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朝美修好通商條約 55주년 기념방송이 한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韓吉洙는 한인상업가들과 몇몇 개인친구들의 도움으로 매월 1차례씩 KGMB 방송국을 통하여 한국어로 라디오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韓吉洙는 한국어 라디오 방송을 매월 1번 30분씩 방송을 하기로 하고 15분은 주민구역에 대한 것과 음악, 성학을 15분은 광고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³⁹¹⁾ 이 계획에 의해 제2차 방송은 8

389) 『國民報』 1937년 6월 3일.

390) 『國民報』 1937년 6월 3일, 9일, 16일.

391) 『國民報』 1937년 6월 30일.

월 15일 일요일 오전 10시 15분부터 30분간 있을 것이라고 국민보를 통해 고지하였다. 이전 방송을 들었던 한인들은 시간과 번수를 변경하여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라디오방송 운영은 경비문제로 매월 1차례의 방송도 어려운 실정이었다.³⁹²⁾ 고지대로 8월 15일 일요일 오전 10시 15분 KGMB를 통하여 제2차 방송이 되었고 많은 한인들이 호평하였다.³⁹³⁾ 문엄전은 한인의 혈족인 것을 잊지말고 미국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실행하자는 연설을 하여 호평을 들었다. 문엄전은 이 연설 후 국민총회에 자원하여 독신생활자들을 찾아 血誠金을 수합하여 大韓民國臨時政府의 독립군에게 보내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³⁹⁴⁾

제3차 방송은 9월 19일 일요일 상오 10시 15분에 KAU방송국을 통하여 방송되었다.³⁹⁵⁾ 라디오 방송이 계속되면서 이에 고무된 현상학, 김이행, 안홍철 등이 라디오방송 특연을 출연하기도 하였다.³⁹⁶⁾ 그런데 11월에 국민보에 방송 일자를 반포하였는데, 방송국에서 그 시간을 삭제함으로써 방송을 고대하던 동포들이 실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라

392) 『國民報』 1937년 8월 11일.

393) 『國民報』 1937년 8월 18일. 제2차 방송의 순서는 최또라부인의 창가, 정앵영양의 반주, 정앵영양의 피아노 독주 「최또라부인의 어린 딸」, 전쟁소속 광고, 문엄전양의 「제2세국민」으로 연설 등이었다.

394) 『國民報』 1937년 8월 18일.

395) 『國民報』 1937년 8월 11일, 9월 15일.

396) 『國民報』 1937년 11월 24일.

디오 방송에는 처음에 비정기적으로 할때는 매번 25원의 경비가 소요되었다. 정기적으로 하면서 18원으로 책정되었으나 곧 25원으로 인상되었던 것이다. 15분간의 광고시간이 있었으나 한인계의 실업적 광고로 경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라디오 방송은 1년을 약조로 방송이 계속되었지만 1938년 2월에는 운영이 어려워져 내지못한 방송비가 25원이 되었고 이에 국민보는 라디오 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글을 실었다.³⁹⁷⁾ 라디오 방송의 이러한 사정이 알려지자 많은 한인들이 후원금을 내놓았다.³⁹⁸⁾ 이러한 한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월 20일 다시 방송이 재개되었으며,³⁹⁹⁾ 朝美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되어 기념방송을 한 5월에는 정기방송과 특별방송 2회에 걸쳐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⁴⁰⁰⁾ 라디오 방송에 대한 국민보 기사가 5월 22일 朝美修好通商條約 특별방송이 KGMB과 K.G.U를 통해 있겠다는 예고를 끝으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라디오방송 특연 기사는 나오지만 방송기사가 나오지 않는데, 이는 韓吉洙가 하와이를 떠난 후 라디오방송을 운영할 후임자를 찾지못해 중단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후 한국어 라디오 방송은 우리나라가 광복되고 3년이 지난 1948년 2월 4일에 재개되었다.⁴⁰¹⁾

397) 『國民報』 1937년 12월 1일

398) 『國民報』 1938년 1월 26일, 2월 2일, 3월 2일, 3월 23일, 5월 25일, 6월 15일.

399) 『國民報』 1938년 2월 20일.

400) 『國民報』 1938년 5월 11일.

401) 『國民報』 1948년 2월 18일.

韓吉洙의 라디오 방송 운영은 항일독립운동을 선전활동에 주력해온 韓吉洙로서는 라디오라는 매력적인 매체를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선전활동의 일부로 선택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민 1.5세대라고 할 수 있는 韓吉洙가 당시 모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은 하와이에서 모국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한국어 라디오 방송까지 운영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주목할만한 일이다. 한국어 라디오 방송이 모국어 사랑의 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大朝鮮獨立團 단강에서 국어연구를 명시한 이후 국어연구와 보존의 한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韓吉洙의 한국어 라디오 방송 이후 10년이 넘도록 한국어 라디오 방송이 재개되지 못했으므로 韓吉洙의 하와이에서의 모국어 라디오 방송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 韓吉洙의 한국어 라디오 방송은 영어만을 사용하는데 익숙한 이민2,3세들에게 한국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외에도 韓吉洙의 한인과 한인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37년 실업구제와 관련하여 호놀룰루에서는 시민이 되지 아니하였고, 될 논의와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WPA(Work Progerss, 후에 Works Project-Association)를 해고시키라는 워싱턴의 전보를 받았고, 이에 해당하는 하와이계 외국인은 1,300여명 그중 한국인은 230여명이나 되었다. 국민회에서는 이들 한국인들의 실업구제를 위하여 주선하여 韓吉洙가 프랜시스 애밴스 등 백인들의 후원과 협조로 현대 표 새무얼 와일더 킹에게 한인들의 사정을 알리는 전보를 보내 중앙정부에 주선하도록 요청하였다. 韓吉洙는 이 전보에서 32년간이나 하와이에서 살아온 한인들은 미국에 대하여 충의적이며, 허락만 된다면 시

민이 되기를 지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조처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프랜시스 애번스는 희망적인 회신을 해 주었다.⁴⁰²⁾ 韓吉洙는 1937년 7월 26일 안원규 등 국민회 주요 인사들과 하와이 대학교수들을 초청하여 순한국음식으로 초대하여 대접하기도 하였다.⁴⁰³⁾ 韓吉洙는 한국서적을 수합하여 기부하는 일을 맡아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홍보하는 일에도 적극적이었다.⁴⁰⁴⁾ 이는 소설, 정치, 지지, 역사 등의 영어로 씌여진 한국 관련 서적을 기부하면 韓吉洙가 수합하여 한인 전체의 이름으로 하와이 도서관에 기부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韓吉洙는 하와이 한인들과 한인사회를 위하여 다방면에서 봉사하였다.

韓吉洙는 1938년 9월 30일 하와이를 떠나 미 본토로 활동영역을 옮겼다. 이후 韓吉洙는 선전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였고, 이를 후원하기 위하여 中韓民衆同盟團이 정식으로 결성되었다. 韓吉洙는 워싱턴에서 미 상원의원 지렛의 협조로 미 국회에서 일본이민 위협론과 일본의 하와이 공격 가능성을 선전하는 일을 하였고, 재학중이지 않는 유학생들의 미국체류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즉, 미국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정치가 변경되어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날 때까지 미국에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국무부에 청원하고, 원동에 있는 우리 동포 1만명을 알래스카로 이주하게 해 줄 것을 국회에 제의하기도 하였다.⁴⁰⁵⁾ 이러한 韓吉洙의 유학생 비자문제 해결 노력에 대해 그

402) 『國民報』 1937년 7월 28일.

403) 『國民報』 1937년 7월 28일.

404) 『國民報』 1937년 8월 18일.

와 대립관계에 있던 李承晩도 극력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여 그의 성과를 인정해 주었다. 韓吉洙는 1947년까지 워싱턴에 주재하면서 中韓民衆同盟團을 대표하여 美國 정부와 국회에서 일본의 팽창위협과 전쟁음모를 폭로하였는데, 1939년, 1941년, 1943년에는 미 의회청문회에 출석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美國人들에게 일본인을 경계할 것을 경고하는 강연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96개 도시에서 179회의 강연을 하였다.⁴⁰⁶⁾ 韓吉洙는 1942년에는 미 정보부 OSS의 요청으로 미 서해안 군사시설지대의 일본인 문제를 조사하였으며, 1945년 샌프란시스코의 국제연합회의에 참석하였다.⁴⁰⁷⁾

5. 海外韓族大會와 在美韓族聯合委員會 議事部

해외한족대회는 1941년 4월 6일 결성된 海外韓族大會準備會에서 동년 4월 20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하와이의 同志會, 國民會, 大朝鮮獨立團, 中韓民衆同盟團, 북미의 국민회 등 미국 내 각 한인단체 대표와

405) 중한동맹선전문 20호(8.4), 22호(8.18)

406) "Kilsoo Haan in Washington" The Korean Student Bulletin, March-April, 1939 and "Korean Testifies Before 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in Washington" The Korean Student Bulletin, May-June, 1939.

407) 韓吉洙는 광복이후 1946년에서 1947년에는 유엔을 위한 비공식위원회인 Speakers Research Committee의 부의장이 되었으며, 1950년에서 1956년에는 로스엔젤레스 동양식품 주식회사 북가주 관측원으로 일하였다. 1956년 4월 10일 미국시미권을 획득하였으며(7545555호), 1956년에서 1965년까지 Chun King Corp.에서 서부 8주의 외판부장으로 일하였다. 1965년 6월 1일 은퇴하여 한인 지하공작운동에 전념하였으며, 은퇴후에도 강연활동은 계속하였다.

大韓民國臨時政府 대표 등이 모여 민족대단결, 독립전선 역량 집중, 광복대업 촉성 등을 목적으로 개최한 것이었다. 해외한족대회는 이처럼 해외에 있는 한민족을 한곳 하와이에 총집합시킴으로써 한민족의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과 역량을 집중시키고자 한 것이었고, 그 결과 在美韓族聯合委員會를 결성하고 호놀룰루에 議事部를 로스엔젤레스에 執行部를 두었다. 본 절에서는 하와이에서 개최된 해외한족대회와 그 결과 하와이에 설치된 在美韓族聯合委員會 의사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1940년대 하와이 한인들의 독립운동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1) 海外韓族大會 開催

해외한족대회는 하와이의 한인사회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북미 국민회에서 제기한 것이었다. 재미한인의 연합 내지 합동에 대해서는 하와이 한인과 한인사회 보다는 미국 본토의 한인들과 단체에서 더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전술한 바 있다. 1930년대 후반 하와이와 미국 본토의 연합에 대한 논의 역시 북미 국민회에서 먼저 제기되었다.

북미 국민회는 중일전쟁 이후 광복대업을 위해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고, 국민회를 중심으로 합동을 완성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재미한인사회는 조선의용대후원회가 결성되면서 합동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분열의 양상에 빠지게 되었고, 북미 국민회는 지도력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 한편 북미 국민회는 1938년 9월 시국문제 협의를 위해 하와이 國民會와 同志會에 공함을 보내 교섭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하와이 한인사회는 북미 국민회의 제안에 대해 하와이 國民會와 同志會의 합동문제로 호응할 여력이 없었다.

하와이 한인사회의 합동 움직임은 1937년 大韓民國臨時政府 軍事委員會의 활동을 후원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1937년 9월 11일 힐로지방의 大韓人共同會長 김승률과 서기 홍인표, 하와이 국민회 총회장 조병요 명의의 공함에서 국민회와 同志會 대표들은 각 정치단체를 규합하여 大韓人共同會를 조직하고 大韓民國臨時政府의 군사위원회를 후원할 후원금을 수봉하기로 하였음을 광포하였다. 그리고 이때 모아진 大韓民國臨時政府 軍事委員會 후원금은 공동회 재무부에 임시로 보관하다가 국민총회와 同志會 중앙부 양 단체에서 후원금을 관리하는 재무위원회가 조직 되는대로 付送하기로 가결하였다.⁴⁰⁸⁾ 그러나 한달여가 지나도록 國民會와 同志會 중앙부에서는 합동하지도 못하고 재무관리부도 조직하지 못하였고, 힐로 대한인공동회장 김승률은 9월 30일 공함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문의를 하였다.⁴⁰⁹⁾ 힐로 지방에서는 이때 이미 11지방의 국민회와 同志會가 대한인공동회로 통합되고 매달 血誠金(大韓民國臨時政府 軍事위원회 후원금 : 필자주)을 수봉하여 중앙공동회에 臨置하고 있었으므로 국민회와 同志會가 합동을 하는지 어쩐지, 血誠金을 관리할 재무부가 조직되었는지 어떤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 힐로지방 대한인공동회 공함은 10월 13일자 국민보에 실렸는데, 국민회와 同志會가 이 공함 이후 합동에 대해 협의를 하였는지 같은 날 국민회와 同志會는 양 단체 대표 결의안을 10월 10일자 공함으로

408) 『國民報』 1937년 9월 15일, 「공함」.

409) 『國民報』 1937년 10월 13일. 「공함」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두 단체가 절대 합동을 한다는 것과 두 단체의 행정부에서는 각 지방회 대의원·대표원에게 공함을 보내어 절대 합동의 찬동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이었다. 또 두 단체는 지방의원의 합동찬성 보고를 받은 뒤에는 두 단체가 각각 자기 단체의 사단법인 관허장 청원을 취소하기로 의결하였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두 단체는 각각 위원 5명씩을 선정하여 각 지방 대의원과 대표원에게 교섭하여 민중의사에 만족할만한 통일단체를 성립하기로 하였다는 것이었다.⁴¹⁰⁾

이에 따라 同志會 측에서는 安玄卿, 李鍾觀, 차신희, 李元淳, 김이제가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었고,⁴¹¹⁾ 국민회에서는 정봉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권도인, 鄭仁秀, 韓吉洙, 金元容을 교섭위원으로 선임하였다.⁴¹²⁾ 그리고 하와이 한인사회는 國民會와 同志會의 합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자신이 속한 會名이 희생되어 합동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열렬히 환영하였다.⁴¹³⁾ 국민회의 경우 14개의 지방회 중 지방회가 없는 4지방이 있었는데, 이중 지방회 한 곳과 지방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동에 찬성하였다. 한 지방회에서는 합동여부에는 말이 없고 해체하는 것에 대해서만은 불가하다고 하고, 한 지방에서는 가부간의 대답이 없었다.⁴¹⁴⁾

410) 『國民報』 1937년 10월 13일. 「국민회·同志會 양 단체 대표 결의안」.

411) 『國民報』 1937년 10월 13일. 「공함」.

412) 『國民報』 1937년 10월 20일. 「공함」. 국민회 측에서는 10월 10일 박종수, 박상하, 정인수 세 사람으로 교섭위원을 선임하였다가 5명으로 바꾸었다.

413) 『國民報』 1937년 10월 27일. 힐로대한인공동회의 「공함」.

국민회에서는 내부의 의견이 이렇게 합동 찬성으로 모아지자 11월 26일 공함을 통해 합동에 관한 사건을 종결하고자 同志會에 11월 29일 오후 7시 국민총회관 내에서 회합을 가지고 양 단체 간에 교섭하여온 합동 조건을 완전히 의결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同志會에서는 국민회가 단체 해체건을 해결한 후에 양 단체의 대표가 합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들은 대표원 소집시 합동단체 조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⁴¹⁵⁾ 국민회는 11월 30일 다시 공함으로 내어 국민회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신용상의 관계와 재산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법인관허장은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공함에서 국민회는 오후 7시 同志會측과 회합을 요구하였으나⁴¹⁶⁾ 同志會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국민회의 입장은 양 단체의 적법 대표가 합동수속을 먼저 한 후에야 단체의 해체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同志會의 입장은 국민회를 해체하기 전까지는 합동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국민회에서는 합동문제를 총임원회에 위임하였으나,⁴¹⁷⁾ 국민회와 同志會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되는 가운데 타협점을 찾지못하고 1937년을 보내고야 말았다.

1938년에 들어서자 國民會와 同志會의 합동을 위하여 중립자인 민찬

414) 『國民報』 1937년 11월 10일.

415) 『國民報』 1937년 12월 1일.

416) 『國民報』 1937년 12월 1일.

417) 『國民報』 1937년 12월 8일.

호, 최창덕, 최선주 등이 중개자로 나서 수개월동안 주선하여 세 차례의 비공식 회의가 개최되었다. 제1차는 7월 30일 저녁 민찬호 집에서, 제2차는 8월 7일 조병요 집에서, 제3차는 8월 14일 오후 이정근 집에서 이루어졌고, 이 비공식회의에 국민회와 同志會 주요인사가 비공식으로 참석하였다. 이렇게 3차에 걸친 회의가 진행되자 국민회에서는 합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同志會에 공식적인 합석회의를 제의하였다.⁴¹⁸⁾ 이에 同志會에서는 8월 17일자 공함에서 21일 오후 5시 킵거리 신동아 정찬관에서 중립자 주선자와 함께 합석회의로 모아지고 답하였다.⁴¹⁹⁾

국민회에서는 21일 임시총임원회로 모여 김지호, 정인수, 김현구 세 사람을 합동수속 진행의원으로 정하였고, 이를 21일자 공함을 통해 同志會에 통지하고 합석회의 날짜와 장소를 8월 23일 저녁 同志會 사무실 내에서 할 것으로 제의하였다.⁴²⁰⁾ 이에 同志會에서는 23일자로 다시 공함을 보내 同志會 합동수속 집행위원으로 이원순, 차신호, 이종관으로 지정하였다는 것과 합석회의 시간과 장소를 23일 오후 7시 국민회 총회관으로 지정한다고 하였다.⁴²¹⁾ 이렇게 여러차례 공함을 통해 의견을 좁힌 끝에 8월 23일 국민회 총회관에서 합석회의가 이루어졌고, 국민회와 同志會는 합동의 제1보로 8월 29일 국치기념을 연합으로 거

418) 『國民報』 1938년 8월 17일.

419) 『國民報』 1938년 同志會 「공함」.

420) 『國民報』 1938년 8월 24일.

421) 『國民報』 1938년 8월 31일.

행하였다.⁴²²⁾

이후 국민회에서는 국민총회를 통해 두 단체의 제1차 임시연합의회를 9월 26일에 소집하자고 공함을 보냈다.⁴²³⁾ 국민회의 이같은 제의에 대해 합동진행위원회에서는 합동의 원칙이 양단체법인 관허장을 합동단체의 이름과 공결할 것과 향후 어느 법인 관허장을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국20년(1938년)도의 임원동의를 얻어야한다고 명시하는 공함을 국민회로 보냈다.⁴²⁴⁾ 이후 국민회와 同志會의 합동을 위한 5,6차 합동회의가 진행되었다.

6차 합동회의에서는 일반회우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임시의회의 일자를 천천히 하고, 각 지방의 회답은 10월 10일 이전에 받을 것이며 10월 10일에는 합동수속진행위원회가 다시 회집되어 임시의회의 일자와 대의원을 통하여 기타 사건을 토의하기로 결의하고 양 단체에 의결사항을 공함을 통해 고지하였다.⁴²⁵⁾ 6차 합동회의의 결과 국민회와 同志會의 각 지방회에서는 특별회가 소집되어 회원 사이에 합동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⁴²⁶⁾

한편 이러한 때 북미 국민회에서는 중일전쟁에 고무되어 미주 하와이 한인 각 단체의 활동을 재촉하고 비상시기에 있는 재외 한인의 합

422) 『國民報』 1938년 8월 24일 국민회 「공함 제7호」.

423) 『國民報』 1938년 9월 7일.

424) 『國民報』 1938년 9월 14일.

425) 『國民報』 1938년 9월 21일.

426) 『國民報』 1938년 9월 28일.

동일치를 결의하고자 하와이 국민회에 공함을 보냈다. 1938년 9월 15일자 공함은 독립운동에 관한 일체 재정을 동일한 기관 즉,大韓民國臨時政府에 집중할 것과 대내선전은 사상통일을 고취할 것, 대외선전은 논조와 태도를 일치할 것을 결의하자는 내용이었다.⁴²⁷⁾ 이에 대해 하와이 국민회는 9월 30일자 공함에서 북미 국민회의 결안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하지만 현재 하와이 국민회가 同志會와 합동에 참가하고 있으므로 합동의 일이 통과된 후에 회답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하와이에서의 합동이 북미 국민회의 결안과 같게 될 것으로 예측되며 그 후에는 하와이 국민회에서도 미주와 하와이와 원동에 산재한 우리 각 단체의 연합대표회가 한곳에 모여 민족대업의 정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⁴²⁸⁾ 여기서 특기할만한 것은 이미 1938년에 해외한족대회를 개최되어야 할 필요성을 하와이 국민회와 미주 국민회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하와이 국민회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國民會와 同志會의 많은 지방회에서 합동수속 결안에 대해 동의를 얻을 것을 확신한 합동수속진행위원회는 11월 11일 임시연합의회를 개최하겠다고 정하였으며,⁴²⁹⁾ 국민회와 同志會에서도 이에 찬성하였다. 이에 합동수속진행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 합동수속진행위원들의 비공식토의로 합동수속에 관해 의논하였고 10월 24일에도 회의를 개최

427) 『國民報』 1938년 10월 5일.

428) 『國民報』 1938년 10월 5일.

429) 『國民報』 1938년 10월 12일.

하기로 하였다.⁴³⁰⁾ 국민회에서 최종적으로 10개의 지방회 중 1개의 지방회과 투표권을 포기하고 7대 2로 합동에 대해 찬성이 가결되자,⁴³¹⁾ 연합의회 개회일자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되어 국민회와 同志會는 11월 18일 오후 7시 국민총회관에서 연합의회를 개최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⁴³²⁾

제1차 연합의회에는 국민회 대의장 안원규 등 18명, 同志會 대표회장 이종관 등 15명 총 33명이 참석하였으며 의장을 선출하였다. 의장선출에는 국민회 대의장 안원규와 同志會 대표회장 이종관이 의장후보자로 공천되어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개표결과 안원규가 의장, 이종관이 찬의로 선정되었다. 서기는 홍진표, 이관목, 박동만 세 사람이 무기명 투표로 선정되었으나 최다득표자인 홍진표가 안력쇠약의 이유로 사면함으로써 이관목이 기록서기로, 박동만이 통신서기로 피임되었다. 또 의회 임시규칙을 제정할 위원으로 권도인, 이원순, 전익주 세 사람이 피선되었다.

11월 19일 속회된 연합의회는 31명이 출석하여 합석의회 임시규정제정위원이 9개조의 규칙을 제정하였는데, 3조를 제외한 8조를 채용하기로 가결하였다. 연합의회에서는 합동을 실현하였으므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와이 내 각 단체를 합동하자고 가결하고 이를 위해 단합회 카우아와 독립단 호놀룰루 대표의 참석을 청하기로 가결하여 단합회회장

430) 『國民報』 1938년 10월 19일.

431) 『國民報』 1938년 10월 19일.

432) 『國民報』 1938년 11월 18일, 23일.

정호영과 독립단장 박태균 청함을 발하였다. 2차 회의에서는 순서위원으로 이관목, 김연규, 김란수, 이원순을 선정하고, 합동적 명칭을 짓기 위해 전익주, 권도인, 이관목, 이종관, 김연구, 이원순을 위원으로 선정하였다.

11월 21일 3차 회의가 속회되었고 29명이 출석하였다. 이날은 독립단 대표로 정태영, 양문서, 이명순 3인이 공식 소개서를 가지고 입석하였고, 의장이 회중에 소개하고 열석을 허락하였다. 會體 問題를 표결에 붙였는데, 民主制가 22표로 總裁制(4표), 委員制(3표)를 제치고 채용되어 가결되었다. 또 헌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권도인, 이관목, 이원순, 박동안, 정태영 5명을 헌법기초위원으로 책정하였다.

22일 4차 회의가 속회되었는데, 同志會 대표 14명, 독립단 대표 2명, 국민회 참위원 및 대의원 15명 등 31명이 참석하였다. 기관보로 국민보를 그대로 계속 두고 태평양주보는 영문으로 발행하기로 가결하였으며, 임원조직에 대해서는 각 단체에 공평하게 인수를 분배하여 임용하는 것과 신입회장의 직권에 맡기자는 의견이 대립되었고, 기관보 문제에 있어서도 발행권을 부회장에게 주자는 문제와 회장 직권 하에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엇갈린 채 유안되었다. 이날의 회의는 합동에 겨우 동의한 양 단체가 세부적인 조직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서로 타협하지 못한 채 회의는 종결되었다.

제5차 회의는 25일에 28명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은 임원채용에 대해서는 각 단체에 공평하게 하자는 문제는 총부회장의 책임내각의 조직에 위임하기로 가결하였으며, 신문사 발행권은 총회장은 사장이 되고 부회장에게 발행권을 주기로 가결하였으며, 합동의 일반절

차를 일일이 재무성에 보고하기로 가결하였다.

제6차 회의는 26일 31명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기다리던 독립단의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독립단 대표는 이번 합동의 일이 잘 되면 독립단도 참가하겠다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기로 독립단 회결에서 정하였다고 하였다. 공함을 통해 발한 합동단체의 재정보고에 국민회가 답공하였는데, 1938년 10월말까지 회비를 내 회원이 462명, 회관 건물과 국민보사 시설 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제7차 회의는 28일 29명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이날 독립단 대표원은 결석하였다. 이날은 회명 문제로 토의가 있었으나 국민당, 한민회 등이 거론되다가 퇴각되었다.

제8차 회의는 29일 28명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독립단의 대표원은 역시 결석하였다. 단합회에서는 대표를 파견하지 않기로 회결하였다고 회답을 보내왔다. 회명에 대한 토표를 통해 ‘大韓人會’로 결정되었다. 同志會와 국민회 재정보고를 받았고, 장차 위원을 뽑아 양회 재정과 실력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제9차 회의는 30일 27명이 출석하였고, 독립단 대표원은 역시 결석하였다. 인선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同志會측의 성명에 의해 다음 회로 미루어졌고, 12월 2일까지 정회하였다.

제10차 회의는 12월 2일 27명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총회장 후보자에 관해 국민회에서는 조병요를 同志會는 김이제를 추천하였는데, 투표방식과 선거권 문제로 국민회와 同志會 간에 의견대립이 있어 미결되고 시간이 지나 정회하였다.

제11차 회의는 3일 25명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대표원 김연규

가 慘慼을 당하고 귀가하여 연합회에서는 조무한기로 가결하였으나, 총회장 투표방식에 있어서 공동투표와 회원투표 토의방식으로 토의를 하다가 마치지 못하고 정회하였다.

제12차 회의는 4일 26명이 출석하여 총회장 투표방식에 대해 토의만 하고 정회되었다. 제13차 회의를 12월 7일에 개최하기로 예정하였으나 同志會 대표원들이 7일과 8일에 출석치 않아 연합의회는 무기정회 되었고, 이후 합동은 완성되지 못하였다.⁴³³⁾

이렇게 하와이에서는 國民會와 同志會 사이에 합동이 완성되지 못한 채 1938년을 보내고 1939년을 맞았다. 이때 중국 관내에서는 좌우 민족진영의 통일전선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1939년 5월 광복전선의 김구와 민족전선의 김원봉은 통일조직 건설을 선언하고, 8월 綦江에서 민족전선 4개 단체와 광복전선 3개 단체가 모인 7당 통일회의를 개최하였다.⁴³⁴⁾ 광복전선의 대표였던 김구는 7당 통일회의를 개최하면서 8월 20일자로 美洲와 하와이의 韓人들에게 공함을 발송하여, 자신들의 7당 통일회의에 찬동하여 줄 것과 각 지방에서 한인과 단체의 통일을 통해 大韓民國臨時政府를 집중적으로 후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⁴³⁵⁾

미주 한인사회는 1940년 大韓民國 臨時政府 光復軍이 創設되자 이를 후원하자는 여론이 고조되었으며,⁴³⁶⁾ 이로 인해 독립운동에 대한

433) 『國民報』 1938년 12월 21일.

434) 김희곤·한상도·한시준·유병용, 『大韓民國臨時政府의 좌우합작운동』, 한울, 1995, 123쪽.

435) 재미한족연합위원회편, 『해방조선』, 나성과 하와이, 1948, 148~149쪽

436) 『新韓民報』 1940년 2월 29일 논설 「'3.1정신을 실현한 광복을 후원」, 3월 14일 논설

열의 또한 고조되었다. 이에 광복군을 후원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북미 국민회는 1940년 3월 22일 중앙상무위원회에서 하와이와 미주 양 국민총회 대표가 회집을 할 계획을 세우고 4월 7일자로 하와이 국민회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함을 보냈다. 하와이 국민회 임시정부 하에 독립운동을 집중하자는 것은 오래된 원칙이므로 1차 대표회집을 했으면 좋겠다는 답신을 보냈다.⁴³⁷⁾ 미주와 하와이 독립운동 단체 통합은 미주한인들의 희망사항이었을 뿐 아니라 임시정부의 요청사항이기도 하였다.⁴³⁸⁾

북미 국민회에서는 9월 2일 하와이 大韓人國民會와 同志會에 미주와 하와이 각 단체 당국자들의 합석회의를 통해 시국대책을 강구하자고 하였다.⁴³⁹⁾ 이에 하와이 국민회에서는 9월 24일 합동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同志會측의 동의를 얻은 후 북미 국민회에 합동문제를 의논할 것이라고 답신하였다.⁴⁴⁰⁾ 당시 하와이 韓人社會는 美國의 국방후원을 위해 10월 13일 6개 단체들이 모여 聯合韓人委員會를 조직하면서 연합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리고 11월 5일 각 단체 대표자들은 하와이에

「임시정부 光復軍後援에 대하여」.

437) 『新韓民報』, 1940년 3월 28일, 「국민회총회 중상회록」, 4월 11일, 「중집결의안」 제5조와 「국민회총회 공독」

438) 『新韓民報』, 1940년 5월 16일, 「광복진선이 통일하여 한국독립당을 성립」. 김구는 이 공함에서 미주한인단체의 통합을 요청하였다.

439) 김원용, 『在美韓人五十年史』, 캘리포니아, 1959, 399쪽. 『해방조선』, 149쪽.

440) 『해방조선』, 150쪽.

소집되어 연합운동 준비회를 열었다.⁴⁴¹⁾ 각 단체 대표들은 3일 동안 5차에 걸쳐 회의를 열었고, 각 단체는 서로 다른 합동방안을 제시하였다. 북미 대한인국민회 제의안은 기성단체를 해체하고 단일당을 결성하는 것이었고,⁴⁴²⁾ 하와이 대한인국민회는 미주 뿐 아니라 중국에 있는 독립운동 대표자를 모두 모아 해외한족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독립운동 방략을 정하자는 것이었고,⁴⁴³⁾ 同志會는 재미한족 연합기관 설립에는 동의하여 이 기관이 정치, 재정, 외교, 선전 사업 등 독립운동 전반에 걸쳐 사업을 일임하게 하지만, 각 단체들은 자체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⁴⁴⁾ 세 단체는 5차례의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내놓았다.

1. 현하 각 단체의 실정이 그 자체를 해소하고 단일당을 결성하기에 준비되지 않은 까닭에, 해외 韓人전체의 공동결의로 聯合機關을 조직하고 독립운동의 모든 행사를 그 기관에 일임하기로 함.
2. 각 단체들은 연합기관의 세포기관이 되어서 독립운동에 대한 의무를 분담하되, 다만 그 자체에 관한 일에는 자의 행사하기로 함.
3. 각 단체가 이 결의안을 일치 동의하면 海外韓族大會를 열기로 함.⁴⁴⁵⁾

441) 김원용, 앞의 책, 399쪽. 『해방조선』, 150쪽.

442) 김원용, 앞의 책, 400쪽.

443) 김원용, 앞의 책, 401쪽.

444) 김원용, 앞의 책, 401쪽.

445) 김원용, 앞의 책, 400쪽

이 결의안은 세 단체의 의견을 적절히 통합한 것이었고, 이 결의안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하와이 국민회의 제의에 따라 해외한족대회 개최가 결정된 것이었다.

이 연합운동 준비회를 마치고 돌아간 북미 국민회에서는 1941년 1월 7일 하와이 國民會와 同志會에 3개 단체가 대표 3인씩 선출해 시국문제를 공동 협의해 보자고 의견서를 보냈다.⁴⁴⁶⁾ 하와이 국민회와 同志會는 이 제안에 찬성하여 경비문제로 하와이에서 모일 것을 제안하는 회신을 1월 16일과 17일 북미국민회에 보냈다. 이에 북미 국민회에서는 하와이 국민회 대표와 同志會 중앙부 대표와 함께 미주와 하와이 재류 동포의 광복군 후원과 외교진행의 일치를 협의할 美洲 國民會 대표 3인을 하와이로 파견하기로 하였다. 3월 9일 임시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한시대·김호·송종익 3명이 대표로 선임되었고, 이들은 4월 상순 하와이로 가기로 결정되었다. 북미 국민회에서는 대회의 의제를 '임시정부 봉대', '광복군 후원', '외교운동의 전개'에 두자고 결의하기도 하였다.⁴⁴⁷⁾

한편 하와이 國民會와 同志會도 대회준비 위한 공동의 방침과 의제를 마련하였는데, 그 목적을 대한민국임시정부 기치 하에 대한 민족은 대동단결하여 독립전선에 대한 총 역량을 집중하고 광복대업을 적극 축성하는데 두었다.⁴⁴⁸⁾ 국민회와 同志會는 이 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3

446) 『新韓民報』, 1941년 1월 9일 「중상회결」, 3월 6일 「중상결의」.

447) 『新韓民報』 1941년 3월 13일 「임시중앙집행위원회 결의」.

448) 『태평양주보』 1941년 4월 5일 「해외한족전체대회」, 『新韓民報』, 1941년 4월 10일, 「3

가지를 토의하고자 하였다.

1. 독립전에 대한 전 민족의 總動員 強化와 그 指導方略.
2. 정치 외교 군사 3대운동의 現 時代的 新方略의 展開.
3. 독립운동의 강화실현에 대한 經濟的 基礎와 運動方略.⁴⁴⁹⁾

한편 이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大韓民國臨時政府를 신뢰 옹호하기로 서약한 단체와 이 단체에서 전권을 임명하는 신임장을 휴대하고 자격심사위원의 승인을 획득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었다.⁴⁵⁰⁾ 이 규정으로 원동의 大韓民國 臨時政府 대표와 中韓民衆同盟團도 대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⁴⁵¹⁾

4월 21일 대회는 개최되었는데, 북미 국민회 대표 3인은 4월 10일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하여 4월 16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하였다.⁴⁵²⁾ 하와이 국민회는 이번 대회의 대표를 안원규·김현구로 선임했고, 同志會

개 단체대회의 회의정서」

449) 『태평양주보』 1941년 4월 5일 「해외한족전체대회」, 『新韓民報』 1941년 4월 10일, 「3개 단체대회의 회의정서」.

450) 『태평양주보』 1941년 4월 5일 「해외한족전체대회」, 『新韓民報』 1941년 4월 10일, 「3개 단체대회의 회의정서」

451) 「중한민중동맹단 선전문」 제70호(1941. 4.18), '사실 ; 미포대표대회에 대하여', 『雲南李承晚文書』 東文篇 12, 697쪽.

452) 『新韓民報』, 1941년 4월 10일, 「美洲국민총회대표 하와이로 전왕」 참조.

는 이원순·안현경·도진호로 선임했다.⁴⁵³⁾ 선임된 세 단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대회주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대회주비위원회는 원동을 비롯한 각 미포의 주요 단체에 공함을 보내 대표 출석을 제의하였다.⁴⁵⁴⁾ 각 단체의 대표 초청은 북미 국민회 대표가 오기전에 하와이 국민회와 同志會에서 미리 초청해 놓았다. 따라서 대회주비위원회는 북미 국민회 대표가 오기 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북미 국민회 대표는 단지 여기에 합류했을 뿐이었다.

대표 출석을 제의받은 단체는 와히아와 독립당 대표 안창호, 중한민 중동맹당 대표 차신호, 조선의용대후원회의 황사용, 부인구제회의 심영신(國民會)·민함나(同志會), 그리고 大朝鮮獨立團 등 6개 단체이다. 그런데 조선의용대후원회의 대표는 초청받은 황사용이 사면한 후 권도인으로 교체되었다.

대회주비위원회에서는 원동 각 단체 대표의 참가문제를 重慶의 大韓民國 臨時政府에 위탁하였고, 한국독립당 대표로 김구의 참가를 요청하였다. 김구는 준비회측의 열성적인 참석권유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았다.⁴⁵⁵⁾

453) 『태평양주보』, 1941년 4월 19일, 「잡보」; '연합대표는 금일에 소집'.

李元淳, 『世紀를 넘어서: 海史 李元淳 自傳』, 신태양사, 1989 참조.

454) 『태평양주보』, 1941년 4월 19일, 「잡보」; '연합대표는 금일에 소집'

『新韓民報』, 1941년, 5월 15일, 「해외한족대회에 참가한 단체와 대표」.

455) 『해방조선』, 151쪽: 『태평양주보』, 1941년 4월 19일, 「잡보」; '연합대표는 금일에 소집' 및 5월 31일, 「재미한족에 대한 임정훈사」 참조.

대회준비위원회는 본 대회에 앞서 4월 19일 임원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임원은 의장 안원규, 부의장 한시대, 서기 김원용·도진호, 영문서기 김현구, 의안수리위원 이원순·김호가 되었다.⁴⁵⁶⁾ 대회 개회식은 4월 20일 거행되었다.⁴⁵⁷⁾ 개회식 날 해외한족대회 의장 안원규를 비롯한 대회위원 일동은 다음의 개회 『선언』을 발표하여 역사적인 이번 대회에 전 민족적 협조를 당부하였다.

해외한족대회를 미령에 소집함은 전 대한 민족은 일치 협력하여 美國 정부의 급진맹작하는 국방사업과 세계 구의공작을 직접 간접으로 원조하며, 전후의 건설 공작에 이르기까지 만일의 공헌을 같이 하자 함이오.

독립 자주의 정당한 권리 행복을 평등 향수코자 하는 민족 자연의 충동과 요구에서 이 시대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을 연구도의 하자 함이니, 대회와 및 대회의원의 사명이 실로 중대하며, 그 임무가 또한 신성 중대함을 우리는 깊이 자각하고 가깝게는 미령동포의 성실한 협조와 지도가 있기를 바라고, 멀리는 전 민족의 뜨거운 편달이 있기를 바라노니, 금일로부터 통일과 조직적 전투로써 최후의 승리를 굳게 맹약하노라.

조국의 완전한 독립을 불원 장래에 다시 세계에 선언하고 위대한 민족의 장래를 자유와 행복으로써 광휘있게 개척하고 건설하자. 3천만 민중의 건전한 분투를 기대하며 이에 선언하노라.⁴⁵⁸⁾

456) 『新韓民報』, 1941년 5월 8일, 「해외한족 대회준비회」: 『태평양주보』, 1941년 4월 26일, 「해외한족대회진행」

457) 『新韓民報』, 1941년 5월 8일, 「해외한족 대회준비회」: 『태평양주보』, 1941년 4월 26일, 「해외한족대회진행」

458) 『해방조선』, 153쪽, 김원용 『在美韓人五十年史』, 404~405쪽. 두 자료는 원문이 조금씩

이 『선언』에 따르면 해외한족대회는 한국의 독립문제뿐만 아니라 美國의 국방후원문제와 戰後의 건설문제까지 고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中韓民衆同盟團은 선전문을 통해 반드시 대동단결된 모습으로 성공적인 대회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였다. 459) 즉, 이번 대회에서 대미 외교문제와 光復軍後援 문제에 특별히 당부하였다. 그외 개회식 날에는 重慶 大韓民國 臨時政府로부터 대회 축하의 전보가 낭독되고 워싱턴에서 활동 중인 李承晩의 축전도 소개되었다. 460)

해외한족대회에 참가한 단체와 정식 대표는 북미 두 곳, 하와이 7곳 해서 총 9개 단체에 15명이었다. 461) 그런데 북미 국민회와 하와이 국민

다르다.

459) 『태평양주보』, 1941년 5월 31일, 「재미한족에 대한 임정훈사」. 신한국보에는 실린 ‘임정훈사’는 4월 21일에 송부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新韓民報』, 1941년 6월 5일.

460) 『태평양주보』, 1941년 4월 26일, 「해외한족대회 진행」.

461) 이때 참가한 각 단체와 대표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북미 대한인국민회 대표 : 한시대, 김호, 송종익.
- 同志會 대표 : 안현경, 이원순, 도진호.
- 하와이 국민회 대표 : 안원규, 김현구, 김원용.
- 中韓民衆同盟團 대표 : 차신호.
- 大朝鮮獨立團 대표 : 강상호.
- 한국독립당하와이총지부 대표 : 임성우.
- 조선의용대미주후원회연합회 대표 : 권도인.
- 하와이 대한부인구제회 대표 : 민함나, 심영신.

회 · 同志會는 각 3인씩 대표로 초청된 반면 그외 단체는 대표 1인만 초청되어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 中韓民衆同盟團은,

광복사업도 이 기회를 이용하여 참으로 효과있게 잘하여 보려하면, 국민회 同志會에서 각 단체의 대표를 많이 부르고, 단체 외에라도 유지한 인도자들을 다 망라하여 놓고 소리 외쳐가며 합동을 진행할 터인데, 들은즉 자못 몇 단체의 대표 1인씩만 청해 놓고 조용히 대사를 의론한다 하니...⁴⁶²⁾

라 하여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해외한족대회는 4월 21일 갈리히 기독교학원에서 공식 회의를 시작한 이후 5월 1일까지 진행되었다.⁴⁶³⁾ 회의를 통해 나온 주요 사항은 4월 27일 공동대회를 통해 설명되어 조정되었고, 최종안은 『해외한족대회 결의안』이라는 이름으로 4월 29일 발표되었다.⁴⁶⁴⁾ 細則과 規程을 포함하여 총 7개조로 이루어진 이 해외한족대회 결의안은 그동안 진행한 해외한족대회의 모든 회의내용을 압축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내용은 '

하와이 대한부인구제회는 국민회측(심영신)과 동지회측(민합나)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이 외에도 하와이 국민회장 조병요와 동지회 중앙부장 손승운 역시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한편 김원용은 대한여자애국단 대표 이성례, 박경신이 참가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新韓民報』 1941년 5월 8일, 「해외한족 대회준비회」, 金元容, 『在美韓人五十年史』, 410쪽.

462) 「中韓民衆同盟團 선전문」 제70호(1941.4.18), '사설 ; 미포대표회에 대하여'.

463) 『태평양주보』, 1941년 4월 19일, 「잡보」; '연합대표는 금일에 소집' 및 『新韓民報』, 1941년 5월 15일, 「제2계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안」 참조.

464) 이를 볼 때 해외한족대회의 공식회의 기간은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로 볼 수 있다.

독립전선의 통일', '임시정부 봉대', '군사운동', '외교운동', '미국방공작 원조', '재정방침',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설치' 등 일곱 가지이다.⁴⁶⁵⁾ 이 중 미국방공작 원조는 4월 27일 해외한족대회 의장 안원규의 이름으로 「권유문」을 발표하여 美洲韓人들의 이해와 지원을 당부하였다.⁴⁶⁶⁾

해외한족대회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대미외교사업 문제로 참여단체간에 갈등이 생겨났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새로 주미외교위원부를 외교기관으로 새로 신설하고 3명정도의 책임자를 두도록 권유하였다.⁴⁶⁷⁾ 주미외교위원부 설치 문제는 외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던 同志會와 中韓民衆同盟團 사이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은 처음부터 외교사업 안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中韓民衆同盟團의 韓吉洙는 1938년부터 美國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외교활동을 벌이고 있었고, 同志會의 李承晩도 1939년 구미위원부를 통해 외교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大韓民國 臨時政府는 中韓民衆同盟團이 外交目標와 宣傳主旨가 得當치 못하기 때문에 그 교정을 지시하고 인준하지 않고 있었으며,⁴⁶⁸⁾ 李承晩의 歐美委員部에 대해서

465) 「결의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방조선』, 153~156쪽, 「해외한족대회 결의안」 참조.

466) 『해방조선』, 156쪽.

467) 『태평양주보』, 1941년 5월 31일, 「재미한족에 대한 임정훈사」.

468) 「大韓民國臨時議政院 記事錄」大韓民國 21년~23년, 『韓國獨立運動史資料』(臨政篇) 1,국사편찬위원회, 1983, 93쪽

는 의정원에서 이미 폐지하였으므로 復活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⁴⁶⁹⁾ 따라서 이 두 단체는 해외한족대회의 외교사업을 통해 자신들의 외교 활동이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인준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다.

同志會에서는 활동을 재개한 歐美委員부와 李承晩 중심으로 독점적으로 외교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랐고,⁴⁷⁰⁾ 동지회에 비해 열세였던 中韓民衆同盟團에서는 자신들을 포함하여 기존의 외교선전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방향으로 해외한족대회의 외교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⁴⁷¹⁾ 양측 입장이 대립되는 가운데 북미 국민회 대표 김호의 1인으로 외교사무를 전무하고 시국전개와 사무 증가에 따라 인원을 증원시킬 수 있도록 하며, 외교위원부에 관한 모든 것은 大韓民國 臨時政府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게 하자는 절충안이 받아들여졌다.⁴⁷²⁾ 김호는 외교사무를 담당할 1인으로 李承晩 개인과 同志會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李承晩을 추천하였다.⁴⁷³⁾ 이에 대해 韓吉洙를 추대하는 中韓民衆同盟團은 한 때 대회 탈퇴까지 주장하면서 반발하였으나, 韓吉洙를 外交員보다 美國 국방에 대한 奉仕員으로 선임함으로써 이 일은 무마되었다.⁴⁷⁴⁾

469) 大韓民國臨時議政院 記事錄」大韓民國 21년~23년, 『韓國獨立運動史資料』(臨政篇) 1, 국사편찬위원회, 1983, 93쪽

470) 『태평양주보』, 1941년 4월 19일, 「우리의 임시정부와 대미외교」

471) 「중한민중동맹단 선전문」 제70호(1941.4.18), 앞의 글, 697쪽.

472) 『태평양주보』, 1941년 5월 3일, 「한족대회의 3대 운동」

473) 『태평양주보』, 1941년 5월 3일, 「한족대회의 3대운동」

해외한족대회 최대 결과는 美洲 韓人社會가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기치 하에 완전히 통일되어 美洲韓人社會를 총괄할 최대 연합기구로 在美韓族聯合委員會를 설립한 것이었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분산된 美洲韓人社會의 독립운동을 집중시켜 조국의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동시에 동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연락협조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在美韓族聯合委員會 議事部

在美韓族聯合委員會는 1941년 4월 29일 결성되었음이 선포되었고, 하와이 호놀룰루에 議事부와 로스앤젤레스에 執行부로 구성되었다. 해외한족대회에서는 연합회의 조직을 의사부 12명, 집행부 6명 총 18명으로 구성하였다. 하와이 議事部는 同志會 대표 2명과 수석(중앙부장) 1명, 國民會 대표 3명과 수석(총회장) 1명, 中韓民衆同盟團 대표 1명, 大朝鮮獨立團 대표 1명, 韓國獨立黨 하와이 총지부 대표 1명, 大韓婦人救濟會 대표 2명(국민회 1명, 동지회 1명)으로 호놀룰루에 조직되었다.⁴⁷⁵⁾ 북미 집행부는 국민회 대표 3명과 수석(총회장) 1명, 동지회 대표 1명, 조선의용대 후원회 대표 1명으로 로스앤젤레스에 조직되었다. 이러한 인원배분은 참가 단체의 회원수에 비례한 것이었는데, 하와이 동지회의 경우 집행부 조직에 참가할 북미 동지회가 기준 회원수에 미치지 못하여 집행부 조직에서 빠지게 되자 동지회 중앙부의 1명을 북미 동지회에 배분하였다.⁴⁷⁶⁾

474) 「태평양주보」, 1941년 5월 3일, 「한족대회의 3대운동」

475) 『大韓人國民會 中央執行部 總會錄』, 49쪽. 연세대 현대한국학 연구소 소장.

연합회의 운영방침은 해외한족대회에서 결의하였는데, 常例會없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의사부와 집행부 공동의 결의로 임시로 소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1942년에서 1944까지 매년 봄에 정기적으로 전체위원회를 열어 현안문제와 장래 사업을 논의하였다. 연합회의 재정은 해외한족대회에서 집행부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각 부가 독자적으로 관리하였다. 1943년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집행부와 의사부가 행정범위를 조정하여 전체적인 일은 집행부가 맡고 지역적인 것은 각 부가 자체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여 공동사항에 대해서는 두 부가 상호협의를 하여 추진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지역적 특성에 맞게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다.

하와이에 설치되었던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의 첫 번째 조직은 1941년 5월 4일 전체 12명 중 韓國獨立黨 하와이 총지부 대표 1명이 빠져 11명이 임명되었고 그 조직은 다음과 같다.

위 원 장 : 이원순(동지회)

부위원장 : 안원규(국민회)

비서위원 : 국문서기 도진호(동지회), 영문서기 김원용(국민회)

재 무 : 조병요(국민회), 손승운(동지회)

국방위원 : 김현구(국민회)

검사위원 : 차신호(중한민중동맹단)

의사위원 : 강상호(대조선독립단), 민함라(대한부인구제회-동지회), 심영신(대한부인구제회-국민회)⁴⁷⁷⁾

476) 『新韓民報』 1943년 8월 12일 「단체에 대한 인식 착오」.

477) 『태평양주보』 1941년 5월 10일. 「의사부 조직」

이 조직에서 보듯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비서위원으로 국문서기와 영문서기 2인, 재무 2인, 국방위원 1인, 감사위원 1인, 의사위원 3인을 두고 있으며, 재무의 경우 국민회와 동지회의 총회장이 맡았다. 그리고 韓國獨立黨 하와이 총지부 任成雨가 위원으로 추가되었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는 점차 조직을 확대하였는데, 첫 번째로 연합한인위원회가 담당하였던 미국방 후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를 강화하여 유진석, 도진호, 조광원, 정월터, 이태성, 김영기, 강영각, 민찬호, 전경무, 윤용선 등 10명을 국방위원으로 임명하였다. 또 전후공작과 한국독립문제 조사연구를 위하여 조사연구위원회를 특별연구회로 조직하였고, 현순, 전경무, 김현구, 김원용, 조광원, 도진호, 안현경, 민찬호, 김영기 등 9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다. 이외에도 田耕武를 특무위원으로 임명하여 하와이 한인청년계의 정치운동 개발과 청년사교회를 응원하고자 하였다.⁴⁷⁸⁾ 1940년대 초 하와이 한인사회에는 한인이 6,800여명 되었는데, 이들 중 4,500~4,600여명이 하와이에서 출생한 한인 2세대들이었다. 이들은 한인 1세대가 점점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점점 미국화 되어가고 있어서 한국의 독립문제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하와이 한인 2세들의 지도와 계발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의 주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한편 의사부에서는 1942년 한국독립을 위한 선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宣傳部를 설치하고 田耕武를 선전부장으로 임명하였다.

재미한족연합회 의사부는 하와이 한인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478) 『태평양주보』 1942년 11월 22일 「보고서」.

1941년 6월경 캡틴쿵, 라나이, 마위서부, 하나, 오아후 서부 지역에 연합회 지부를 설치하였다.⁴⁷⁹⁾ 연합회 지부는 이외에도 가와이 지방,⁴⁸⁰⁾ 고나지방,⁴⁸¹⁾ 몰로가이 지방⁴⁸²⁾에서도 설립되었다. 연합회 지부는 재무 조병요와 송승운이 1941년 6월 25일부터 독립군 수봉을 위해 하와이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고탈라지방, 홀로알루아지방, 교호지방, 파할라 지방, 호노나우 지방, 힐로지방, 파하우 지방, 옥갈라 지방에서도 설립되었다.⁴⁸³⁾ 이렇게 설립된 연합회 지부는 연합회의 독립금 수봉에 적극 협조하였다.

연합회는 이외에도 獨立金 수봉을 위해 독립금 수봉위원회를 조직하고 구호부와 훈련부로 구성하고 수봉위원들을 관리하였다.⁴⁸⁴⁾ 의사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던 獨立金收捧委員會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호부 ; 민찬호, 안현경, 이태성

훈련부 : 김영기, 정월터, 강영각

479) 『태평양주보』 1941년 6월 28일 「각지방 연합위원」.

480) 『국민보-태평양주보』 1942년 10월 7일 「연합위원회 가와이지부 임원」.

481) 『국민보-태평양주보』 1943년 1월 13일 「고나지방연합회」.

482) 『국민보-태평양주보』 1943년 3월 17일 「몰로가이 지방 동포의 성의」.

483) 『태평양주보』 1941년 7월 12일 「각 지방에 위원 조직」.

484) 『태평양주보』 1941년 5월 24일 「독립금 4,300원 응모」, 6월 21일 「각 단체 독립금 수봉위원 택선」..

수봉위원 : 유명옥, 김태훈, 이묘옥, 차신희, 서복수, 강창신, 민함라, 김봉순, 박은신, 박찬길, 배일진, 송명자, 박정숙, 최경애, 정순이, 안현경, 심영신, 권희경, 안덕은, 민의식, 김주한, 인봉주, 조병요, 김매들린, 오창익, 광명숙

이외에도 독립금 수봉을 관리하기 위해 재무부 조직을 확장하여 동지회 대표로 김영기, 안현경을 국민회 대표로 안원규를 재무부 위원으로 추가 임명하였다.⁴⁸⁵⁾ 이로써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중앙조직은 15명으로 확대되었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는 1942년에는 제1차 전체위원회의 결의안에 따라 중경특과원 파송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협찬위원회를 조직하여 의사부 조직 확장을 일단락 되었다. 협찬위원회는 위원장에 이흥기, 서기 강영효로 조직되었고, 일반인들의 독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찬위원들에게만 경비를 부담시키고자 만든 한시기구였다.⁴⁸⁶⁾

연합회는 의사부는 처음에 7개 단체로 출발하였지만, 연합회라는 성격 때문에 활동방향을 둘러싸고 새로 가입하거나 연합회를 떠나는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中韓民衆同盟團은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였는데, 1942년 1월 14일 한길수의 국방봉사원을 사직을 계기로 탈퇴하였다가 1943년 4월 5일 정두옥, 김이제를 대표로 보내면서 다시 가입하였다. 이후에도 중한민중동맹단은 탈퇴와 가입을 반복하였다.

485) 『국민보-태평양주보』 1942년 2월 24일 「독립금 예약에 대한 말」.

486) 『국민보-태평양주보』 1942년 9월 22일 「전경무씨의 사명」, 1943년 3월 3일 「중경특과원경비에 대하여」.

1942년 제1차 전체위원회에서 가와이 단합회와 대한여자애국단은 참가 결정을 얻어 5월에 의사부에 가입하였다가 1944년 연합회 제3차 전체 대표회의에서 워싱턴사무소 설립 결의에 반대하여 탈퇴하였다. 이외에도 동지회가 1943년 12월 23일 연합회의 이승만 처리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였으며, 1944년 1월에는 大韓愛國婦人會가 새로 가입하였다.

의사부에서는 여러 단테들이 가입하고 탈퇴하는 가운데, 임원의 2년 임기가 만료되자 1944년 7명의 위원을 새로 영입하고, 카이로 선언 이후에는 군사금 모집을 전개하기 위해 5월 1일 군사금 회계를 신설하고 유진석, 최두욱, 자운증을 선임하였다. 이로써 의사부 조직은 중앙부가 20명으로 증원되어 확대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회측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의사부는 1944년 8월 12일 임시정부에서 주미외교위원부 개조명령을 받게되자 미주 한인사회 전체대표회의를 준비하면서 의사부를 강화하기 위해 9월 11일 하와이 주요 단체들에게 전체대표회의 소집을 알리는 청요장을 보냈다.⁴⁸⁷⁾ 9개 단체 대표회의에 동지회는 불참하였지만, 의사부는 이를 계기로 민혁명당 하와이 총지부 박상하를 위원장으로 새롭게 조직되고, 中韓民衆同盟團이 의사부에 다시 가입하고 영남부인실업동맹회와 민족혁명당 하와이 총지부가 새로 의사부에 가입함으로써 하와이 내에서 의사부의 위상은 강화되었다. 그러나 의사부는 곧 의사부내 주도권문제로 국민회측과 비국민회측이 갈등을 겪다가 비국민회측인 민족혁명당하와이 총지부, 중한민중동맹단, 대조선 독립단, 한인구락부 등의 단체가 모두 의사부를 탈퇴함으로써 약화되었다. 이후 의사부는 국민회의 한독당 하와이 총지부 인물을 중심으로 조

487) 『國民報』 1944년 9월 13일 「대표대회소집」, 「청용장」.

직이 구성된채 광복을 맞게 되었다.

V. 하와이 韓人의 大韓民國臨時政府 支援

1. 國民會의 血誠金 收捧과 軍事委員會 支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각처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露領 臨時政府와 협의하여 9월 11일 臨時議政院에서 漢城 臨時政府를 法統으로 大統領制로 내각을 개조하였다.⁴⁸⁸⁾ 이렇게 성립된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와이 한인들은 愛國金을 수합하여 상납하였고, 이는 임시정부의 재정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하와이 한인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임을 받아 대한인국민회에서 수합하는 애국금을 납부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1920년 3월 1일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인국민회 애국금 수합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공채발행의 전권을 구미위원부로 위임하였다.⁴⁸⁹⁾ 이것은 이승만이 자신이 만든 구미위원부의 재정확보를 위해 의도한 것이었고,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1920년 4월 열린 평의회에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시에 따를 것을 결의하였다. 하와이 한인들 역시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의 지휘를 받는 상태였으므로 하와이에서 수합된 재정은 구미위원부를 지원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하와이 한인들의 직접적인 재정후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0년대 후반 대통령 이승만 탄핵안, 출

488) 李炫熙, 「漢城臨時政府와 民族運動」, 『향토서울』 50,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91. 22쪽.

489) 『獨立新聞』 1920년 3월 1일 「애국금 폐지」, 4월 22일 「공채모집위원규정」.

신지방에 따른 독립운동가들의 갈등, 자금난 등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은 약화되었다. 침체국면에 들어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31년 9월 일제가 滿洲事變을 일으키자 중국과 일본관계가 악화된 이 시기에 특수공작을 통해 항일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김구에게 공작의 전권을 일임하였다.⁴⁹⁰⁾ 김구는 한인애국단의 이봉창을 통해 1932년 1월 일본 동경에서 일본 국왕을 제거하려는 의거를 일으켰고, 4월 29일에는 윤봉길이 홍구공원에서 일황 생일기념식장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군 수뇌와 요인들을 사살하는 의거를 일으켰다. 이 의거가 성공함으로써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⁴⁹¹⁾ 이 의거는 국내외 동포에게 광복에 대한 열의를 고양시켜 하와이를 포함한 각지에서 의연금과 담지하였고, 중국정부에서도 군자금을 전달받게 되었다.

두 의거로 인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의 보복을 피해 상해에서 항저우(杭州)로 이동하게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동시대(1932~1940)를 맞게 되었다.⁴⁹²⁾ 이동시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32년 항저우(杭州), 1935년 진장(鎮江), 1937년 창사(長沙), 1938년 광둥(廣東)·류저우(柳州), 1939년 치장(綦江)으로 이동하였으며, 임시정부 역사상 가

490) 孫世一,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政治指導體系」, 『3·1운동50주년기념논문집』, 동아일보사, 1969. 924~925쪽.

491) 李炫熙, 『臨政과 李東寧 研究』, 일조각, 1989, 257쪽.

492)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시기별로 구분하면 상해시대(1919~1932), 이동시대(1932~1940), 중경시대(1940~1945)로 구분할 수 있다.

장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되었다.

1937년 7월 7일 中日戰爭이 일어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정치적 대응의 필요성이 절박해지게 되었다. 당시 류저우에 머물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軍務部 내에 軍事委員會를 설치하고 좌우합작을 통한 민족연합전선을 결성하여 전시체제에 대비하고 독립전쟁을 수행할 준비와 계획을 추진하였다.

軍事委員會는 1937년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설치되었는데, 그 목적은 독립전쟁을 연구하고 계획하며 광복군을 양성하는 것이었으며, 군사 지식 습득을 위한 서적을 편찬하는 것 등이었다. 이 중에도 특별히 광복군 양성 특히 중견 군사간부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⁴⁹³⁾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7월 16일에는 유동열·지청천·이복원·현익철·김학규·안공근 등 6명을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군사위원회 발족 소식을 공보를 통해 하와이 한인들에게 전하면서 이를 후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와이 국민회에서는 1937년 8월 14일 총 임원회를 열어 총회장 조병요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온 公報의 大旨를 설명하고 사무를 처리하였다. 이날 공보의 내용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내에 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사위원회를 후원하기 위한 혈성금 수합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군사위원회를 후원하기 위한 선전부를 두기로 결정하였다. 혈성금은 독립군 후원과 선전에 쓰기로 하고 10분의 8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보내고 10분의 2는 독립응원선전비로 쓰기로 하였다. 혈성금 관리는 특별위원회를 두어 위임하게 하고, 위원장은 총

493) 國會圖書館, 『大韓民國臨時政府議政院文書』, 734~744쪽.

재무가 겸임하게 하였다. 선전부장은 총회장이 직권상 겸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는 혈성금 관리위원회와 선전부의 인선과 조직에 대해서는 유안하였다.⁴⁹⁴⁾ 이 회의 이후 국민회에서는 각 지방회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냈다.

우리 임시정부에 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독립군의 활동을 계획적으로 , 규모적으로 하여 가기로 작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독립군을 후원하기 위하여 혈성금을 거두기고 하고 독립전쟁이 끝나는 때까지 계속하여 매월 얼마씩을 내게 하였으니 각 지방에서는 이것을 곧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혈성금을 관리하는 재무위원회가 조직되는 때까지는 우선 총재무에게로 그 돈이 수합 되는대로 보내시옵서. 재무위원회가 조직되는 때는 또 다시 반포가 있겠습니다.

이번 일이 국부적인 일이 아니오 우리 일반의 대동한 일이니, 회원과 비회원을 불문하고 일반동포를 다 심방하시고 호놀물루 3지방에서는 구역을 나누어, 그 구역 안에서 동포가 주적하는 곳은 하나도 누락없이 심방하여 혈성금을 청구하시옵소서.

민국 19년 8월 16일.

총회장 趙炳堯

각 지방회장 좌하⁴⁹⁵⁾

이상에서 보듯이 국민회에서는 혈성금을 독립전쟁이 끝나는 때까지 계속하여 매월 얼마씩 내는 것으로 정하고, 각 지방회에서 이를 시행하도록 권고하였다. 국민회에서는 혈성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무위원회를

494) 『國民報』 1937년 8월 18일 「총임원회록」.

495) 『國民報』 1937년 8월 18일 「공문 제15호」.

구성하기로 하여 군사위원회 후원을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하와이 한인들이 중일전쟁을 독립의 호기로 인식하고 있었음과 독립전쟁을 통한 독립의 쟁취를 지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공문을 받은 팔라마지방회 등에서는 역시 혈성금 수합을 결의하였다고 국민회 총회에 보고하였다.⁴⁹⁶⁾ 팔라마지방회는 8월 25일에는 추가로 혈성금위원으로 박봉집, 박봉남으로 선정하였다고 보고하면서 혈성금 수합위원들이 每戶 每人을 심방하여 혈성금을 수합하고 있으며, 일시금으로 김정수가 2원, 매월 일정금으로 한형록 등 17명이 혈성금을 내기로 하여 35원이 약정되었다고 보고하였다.⁴⁹⁷⁾

호놀룰루 지방회에서도 8월 22일 특별회에서 혈성금 수합에 착수하기로 하여 김성일, 김수원, 양순서, 조문학으로 혈성금 수전위원으로 정하고 지방 내 각 구역을 분담하여 가가호호 심방하게 하였다고 보고하였다.⁴⁹⁸⁾ 호놀룰루 지방에서 혈성금은 낸 사람은 일시금으로 김성일 등 26명이 164원 45전을, 매달 일정금을 내기로 한 사람이 권도인 등 55명이 79원 25전 5각을 약정하였으며 일정액은 아니지만 매월 혈성금을 내기로 한 사람은 김인수 등 7명이었고, 8월에 이들이 낸 혈성금은 18원 50전이였다. 즉, 호놀룰루 지방의 8월 혈성금은 총 88명 162원 20전

496) 『國民報』 1937년 8월 16일. 이날 팔라마 지방회장 박승준은 팔라마 지방회에서 혈성금을 수합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총회장 조병요 앞으로 보고하였다.

497) 『國民報』 1937년 8월 25일 「지방회 보고」.

498) 『國民報』 1937년 8월 25일 「지방회 보고서」.

5각이었다.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하와이 한인들은 이를 후원하기 위한 혈성금을 내놓았는데, 힐로지방⁴⁹⁹⁾, 와일루아 공동회⁵⁰⁰⁾ 코할라 지방⁵⁰¹⁾ 오아후 서부지방⁵⁰²⁾ 라나이지방회⁵⁰³⁾ 와칼리히 지방⁵⁰⁴⁾ 와이과후지방회⁵⁰⁵⁾ 편치볼 지방회⁵⁰⁶⁾ 등에서도 혈성금이 수합되었다고 국민회에 보고되었다. 지방회

499) 『國民報』 1937년 9월 1일 「공시」.

500) 『國民報』 1937년 9월 1일 「보고서」. 와일루아 공동회에서는 안학선 회장이 재무를 겸임하기로 하였다.

501) 『國民報』 1937년 9월 8일 「보고서」. 코할라지방회는 하위지방 수봉위원은 황희중, 윤년민지방 수봉위원 김우옥, 코할라구역은 재무 이병준씨가 선정되었다.

502) 『國民報』 1937년 9월 8일 「보고서」 오아후 서부지방 카후쿠 수봉위원은 안순서로 선정되었다.

503) 『國民報』 1937년 9월 8일 「보고서」. 라나이지방회에서는 혈성금을 한사람도 누락치 말고 매월 내기로 결정하고 수봉은 각기 십장들이 담임하기로 하여 이정근, 이경재, 이선의, 최주선 네 사람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 따로 일하는 이들에게 수봉하는 것은 현상학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504) 『國民報』 1937년 9월 15일 「김씨 내외분 특지」.

505) 『國民報』 1937년 9월 22일 「와이과후 혈성금 배식 일정금」.하나 혈성금 수봉위원으로 황성경이 선임되었다.

506) 『國民報』 1937년 11월 3일 「편치볼 지방회」.편치볼 지방회는 혈성금을 편치볼 지방 일

뿐 아니라 대한부인구제회 중앙부와 호놀룰루 지방회⁵⁰⁷⁾, 라나이 지방구제회⁵⁰⁸⁾, 와일루아 국어학교⁵⁰⁹⁾, 영남부인 실업동맹회⁵¹⁰⁾ 등에서도 혈성금을 납부하였다.

한편 하와이 국민회 기관지였던 국민보는 혈성금 납부자를 공시하는 한편 사실을 통하여 혈성금 납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독려하였는데, 그 일부는 다음과 같다.

(전략) 동양의 이 같은 전란이 있고, 그 전쟁의 일방당사자는 곧 우리의 원수이니, 이 전쟁이 죽으려도 죽을 자리를 못얻는 우리에게 한번 의로이 죽을 기회이다. 이 기회에 우리는 어찌 하려는가. 능히 일제히 결심하고 희생을 사양치 않겠느냐. 그 만큼의 준비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멀리 있어서 몸을 바치려도 바칠 기회가 없는 하와이에 우리는 무엇을 어찌하려느냐. 전장에 나아가지 못하거든 적어도 贖錢이라도 내어야 할 것이다. 마음에 끓는 것이 있거든 그 마음을 표하라. 나라를 사랑하는 것

반에게 수합하기로 하고 수전위원은 편성원으로 책정하였다.

507) 『國民報』 1937년 10월 6일 「중앙부 임원회록」.

508) 『國民報』 1937년 10월 20일 「부인회 공문」. 정해나가 회장이었던 라나이 지방구제회는 9월 11일 다른 지방의 회원 환영 겸 친목회 자리에서 김귀염의 의향으로 당석에서 혈성금으로 21원 25전을 수합하였다.

509) 『國民報』 1937년 10월 20일 「혈성금」.

510) 『國民報』 1937년 11월 10일 「영남부인실업동맹회」. 9월말 제9회 창립기념식에서 혈성금을 수합하여 국민총회로 보냈다. 윌헬름 등 24명 15원 25전.

이 말쟁이의 말거리가 아니오. 일꾼의 업이다. 일은 일로 하고 말로는 못 하는 것이다.

혈관에 타인의 피가 있거든 그 피의 값을 하라. 물건으로도 값이 없을 수 없거늘 하물며 사람이라. 더구나 신성한 대한의 혈족으로, 독립자격을 자처하는 민족으로 어찌 값이 없으며 값을 아니하라. 피를 흘리지 못하는 우리는 피의 값을 내자. 피는 독립의 값이다.

시작하는 날부터 독립운동이 완성되는 날까지 우대의 혈성을 표하자. 이것을 잘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의 독립자격 증명하는 한 길이다.⁵¹¹⁾

이상과 같이 하와이 한인들은 지리적으로 몸을 바칠 기회가 되지 못하므로 贖錢으로 혈성금이라도 내야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고, 그 결과 의무금인 혈성금 납부에 열성을 냈다.

한편 혈성금을 내는 하와이 한인들의 사연이 국민보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호놀룰루에 거주하는 이경삼은 구제를 받고 지내는 터라 혈성금을 낼 수 없었다고 한다. 부모가 혈성금을 내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말을 들은 딸 이순복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름동안 일하여 받은 돈 중에서 책값만을 제하고 혈성금으로 11원을 냈다. 힐로지방의 김락원씨는 팔십노인으로 일을 못하여 재정상 곤란을 겪고 있었음에도 혈성금으로 25원을 냈다. 호놀룰루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실업가 김을로는 사회일⁵¹²⁾에 참여하기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혈성금으로 25원을 기부하였다.⁵¹³⁾

511) 『國民報』 1937년 8월 25일 「사설」.

512) 국민회 관련 일을 사회일이라고 표현한 것 같다.

513) 『國民報』 1937년 9월 1일 「혈성금 수입 중 특점」.

국민보에서는 혈성금 기부자 중 특별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기사화하여 보도하였다. 오영식은 라나이에서 중독으로 고생하다가 호놀룰루 갈리히 병원에서 치료중이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위원회 일을 듣고 혈성금을 7전 50전을 납부하였다.⁵¹⁴⁾ 마우이 지방의 김수복은 팔십 노인으로 농장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인데, 혈성금 수봉 소식을 듣고 50원을 기부하였다. 신문기사에는 특별히 한인 2세들의 혈성금 납부 소식도 있었는데, 앞서 언급하였던 이순복 외에 박춘경의 아들 박대범이 매월 50전, 김치원의 딸 김선일이 매월 1원, 임준호의 딸 임양순이 매월 1원을 납부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외에도 서인서라는 노인이 10월이나 기부하였다고 보도하였다.⁵¹⁵⁾

호놀룰루 성누가 성공회의 유년학생들은 1전, 2전의 귀한 돈을 모아 우리 독립군을 구원하는 뜻으로 혈성금 3원을 만들어 놓았다 하며, 그보다 좀 나이 많은 유년반과 청년반에서도 수전을 하였다. 호놀룰루 래아히훔에 입원한 김상연은 일반의 의무를 각근히 하여오던 터인데 입원, 신음하는 중에도 혈성금 1원을 보냈다. 마우이 쿨라 병원에서 몇년째 병중에 있는 김규섭도 혈성금 1원을 냈다.⁵¹⁶⁾ 국민보에서는 이러한 사연들을 혈성금의 정의에 적당한 예라고 하면서 보도하였다. 이처럼 국민보에서는 사설과 혈성금 납부 사연의 기사화 로하와이 한인들에게 혈성금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납부를 독려했다.

514) 『國民報』 1937년 9월 8일 「오영식씨의 특지」.

515) 『國民報』 1937년 9월 8일 「공혈성금 수전의 특색」.

516) 『國民報』 1937년 12월 22일 「혈성금의 진정한 발표」.

하와이 한인들이 혈성금 납부 참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회에서는 9월 4일 총임원회를 열고 혈성금을 찬무부에 위임하여 조정할 것을 의결하고, 혈성금을 담당할 찬무부 전체모임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민회는 9월 10일 찬무회를 소집하고 찬무부 간사와 찬무부 세칙, 혈성금 등에 관하여 의결하였다. 찬무부 간사에 대해서는 기록 및 통신부장을 참조하여 일반일을 間選하도록 하고 부장이 공석일 때 대리하도록 하였으며, 인선은 구두 추천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정봉관이 피선되었다. 찬무부 세칙을 기초하기로 하여 홍한식, 정봉관, 김현구 세 사람을 기초위원으로 선임하였다. 혈성금에 대해서는 재무가 서명한 영수증을 주고, 지출은 재무 권도인의 서명과 부장의 연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 세칙과 선전문도 곧 발표하기로 하였다. 517)

혈성금을 수합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민회와 동지회 사이에 합동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9월 4일 국민회 총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시간을 더 두고 의논하기로 하였으나, 힐로지방에서는 혈성금 수합을 계기로 국민회와 동지회가 통합되었다. 9월 11일 힐로지방에서는 국민회와 동지회가 각 단체를 규합하고, 6지방 대표를 소집하여 大韓人共同會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공동 수합 방식은 해당금액을 공동회 재무부에 任置하였다가 國民總會와 同志會 中央部 양 단체에서 후원금을 관리하는 재무위원회가 조직되는 대로 付送하는 것이었다.⁵¹⁸⁾ 힐로지방회에서는 혈성금을 하와이 11지방을 통일하여 大韓人共同會를 조직하고 혈성금을 중앙공동회에 임치하였다.⁵¹⁹⁾ 국민회

517) 『國民報』 1937년 9월 15일 「찬무부 제1회 회의」.

와 동지회의 통합은 신문을 통하여 공시되었으나, 이 후 논의만 지속될 뿐 양 단체간의 타협점을 찾지 못하여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상과 같이 하와이 한인들의 열성적인 혈성금 납부에 힘입어 국민회에서는 9월 22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혈성금 명목으로 200원을 송부하였고,⁵²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0월 26일 영수증을 보내왔다.⁵²¹⁾ 첫 번째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혈성금을 송부하게 되자 국민보에서는 9월 29일 국민회 총회장 조병요의 연설을 실어서 하와이 한인들에게 혈성금 납부를 더욱 독려했다. 조병요는 이 연설을 통하여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세계 각국의 판도가 변경되었으므로 이번 중일전쟁을 통해서도 세계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민족이 일본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번 전쟁에 참가하여 싸워야한다고 역설하였다. 조병요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군사운동을 하고 있는데, 원동에 있는 청년들은 군대에 들어가서 직접 싸울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우리 하와이 한인들은 피를 흘리고 싶어도 기회가 없으므로 피의 값인 혈성금을 내야한다고 하였다. 매월 1원 이상의 혈성금을 내는 것은 적은 액수이지만, 그것이 하와이 한인들의 피와 정성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매월이 왜적을 죽이고 우리 한인들을 살리는데 적당한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⁵²²⁾ 이렇게 국민회 총회장이 혈성금을

518) 『國民報』 1937년 9월 15일 「공함」.

519) 『國民報』 1937년 10월 13일 「공함」.

520) 『國民報』 1937년 9월 22일 「임시정부에 부송금」.

521) 『國民報』 1937년 12월 8일 「임시정부 재무부발 75호」.

내자고 연설을 할만큼 국민회에서는 혈성금 수봉을 중요한 사업으로 삼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중일전쟁이 우리나라 독립의 호기라고 인식하고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설치한 군사위원회 후원을 독려하기 위해 하와이 대한부인구제회에도 관련 공문을 보냈다. 대한부인구제회에는 1937년 10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군사위원회 관련 공문이 도착하였고, 이에 대한부인구제회 중앙부 임원회에서는 호놀룰루 지방회 임원 합석회의에서 혈성금을 내기로 가결하고 수봉위원을 지정하였으며, 임원들은 매월 1원 이상을 혈성금으로 내기로 가결하고 당석에서 일정금을 출연하였다.⁵²³⁾ 대한부인구제회 중앙부와 호놀룰루 지방회에서는 혈성금 수전위원으로 송영자, 심영신, 김헬른, 박정금, 김차순, 양남수, 박금우를 擇定하였다.⁵²⁴⁾ 부인구제회에서는 10월 50여원의 혈성금을 수합하였다.⁵²⁵⁾ 이외에도 10월 혈성금은 라나이 지방, 호놀룰루, 팔라마 지방, 편치불, 와히아와 지방 등에서 수합되었고, 국민회의 10월 혈성금 관련 재무결과 8월부터 10월 26일까지 도합 수입이 1,105원 86전이였다. 이중 국민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200원을 상납하였으므로 이를 제하면 時在 905원 86전이였다.⁵²⁶⁾

522) 『國民報』 1937년 9월 29일 「총회장의 연설」.

523) 『國民報』 1937년 10월 6일 「중앙부 임원회록」.

524) 『國民報』 1937년 10월 20일 「부인구제회 수전위원」.

525) 『國民報』 1937년 10월 20일, 「혈성금」, 27일 「부인구제회 혈성금」.

526) 『國民報』 1937년 10월 27 「혈성금」.

하와이 국민회 회원들은 혈성금으로 자신의 직책을 밝힐 수 있었다고 할만큼 국민회 내에서 혈성금의 중요성은 컸다.⁵²⁷⁾ 국민회에서는 투표권을 줄 때에도 의무금, 혈성금, 수리비, 인구세 등 公錢을 낸 사람들에게 주었다.⁵²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하와이 한인들의 혈성금에 대해 “전국 동포로 하여금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뜨거운 정성”이라고 하였으며 “피땀으로 생명을 지탱하는” 하와이 한인들의 혈성금은 “세 글자가 조금도 틀림”없는 혈성금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혈성금은 하와이 한인들에게 독립운동을 위한 기부금 이상의 의미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하와이에서 혈성금이 오면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이 혈성금으로 군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초급장교 훈련, 특별사무의 명목 하에 비밀한 공작을 실행하는데 사용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정 중 98.5%를 군사와 특무에 치중하고 1.5%만을 보통정부경비로 사용하였다.⁵²⁹⁾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제1차로 혈성금을 송부받고 난 후 혈성금으로는 특무사업, 기본군대, 사관양성에 사용하겠다고 회신하기도 하였다.⁵³⁰⁾ 이 회신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하와이 한인들의 혈성금 모집에 대해 다른 나라의 원조보다는 자력으로 실행해야 독립이 성취되는 것이므로 중일전쟁이라는 독립의 호기를 맞

527) 『國民報』 1937년 12월 1일 「임시정부 포고문」.

528) 『國民報』 1937년 10월 27일 「하와이-공문 호외」.

529) 『國民報』 1937년 12월 1일 「임시정부 포고문」.

530) 『國民報』 1937년 12월 8일 「임시정부 재무부발 75호」.

이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고자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책을 혈성금을 통해 적극적으로 후원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이에 국민회에서는 임시대의회를 열고 경상사무 이외에는 일반일을 다 정지하고 혈성금 계획을 각별히 힘써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일정액을 상납하기로 결의하고 각 단체의 협력을 구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혈성금 수봉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다른 특연 즉, 愛國金, 冀望金, 수리비, 신문사 보조금 등을 1937년에 정지하기로 결의하고,⁵³¹⁾ 회원들에게도 12월 15일 대의회 결정을 적극 후원해달라는 공함을 보냈다.⁵³²⁾

하와이 한인사회에서는 국민회의 열성적인 혈성금 모집 전략에 힘입어 1937년 12월 27일 혈성금 1,000원, 1월 28일 혈성금 및 기밀금 65원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보낼 수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비숍국민은행을 통하여 혈성금과 기밀금을 받았다고 답신을 보냈다.⁵³³⁾ 1938년 2월에도 부인구제회 100원, 국민회 300원, 카우아이 단합회 및 공동회에서 기밀비와 혈성금으로 1,000원 등을 보냈다. 힐로 공동회에서는 약 600원쯤 적립하고 있었는데 이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송부할 계획이었다.⁵³⁴⁾ 하와이에서는 3월 국민총회 혈성금 300원, 부인구제회 혈성금 100원, 애국단 기밀금 250원 총 650원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531) 『國民報』 1937년 12월 8일 「임시대의회록」.

532) 『國民報』 1937년 12월 15일 「공함」.

533) 『國民報』 1938년 2월 16일 「임시정부 답신 도착」.

534) 『國民報』 1938년 2월 2일 「원동에 보낸 각처 돈」.

송부하고 3월 18일 답신과 영수증을 받았다.⁵³⁵⁾

부인구제회에서는 1938년 2월 26일 중앙예비중학교 대강당에서 혈성금 모집을 위한 연극을 공연하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하였다.⁵³⁶⁾ 국민회에서는 계속 힘있게 혈성금을 모집하기 위해 3·1절 기념행사를 호놀룰루 3지방의 연합과 총회의 협력으로 하기로 하고⁵³⁷⁾, 저녁 7시 30분에 총회관 내에서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혈성금 모집을 위해 특별히 총회장 조병요가 연설하였다.⁵³⁸⁾ 이날 조병요 등 55명이 100여원의 3·1절 특별혈성금을 납부하였다.⁵³⁹⁾ 부인구제회에서는 3월 25일 대표회의에서 혈성금에 대해 의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혈성금을 따로 임치하는 것과, 혈성금이 수봉되면 2개월 또는 3개월 내에 임시정부로 송부하는 것, 혈성금 재무는 김차순·곽명숙으로 하는 것이었다.⁵⁴⁰⁾ 이에 따라 부인구제회는 혈성금을 호놀룰루 우함 1482번지 혈성금 재무 곽명숙에게 보내도록 고지하였다.⁵⁴¹⁾ 1938년 4월 카우아이 공동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270원을 혈성금으로 상납하였고, 이로써 8개월간 총

535) 『國民報』 1938년 3월 23일 「임시정부 영수증」

536) 『國民報』 1938년 2월 9일 「원부인구제회 연극」.

537) 『國民報』 1938년 2월 16일 「공함 제2호」.

538) 『國民報』 1938년 3월 2일 「3·1절 경축」

539) 『國民報』 1938년 3월 2일 「3·1절 특별 혈성금」

540) 『國民報』 1938년 3월 30일 「부인구제회 대표회록」

541) 『國民報』 1938년 4월 6일, 20일 「부인구제회 재무」

800원 가량 상납되었다.⁵⁴²⁾

1938년 5월 하와이 국민회에서 혈성금을 거두기 시작한지 9개월이 되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상납된 금액은 5,000원이 채 안되었다. 이에 국민보에서는 사실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봉대하여 군사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고 선언한 단체들의 이름이 아직 기억에 역력한데, 그동안 여러 단체들이 과연 그 선언하는 바를 진의로 실행하기에 전력하였는지 묻고 一致一定으로 혈성금을 계속해서 내자고 촉구하였다.⁵⁴³⁾ 현순 역시 기고문을 통하여 하와이 6천 한인이 혁명정신에 타오른다면 매달 4, 5천씩 혈성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현순은 우리가 군사운동 후원, 외교와 선전운동 진행, 금전과 인재를 모아 혁명사업에 공급하는 등 하여야 할 일이 많지만 첫 번째로 돈이 있어야 하고 마음이 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혁명정신에 불타오른다면 돈도 순순히 나올 것이며, 마음도 한데로 모일 것이라고 하였다. 현순은 이 기고문에서 하와이에서 출생하여 미국교육을 받은 한인 청년들에게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⁵⁴⁴⁾

하와이 한인사회는 5월 16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상납하였는데, 국민회 혈성금 1,000원, 부인구제회 혈성금 100원, 인구세 179원 50전, 애국금 10원, 한민특연 1원, 한청특연 50전, 심영신이 수합한 김구 대부인 표정 6원 총 1,296원 50전이였다.⁵⁴⁵⁾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7월 13

542) 『國民報』 1938년 5월 4일 「카우아이 동포들의 성금 기탁」

543) 『國民報』 1938년 5월 11일 「민족적 일치일정」

544) 『國民報』 1938년 6월 15일 「혁명정신을 태우자」

일 이에 대해 답신을 보내왔다.⁵⁴⁶⁾

부인구제회에서는 5월 21일 회장 송명자의 집에서 임원회를 열고 5월 28일 혈성금 수합을 위해 떡을 만들어 팔기로 결의하였다. 수전위원 김매들린, 이헬른, 유옥년이 구역을 나누어 혈성금 수합에 힘쓰게 하기로 하였다.⁵⁴⁷⁾ 케카하 동포들은 5월 28일 특별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 지휘 하에서 열전고투하는 독립군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되 지금 원동 풍운이 점점 우리 독립전쟁의 기회를 좋게 전개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힘을 쓸 필요가 있으므로 혈성금을 특별히 일시적으로 조금 큰 액수를 모으자고 결의하여 당석에서 200여원을 거두었다.⁵⁴⁸⁾

국민회에서는 지지부진한 혈성금 수합을 높이기 위해 6월 19일 와이키키 공원에서 특별소창대회를 가졌다. 이 모임에서 그동안 국민보를 통해 보고 되어오던 혈성금 수합에 관해 토의를 하여 혈성금에 대한 국민회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하였다.⁵⁴⁹⁾ 호놀룰루 지방회에서는 의무금, 인구세, 혈성금, 호상비 등 지방자치금과 각항 공전 수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봉위원 4인을 증선하여 각 구역을 분담케 하였다.⁵⁵⁰⁾ 국민회에서는 7월 15일 1938년 혈성금 재정보고를 하였

545) 『國民報』 1938년 5월 18일 「임시정부 상납금액」

546) 『國民報』 1938년 7월 13일 「임시정부 상납금 회답」

547) 『國民報』 1938년 5월 25일 「부인구제회의 대활동」

548) 『國民報』 1938년 6월 8일 「케카하 동포들의 성력」

549) 『國民報』 1938년 6월 15일 「국민회 소창회」

는데, 총수익 2,071원 32전, 지출 1,337원 99전, 현재 잔금이 733원 4전이였다. 혈성금 재무 고덕화와 정인수는 지출 부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납금인데 1월 26일 300원, 5월 15일 1,000원이라고 보고하였다.⁵⁵¹⁾

8월이 되면서 하와이에서는 임시정부에 더욱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혈성금 특연을 하였다. 부인구제회 중앙부 임원회에서는 8월 3일 원동에 일이 많고 임시정부에 위협이 종종 오는 것을 감안하여 특별히 힘을 써서 후원의 성력을 기울이기로 하여 혈성금 특연을 수합하기로 하였다.⁵⁵²⁾ 카우아이 지방 케카하 지방회는 회원 다수가 신입회원들이었으나 혈성금 수합에 열성을 내어서 지방회중 혈성금 특연을 최초로 실행하였다.⁵⁵³⁾ 국민보에서는 혁명객의 아리랑 타령을 소개하였는데, 인구세 혈성금을 바치라는 내용이 2절에 들어가 있어서 하와이에 혈성금 수봉을 독려하였다.⁵⁵⁴⁾

임시정부는 1938년 광동 수부 광주에 주둔하였다가 류저우로 옮겼다. 이에 국민회에서는 각종 재정을 합하여 우선 500원을 전보로 상납하였다. 임정에 상납한 재정은 호놀룰루 은행의 통지는 받았지만 정부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10월 5일 상납한 500원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발행하여 회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상납

550) 『國民報』 1938년 6월 15일 「보고」

551) 『國民報』 1938년 7월 20일 「혈성금 재정보고」

552) 『國民報』 1938년 8월 3일 「부인구제회 중앙부」

553) 『國民報』 1938년 8월 17일 「카우아이동포들의 성적」

554) 『國民報』 1938년 9월 28일 「혁명객이 아리랑 타령」

금 중 특연 17원 50전, 인구세 109원, 혈성금 323원 50전, 부인구제회 50원이었다.⁵⁵⁵⁾ 1938년 10월말 혈성금 여재는 1,240원 30전이었고, 임시 정부 상납금액은 1,625원 50전이 되었고,⁵⁵⁶⁾ 국민총회는 연말이 되자 지방에 유치된 혈성금을 총회로 보내라고 공고를 냈다.⁵⁵⁷⁾

하와이에서의 혈성금 수봉은 1940년대에도 계속되었지만, 1941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결성되자 혈성금 수봉 역시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서는 1942년 혈성금으로 1,000원을 임시정부로 송부하였고, 이 외에도 인구세 308원 90전, 독립금 4,891원 10전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상납하였다.⁵⁵⁸⁾ 1943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서 수봉한 혈성금은 253원 5전이었으며, 이 혈성금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송금된 액수는 일반 송금과 특별 송금을 포함하여 총 12,000원이 상납되었다.⁵⁵⁹⁾

2. 聯合韓人委員會의 光復軍 支援

하와이 한인사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軍事委員會를 血誠金으로 지원 하였으나, 軍事委員會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임시정부에서는 군사위원회의 사업추진을 위해 1939년 군사편성비와 간부훈련비로

555) 『國民報』 1938년 10월 5일 「임시정부에 상납금」

556) 『國民報』 1938년 11월 18일 「임시대회의록」, 11월 30일 「국민총회 재정보고」

557) 『國民報』 1938년 12월 14일 「공고서」

558) 『國民報』 1942년 8월 19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재정공고서」

559) 『國民報』 1943년 7월 7일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세부 재정공고서」

37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지만, 일제의 공격에 밀려 피난길을 떠난 임시정부는 책정된 예산을 소속 위원 백여 명의 구급비로 충당하였다.⁵⁶⁰⁾

重慶 임시정부 시대에 들어서면서 광복군이 창설되었다. 광복군 창설과정에서 임정은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중국군사위원회는 독립운동계의 좌우익 양대 축인 임정과 조선혁명당의 통일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이 통합되어야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사실상 거절하였다. 이에 임정에서는 독자적으로 韓國光復軍創設委員會를 조직하고 김구가 위원장을 맡고, 朴贊翊, 李範奭, 池青天, 金學奎, 趙擎韓 등이 실무를 담당하였다.

光復軍 창설에 중국측의 지원이 없었으므로 임정에서는 자력으로 재정을 확보해야 했다. 임정은 중국과 교섭을 진행하는 한편 미주 지역 한인들에게 광복군 창설을 위한 재정지원을 요청하기 위하여 외무부장 명의로 ‘우리 힘으로 그 기초를 세워놓고 外人의 힘을 빌리지’는 내용의 공문을 대한인국민회에 보냈다.⁵⁶¹⁾ 신한민보에서는 ‘독립성을 가진 광복군을 조직하기 위해 힘이 있으면 힘을, 돈이 있으면 돈을 내라’고 하며 미주 한인들의 자발적 지원을 독려했다.⁵⁶²⁾ 하와이에서는 하와이 愛國團과 團舍會 등이 한국독립당 하와이 지부로 개편하여 지원하였으며,⁵⁶³⁾ 인구세, 애국금, 혈성금, 독립금 명목으로 군자금을 수봉하

560) 國會圖書館, 『大韓民國臨時政府 議政院文書』, 247~248쪽. 1939년 의정원회의 정부보고.

561) 『新韓民報』 1940년 2월 29일.

562) 『新韓民報』 1940년 2월 20일.

여 임정에 상납하였다.

하와이 한인사회는 1937년과 1938년 國民會와 同志會가 통합을 수차례 논의하였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는데,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로 연합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0년 5월 26일 시국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력 건설과 전쟁난민을 위한 적십자 구제금을 납부해 줄 것을 美國民들에게 요청함으로써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⁵⁶⁴⁾ 전쟁 준비를 위해 美國 정부는 국방비를 160억 달러로 증액하였고, 400만 명의 增兵을 시도하였다.⁵⁶⁵⁾

美國 정부는 1940년 8월 27일부터는 12월 26일까지 전시에 대비하기 위해 美國에 거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다시 등록하도록 하였다.⁵⁶⁶⁾ 1940년 미국은 일본과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일본이 태평양의 괌과 하와이에 있는 美國의 포대 폐지를 요구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미국은 對日 강철수출을 금지하였다.⁵⁶⁷⁾ 이처럼 미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자 미국은 1940년 10월 26일 하와이 주둔군을 증병하고 하와이 내에서는 민병대를 조직하여 군사훈련을 계획하였다.⁵⁶⁸⁾ 이 외에도 美國에서는 美國이 장차 1

563) 김원용, 『在美韓人五十年史』, 734~735쪽.

564) 『태평양주보』, 1940년 6월 1일, 「국방에 대한 대통령연설」.

565) 『태평양주보』 1940년, 6월 8일 「1941년 국방비는 41억」, 6월 22일 「40억원 해군비」.

566) 『태평양주보』, 1940년 8월 17일 및 8월 24일, 「외국인 등록에 주의」

567) 『태평양주보』, 1940년 10월 12일, 「미일전쟁은 불가피」, 10월 29일 「강철수출 금지」.

년 이내 세계대전에 참전할 것이라는 예견과 함께,⁵⁶⁹⁾ 1940년 10월에는 일주일 이내에 미일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견도 나오고 있었다.⁵⁷⁰⁾

전쟁의 위기감은 하와이 한인들에게도 고조되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해졌다. 同志會 외교원이었던 이원순은 『이때 韓人은 어떻게 할까?』라는 글에서 하와이 韓人들이 공동행동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⁵⁷¹⁾ 하와이에 있는 6개 단체 國民會, 同志會, 中韓民衆同盟團, 大朝鮮獨立團, 同志會의 婦人救濟會, 國民會의 婦人救濟會에서는 미국 정부의 하와이 국방설비 준비를 후원하기 위해 1940년 10월 13일 聯合韓人委員會를 조직하였다.⁵⁷²⁾ 10월 20일 모임에서는 9개의 합의사항과 聯合韓人委員會의 주요 임원을 선정하고, 『연합한인위원선언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68) 『태평양주보』, 1940년 10월 12일, 「10월 26일에 하와이에 증병」

569) 『태평양주보』, 1940년 8월 3일, 「1년래 美國 참진을 선언」.

570) 『태평양주보』 10월 12일, 「미일충돌이 일주일내에 날 듯」.

571) 『태평양주보』, 1940년 10월 12일.

572) 『태평양주보』, 1940년 10월 29일, 「각단체 대표대회」

- 부인구제회(同志會) : 김순연, 손노디, 이유실
- 부인구제회(국민회) : 광명숙, 김차순, 김매들린
- 중한민중동맹회 『단』 : 정두옥, 차신호, 손창희, 김영선
- 大朝鮮獨立團 : 정태영, 박성달, 현순, 이명선
- 同志會 : 손승운, 이원순, 안현경, 도진호
- 국민회 : 안원규, 김원용, 김태원, 김현구

현금 美國 정부의 국방에 대한 급급한 공작을 잘 이해하는 우리는 이에 분연히 일어나서, 각 단체가 유감없이 연합하고 정신을 건진하게 통일하여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써 국방에 대한 훈련을 받고 노력을 더하여, 일이 있을 때 의용적으로 헌신활동하여 만 가지의 한 부분일지라도 美國 정부의 요구에 상응되는 공헌이 있기를 기약하매, 우리의 사명이 결코 적지 아니함을 다시 깨달아 깊이 기뻐하노라.

美國의 국방문제는 단순히 국내적 행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늘여서 는 동양과 유럽의 침략을 당한 각 민족과 국가에 대한 해방적 번영을 또한 목적함이니, 이번 우리 연합위원의 이 운동은 곧 조선독립운동의 양방면의 활동을 의미하며, 또다시 늘여서 는 전 인류의 해방전선에 대한 의용 군임을 의미함이라. 우리의 정성은 한층 더 지극하여짐을 깊이 깨달으면서 이를 천하 만방에 선언하노라⁵⁷³⁾

이상에서 보듯이 하와이 한인들은 聯合韓人委員會를 통하여 美國 국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함으로써 조국의 독립운동을 하여 완전한 한국의 독립을 이루고자 한 것이었다.

聯合韓人委員會는 관리부·선전부·구호부·훈련부·조사부·재정부 등 총6부로 구성되었고, 이에 참가한 단체에 골고루 안배되어 인선이 이루어졌다.⁵⁷⁴⁾

573) 『태평양주보』, 1940년 10월 29일, 「연합위원회선언서」

574) 조직 구성원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관리부 : 의장 이원순, 부의장 김현구, 서기 김원용, 재무 안원규.
2. 선전부 : 의장 김원용, 부의장 안현경, 평의원 김영기 . 임두화 . 정두옥.
3. 구호부 : 의장 손노디, 부의장 심영신, 평의원 민찬호 . 임성우.

聯合韓人委員會는 미국의 국방원조를 위해 조직된 것이었지만, 大韓民國 臨時政府가 광복군조직을 계획하고 이를 美洲韓人社會에 알려오면서 光復軍後援 문제에 관여하였다. 이보다 앞서 임시정부에서 재미사회에 광복군 창설을 위한 재정을 요청하였고, 미주 한인들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 광복군 창설의 재정을 담당하였다.⁵⁷⁵⁾ 광복군 창설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구는 5월 23일과 9월 2일 미주 한인사회에 공함을 보내 광복군 창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⁵⁷⁶⁾ 미주 한인사회는 이를 대대적으로 환영하고,⁵⁷⁷⁾ 光復軍을 적극적으로 後援하였다.

하와이 韓人들은 1941년 3·1절 기념식을 단체의 연합행사로 거행하고 이를 계기로 光復軍 後援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호놀룰루의 기념식에는 韓人 사교단체 17개 단체가 참여하여 하와이 韓人社會 역사상 유례없는 단결력을 대외에 과시하였고,⁵⁷⁸⁾ 光復軍後援金으로 천원을 모금하였다.⁵⁷⁹⁾ 오하우섬 서부지역 韓人들은 國民會와 同志會 연합기념

4. 훈련부 : 의장 조병요, 서기 차신호, 외교원 양유찬, 평의원 권도인 . 박태군.

5. 조사부 : 의장 김현구, 부의장 도진호, 평의원 조광원 . 현순.

6. 재정부 : 의장 손승운, 서기 정봉관, 회계 안원규, 평의원 최선주 . 안창호.

575) 『新韓民報』, 1940년 2월 15일, 「임시정부의 광복군 조직」.

576) 『新韓民報』, 1940년 6월 13일, 「임시정부 독립광복군 조직」..

577) 『新韓民報』 1940년 10월 10일 「국민회총회 중요결의」, 『태평양주보』 1940년 10월 12일 「광복군성립을 비준」.

578) 『태평양주보』 1941년 3월 1일 「3.1절 경축순서」.

579) 『태평양주보』 1941년 3월 15일 「누가 광복군인가」, 『新韓民報』 1941년 3월 27일

식을 계기로 光復軍後援會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선언문'과 함께 '결의문'을 발표하였다.⁵⁸⁰⁾ 이외에도 마위지방과 라나이지방, 가후구지방에서도 3·1절 기념식이 연합행사로 거행되었다.

하와이 한인들은 3·1절 연합행사를 통해 光復軍 後援金으로 총 2,000여 원을 모았다.⁵⁸¹⁾ 이에 3·1절 경축위원장 安元奎는 3월 10일 광복군 후원을 상성화 해서 추진하자는 『윤첩』을 각 단체에 보냈고,⁵⁸²⁾ 3월 13일 國民會와 同志會가 연합하여 大韓光復軍後援金管理委員會를 조직하였다. 위원장 국민회의 안원규가 맡았고, 재무에는 손승운(同志會)과 趙炳堯(國民會)가 위원은 金元容(同志會)과 도진호(同志會)가 맡았다.⁵⁸³⁾ 이후 광복군지원금 모집활동은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聯合韓人委員會와 大韓光復軍支援金管理委員會는 1941년 5월경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결성되어 해소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기존의 단체를 통합하여 美國 국방원조사업을 담당하였으며, 재정 또한 獨立金 명목으로 통일하여 독립운동 관련 각종 수금을 폐지하였기 때문이다.

「한국독립광복군 : 하와이 6천동포의 힘있는 후원」.

580) 『新韓民報』 1941년 3월 27일 「한국독립광복군 : 하와이 6천동포의 힘있는 후원」.

581) 『태평양주보』, 1941년 3월 29일, 「대한광복군후원금 청연」

582) 『新韓民報』 1941년 3월 27일 「윤첩」.

583) 『태평양주보』 1941년 3월 29일 「대한광복군 후원금 청연」, 『新韓民報』 1941년 4월 3일

「한국광복군후원회 조직」.

3. 在美韓族聯合委員會 議事部の 獨立金 支援

在美韓族聯合委員會의 재정방침은 統一과 集中이었다. 이에 따라 독립운동을 위해 수봉하는 모든 금전을 獨立金으로 통일시키고 각 단체에서 실행해온 독립운동 관련 각종 수금을 폐지하였다. 수봉한 독립금은 미화 2만달러의 예산으로 2/3는 임시정부에, 1/3은 외교비와 미국방공작지원 경비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독립금의 회계는 집행부에서 관리하되 의사부의 공결로 집행부에서 지출하도록 하였다. 獨立金은 1년에 매일인당 15달러 이상 거두는 것으로 하였고, 수봉은 하와이는 의사부가 북미는 집행부가 담당하되 각 부에 2인의 재무를 두어 관리하도록 하였다.

하와이에 있던 재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는 1941년 5월 18일 개최한 민중대회에서 4,500달러의 독립금을 예약받았다. 1941년 6월까지 의사부는 하와이에서 350명에게서 10,200달러의 독립금을 약정받았다.⁵⁸⁴⁾ 의사부에서는 1941년 연 예산 2만달러에 대한 세부항목과 분당방침을 집행부에 제의하였는데, 의사부에서 지출할 세부 항목은 임정에 800달러, 구미외교위원부에 300달러, 미국방수봉원에 100달러 등 도합 1,200달러였고, 분담액은 거주 한인수를 기준으로 재정의 3/4에 해당하는 15,000달러였다.⁵⁸⁵⁾ 의사부에서는 수봉한 독립금을 재정분담 원칙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하였고, 수지회계 발표도 집행부와는 별개로 독자적으

584) 『新韓民報』 1941년 7월 3일. 「하와이 의사부 재무의 제1회 보고」.

585) 『新韓民報』, 1941년 6월 12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결의」.

로 진행하였다.

한편 美日戰爭이 발발하자 의사부는 집행부와는 별도로 독립금을 더 많이 수봉하기 위해 기존의 재문인 조병요, 손승운 외에 안원규, 안현경, 김영기를 독립금 수봉위원으로 임명하여 재무부를 확장하였고, 독립금도 매인 매월 5달러 이상을 수금하기로 결정하였다.⁵⁸⁶⁾ 이에 힘입어 의사부의 재정은 크게 증대되어 1942년 수봉한 독립금은 34,700달러나 되었다. 이는 1941년 5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거둔 독립금 약 9,725달러의 세배 이상의 금액이었다.⁵⁸⁷⁾ 이렇게 독립금 수입이 증대하자 의사부는 1942년 예산을 증액시켜 임시정부에 3만달러, 외교위원회에 15,000달러를 지출하였다. 한편 의사부에서는 독립금 수봉이 줄어들지 않기 위해 重慶特派員 경비지원 등 특별수연이 있을 때에는 합찬 위원회를 결성하고 특정한 사람들만 부담하게 하였다.⁵⁸⁸⁾

한편 1943년 12월 1일 카이로 선언으로 한국의 독립이 열강들에 의해 보장되자 미주한인들은 군사운동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軍事金(혹은 軍事運動金) 모집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군사금 모집은 1943년 12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되었고, 하와이에서는 1947년 2월 7일 재미한족연합회 의사부 회의에서 군사금 모집을 전개하고 지출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결의되었다. 이를 담당할 회계에는 柳鎭石, 崔斗旭, 車允中이 선임되었다. 의사부의 군사

586) 『국민보-태평양주보』 1942년 2월 4일 「독립금 예약에 대한 말」.

587) 『국민보-태평양주보』 1942년 2월 18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하와이 의사부」.

588) 『국민보-태평양주보』 1942년 9월 2일 「전경부씨의 사명」.

금 계획은 총 10만 달러였지만, 1945년 3월까지 12,163달러가 모금되었다.⁵⁸⁹⁾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獨立金과 軍事運動金 모집은 활발하게 진행하였으나 임시정부나 주미외교위원부에 송금해야할 지출은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의사부의 임정지원상황을 보면 1941년 5월부터 12월까지 독립금 총액 9,725.71달러 중 52.4%인 5,100달러를 임정에 송금하였다.⁵⁹⁰⁾ 1942년에는 34,700.77달러 중 43.6%인 15,320달러를 송금하였고⁵⁹¹⁾ 1943년에는 27,090.40달러 중 60.5%인 16,410 달러를 송금하였다.⁵⁹²⁾ 1944년에는 2,925달러를 송금하였으며⁵⁹³⁾ 1945년에는 인구세 1,220달러만 송금하였다. 軍事運動金은 軍事運動에만 쓴다는 원칙 때문에 임시정부에 바로 송금하지 않고 있다가 1945년 11월 19일 의사부 결의에 따라 국내운동경비로 모두 전환되어 사용되었다. ⁵⁹⁴⁾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의 임정 지원이 감소하게 된 것은 외교위원부를 개조하는 문제로 임시정부에서 연합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승만을 지원하였기 때문이었다.

589) 『國民報』 1945년 4월 25일 「연합위원회 총수입(1945.1~3)」.

590) 『국민보-태평양주보』 1942년 3월 18일 「연합위원회 의사부 민국23년도 재정보고」.

591) 『국민보-태평양주보』 1943년 1월 27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재정공고서」.

592) 『국민보-태평양주보』 1944년 2월 2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재정공고서」.

593) 『國民報』 1944년 5월 10일 「임시정부에 송금」, 11월 8일 「연합위원회 재정보단」.

594) 『國民報』 1945년 11월 21일 「군사운동금 처결」.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하와이 의사부는 출범할 때 임정봉대를 주창하며 독립금의 2/3를 임시정부에 상납하겠다고 하였으며, 1942년부터는 연예산 6만 달러 중 3만 달러를 매년 임시정부에 보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하와이 의사부에서는 발족하던 1941년부터 1948년 해체될 때까지 전체 獨立金 수입 83,439.51달러 중 49.90%에 해당하는 41,635.00달러를 임시정부에 보내 후원하였다. 이 액수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전체 임시정부 후원금 58,201.84달러의 71.54%를 차지하는 것으로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출발할 때의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하와이 의사부에서 매년 임시정부에 송금한 액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1941년부터 1943년까지는 수봉된 독립금을 50%를 전후로 송금하여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1944년부터는 현저하게 지원액수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하와이 의사부와 재미한인의 임시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재미한족 연합위원회 의사부가 임시정부를 불신하는 가운데 광복을 맞게 되자,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서는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모집하였던 지원금을 국내 운동경비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IV. 結論

하와이 韓人社會는 1903년 大韓帝國의 공식이민으로 형성된 사회였다. 이 이민이전에 이들보다 먼저 대략 5부류의 韓人이 美國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①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로 입국한 조선의 관료들 ②조선의 정치적 망명자 ③교육을 목적으로 美國에 도착한 유학생들 ④雲山에서 덴버로 이주한 勞働者들 ⑤美國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 인삼을 팔기위해 美國에 들어간 조선의 상인들이었다. 이들은 미국 땅을 밟기 전에 하와이 땅을 밟았다. 하와이는 미국 본토로 가는 경유지였기 때문이다. 韓人으로 이민자로 최초로 등록된 사람은 류두표로 1901년 하와이 移民局에 등록되었으며, 같은 해 5명의 한인이 勞動移民으로 등록하였다. 1902년에는 12명의 한인이 노동이민자로 등록되었으며, 1903년에는 대규모의 공식노동이민자들이 하와이 이민국에 등록되었다.

한인들이 하와이로 이민을 떠난 것은 大韓帝國 정부에서 綏民院을 통해 교섭한 공식이민이었다. 당시 국내상황은 1876년 개항으로 농촌사회가 분화되어 농민들은 토지로부터 이탈되어 농업노동자가 되거나 유민이 되거나 화적이 되었으며, 일부는 개항장의 임금노동자로 전락하였다. 대일무역에서 조선은 미곡을 약탈당하다시피 수출하게 되어 국내에는 쌀이 부족하여 값이 뛰어올랐으며, 가뭄과 홍수, 전염병의 발생으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진 상태였다. 1901·2년에도 가뭄이 들었으며, 콜레라의 발병으로 전국에 기아민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惠民院을 설치하고 기민을 구제하고자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때 駐韓美國公使 알렌(Horace. N. Allen)이

하와이 이민을 주선하겠다고 하자 高宗은 수민원을 설치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었다. 한인의 하와이 이민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막강해진 일본 노동자를 견제하기 위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주 연합(HSPA)의 필요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서, HSPA는 값싼 아시아 노동력의 대안으로 한인노동자를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알렌의 주선으로 데셀러(David W. Deshler)가 이민모집책으로 선정되었고, 인천 내리교회 존슨목사의 도움으로 첫 번째 이민단이 모집되어 1902년 12월 22일 이민자 121명이 제물포항을 출발하였다. 이들은 일본을 경유하여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하였고, 최종적으로 101명이 하와이 사탕수수밭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공식이민은 1905년까지 64편의 선박으로 7,375명의 韓人들이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하였고, 이들 중 일부 이민국 심사에 불합격하여 되돌아간 이들을 제외한 한인들이 이민자로서 하와이에 정착하게 되었다.

1903년에서 1905년 사이 하와이 이민국 심사를 통과하여 정식으로 이민자로 등록된 한인의 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현재로서는 없다. 그러나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이민을 위해 도착한 한인들의 명단이 현재 남아있는데, 이에 의하면 하와이로 이민을 떠난 이민자는 가족 이민자 500가구 1,478명과 독신이민자 5,897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이민자들은 남자가 6,714명이고 여자가 659명으로 성비는 남녀가 10:1 정도였다. 이민자들은 2,30대의 남자가 가장 많아서 5,897명으로 전체 한인이민자의 79.98%를 차지하였다. 이민자는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가장 많았고 京畿道, 慶尙道, 平安道, 咸鏡道, 江原道, 黃海道, 全羅道,

忠淸道, 濟州道 순이었으며, 성씨별로는 金氏, 李氏, 朴氏 등의 순이었다.

7,400여명의 이민자들은 하와이 섬의 각 농장에서 농장 노동에 종사하며 집단농장의 통제된 작업과 백인감독들의 가혹함 때문에 비참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였다. 한인들은 강도 높은 노동과 저급의 임금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주 본토로 이주하였다. 일부는 사탕수수 농장의 노예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오기도 하였다.

노동이민자들 중에는 독신노동자가 많았는데, 하와이 한인의 남녀 성비가 10:1정도로 크게 불균형을 이루자 1910년부터 사진혼인이 이루어졌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이 없었으므로 이들은 일본 영사관을 통해 여권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신부를 데려갔고, 대략 600여명보다 작은 여성들이 사진신부로 하와이에 유입되었다. 사진신부의 하와이 유입으로 하와이 한인사회는 활기와 안정을 찾게 되었으며, 하와이 태생의 한인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사진신부들은 연령이 낮았기 때문에 남편과 연령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이혼률이 매우 높아져서 한인사회에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한인노동자들은 농장별로 洞會와 自治會를 구성하고 공공질서와 친목을 도모하였다. 이들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抗日運動을 목적으로하는 단체를 조직하기 시작하였고, 1907년까지 26개에 달하는 단체를 조직하였다. 이렇게 군소단체가 난립하게 되자 항일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단체의 통합이 제기되었고 1908년 합성협회가 창립되었다.

하와이 한인사회는 1909년에는 합성협회가 북미 공립협회와 통합되

어 대한인국민회를 설립하고 하와이에는 하와이지방총회가 설립되었다. 대한인국민회는 1910년 국권이 피탈되면서 하와이 한인사회에 지도력을 발휘하며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준정부적 성격을 가진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는 국내에 지방회를 설치하고, 국내와 해삼위 그리고 멕시코의 한인의 하와이 이주를 추진하였다. 이 중 멕시코 한인 이주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미국 이민국의 강경대응으로 좌절되었다.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는 박상하의 주선으로 新韓國報의 주필로 하와이에 온 박용만이 국민의무금 제도와 한인자치제도를 시행하면서 위상이 더욱 강화되었다. 박용만은 大韓人國民會 하와이 지방총회를 법인체로 등록하고, 연무부를 확장하여 대조선국민군단을 창설하였다. 박용만이 이렇게 하와이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박용만보다 1년 늦게 하와이에 도착한 李承晩은 교육사업으로 하와이에서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승만이 개인적인 역량으로 활동하고 하와이 한인의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내자 박용만과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고, 이 대립에서 결국 이승만이 승리함으로써 大韓人國民會는 僑民團으로 바뀌었다.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 이승만은 사적 조직 동지회를 결성하고 하와이 한인사회를 동지회 중심으로 재편하였다. 한편 이승만이 장악한 대한인국민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朴容萬은 盧伯麟과 大朝鮮獨立團을 조직하고 군사운동을 전개하였고, 이 두 사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수립되면서 활동 무대를 중국으로 옮겨갔다.

교민단으로 교체된 大韓人國民會는 1933년 대한인국민회로 복설되고 1936년에는 부채를 청산하는 등 조직이 강화되었고, 광복을 맞을 때까지 하와이 韓人社會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단체가 되었다. 강화된 국민회는 1937·8년 同志會와 통합을 시도하고, 大朝鮮獨立團은 중립자적 위치에서 國民會와 同志會의 통합을 중재하려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그러나 1941년 海外韓族大會의 개최를 통해 在美韓族聯合委員會가 결성되고 하와에는 의사부가 조직되었다. 在美韓族聯合委員會 議事部는 하와이 한인단체의 연합체였으나 그 지도세력은 國民會였다.

하와이 한인의 선전외교활동은 국민회가 복설되면서 강화되었다. 국민회 복설에는 僑民團 내 정두옥을 중심으로 설치된 선전부의 역할이 가장 컸다. 이 선전부의 교섭위원이었던 한길수는 아버지를 따라 하와이로 이민을 온 이민 1.5세대로서 中韓民衆同盟團을 통해 활동하였다. 한길수는 1938년 9월 미 본토로 활동영역을 옮기기까지 선전부 구미부 교섭위원으로 하와이에 있는 일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미 정보당국에 보고하는 한편,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한인사회에 대한 선전활동에도 주력하였다.

하와이 한인들은 1909년 대한인국민회가 설립되고 박용만이 국민의 무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인구세, 의연금, 혈성금, 독립금 등을 수봉하여 大韓民國臨時政府를 지원하였다. 특히 1932년 윤봉길 의거 이후 군사자금 지원에 집중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사위원회를 후원하기 위하여 國民會에서 血誠金을 수봉하였고, 광복군 지원을 위해 聯合韓人委員會에서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在美韓族聯合委員會에서는 독립금을 수봉하여 大韓民國 臨時政府를 지원하였다. 하와이 한인들은 대한민국 임

시정부 수립 때부터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광복이 다가오는 1943년 이후 임정지원이 확연히 줄어들게 되었다. 이는 在美韓族聯合委員會 議事部の 역량강화로 임정에 대한 실력행사로 이해할 수 있는데, 결국 수봉만 해놓고 지원하지 못한 군자금은 광복이후 국내운동자금으로 전환되었다.

이상과 같이 하와이 한인사회가 형성될 때부터 광복을 맞을 때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하와이 한인사회는 사탕수수 농장의 노예노동자들로 형성되어 해외 독립운동의 전초기지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구미위원부의 재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 하와이 한인들은 개인의 생활이 안정되기 이전부터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고 국내 국권회복운동을 지원하였으며, 국권이 피탈되고 大韓民國臨時政府가 수립된 후에는 임시정부의 재정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하와이 한인들은 독립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내부 갈등과 세력다툼으로 전력을 소비하기도 하였으며, 이민 1세대가 노령화 되어 가고 1929년 경제공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하와이 태생의 한인들이 미국화 되어가면서 조국의 독립운동에 여력이 없던 시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이 한인사회가 독립운동의 구심체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임정의 인준을 받지 못한채 독자적으로 외교선전활동을 벌였음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하와이 한인의 임정지원은 하와이 한인사회의 지도력이 바뀔 때에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조국과 물리적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이 한인들의 애국의식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하와이 한인사회에 있어서 단체활동은 이민사회 초기 동회와 자치회로 시작하여 抗日運動團體의 혼란기를 거쳐 1908년 合成協會, 1909년 大韓人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로 통합되었다. 이후 하와이 한인사회에는 大韓人國民會 地方總會가 지도력을 발휘하였으나, 李承晩이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대통령에 선임되고 난후 朴容萬과의 대립에서 승리함으로써 한때 李承晩과 同志會가 하와이 한인사회의 지도력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1933년 同志會와 國民會의 범정싸움 결과 국민회가 승리하고 복설된 이후 聯合韓人委員會, 在美韓族聯合委員會 등 통합단체가 출범하였으나 국민회는 광복을 맞을 때까지 하와이 한인사회의 주류단체로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군사운동은 초기 독립운동단체 중 무예를 장려하고 군사훈련을 하는 단체로부터 시작하여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가 설립된 후에는 大朝鮮國民軍團이라는 대대의 출범을 맞게 되었다. 이 大朝鮮國民軍團은 군사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이승만과 박용만의 갈등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해체되었고, 곧 大朝鮮獨立團으로 대체되었다. 大朝鮮獨立團은 軍事運動을 위한 단체였으나 박용만과 노백린의 중국행을 계기로 군인양성 부분은 약화된 채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세력다툼을 하던 국민회와 동지회의 중립적 위치에서 중재자로서 역할하였다. 이렇게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군인양성운동이 사실상 정지된 것은 이민 1세대의 노령화와 청년 한인들의 독립운동 외면으로 인해 군인이 될 수 있는 한인이 감소하였다는 것과 대일전선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점 때문이었다고 하겠다. 이후 하와이 한인사회의 군사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형

태로 전환되어, 군사위원회를 후원하기 위한 血誠金, 光復軍을 지원하는 獨立金을 수봉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운동 지원금 수봉은 하와이 한인사회의 주류였던 國民會를 비롯하여 한인사회 단체통합을 주도하였던 聯合韓人委員會, 在美韓族聯合委員會 議事部の 주요한 활동이었다.

하와이 韓人社會의 外交宣傳活動은 하와이가 미국 사회의 정치적 중심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 본토 워싱턴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외교 선전활동을 財政的으로 지원하거나, 독립과 조국에 대한 열망이 저조해진 하와이 韓人社會를 고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 韓吉壽의 라디오 방송을 통한 선전활동을 들 수 있다.

參考文獻

1. 資料

《皇城新聞》 《大韓每日申報》 《每日申報》 《光復》 《國民報》

《共立新報》 《新韓民報》 《東亞日報》 《朝鮮日報》 《京鄉新聞》

《中外日報》 《北美時報》 《獨立新聞》 《Korea review》

《太平洋週報》 《國民報-太平洋週報》 《京仁日報》

국가보훈처,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자료》 X, 1994

-----,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자료》 XⅢ, 2000

-----,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자료》 XⅪ, 1998

-----,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자료》 XⅫ, 1998

-----,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자료》 XI, 199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자료집》 1~13, 1971~197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I, 탐구당, 196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제1권~30권, 탐구당, 1968~
1995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 (중국편), 1976

김정명편, 《조선독립운동》 I~Ⅲ, 일본, 원서방, 196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1~10, 1971~1978

민족운동사연구소, 《민족독립투쟁사 자료》 (해외편), 여론사, 1956

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이화장소장 우남이승만문서』(동문편)
1-18, 중앙일보, 1998

"Educational : Korean Christian Institute," 1940년대 하와이대학교 한
인단체 조사자료

Records of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1783-1983
(Record Group 85), Inbound Vessel, Passenger Manifests,
Port of Honolulu, Box 536

2. 單行本・論文

Dorothy D. Lee, "Ethnic Structure in Hawaii" 《Population Report》
6(September 1976)

Edward D. Beechet, 《Working in Hawaii》 (A Labour History)

Kingsley K. Lyu, "Korean Nationalist Activities in the United
States," 《Amerasia Journal》 4:1(1977)

Syngman Rhee, "Report of Korean Boy's School, Honolulu"
《Official Minutes of the Tenth Session of the Hawaii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 (February
24-28, 1915)

Wayne Patterson, 《The Korean Frontier in America : Immigration
to Hawaii, 1896-1910》,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1988

Yong-ho Choe, "The Early Korean Immigrants in Hawaii : A
Background History," in Myongsup Shin and Daniel B.
Lee, ed., 《Korean Immigrants in Hawaii : A Symposium
on Their Background History, Acculturation and Public
Policy Issues,》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77), Table 4B, 5.

- De Vos, Geroge A,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인들의 성취, 소외 그리고 권위에 관한 문제」, 『재외한인연구회』, 1993
- Richard S. Kim, 「초국가적 국가 건설운동-집단지주 한인과 한국독립운동-」, 『미주한인이민 100주년 기념 논문집 미주한인의 민족운동』, 연세대학교, 2003
- 김광정, 『Korean Immigrants in America』, 1984
- 강미경, 「UCLA에 보관된 한국이민 역사 관련 자료에 대한 개요」, 『미주지역 한인이민사』, 국사편찬위원회, 2003
- 강신표, 『단산사회와 한국이주민』, 1980, 한국연구원
- 강창석, 『대한인국민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연구』, 동의사학 창간호, 1984
- 고승제, 『한국이민사연구』, 장문각, 1973
- 高珽然, 「第2次世界大戦期 在美韓人社會의 動向과 駐美外交委員部의 活動」, 『國史館論叢』 제49집, 국사편찬위원회, 1993
- , 「구미주차한국위원회의 초기 조직과 활동」, 『역사학보』 134·135합집, 역사학회, 1992
- , 「샌프란시스코회의(1945)와 알타밀약설-이승만의 반소·반공노선과 관련하여-」, 『미주한인이민 100주년 기념 논문집 미주한인의 민족운동』, 연세대학교, 2003
- 郭台煥 外著, 『재미한인사회』, 養英閣, 1991.
- 국사편찬위원회, 『미주지역 한인이민사』, 국사편찬위원회, 2003
- 국제역사학회, 「미국의 한인사회」, 『재미한인수교100년사』, 1982
- 권정웅, 「미국내 한국사연구」, 『경북사학』 2, 경북대 사학과, 1980

- 김귀옥, 「1905년 멕시코이민 한인노동자 연구-하와이 이민과 비교하면서-」, 『재외한인연구』 5, 재외한인학회, 1995
- 김기정, 「1902~1905년간의 미국이 대한정책연구(I)-테오도르 루스벨트의 세계관의 분석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66, 延世大學學校國學研究院, 1990
- 김남현, 「19세기말 미국의 중국이민배척연구」, 중앙대석사학위논문, 1981
- 김도형, 「1930년대 초반 하와이 한인사회의 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 제9집, 한국근현대사학회, 1998.12
- 김도훈, 「1910년대 박용만의 정치사상」, 『한국민족학연구』 4, 단국대학교 한국민족학연구소, 1999
- , 「한말·일제초 재미한인의 민족운동론」, 『미주한인이민 100주년 기념 논문집 미주한인의 민족운동』, 연세대학교, 2003
- 김영목, 「미국 서부 한국인의 역사에 관한 개요」, 『미주지역 한인 이민사』, 국사편찬위원회, 2003
- 김영철, 「신한민보의 저항시 연구」, 『학술지』 34, 건국대 학술연구원, 1990
- 김우진, 「브라질 한인의 이민사」, 『세계속의 한국문화』, 제1회 세계한민족 학술회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김원모, 「하와이 한국 이민과 민족운동」, 『미국사연구』 8, 한국미국사학회, 1998.11
- 김원용, 『재미한인50년사』, 나성, 1950
- 김점숙, 「미주 한인 이민사 자료의 현황과 수집방안」, 『미주지역

- 한인이민사』, 국사편찬위원회, 2003
- 김창수, 「하와이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이민100년 학술회의』,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3
- 김창순, 「만주 항일연군 연구」, 『국사관논총』 11, 국사편찬위원회, 1990
- 김희곤, 「북미유학생잡지 《우라키》 연구」, 『경북사학』 21, 경북사학회, 1998
- 멤피스한인사편찬위원회, 『멤피스 한인사』, 시카고, 멤피스한인사편찬위원회, 2000
- 민병갑 외, 『미국속의 한국인』, 유림문화사, 1991
- 민병갑, 「미국이민사의 어제와 오늘, 재미교포들은 한국을 버린게 아닙니다」, 『전망』 106, 대륙연구소, 1995
- 박영수, 「미주 이민과정과 한인의 생활상」, 『세계속의 한국문화』, 제1회 세계 한민족 학술회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박용옥, 「미주 대한여자애국단의 조직과 활동」, 『순국』 59,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1995.12
- , 「미주 한인여성단체의 광복운동 지원 연구」 : 대한여자애국단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78, 진단학회, 1994
- 박창욱, 「국민회를 논함-1919~1920년 국민회의 역사작용을 위주로 하여」, 『국사관논총』 15, 국사편찬위원회, 1990
- 박환, 『러시아 한인민족운동사』, 탐구당, 1995
- , 「정재관:미국의 공립협회의 총회장에서 러시아의 혁명가로」,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이민100년 학술회의』,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3

- 반병률, 「미주 지역에서의 무력양성운동-일제초기를 중심으로-」, 『미주한인이민 100주년 기념 논문집 미주한인의 민족운동』, 연세대학교, 2003
- 반병률, 「이동회와 1910년대 해외민족운동」, 『한국사론』33, 서울대국사학과, 1995
- 방기중, 「일제하 미국 유학 지식인의 경제인식」, 『미주한인이민 100주년 기념 논문집 미주한인의 민족운동』, 연세대학교, 2003
- 방선주,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한림대학교 출판부, 1989
- , 「1930년대의 재미한인독립운동」, 『한민족독립운동사』 8, 국사편찬위원회, 1990
- , 「한인 미국이주의 시작-1903년 공식이민 이전의 상황진단-」, 『미주지역 한인이민사』, 국사편찬위원회, 2003
- 서평일, 「미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 조감」,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이민100년학술회의』,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3
- 손과지, 『상해한인사회사』, 한울, 2001
- 송전기, 『나도 한국의 딸』, 서울 미래문화사, 1988
- 신성려 저, 『하와이 이민 역사 : 인맥을 통해 본 삶이 현장기』,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8
- 신성려, 「하와이 사탕밭에 세월을 묻고-한국여성 북미 초기이민 실화」, 『창작과 비평』 제14권 1호, 창작과 비평사, 1979.3.
- 신용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구미와의 관계」, 『한국사론』10, 국사편찬위원회, 1981

- 신재홍, 「구미주에서의 항일독립운동」, 한국민족운동연구논총』, 영남대 출판부, 1988
- 申載洪, 『抗日獨立運動研究』, 신서원, 1999
- 아그네스 데이비드 김, 『나는 코리안의 아내』, 서울 태광인쇄소, 1979
- 아카데미아코리아편, 『해외 한민족과 차세대』, 계명대학교출판부, 1997
- 안형주, 「이승만과 하와이 한인청년교육(1913~1923)」, 『미주한인이민 100주년 기념 논문집 미주한인의 민족운동』, 연세대학교, 2003
- 오인철, 『하와이 한인이민과 독립운동』상하, 전일실업출판국, 1999
- 오인환·공정자·김용하 공저, 「데셀러(Deshler)를 찾아서 : 인천에 남은 하와이 이민 송출 브로커의 흔적」, 『황해문화』 37, 새얼 문화재단, 2002 겨울
- 워싱턴한인회, 『워싱턴한인사 : 1883-1993』, 1994
- 웨인패터슨, 정대화역, 『아메리카로 가는길 : 한인 하와이 이민사 1896-1910』, 들녘, 2002
- 웨인패터슨, 정대화역, 『하와이 한인이민1세 : 그들 삶의 애환과 승리:1903-1973』, 들녘, 2003
- 유기식, 「1920년 캘리포니아 토지법의 성립과 배일활동」, 『경북사학』 5, 경북사학회, 1982
- 유동식, 「재미한인의 정착과정에서의 종교의 역할-하와이의 한인사회와 기독교를 중심으로-」, 『연세논총』, 연세대학교, 1988
- 유영익, 송병기, 양호민, 임희섭, 『한국인의 대미인식』, 민음사, 1994
- 윤병석, 「1910년대 미주지역 한인사회의 동향과 조국독립운동-한인소

- 년병학교와 승무학교, 대조선국민군단사관학교를 중심으로-], 『
두계이병도박사구순기념한국사학논총, 국학연구원, 1987
- , 「구한말 군인의 항일이전의 의의」, 『박성수화갑기념논총』,
1991
- , 「국의 한국인의 역사와 문화, 사회에 관한 기초적 연구(I)」,
『한국학 연구』 별집, 인하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1990
- 이광규, 『재미한국인』, 일조각, 1989
- 이광린, 「미국유학시절의 유길준」, 『한국개회사연구』, 일조각, 1990
- 이길용, 『미국 이민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 이덕희, 「하와이 한인 여성단체들의 활동」, 인천역사자료관 1회 학술
회의, 2004
- 이만열, 「하와이 이민과 한국교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16, 한국
기독교역사연구회, 2002
- 이명화, 「해외 이민과 독립운동」, 인천역사자료관 1회 학술회의, 2004
- 이상근, 『한인노령이주사연구』, 탐구당, 1975
- 이상훈, 김규식의 구미위원부 활동(1919-1920), 한림대 석사학위논문,
1995
- 이애숙, 「상해 임시정부 참여세력의 대소교섭 : 이동휘 국무총리시기
(1919.11-1921.1)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2, 역사연구
회, 1999.6
- 이연복, 「임시정부 초기의 군사활동과 한국광복군의 창군」, 『순국』
111, 2000.4
- , 『한국독립운동사연구』, 국학자료원, 2004

- 이영민, 「호놀룰루 초기 한인집단의 거주지 형성과 정체성의 변용」, 『문화역사지리』 8, 문화역사지리학회, 1996
- 이전,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한울, 2002
- 이정덕, 『하와이 한인의 직업과 경제생활』, 중대 민족발전연구원 해외민족연구소, 2004
- 이현희, 「김마리아의 생애와 애국활동」, 『한국사논총』 3, 성신여대 사학과, 1972
- , 「미주에서의 한국독립운동-군사활동을 중심으로」, 『군사』4,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2
- , 『대한민국임시정부사』, 혜안, 2001
- , 『한국근현대사의 쟁점』, 삼영, 1993
- , 『한민족광복투쟁사』, 정음문화사, 1989
- 인천광역시, 『근대의 이민과 인천』, 인천역사자료관 1회 학술회의, 2004..
- 인천내리교회, 『내리백년사』, 1985
- 장태한, 『코리언 아메리칸의 발자취를 따라』, 태평양평화연구소, 1995
- 재미한족연합위원회편, 『해방조선』, 나성과 하와이, 1948
- 鄭斗玉, 『在美韓人獨立運動實記』 『한국학연구』 별집 3, 인하대한국학연구소, 1991
- 정병준, 「1940년대 재미한인의 민족운동」, 『민족운동사학회 이민 100년 학술회의』,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3
- 정영희, 『개화기 종교계의 교육운동 연구』, 혜안, 1999
- 정용욱, 「해방직전 미주 한인의 독립운동과 미국정부의 대응」, 『정

- 신문화연구』 제25권 제3호, 정신문화연구원, 2002
- 정태환 외, 『재미한인사회』, 양영각, 1991
- 조규태, 「미주지역 한인지도자 박용만의 중국에서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이민100년 학술회의』,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3
- 조용, 「1893년 하와이 혁명에 관한 연구」, 『전남사학』 8, 전남사학회, 1994
- 조항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활동과 중국」, 『순국』 99,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1999.4
- 중대 해외민족연구소, 『미국 하와이 지역 이민의 역사와 경제활동』, 중대 민족발전연구원 해외민족연구소, 2003
-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공보처, 1948
- 崔起榮, 「구한말 공립신보, 신한민보」, 『동아연구』 17, 서강대 동아연구소, 1989
- , 「조선의용대와 미주한인사회」,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1집, 한국근현대사학회, 1999,
- 최영호, 「이승만의 하와이에서의 초기활동-교육사업과 1915년 대한인국민회 사건-」, 『이승만연구』, 연세대출판부, 2000
- , 「한국인 초기 하와이 이민-시작과 종말의 동기-」, 『전해중 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일조각, 1979
- 최창희, 「하와이 한인사회의 항일민족운동(1903-190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이민100년 학술회의』,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3
- , 「한국인의 하와이 이민」, 『국사관논총』 9, 국사편찬위원회,

1989

최협·박찬웅, 『세계 한민족 : 미국·캐나다』, 통일원, 1996

켄 클라인, 「USC가 소장한 한국인의 미국 이민사 자료」, 『미주지역
한인이민사』, 국사편찬위원회, 2003

한국독립유공자협회, 『러시아 지역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사』, 1994

한국독립유공자협회, 『한국무장독립운동에 관한 국제학술대회 논문
집』, 1988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모색』,
199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미주지역의 한인사회와 한인민족운동』, 2003

한국민족학연구소, 『한국민족학연구』 4, 단국대 한국학 연구소, 1999

한국방송공사, 『하와이 독립운동사자료전』, KBS, 1984

한미동포재단 미주한인이민 100주년 남가주 기념사업회, 『미주 한인
이민 100년사』, 한미동포재단, 2002

한상대, 『하와이 이민 100년사』, 중대 민족발전연구원 해외민족연구
소, 2004

한상도, 『한국독립운동과 국제환경』, 한울, 2000

한시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정책」, 『논문집』 34, 단국대,
1999

현규환, 『한국유이민사』 상, 어문각, 1967

홍사원, 김사현, 『한국 해외 이민연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79

홍선표, 「1930년대 재미한인의 통일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0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1996.

홍선표, 「하와이 해외한족대회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1999.

黃苗嬾, 『重慶 大韓民國臨時政府史』, 경인문화사, 2002

ABSTRACT

A study on Formation of Korean community
and patriotism in Hawaii

Hong, Yun Jeong

Dept. of histor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Emigration happens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of individual and society. So it is a matter of course that emigration happens any society and period. But it is not easy to grasp the scale of emigration.

Movement of population so called emigration happens sometimes in Korea. The first modern emigration what happened in Korea is the emigration of Korean removed to Hawaii in 1902. This is the first official emigration through to Suminwon(綏民院) which is a organization of government to support emigration. This is emigration of labor which is working in sugar plantation. located in Hawaii.

This paper concerned about two point. One point is Korean Community which caused the first official Korean emigration from

1903 to 1905 in Hawaii. Other point is patriotism and independence movement of Korean under the rule of Japanese (from 1910 to 1945) in Hawaii.

Korean Community in Hawaii was made up about 7,400 Korean people who moved Korea and arrived in Hawaii between 1903 and 1905. Anti-Japanese sentiments and patriotism was high Korean community in Hawaii because Japanese was colonized Korea. Patriotism of Korean in Hawaii expressed form an organization of Patriotism the early days of emigration. And Hawaii changed land of important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fter Japanese conquered Korean in 1910. Hawaii changed base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n account of abundanc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Korean community in Hawaii.

Patriotism of Korean community in Hawaii sublimated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through organization which is the Hawaii chapter of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大韓人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 Nationalist Party(同志會), Korean National Brigade(大朝鮮國民軍團), Korean Independence League(大朝鮮獨立團), Sino-Korean People's League(中韓民衆同盟團), Honolulu of United Korean Committee in America (在美韓族聯合委員會 議事部) and people who is Youngman Pak(朴容萬), Syngman Lee(李承晚), Paklin Rho(盧伯麟), Kilsoo

K Haan(韓吉壽). Korean in Hawaii supported positive the provisional government from 1919 to 1945.

This paper writes through chapter 6 the form process of Korean community in Hawaii and the process which patriotism sublimated Independence Movement.

1st chapter is an introduction which composed opinion, purpose, scope and point of study.

2nd chapter is emigration which formed Korean community in Hawaii. It is include background of emigration, process of emigration and analysis of Korean emigrant group. It is foundation that understanding Korean Community in Hawaii. Sources was used immigration list which arrived in Hawaii from 1903 to 1905 in department for immigrant affairs in Hawaii. It means base of understanding Korean community.

3rd chapter is process of Korean immigration fixation. Korean in Hawaii made up DongHai(洞會) and ChaJiHai(自助會) that purpose was increasing friendship. And Korean marry, organization of independence movement which is result of recognition of domestic situation.

4th chapter is patriotism organization and people in Hawaii. organization is Korean National Association(大韓人國民會 하와이 地方總會), Nationalist Party(同志會), Korean National Brigade(大朝鮮國民軍團), Korean Independence League(大朝鮮獨立團), Sino-Korean People's League(中韓民衆同盟團),

Honolulu of United Korean Committee in America (在美韓族聯合委員會 議事部) and people is Youngman Pak(朴容萬), Syngman Lee(李承晚), Paklin Rho(盧伯麟), Kilsoo K Haan(韓吉壽).

5th chapter is support of Korean in Hawaii for the provisional government . It means that Independence movement in Hawaii was organic linked total Independence movement.

6th chapter is conclusion.